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00.txt

제목: 대기업 총수 ‘건강리스크’ 커져  
날짜: 2014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1210014231247  
본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평소 전담 주치의를 통해 각별하게 건강을 챙겼음에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입원하자 주요 기업들이 총수의 건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총수의 건강 악화는 단순한 경영공백 차원을 넘어 주가 등 기업의 신인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다 경영권 승계를 앞당기는 등 기업 경영에 중대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br/> <br/>12일 재계에 따르면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은 암으로 투병 중이다. 2010년 담낭암 말기 판정을 받아 절제 수술을 받은 조 회장은 최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됐다. 수사 단계에서 20년 넘게 앓아 온 심장 부정맥 증상이 악화돼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오는 14일 한일경제인회의에는 아버지를 대신해 조현준 효성 사장이 참석한다. <br/> <br/>지난해까지는 9∼11대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역임한 조 회장이 참석했다. 조 회장은 1998년부터 협회 부회장을, 2005년에는 회장에 취임해 회의에 참석해왔다. 9년간 한일경제협회 회장으로 일한 조 회장은 세 번째 임기를 끝으로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김윤 삼양그룹 회장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이어 3월에는 조 사장이 부친의 뒤를 이어 협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br/> <br/>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도 2011년 간암 3기 판정을 받고 3년째 병석에 누워 있다. 현재는 간 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둔 상태다. <br/> <br/>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현(54) CJ 회장은 운동 및 감각신경이 손상하면 생기는 희귀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병(CMT)을 앓아왔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뒤 거부반응을 줄이기 위해 계속 면역 억제제를 투약하고 있으며 그 사이 체중도 10㎏ 이상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으로 이 회장이 이달 초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기각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되자 CJ그룹 측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CJ그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 부재와 그룹 총수의 경영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br/> <br/>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도 출소 이후 신병 치료차 미국행을 결심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됐으나 지속적인 치료로 호전된 상태다.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만성 폐질환과 당뇨 등을 앓고 있다. <br/> <br/>김기동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01.txt

제목: “가족중심주의로 인류 평화 이루자”  
날짜: 2014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1210014231143  
본문: 중동 및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 제18차 중동여성평화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가족 내에서 여성의 위치와 책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세계 평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br/> <br/>10일(현지시간) 요르단 수도 암만 랜드마크호텔에서 열린 18차 중동여성평화회의 참석자들이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논의하고 있다. <br/>세계평화여성연합 제공9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요르단 수도 암만 랜드마크호텔에서는 세계평화여성연합(WFWP) 주최로 여성평화회의가 열렸다. 올해는 ‘중동과 세계의 평화와 조화를 위한 여성들의 파트너십’을 주제로 진행됐다. 마지막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여성 평화 지도자들이 교육과 협력, 연대를 통해 폭력과 희생을 종식시키는 데 선두에 서야 한다”며 “인종·지역·문화·민족 간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br/> <br/>회의 기간 내내 참석자들은 여성이 중동·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평화와 존엄 속에서의 자녀 양육’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여권운동가 메르바트 탈라위 이집트 의원은 “<span class='quot0'>여성은 가족을 돌보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span>”며 내전으로 남편을 잃고 가장이 됐으나 평화 구축에 나선 수단과 부룬디 여성들을 예로 들었다. 그는 “<span class='quot0'>그러나 여성이 평화 구축 과정에서 소외돼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1992년 이후 주요 평화협상 24개에서 협상자와 중재자, 서명인 중 여성은 각각 7.6%, 3.2%, 2.5%에 지나지 않는다</span>”고 지적했다. <br/> <br/>11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세 딸을 잃었지만 평화 운동을 펼치고 있는 팔레스타인 의사 이젤딘 아부엘아이시 캐나다 토론토대 의대 부교수도 여성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여성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어머니와 부인, 딸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을 것</span>”이라고 단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평화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중심주의(familiarchy)’가 제안됐다. 가족중심주의는 가족 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체계로, 남성과 여성이 가족 내에서 역할을 동등하게 분담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공유하고 국가에 기여하는 것을 뜻한다. <br/> <br/>중동여성평화회의는 9·11테러를 기점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가 본격화한 중동 평화운동의 하나다. WFWP 지부가 있는 유일한 중동국가인 요르단을 포함해 한국·일본·미국·대만·프랑스 등 26개국에서 1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평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br/> <br/>문난영 WFWP 회장은 폐회사에서 “<span class='quot1'>통일교 외에 기독교·도교·유대교·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를 가진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화를 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span>”고 평가했다. <br/> <br/>암만=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02.txt

제목: “중동평화 위해 여성 NGO 협력 중요”  
날짜: 2014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1210014231144  
본문: “여성 비정부기구(NGO) 간 파트너십을 맺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 여성들과도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br/> <br/>세계평화여성연합(WFWP)이 주최한 18차 중동여성평화회의 공동의장을 맡은 림 나자르(57·사진) 요르단 YWCA 회장은 10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중동 평화를 위해선 여성들이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r/> <br/>요르단에서 4%에 불과한 기독교인인 나자르 회장은 YWCA 외에도 영국 자선단체인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의료 지원(MAP)과 요르단 사회개발부 위원회 등 NGO와 정부기구를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br/> <br/>나자르 회장은 ‘중동 국가에서 여성들 지위가 낮다’는 인식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에 개회사를 한 림 아부 하산 요르단 사회개발장관처럼 입법·행정부에 진출한 여성들이 느는 등 여성 지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1월 국제의회연맹(IPU)에 따르면 중동지역의 여성 의원(양원제일 경우 상원 제외) 비율은 17.8%로, 아시아 지역(18.9%)과 큰 차이가 없다. <br/> <br/>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평화 공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었다. 나자르 회장은 “<span class='quot0'>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이 난민으로 전락해 뿔뿔이 흩어졌다</span>”며 “<span class='quot0'>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을 끝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어 중동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 이후 3년째 정국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리비아·시리아·이집트를 거론하며 “<span class='quot1'>자유와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암만=박진영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03.txt

제목: 고령화와 경영 악재…대기업 총수 건강주의보  
날짜: 2014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12100000238  
본문: 이건희(72) 삼성그룹 회장이 갑작스러운 심장 질환으로 입원하면서 대기업 총수들의 건강 문제가 재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총수의 건강 악화는 중대한 경영 변수로 받아들여져 해당 기업의 주가를 출렁이게 한다. '경영권 승계'라는 예민한 사안과도 맞물려 기업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평소 극진한 건강관리를 받던 이 회장이 이번에 심폐소생술 등을 거쳐 가까스로 '고비'를 넘긴 사례는 다른 유력 기업의 총수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일부 대기업 총수들은 고령으로, 또 다른 일부 총수들은 형사사건 연루 등 각종 경영 악재를 겪으면서 건강이 나빠져 해당 기업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과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은 암으로 투병 중이다. 2010년 담낭암 말기 판정을 받아 절제 수술을 받은 조 회장은 최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됐다. 수사 단계에서 20년 넘게 앓아 온 심장 부정맥 증상이 악화돼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2011년 간암 3기 판정을 받은 이 전 회장은 3년째 병석에 누워 있고, 간 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수감생활을 겪은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도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출소 이후 신병 치료차 미국으로 출국, 한 달여간 머물다가 최근 귀국한 김 회장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수감생활중 만성 폐질환과 당뇨가 악화되고 우울증과 섬망 증세 등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 역시 총수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크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현(54) CJ 회장은 운동 및 감각신경이 손상하면 생기는 희귀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병(CMT)을 앓아 왔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뒤 거부반응을 줄이기 위해 계속 면역 억제제를 투약하고 있으며 그 사이 체중도 10㎏ 이상 빠졌다.게다가 이달 초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기 때문에 이 회장의 질환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지 CJ그룹은 우려하고 있다.정몽구(76)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3월 유럽과 중국 출장을 잇따라 다녀오는 등 대내외 활동을 의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건강이 그만큼 괜찮다는 뜻이다.하지만 정 회장도 2010년께 국내 한 종합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은 뒤 심장에서 점액종이 발견돼 제거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2006년 비자금 사건으로 수감돼 2개월 만에 풀려났을 때도 협심증과 고혈압 진단 등이 나온 바 있다.창업 1세대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신격호(92)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매년 5월 첫째주 일요일에 신 회장의 고향인 울산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에서 열어온 고향잔치도 올해에는 연기됐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추모 분위기도 있지만 신 회장 건강까지 고려한 조치다. 그렇더라도 신 회장은 매일 업무보고를 받을 정도로 정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동찬(92) 코오롱그룹 회장은 고령인 만큼 대외활동이 활발하지 않지만, 지인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등 취미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코오롱그룹 오운문화재단이 개최한 제14회 우정선행상 시상식에도 참석했다.구자경(89) LG그룹 명예회장 역시 공개 석상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나, 8일 천안연암대학 개교 40주년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해 학교를 둘러보기도 했다. 구본무(69) LG그룹 회장은 평소 걷기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04.txt

제목: [건강 단신] 경희대 치과병원 치석제거 전문센터 개설 외  
날짜: 201405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1110014220003  
본문: 경희대 치과병원 치석제거 전문센터 개설 <br/> <br/>경희대 치과병원(원장 박영국)은 스켈링(치석 제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스켈링센터를 개설했다. 스켈링센터는 접수대·외래진료실·구강위생교육실·상담실 등을 갖추고 환자들에게 스켈링과 구강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정종혁 스켈링센터장은 “<span class='quot0'>정기적 스켈링은 잇몸병을 예방하고 치주 건강을 지키는 기본</span>”이라고 말했다. 2013년 7월부터 20세 이상 국민은 연 1회에 한해 스켈링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02)958-9319,9320 <br/> <br/>이화여대 의료원 ‘여성 건강 8대 수칙’ 발표 <br/> <br/>이화여대 의료원(원장 이순남)은 여성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건강 습관을 모은 ‘여성 건강 8대 수칙’을 발표했다. 8대 수칙은 ▲정기검진 받기 ▲컬러푸드 먹기 ▲취미 갖기 ▲정상 체중 유지 ▲봉사하기 ▲하루 7시간 숙면 취하기 ▲스트레스 멀리하기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땀나게 운동하기 등이다. <br/> <br/>각 항목별 세부 수칙은 의료원 홈페이지(www.eumc.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2650-5114 <br/> <br/>분당차병원 전립선·담낭암 동시 로봇수술 <br/> <br/>분당차병원(원장 지훈상)은 전립선암·담낭암을 동시에 앓는 57세 환자에게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해 암 덩어리를 절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 비뇨기과 박동수 교수와 외과 최성훈 교수는 환자 몸에 구멍을 한 개만 뚫고 로봇으로 두 개의 암 덩어리를 모두 잘라낸 뒤 꺼냈다. <br/> <br/>분당차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서로 반대에 위치한 두 종류의 암을 로봇을 활용해 하나의 구멍으로 동시에 수술한 건 국내 최초</span>”라고 말했다. (02)3015-2839∼41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05.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중동 '의료한류' 불 지핀다  
날짜: 20140511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1110014216618  
본문: 서울아산병원과 사우디아라비아 킹사우드 의대 관계자들이 두 기관 간의 유료 연수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성욱 서울아산병원장, 파하드 알자밀 킹사우드 의대 학장, 아메드 알아메리 킹사우드 대학교 부총장.서울아산병원(원장 박성욱)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킹사우드 의대와 유료 연수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br/> <br/>협약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은 첨단 의료기술과 기초 의과학 및 임상연구 등 국내 선진 의료 교육을 킹사우드 의대생들에게 제공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세부 교육 과정은 킹사우드 의대생들의 사전 신청에 의해 조율될 예정이다. 2015년부터 시작하는 이 연수 프로그램은 매년 5∼6월 총 4주일에 걸쳐 킹사우드 의대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서울아산병원 측은 연간 15만6000달러(약 1억6000만원)를 교육비로 지급받는다. <br/> <br/>킹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세워진 중동지역 최고 명문대 중 하나다. 1967년 설립된 의대 역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의과대학으로, 이곳에서 지금까지 배출한 4000여명의 의사가 중동지역은 물론 유럽·아시아 등으로 진출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br/> <br/>킹사우드 의대 파하드 알자밀 학장은 “<span class='quot0'>서울아산병원은 장기이식 수술을 비롯한 암, 심장, 뇌신경 등 중증질환에 대한 세계 최다의 임상 경험과 최고의 의료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span>”는 말로 연수 프로그램 협약 체결 이유를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협력 체결이 중동지역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의료관광 마케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앞으로 연수 프로그램과 함께 의료진 교류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한국 의료 기술의 경쟁력을 알려나갈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06.txt

제목: "키 작을수록 오래 산다"<美연구팀>  
날짜: 201405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10100000078  
본문: 키가 작은 사람일수록 오래 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미국 하와이 대학 의과대학 노인의학전문의 브래들리 윌콕스 박사가 하와이 거주 일본계 주민 8천6명을 대상으로 1965년부터 거의 50년에 걸쳐 진행한 조사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와이 리포터(Hawaii Reporter) 인터넷판이 9일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10알 전했다.이들을 신장 기준으로 157cm 이하와 162cm 이상의 두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157cm 이하 그룹의 수명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윌콕스 박사는 밝혔다.전체적으로 키가 클수록 수명은 짧은 경향을 보였다.유전자 분석에서는 키가 작은 사람이 수명 관련 FOXO-3 유전자의 변이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이 때문에 성장 초기에 체구가 다른 사람보다 작고 수명은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윌콕스 박사는 분석했다.키가 작은 사람들은 또 혈중 인슐린 수치와 암 발생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하와이는 미국에서 주민들의 평균수명이 가장 길고 또 주민들이 오랫동안 거주하기 때문에 이처럼 장기간의 조사가 가능했다고 윌콕스 박사는 설명했다.조사 대상자 중 약 1200명은 90~100세까지 살았고 이 중 250명은 아직 살아있다.이 연구결과는 온라인 과학전문지 '공중과학도서관'(PLoS One) 최신호에 실렸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07.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자궁근종과 부인암' 주제 건강강좌  
날짜: 20140509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0910014208290  
본문: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는 오는 22일 오후 2시 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자궁근종과 부인암의 최신 치료’를 주제로 무료 건강 강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br/> <br/>김대연 교수가 강사로 나서 자궁근종과 부인암의 조기진단법, 최신 치료법 등을 소개한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 10명 중 3명이 앓고 있는 자궁근종은 최신 약물치료 등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 자각증상이 거의 없으면서 악성으로 발전하는 부인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만 하면 최신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 등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br/> <br/>강의 후에는 일반인의 궁금증을 듣는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02)3010-3051∼4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08.txt

제목: [새로 나온 책] 천국을 거닐다 소쇄원 외  
날짜: 201405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0910014213278  
본문: 천국을 거닐다 소쇄원(이기동 지음, 송창근 사진, 사람의무늬, 1만4000원)=소쇄원은 유학자 김인후가 유교적 이상국가 건설의 염원이 좌절된 뒤 낙향해 담양에 일구어 놓은 작은 천국이다. 저자는 이 자그마한 동산에서 조광조로부터 시작해 김인후, 정철로 이어지는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을 되짚는다. 저자의 담박한 글이 소쇄원 곳곳과 가사문학관, 식영정, 면앙정, 송강정 등의 사계를 담은 사진과 어우러진다. <br/> <br/>선비가 사랑한 나무(강판권 지음, 한겨레출판, 1만4000원)=나무로 역사와 문화를 읽고, 나아가 인간의 삶을 성찰하는 책이다. 저자는 나무 공부법을 통해 조선 선비들의 삶을 되짚어본다. 변치 않는 신념을 보여줬던 송시열은 붉은 주목으로 형상화된다. 독창적인 문체 때문에 억울하게 벌을 받은 이옥은 자귀나무를 유독 사랑했다. 정약용은 차나무 잎으로 만든 차 한잔으로 귀양살이의 설움을 달랬다. 나무를 매개로 선비들의 굴곡진 삶이 묘사되고, 그들의 마음과 철학을 읽어낸다. <br/> <br/>도시를 그리는 건축가(김석철·오효림 대담, 창비, 2만3000원)=세계적인 건축가, 도시설계가인 김석철의 인생 전반을 담은 대담집이다. 김석철은 최고의 건축가로 꼽히는 김중업, 김수근 모두에게서 수학한 유일한 이로도 유명하다. 언론인 출신의 변호사인 오효림이 대담을 진행했다. 김석철은 대담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의 건축수업, 중년의 도시설계 경험 등을 열정적으로 들려준다. 대담은 201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30여회 진행됐다. <br/> <br/>지독하게 리얼하게 10.5(찰스 윌런 지음, 이주혜 옮김, 김영사, 9800원)=저자가 모교 후배들을 위해 준비한 졸업연설문에서 시작된 책이다. 촌철살인의 유머와 독설로 후배들의 미래에 핑크빛 희망보다 차갑고 사나운 현실이 기다린다고 쏘아붙인다. “착각하지 마라. 네 인생의 최악의 날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누구도 미래의 모습을 알 수 없다” 등의 조언이 그렇다. 하지만 이런 독설에는 후배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가득하다. <br/> <br/>못된 건축(이경훈 지음, 푸른숲, 1만5000원)=도시의 건축을 바라보는 기준과 독해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건축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건축가인 저자가 들려주는 가이드북인 셈이다. 건축과 도시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에두르지 않는다. 서울을 살리는 건물로 최근 논란이 됐던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동십자각 앞의 트윈트리타워를 꼽는다. <br/> <br/>죽음의 식탁(마리 모니크 로뱅 지음, 권지현 옮김, 판미동, 2만8000원)=농약에서부터 식품 첨가제, 플라스틱 용기까지 일상에 만연한 독성화학물질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지를 추적했다. 저자는 지난 수십년간 암, 백혈병, 알츠하이머병 등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 10개국에서 50명의 과학자, 활동가, 규제기관 대표들을 인터뷰했다. 우리 일상을 점령한 수만 개의 화학물질이 질병의 원인임을 밝히고, 대기업과 과학자, 규제기관의 기만과 속임수를 파헤친다. <br/> <br/>히틀러에 붙이는 주석(제바스티안 하프너 지음, 안인희 옮김, 돌베개, 1만3000원)=히틀러를 다룬 기존의 책에 그저 소박하게 주석 몇 가지를 덧붙인다는 의미의 제목을 달아 겸손을 보였지만, ‘히틀러 현상’의 전체 의미를 놀랍도록 간결하게 요약한다. 생애, 성과, 성공, 오류, 범죄 등을 주제로 7개의 장을 나눠 히틀러와 히틀러 현상을 낱낱이 짚어간다. 결핍이 히틀러의 생애를 관통한 키워드이며 경제기적과 재무장이 히틀러 현상의 토대라고 밝혔다. 유대인들이 1000년이 넘도록 염원했던 조국을 건설하고, 러시아와 폴란드 등이 시련을 딛고 나름의 발전을 이뤘다는 점 등을 히틀러의 범죄가 낳은 의외의 결과로 꼽는다. <br/> <br/>종자, 세계를 지배하다(KBS스페셜 제작팀, 시대의창, 1만6800원)=수만년 동안 농민의 것이던 종자가 최근 100년 동안 초국적 기업에 사유화되는 과정과 그에 따른 문제를 짚었던 다큐멘터리 ‘종자, 세계를 지배하다’를 토대로 한 책이다. 방송에 나가지 못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문헌자료, 사진 등을 재구성해 책을 꾸몄다. 방송보다 깊은 설명과 최근의 정보가 제공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09.txt

제목: 이화의료원, '여성 암 정복' 연구비 60억원 확보  
날짜: 20140508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0810014196074  
본문: 이화여대의료원 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센터장 김승철·사진)는 2014년 보건복지부 질환 극복 기술개발 연구과제 중 ‘병원 특성화 연구센터 지원 사업’ 단계 평가를 우수한 실적으로 통과해 오는 2016년까지 3년 동안 총 60억원을 지원받는다고 8일 밝혔다. <br/> <br/>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는 2012년부터 여성 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관한 연구를 본격화했다. 그 결과 총 22편의 국제학술지 논문 발표, 8건의 특허 등록, 20건의 국내외 특허 출원 등 눈부신 성과를 냈다. <br/> <br/>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는 앞으로 난치성 여성 암 정복을 위한 특성화 연구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혁신적 연구 결과를 지속적 창출은 물론 원천 기술 상용화를 통한 센터 수익 모델 개발까지 이룬다는 복안이다.기대하고 있다. 김승철 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장은 “<span class='quot0'>난치성 여성 암도 조기에 발견하고 신개념 치료법을 적용한다면 정복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암으로 고통받는 여성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10.txt

제목: 부천 스마튼병원,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 개최  
날짜: 20140508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08100000336  
본문: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한 의료지원 활동과 건강검진센터 운영“환자를 부모님처럼, 어르신 건강하세요!”부천 스마튼병원(병원장 정세영)은 8일 병동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한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주며 기쁨을 선물했다.이날 장세영 병원장을 비롯해 척추센터 정재윤 원장, 관절센터 황은천 원장 등 의료진들이 입원 어르신들에게 손수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위로했다. 그 외에도 병동 간호사, 행정직 등 스마튼병원 임직원 일동은 이번 카네이션 달기를 통해 어버이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장세영 병원장은 “<span class='quot0'>달아드린 카네이션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빠른 쾌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언제나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진료하겠다</span>”고 말했다.한편 스마튼병원은 척추, 관절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부천에 위치한 병원으로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한 의료사업과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부천지역 의료지원 활동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병원으로 일반검진, 직장검진, 암 검진, 생애전환기 검진이 모두 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11.txt

제목: [류현민의힐링스토리] 건강한 사회를 위한 면역력 회복의 길  
날짜: 201405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0810014203689  
본문: 작금의 우리 사회는 지독한 독감에 걸린 듯하다. 거듭되는 안전사고로 국가 전체가 몸살이다. 질병은 외부 병균의 침입과 내부 면역력 약화의 결과다. 보통 우리는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질병 자체에 집중하곤 한다. 질병의 원인보다 발병된 신체부위만 개선하면 된다고 여긴다. 그러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 미봉책은 재발한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든 발병은 시간문제다. <br/> <br/>보완대체의학이나 전통의학에서는 질병이 신체적으로 드러나기 전부터 질병 유발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외부의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짜증이나 무기력 등의 부정적 정서도 일종의 발병 요인이다. 문제의 시발점과 드러난 계기는 단편적으로 보이나 다양한 각도에서 원인은 보다 복합적이다. 이를테면 하인리히 법칙과도 같다. 하인리히는 1개의 큰 사고 뒤에는 29개의 작은 사고가 있고, 이면에 300개의 사고가 잠재해 있다는 1대 29대 300의 법칙을 말했다. 예를 들어 300개의 발병요소를 통제하면 커다란 질병인 암(癌)도 예방 가능하다는 맥락이다. <br/> <br/>중국의 전설적 명의 화타는 자신보다 더 훌륭한 의사로 두 명의 형을 꼽았다는 일화가 있다. 화타의 큰형은 병이 생기기 이전부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유도했고, 작은 형은 병의 조짐이 보이면 미리 알고 조절해 큰 병으로 발전되지 않게 했다고 한다. 큰 병이 걸린 이후 이를 치료한 화타보다 병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법을 처방한 형들이 명의라는 이야기다. 음식 조절, 적절한 운동, 휴식, 수면, 긍정적 사고, 명상 등은 일상에서 추천되는 면역력 증진 방법들이자 질병 예방법이다. 사회제도 개선이나 생태적 환경조절은 정부의 몫이 크다.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을 때 개인과 사회의 건강이 조화롭게 유지된다.  <br/> <br/> 류현민 한국전인치유연구소장·뷰티건강관리학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사회 구조적인 병폐들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잠재된 원인은 개인의 안위와 이익이 최우선 가치가 돼버린 ‘가치의 황폐화’다. 이를 추구했던 이들은 다름아닌 우리 자신들이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씁쓸한 현실을 자각(自覺) 중이다. 일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문제라는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br/> <br/>사건에 대한 냉정한 비판만큼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자각하느냐의 여부다. 인류의 진보는 자각을 통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역사의 주역들은 반성에서 얻어진 교훈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 성장했다. 반성 없는 발전은 없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상당한 진통을 겪는 중이다. 몸살은 몸이 살아나는 과정이라 했던가. 선진 사회일수록 공공의 원칙과 국민의 신뢰가 선순환된다. 원칙이라는 백신은 신뢰라는 항체를 만들어 사회의 면역력을 강화한다. 이참에 사회시스템 전반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다. 더불어 본인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기회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시인 윤동주처럼 양심의 기준을 복귀(復歸)하는 길을 다 같이 밟아나갈 때이다. <br/> <br/>류현민 한국전인치유연구소장·뷰티건강관리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12.txt

제목: 다시마·멸치·버섯…엄마표 손맛의 숨은 비법  
날짜: 201405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0810014203415  
본문: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MSG(L-글루타민산나트륨)를 옹호하고 나서면서 비난이 일었다. <br/>정부기관이 음식에 꼭 넣지 않아도 되는 화학 조미료를 적극 홍보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식품업계와 일부 과학자는 그간 MSG의 무해성을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대중의 거부감은 상당한 수준이다. 문제는 실생활에서 MSG 없는 밥상을 접하기 힘들다는 점. MSG 사용만 심각한 게 아니다. 이노신산나트륨, 구아닐산나트륨 등도 대표적으로 혀를 유혹하는 화학 조미료다. 정제된 설탕과 소금의 자극적인 맛도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br/>화학 조미료나 자극적인 단맛에 익숙해진 미각을 하루아침에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건강한 밥상을 원한다면 가정에서라도 화학 조미료를 끊는 게 낫다. 대신 천연 양념을 쓰면 서서히 재료 본연의 맛을 즐기는 단계로 옮겨갈 수 있다. 화학 조미료 없이는 맛을 내기 힘들다는 생각이 여전히 많지만, 조개류, 다시마, 버섯, 양파, 양배추, 각종 곡물·견과류 가루를 적극 활용하면 깊은 맛을 낼 수 있다. 가정에서 활용하기 좋은 천연양념들을 알아봤다. <br/> <br/>전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화학 조미료의 대안으로 맛간장을 추천한다. 맛간장은 갈아놓은 쇠고기에 간장·물, 설탕이나 꿀, 마른고추, 청주, 마늘, 후춧가루, 생강을 넣고 끓여서 만든다. 마지막에 깻잎을 넣고 식힌 후 체에 걸러 열소독한 병에 넣어 보관한다. 이렇게 만든 맛간장은 고기의 단백질이 녹아 있어 구수하고 감칠맛이 난다. 또 채소가 섞이면서 염분은 줄어들고 시원한 맛, 단맛 등 다양한 맛이 생긴다. 센터 측은 “맛간장으로 나물을 무치면 인공 조미료를 넣을 때보다 맛있고 국에 넣으면 훨씬 자연스러운 맛이 난다”고 설명했다. <br/> <br/>각종 육수는 가정에서 화학 조미료 대신 많이 이용하는 천연 양념이다. 한번 만들어 냉동·냉장해두면 국물요리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육수를 만들 때는 재료를 큼직하게 썰어서 재료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한다. 끓는 중 생기는 거품은 걷어낸다. 시원한 감칠맛을 원할 때는 다시마와 무를 우린 다시마 육수를 쓰면 된다. 멸치와 다시마를 끓여서 식힌 멸치 육수는 칼칼하고 개운하다. 마른 표고버섯과 다시마로 육수를 만들면 구수하고 깔끔하다. <br/> <br/>가루 양념도 나물 무침이나 찌개, 각종 반찬에 사용하면 좋다. 멸치·다시마·표고 버섯은 물론 잣·호두·땅콩도 갈아놓고 음식에 뿌리면 고소함을 즐길 수 있다. 멸치 가루 등은 미리 만들어 냉동해두면 편리하다. 견과류는 산패하기 쉬우므로 적당량만 만든다. <br/> <br/>짠맛을 낼 때는 정제소금보다 천일염, 이보다는 천일염이 들어간 고추장, 된장, 간장을 이용하면 좋다. 그만큼 염도를 낮출 수 있다. 시판 고추장·된장 등을 살 때는 화학 조미료와 당류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꼼꼼히 봐야 한다. <br/> <br/>나트륨 섭취를 줄이려면 음식에 미나리, 방아잎, 깻잎 같은 향신채소를 활용하는 것도 해결책이다. 향신채소를 넣으면 자극적인 맛 때문에 덜 싱겁게 느껴진다. <br/> <br/>과한 나트륨과 함께 설탕도 골칫거리다. 영국 영양학자 존 유드킨은 1972년 책 ‘설탕의 독’을 통해 “설탕을 먹지 않으면 비만이나 영양 부족, 심장 발작, 당뇨병, 치아 우식, 십이지장궤양에 걸릴 가능성이 줄고 어쩌면 통풍, 피부염, 일부 암에 걸릴 가능성도 낮아진다”고 심각하게 경고했다. 문제는 과자, 음료는 물론 반찬류까지 단맛 일색이라는 점이다. <br/> <br/>설탕 대신으로 보통 올리고당, 조청 등을 이용한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한 이당류로 체내에서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높다. 올리고당이나 5탄당인 자일러스 설탕을 쓰면 열량을 줄일 수 있다. <br/> <br/>송은아 기자 sea@segye.com <br/> <br/>■두부 피자 <br/> <br/>일반 피자보다 당, 나트륨, 지방 함량이 적다. 두부와 가정에서 직접 만든 토마토 케첩으로 조리한다. 토마토 케첩은 방울토마토 150g을 칼집을 내서 데친 다음 믹서에 간 뒤 냄비에 토마토와 꿀 10g, 소금 0.5g, 전분 0.5g을 넣어 끓이다가 3분의 1쯤 졸여지면 레몬즙 5g을 넣어 완성한다. 인공 첨가물이 없어 몸에 좋다. <br/> <br/>〈재료〉 두부 40g, 배추김치 10g, 양파 10g, 마늘 3g, 방울토마토 3g, 느타리버섯 10g, 토마토케첩 30g, 칠리소스 10g, 소금 0.5g, 후춧가루 0.05g, 모짜렐라 치즈 5g <br/> <br/>〈만드는 법〉 ①두부는 물기를 제거하고 2등분 한 다음 1㎝ 두께로 썰어 팬에 앞뒤로 노릇하게 지진다. <br/> <br/>②배추김치, 양파, 마늘은 큼직하게 다지고 방울토마토는 4등분, 느타리버섯은 2㎝ 길이로 자른다. <br/> <br/>③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마늘, 양파, 배추김치 순으로 볶다가 케첩과 칠리소스를 넣어 볶은 뒤 약간의 물을 넣고 불을 약하게 줄여 되직하게 졸인 다음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한다. <br/> <br/>④두부 위에 졸인 소스, 느타리버섯, 방울토마토를 올리고 모짜렐라 치즈를 뿌려 팬 뚜껑을 닫고 치즈가 녹을 때까지 뜸을 들인다. <br/> <br/>■두부마요네즈샐러드 <br/> <br/>두부마요네즈는 시판 마요네즈와 맛은 비슷하지만 화학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다. 두부 40g을 데친 후 믹서에 두부, 두유 50g, 올리고당 5g, 볶은 참깨 20g, 레몬즙 2.5g을 넣고 간 뒤 소금으로 간한다. <br/> <br/>〈재료〉양상추 35g, 두부마요네즈 30g, 방울토마토 20g, 파인애플 20g, 파프리카 15g <br/> <br/>〈만드는 법〉 ①양상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손으로 뜯어내고 물기를 뺀다. <br/> <br/>②방울토마토는 반으로, 파인애플과 파프리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br/> <br/>③볼에 위 재료들을 넣고 두부마요네즈를 넣어 버무린다. <br/> <br/>도음말:전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13.txt

제목: '4대 중증질환 온라인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날짜: 201405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08100000450  
본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국민소통시스템'을 오는 9일 개통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국민소통시스템은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 선별급여제 및 위험분담제, 관련 법령 등 종합적인 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한다.또 올해 보험급여로 전환되거나 급여범위가 확대될 예정인 95개 세부 항목에 대한 진행상황 등도 확인할 수 있고, 항목별로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게시판도 마련된다.국민소통시스템은 복지부 홈페이지의 배너 또는 '심평원 홈페이지→정부3.0정보 공개→4대 중증질환보장성강화'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14.txt

제목: 서울대병원, '여성의 암' 주제 건강강좌 열어  
날짜: 20140507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0710014184900  
본문: 서울대암병원 암건강증진센터(센터장 조비룡)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어린이병원 임상 제2강의실에서 ‘암을 이겨낸 여성, 나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이란 주제로 건강 강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br/> <br/>암건강증진센터 안아름 교수가 암 치료 후 나타난 몸의 변화를 강의한다. 주요 암 치료의 부작용과 신체 이미지 등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다. 암 치료 후의 성(性)과 사랑, 마음 다스리기 등에 관해서도 설명한다. <br/> <br/>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사전 등록 없이 참석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02)2072-0077,0088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15.txt

제목: 서울백병원, '암 예방 비타민' 주제 건강강좌 열어  
날짜: 20140507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0710014186285  
본문: 인제대 서울백병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충무아트홀 1층 컨벤션센터에서 ‘암 예방 비타민, 있다! 없다?’라는 주제로 건강 강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br/> <br/>이번 강좌는 서울백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정아(사진) 교수가 비타민의 종류에 따른 효능과 기능에 대해 설명한다. 또 나이와 연령, 질병에 따라 비타민을 올바르게 먹는 법과 암을 예방하는 비타민과 암에 독이 되는 비타민에 대해 강의한다. <br/> <br/>참가비는 무료이며 강의에 앞서 혈당, 혈압 등 건강 상담도 이뤄진다. (02)2270-0534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16.txt

제목: 중대병원, '과잉진단 논란' 갑상선암 건강강좌 열어  
날짜: 20140507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0710014186291  
본문: 중앙대병원(원장 김성덕)은 14일 오후 2시 병원 중앙관 4층 동교홀에서 ‘착한 암? 갑상선의 오해와 진실’이란 주제로 건강 강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br/> <br/>이번 강좌는 최근 언론에서 많은 집중을 받은 갑상선 질환과 관련해 이 분야 최고 명의 중 한 명인 중앙대병원 갑상선센터장 조보연 교수가 직접 강단에 나선다. 조 교수는 ‘갑상선 질환의 이해’라는 내용으로 갑상선 기능의 문제인 저하증과 항진증부터 결절로 이어지는 갑상선암 등에 대해 강의한다. 질환별 치료법은 물론 갑상선에 대해 환자들이 흔히 알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도 올바르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br/> <br/>이어 외과 강경호 교수가 ‘갑상선암의 수술적 치료’란 주제로 강의한다. 풍부한 수술 경험과 치료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동안 환자들을 치료했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수술적 치료와 수술 후 관리법 등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한다. <br/> <br/>이번 강좌는 별도의 사전 접수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02)6299-2219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17.txt

제목: 부모님께·은사님께… 따뜻한 ‘보험 선물’ 하세요  
날짜: 201405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0610014180674  
본문: 5월 가정의 달에는 선물을 할 기회가 많다.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까지, 직장인들은 평소 표현하지 못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도 ‘지갑 사정’에 맞는 선물 선택을 놓고 고민이 많다. 옷, 신발, 건강식품까지 지금까지 했던 선물 외에 독특한 선물을 생각한다면 보험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간병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등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늘어난 부모님과 은사님께 드릴 수 있는 ‘보험 선물’의 종류는 다양하다. 게다가 최근 보험사에서 출시되는 실버 보험은 가입연령과 보장연령이 늘어났다. <br/> <br/>◆‘긴 병에 효자 없다’ … 간병보험 관심 <br/> <br/>장기 간병에 대한 부담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간병보험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늘어났다. 특히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버릇처럼 하는 부모님이라면 간병보험은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br/> <br/>LIG 손해보험의 ‘LIG 110 LTC간병보험’은 최장 110세까지 간병비와 간병연금을 보장한다. 가입자는 형편에 맞춰 보험기간을 80세, 100세, 110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별개로 가입 금액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1급 판정 시 최대 1억4400만원의 간병비를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br/> <br/>간병연금 특약에 가입하면 5년간 60회에 걸쳐 매월 최대 200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나눠 받을 수 있다.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20년간 약 10만원 보험료를 납입하면 110세까지 최대 6000만원 간병비와 30만원의 간병연금을 5년간 매월 보장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 ‘가족사랑간병보험’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최대 1억5000만원의 간병비를 일시 지급한다. 이후 5년간 60회에 걸쳐 최대 50만원의 간병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br/> <br/>필요에 따라 실손의료비와 입원 일당, 성인병 진단비와 사망 보험금 등 장기간병 외의 다른 항목들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된다. <br/> <br/>라이나생명의 ‘The 든든한 시니어간병보험’은 10년 단위로 갱신되며 최대 9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의 주요 원인이 치매와 뇌졸중 환자라는 점에 주목해 추가 보장을 위해 치매 특약과 중대한 뇌졸중진단 특약을 함께 출시했다. 두 가지 특약에 모두 가입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br/> <br/>◆암보험과 건강보험은 ‘필수’ <br/> <br/>암보험과 건강보험은 이제 필수다. 부모님이 가입한 암·건강보험이 없다면, 혹은 보장 기간이 짧은 보험을 갖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사각지대’까지 커버한 보험으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br/> <br/>삼성화재의 건강보험 ‘행복한 노후’는 75세까지 가입, 100세까지 보장한다. 상해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하며 중대질병과 골절비까지 두루 보장하는 만큼 기존에 다른 보험에 들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적합하다. 메리츠화재의 ‘The 넓은 건강보험 1402’는 유병자들을 위한 보험이다. 이 상품은 고혈압이나 당뇨 유병자에 대해서도 실손의료비를 포함한 질병 담보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br/> <br/>현대해상의 ‘간편가입건강보험’은 최근 5년간 암진단을 받거나 입원·수술 경험만 없다면 손쉽게 가입할 수 있어 선물로 적격이다. 입원일당·수술 보장은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건강 보장 외에 교통사고에 대비한 벌금 비용 담보 가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br/> <br/>한화생명의 ‘The 따뜻한 실버암보험’과 신한생명의 ‘든든한노후 암보험’은 모두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100세까지 보장된다. The 따뜻한 실버암보험은 일반암 2500만원, 소액암은 250만원의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든든한노후 암보험은 최고 2000만원, 유방암은 800만원을 지급한다. <br/> <br/> LIG 손해보험의 ‘LIG 110 LTC간병보험’은 110세까지 보장하는 간병비와 간병연금을 지원하며, 메리츠화재의 ‘The 넓은 건강보험 1402’는 고혈압, 당뇨 등 유병자들도 가입할 수 있다. <br/>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제공◆조부모가 손주에게 전하는 사랑 <br/> <br/>조부모가 손주들에게 사랑과 추억을 전해주는 ‘따뜻한 보험’도 있다. <br/> <br/>교보생명의 ‘교보손주사랑보험’은 10년 납입 기준으로 매월 4만∼5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조부모가 사망한 이후 손자·손녀가 매년 생일에 총 1000만원의 생일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축하금과 함께 조부모가 생전에 미리 작성한 자필카드를 발송하는 ‘가족사랑메신저’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조부모는 생전에 손주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손주들은 생일에 배달되는 편지와 ‘선물’을 받을 때마다 조부모를 추억하는 시간이 생기는 셈이다. <br/> <br/>NH농협생명의 ‘내리사랑NH종신보험’도 조부모가 손주들을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이다. 계약자가 생일이나 졸업 등 선택한 날짜에 손자·손녀에게 10년 동안 100만원, 혹은 20년 동안 50만원씩 용돈을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br/> <br/>정진수 기자 je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18.txt

제목: 생존의 한계 맞서 기적 일구는 코리안 닥터스  
날짜: 201405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0610014180861  
본문: 생존의 한계에 도전하며 생과 사의 순간을 다루는 의사들. 이들은 치유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병과 맞서 싸우며 새로운 한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더 많은 생명에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오늘도 한계에 도전한다. KBS1 ‘생로병사의 비밀’은 7일 오후 10시 ‘500회 특별기획 3부작 코리안 닥터스 3부, 생존의 한계에 도전한다’를 방송한다. <br/> <br/>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하는 의사들. 이들의 도전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 많은 환자들과 환자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위암수술의 대가 노성훈(왼쪽) 연세대 교수가 진료를 하고 있다.프로그램은 초극소미숙아 소생의 기적을 이룬 박원순(삼성서울병원) 교수를 찾는다. 박 교수가 이끄는 신생아 중환자실은 출생체중 1kg 미만의 초미숙아 1000여 명이 거쳐갔다. 생존의 한계를 극복해 수많은 기적을 만들기까지는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박 교수의 노력이 있었다. 박 교수는 국내 최초로 일산화질소 치료를 통해 폐동맥 고혈압으로 사망하는 미숙아의 생존율을 높였고 손상된 폐를 살리기 위해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원료로 치료제를 만들었다. 또한, 항생제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태어난 첫날 영양 공급을 시작하는 등 신생아 치료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덕분에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신생아 생존 한계 23주를 극복하고 국내 최초로 21주 만에 태어난 미숙아가 현재 1년 넘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초미숙아 생존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고자 하는 박 교수의 치열한 노력의 시간을 들여다본다. <br/> <br/>위암수술의 대가 노성훈 연세대 교수도 찾아 본다. 노 교수는 세계 최초로 전기 소작기를 위암 수술에 도입, 절개와 지혈을 동시에 해 수술 시간을 단축시켰다. 또한, 콧줄과 심지를 과감히 빼고 수술을 하며 암을 만지지 않고 수술을 하는 등 환자를 생각한 끊임없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노성훈 교수는 5년 생존율 77.9%라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교과서에 적힌 수술법에서 탈피해 환자를 위해 30여 년간 쉼없이 달려온 노 교수의 모습을 만나본다. <br/> <br/>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19.txt

제목: “말 안듣는다” 여고생 살해 암매장  
날짜: 201405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0310014169926  
본문: 10대 소녀 4명과 20대 남자 3명이 여고생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br/> <br/>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일 양모(15)양 등 여중생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폭행치사 또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br/> <br/>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모(25)씨 등 20대 남성 3명과 중학교 중퇴생인 친구(15)와 함께 지난 4월 10일 0시30분쯤 대구 시내 한 모텔 근처의 차량에서 여고 1학년인 윤모(15) 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윤양을 수십여 ㎞ 떨어진 경남 창녕군 대지면 용소리의 야산에 몰래 묻었다. <br/> <br/>경찰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가출한 윤양이 가해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말을 잘 듣지 않고 집에 가고 싶어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 <br/> <br/>경찰은 집에서 나간 딸이 연락이 되질 않는다는 윤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쯤 암매장된 윤양의 시신을 발굴했다. <br/> <br/>긴급체포된 여중생 3명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씨 등 4명은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나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들은 조건만남을 빙자해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하다가 반항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강도 살인)로 지난 4월 대전 둔산경찰서에 의해 구속됐다. <br/> <br/>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20.txt

제목: 경희의료원, 소아 환자 위한 마술쇼 공연  
날짜: 20140502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0210014167785  
본문: 경희의료원은 최근 17층 병원학교에서 ‘이은결 프로젝트’와 함께 환우를 위한 마술 재능기부 행사(사진)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br/> <br/>경희의료원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병원에 입원한 소아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특히 암 환자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공연을 관람한 이승민(8)군은 “마술 공연을 직접 보니 신기하고 재미있다”며 “눈앞에 있던 공이 없어졌을 때가 가장 신기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br/> <br/>경희의료원 암병원설립추진본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마술 재능기부 공연은 물론 암 환자와 함께 걷는 경희캠퍼스 힐링투어길, 암 환자를 위한 뷰티클래스 지원 등 총 15종의 암 환자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span>”고 전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21.txt

제목: ‘구도의 길’ 걸어가는 두 스님 갈등과 고뇌  
날짜: 2014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0110014155097  
본문: 떠나간 연인을 잊지 못해 출가한 지 6년이 넘도록 번뇌를 주체하지 못하는 승려 법운. 우연히 버스에서 만난 지산 스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지만 항상 술에 찌들어 사는 그의 모습에 실망을 느껴 결국 지산 곁을 떠난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어느 절에서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되는데, 달관한 부처처럼 자유분방한 지산의 모습에 법운은 차츰 매력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법운은 지산의 죽음을 계기로 지산이 파격적인 기행을 통해 얻으려 했던 구도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br/> <br/>‘만다라’는 두 스님의 깨달음의 과정을 로드무비 형식으로 펼쳐낸 한국 종교영화의 걸작이다.EBS는 석가탄신일을 맞아 7일 0시10분 임권택 감독의 1981년작 영화 ‘만다라’를 방송한다. 소설가 김성동의 동명 원작을 영화화한 불교영화의 걸작으로 1981년 베를린 영화제에 출품돼 호평과 함께 임권택 감독의 존재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기도 하다. 임 감독의 영화미학의 진수로 평가받는 휴머니즘 색채가 짙은 영화로 삶과 인생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구도의 길을 가고 있는 두 주인공의 모습이 우리 산하의 사계절을 배경으로 때로는 아름답게 때로는 처연하게 묘사된다. <br/> <br/>임권택 감독의 ‘영원한 단짝’인 정일성 촬영감독이 카메라에 담은 수려한 풍광도 놓칠 수 없는 부분. 당시 임 감독은 정 촬영감독이 암에 걸려 수술을 받자 그의 몸이 낫기를 기다려 촬영을 시작했다. 그렇게 완성된 ‘만다라’의 영상미는 오늘날 기준으로 보아도 탄탄한 완성도를 자랑한다. 특히, 지산과 법운이 함께 걷는 설원을 롱쇼트로 잡아낸 장면은 공간의 여백을 활용한 영화의 명장면으로 꼽힌다. <br/> <br/>두 주인공 승려로 분한 안성기, 전무송의 뛰어난 연기도 볼거리. 특히, ‘만다라’는 배우 안성기와 임권택 감독이 함께한 첫 작품으로 유명하다. 1957년 여섯 살의 나이로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에 아역으로 출연하며 연기를 시작한 안성기는 ‘만다라’를 통해 성인배우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 당시 법운 역을 맡은 안성기가 대종상 남우주연상, 지산 역을 맡은 전무송이 백상예술대상 남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br/> <br/>서필웅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22.txt

제목: 장난감·유아용품 12종 유해성분 다량 검출  
날짜: 2014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0110014155267  
본문: 어린이날이 포함된 5월에는 해마다 장난감 판매가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일부 장난감과 유아용품, 어린이용 장신구는 여전히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넘어 구입에 주의가 요구된다. <br/> <br/>국가기술표준원은 1일 환경 호르몬인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과다 함유한 12개 제품에 대해 회수(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br/> <br/>이 가소제에 다량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등 인체 손상은 물론 암이나 생식기형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금속은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br/> <br/>리콜 대상 제품은 장난감 3개, 합성수지로 만든 유아용품 5개, 어린이용 장신구 4개이다. 귀고리에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524배 넘게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23.txt

제목: 유방암, 치료 후가 걱정되는 이유  
날짜: 201404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30100000442  
본문: 유방암은 완치율이 90%에 이르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이다. 하지만 재발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치료 후 관리가 중요하다.한국유방암학회의 지난 2013 자료에 따르면, 유방암 재발률은 20~30%이다. 재발 환자의 약 70%가 수술 후 3년 내 재발하며, 92%는 수술 후 5년 내 재발한다. 수술 후 2~3년 동안 재발 위험이 가장 높고, 재발을 경험한 환자의 50%는 또 전이, 재발하는 악순환을 겪게 되기도 한다.유방암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는 암 발병을 유도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처음엔 정신적으로만 앓고 있던 스트레스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육체적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지나친 심리적 스트레스는 수면장애· 식욕부진· 피로감 등 여러 증상을 동반하며 면역력을 억제하고 호르몬 균형 상태도 깨트려 암세포와 같은 돌연변이 세포 증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몸 안의 면역력만 회복하면 충분히 암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이처럼 면역을 바탕으로 암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소람한방병원은 유방암 환자의 치료· 전이·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 전후 관리· 항암부작용 완화는 물론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위한 웃음치료· 요가치유 등을 시행하고 있다.소람한방병원 김성수 대표원장은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에 저항하는 힘을 기르고, 이 힘을 극대화하여 자연치유력을 높이면서 암세포를 물리치는 것이 한방에서 말하는 면역 암 치료법이다. 면역요법을 통해 암을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선 질병 관리는 물론 환자의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 심리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24.txt

제목: 단국대병원 중부권 최고 암센터 만든다  
날짜: 20140430  
기자: 김정모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3010014149945  
본문: 지난 29일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5층 대강당에서 열린 개원 20주년 기념식에서 박우성 병원장이 교직원들에게 중부권 최고의 암 센터 건립 등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단국대병원이 중부권 최고의 암 센터를 건립하는 등 암 극복을 병원의 새로운 미래비전으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br/> <br/> 단국대병원(병원장 박우성)은 개원 20주년을 맞아 장충식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장, 장호성 단국대학교 총장, 박우성 병원장 등 내외귀빈과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br/> <br/> 이날 기념식에서 박우성 병원장은 교직원들에게 지난 20년간 병원의 변화와 발전상을 소개하고 오는 2015년 말까지 중부권 최고의 암센터를 건립하고 암의 진료와 관리, 연구의 거점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br/> <br/> 기념식에서는 병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외래· 응급· 입원 환자경험혁신팀 및 협력병원의뢰경험혁신팀’ 등 4개 팀에 모범표창이 수여됐다. <br/> <br/> 장호성 단국대학교 총장은 “<span class='quot0'>병원이 그동안 많은 센터 설립과 JCI인증 등으로 병원의 위상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에게도 긍지를 심어줬다</span>”며 “<span class='quot0'>연구하는 병원, 세계 속의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밝혔다. <br/> <br/> 단국대 병원은 개원 20주년을 마자 수고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대대적인 행사를 계획했으나 여객선 세월호 침몰에 의한 많은 학생들의 희생을 애도하는 뜻에서 행사를 축소해 경건하게 행사를 진행했다. <br/> <br/> 단국대병원은 5월부터 올해 말까지 개원 20주년을 맞아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강좌와 지역의 불우이웃을 위한 무료검진, 교직원 체육대회 및 학술대회 등을 차례로 개최할 예정이다.  <br/> <br/>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25.txt

제목: 보험사 "사고 많은 5월~8월, 어린이보험 가입 먼저"  
날짜: 20140430  
기자: 세계파이낸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30100000329  
본문: 5월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어린이보험 가입을 고려 중이다. 5월~8월 사이 아이들의 활동량이 많아 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실제 도로교통공단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사고 월별 통계(2010~2012년)를 보면 5월에 가장 많은 사고(11.2%)가 나타났다.'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한 보험은 어떨까.'5월~8월 사이에는 아이들의 활동량이 많아 사고가 쉽다. 부모의 고민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실제 도로교통공단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사고 월별 통계(2010~2012년)를 보면 5월에 가장 많은 사고(11.2%)가 나타났다. 30일 하나생명에서는 어린이보험 가입을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해, 어린이보험 가입 시 고려해야 할 점 5가지를 소개했다.◆ '입원 안 해도 보험금 나오나’ 보장내역 확인어린이보험 가입의 목적은 자녀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갑작스러운 병원비에 대한 보장이 주 목적이다. 보장 내용에 필요한 것들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골절, 깁스, 화상 등 아이들이 자주 받는 치료에 대한 치료비와 수술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입원비뿐 아니라 통원 치료를 받을 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천식, 탈장, 인플루엔자, 장 감염 등 생활질환과 암이나 심장병, 결핵 등 중대한 질병은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기기 관련 질환, 청소년 폭력 피해, 유괴·납치 및 강력범죄 피해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으니 필요한 보장을 확인하자.◆ 생보 상품·손보 상품 차이 인지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어린이보험을 판매한다. 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생명보험사 상품은 가입시 정해진 금액을 일시에 보장해 암, 백혈병 등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병을 고액으로 보장받는데 좋다. 손해보험사는 실손형 보장 내용이 추가되어 가입한도 내에서, 약관에 명시된 제외되는 보상 외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에 대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넓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두 가지 상품의 장점을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하거나, 더 필요한 쪽으로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 부담 최소화…장기 유지 관건어린이보험의 보험료는 보통 5만원 안팎 수준인데, 보장도 중요하지만 장기간 유지하려면 보험료도 부담이 가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춰 가격 경쟁력을 높인 상품도 등장하고 있다.하나생명 ‘건강한어린이보험’은 순수보장형의 경우 최저 1만원대의 보험료로 주요질환, 생활질환, 골절부터 중대질병까지, 그리고 수술비, 입원비, 통원비를 세분화해 보장한다.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다이렉트 상품도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우고 있다. 이 외 대부분의 어린이보험은 자녀가 2명이상일 때부터 다자녀 가정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태아보험은 가입 타이밍 중요…여아 출생시 보험료 환급임신부들 사이에서 태아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태아보험은 별도의 상품이 아니라 어린이보험의 특약 보장 내용 중 하나이다. 가입은 뱃속 태아일 때 하되 출산 전,후 위험에 대한 보장이 추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태아의 선천 이상 질병에 대한 보장이나 출산 후 인큐베이터를 사용하게 될 경우의 비용 등이다. 태아 보험은 가입시기가 정해져 있어, 이 시기를 넘기면 가입할 수 없다. 보통 16~22주이며 보험사마다 다르다.또, 여아를 출산하게 되면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성별이 정해지지 않은 임신 상태에서 가입할 때는 사고위험률이 더 높은 남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교육비 중도지급, 성인 보험으로 전환어린이보험 상품 경쟁이 심해지면서, 기본 보장 외 다양한 기능을 갖춘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나생명의 ‘건강한어린이보험’은 자녀가 특정 연령에 도달할 때 총 5회에 걸쳐 ‘행복자금’을 지급한다. 14세 이후 3년 마다 100만원씩 5회 받게 되며,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 대부분 어린이보험의 만기 나이인 30세가 되면 성인보험으로 전환되는 보험도 있다. 하나생명 영업마케팅부 최춘석 차장은 “<span class='quot0'>어린이보험이 필수 가입상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고 상품 종류 또한 다양해 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모든 아이들의 건강 상태나 처한 환경이 다른 만큼, 자녀에게 필요한 보장 내역을 고민해보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히 살펴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한편 어린이보험의 저축성 상품은 삼성생명 우리아이부자연금보험, 교보생명 ‘더든든한교보우리아이보장보험’이 있다. 보장성보험으로는 삼성화재 '엄마맘에 쏙드는' 자녀보험, 우리아비바생명 (무)우리아이100세보장보험,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스마트 아이사랑보험, 메리츠화재 '내Mom같은어린이보험'이 있다. 김남희 세계파이낸스 기자 nina1980@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26.txt

제목: 보험사 "사고 많은 5월~8월, 어린이보험 가입 먼저"  
날짜: 20140430  
기자: 세계파이낸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30100000332  
본문: 5월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어린이보험 가입을 고려 중이다. 5월~8월 사이 아이들의 활동량이 많아 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실제 도로교통공단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사고 월별 통계(2010~2012년)를 보면 5월에 가장 많은 사고(11.2%)가 나타났다.어린이날을 앞두고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어린이보험 가입을 고려 중이다. 5월~8월 사이 아이들의 활동량이 많아 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실제 도로교통공단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사고 월별 통계(2010~2012년)를 보면 5월에 가장 많은 사고(11.2%)가 나타났다. 30일 하나생명에서는 어린이보험 가입을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해, 어린이보험 가입 시 고려해야 할 점 5가지를 소개했다.◆ '입원 안 해도 보험금 나오나’ 보장내역 확인어린이보험 가입의 목적은 자녀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갑작스러운 병원비에 대한 보장이 주 목적이다. 보장 내용에 필요한 것들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골절, 깁스, 화상 등 아이들이 자주 받는 치료에 대한 치료비와 수술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입원비뿐 아니라 통원 치료를 받을 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천식, 탈장, 인플루엔자, 장 감염 등 생활질환과 암이나 심장병, 결핵 등 중대한 질병은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기기 관련 질환, 청소년 폭력 피해, 유괴·납치 및 강력범죄 피해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으니 필요한 보장을 확인하자.◆ 생보 상품·손보 상품 차이 인지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어린이보험을 판매한다. 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생명보험사 상품은 가입시 정해진 금액을 일시에 보장해 암, 백혈병 등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병을 고액으로 보장받는데 좋다. 손해보험사는 실손형 보장 내용이 추가되어 가입한도 내에서, 약관에 명시된 제외되는 보상 외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에 대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넓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두 가지 상품의 장점을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하거나, 더 필요한 쪽으로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 부담 최소화…장기 유지 관건어린이보험의 보험료는 보통 5만원 안팎 수준인데, 보장도 중요하지만 장기간 유지하려면 보험료도 부담이 가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춰 가격 경쟁력을 높인 상품도 등장하고 있다.하나생명 ‘건강한어린이보험’은 순수보장형의 경우 최저 1만원대의 보험료로 주요질환, 생활질환, 골절부터 중대질병까지, 그리고 수술비, 입원비, 통원비를 세분화해 보장한다.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다이렉트 상품도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우고 있다. 이 외 대부분의 어린이보험은 자녀가 2명이상일 때부터 다자녀 가정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태아보험은 가입 타이밍 중요…여아 출생시 보험료 환급임신부들 사이에서 태아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태아보험은 별도의 상품이 아니라 어린이보험의 특약 보장 내용 중 하나이다. 가입은 뱃속 태아일 때 하되 출산 전,후 위험에 대한 보장이 추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태아의 선천 이상 질병에 대한 보장이나 출산 후 인큐베이터를 사용하게 될 경우의 비용 등이다. 태아 보험은 가입시기가 정해져 있어, 이 시기를 넘기면 가입할 수 없다. 보통 16~22주이며 보험사마다 다르다.또, 여아를 출산하게 되면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성별이 정해지지 않은 임신 상태에서 가입할 때는 사고위험률이 더 높은 남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교육비 중도지급, 성인 보험으로 전환어린이보험 상품 경쟁이 심해지면서, 기본 보장 외 다양한 기능을 갖춘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나생명의 ‘건강한어린이보험’은 자녀가 특정 연령에 도달할 때 총 5회에 걸쳐 ‘행복자금’을 지급한다. 14세 이후 3년 마다 100만원씩 5회 받게 되며,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 대부분 어린이보험의 만기 나이인 30세가 되면 성인보험으로 전환되는 보험도 있다. 하나생명 영업마케팅부 최춘석 차장은 “<span class='quot0'>어린이보험이 필수 가입상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고 상품 종류 또한 다양해 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모든 아이들의 건강 상태나 처한 환경이 다른 만큼, 자녀에게 필요한 보장 내역을 고민해보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히 살펴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한편 어린이보험의 저축성 상품은 삼성생명 우리아이부자연금보험, 교보생명 ‘더든든한교보우리아이보장보험’이 있다. 보장성보험으로는 삼성화재 '엄마맘에 쏙드는' 자녀보험, 우리아비바생명 (무)우리아이100세보장보험,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스마트 아이사랑보험, 메리츠화재 '내Mom같은어린이보험'이 있다. 김남희 세계파이낸스 기자 nina1980@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27.txt

제목: 남자가 여자보다 수명 짧고 암 발생률이 높은 이유?  
날짜: 201404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29100000368  
본문: 남자가 일반적으로 여자보다 수명이 짧고 암 발생률도 높은 것은 남자에게만 있는 성염색체인 Y염색체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여성은 2개의 X염색체(XX), 남성은 X염색체 하나와 Y염색체 하나씩(XY)을  가지고 있다. 남성의 Y염색체는 나이를 먹으면서 체세포 속에서 점차 소실되는데 이는  노화의 정상적인 과정으로 생각되고 있다.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라르스 포르스베리 박사는 그러나 Y염색체 소실이 수명  단축과 암 사망의 원인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70대와 80대 초반 노인 1천153명에게서 채취한 혈액샘플로 DNA를 분석하고 장기간 지켜본 결과 세포에 Y염색체 소실이 심하면 수명이 암 사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포르스베리 박사는 밝혔다.전체적으로 이들 중 8%는 혈액세포에 Y염색체 소실이 나타났고 약 2%는 혈액세포의 약 35%에 Y염색체가 없었다.이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수명이 5.5년 짧았고 암 발생률이 3배 이상 높았다.이 결과는 Y염색체에 암을 막아 주는 그 무엇인가가 들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포르스베리 박사는 해석했다.Y염색체가 없으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이 방치되는 것으로 그는 추측했다. Y염색체는 X염색체에 비해 짧고 빈약해 남성성을 결정하고 정자생산을 보장하는것 외에는 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그러나 최근에는 Y염색체에 기능을 알 수 없는 유전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암세포에는 Y염색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 연구결과는 영국의 과학전문지 ’네이처 유전학’(Nature Genetics) 온라인판(4월28일자)에 실렸다.온라인 뉴스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28.txt

제목: 암투병 96세 하반영 화백,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자 뽑혀  
날짜: 201404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2910014132716  
본문: 100세를 앞둔 ‘현역’ 화가가 예술인 긴급 복지지원 대상자로 확정돼 800만원을 지급받는다. <br/> <br/>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은 올해 96세인 하반영(사진) 화백에게 이달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씩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2013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하 화백은 올해 초 암이 임파선으로 전이돼 항암치료가 절실한 상황이나, 기초노령연금만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br/> <br/>화단에서 ‘국내 최고령 화가’로 불리는 하 화백은 일제강점기인 1931년 조선미술전람회 최고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광복 후 국전에도 7차례 입선했다. 현재 전북 군산에 살며 매년 전시회를 여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평화화랑에서 ‘패션(PASSION)’이란 주제로 개인전을 열고 있다. <br/> <br/>하 화백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예술인 복지사업이 시작된 것은 참으로 의미있고 기쁜 일”이라며 “더 많은 후배 예술가들이 예술인복지재단 지원을 받아 안정적 환경에서 창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29.txt

제목: '암투병' 국내 최고령 화가에 800만원 긴급 지원  
날짜: 20140429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2910014120554  
본문:  100세를 앞둔 ‘현역’ 화가가 예술인 긴급 복지지원 대상자로 확정돼 800만원을 지급받는다. <br/> <br/>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은 올해 96세인 하반영(사진) 화백에게 이달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씩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2013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하 화백은 올해 초 암이 임파선으로 전이돼 항암치료가 절실한 상황이나, 기초 노령연금만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br/> <br/> 화단에서 ‘국내 최고령 화가’로 불리는 하 화백은 일제강점기인 1931년 조선미술전람회 최고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광복 후 국전에도 7차례 입선했다. 현재 전북 군산에 살며 매년 전시회를 여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평화화랑에서 ‘패션(PASSION)’이란 주제로 개인전을 열고 있다. <br/> <br/> 하 화백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예술인 복지사업이 시작된 것은 참으로 의미있고 기쁜 일”이라며 “더 많은 후배 예술가들이 예술인복지재단 지원을 받아 안정적 환경에서 창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30.txt

제목: 'KBS 파노라마', 치매…희망은 있을까  
날짜: 20140429  
기자: 한준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29100000160  
본문: ‘KBS 파노라마’가 치매 2부작(장강복 연출) 다큐를 오는 5월1∼2일 밤 10시에 방송한다.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4400만 명, 2050년 예상 환자 수 1억3500만 명. 국내에서도 60여만 명이 앓고 있는 질병인 치매의 실태를 살펴본다.특별한 예방법과 치료법이 없는 치명적인 질병 치매는 노인들이 암과 뇌졸중보다 더 두려워하는 질병이다. 더욱 공포스러운 것은 그 누구도 이 치매로부터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남녀노소는 물론 지식인이건 부자이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발병한다. 특히 치매는 환자 본인보다 가족이 더욱 고통스럽다. 다양한 증상,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간병, 그로 인해 가중되는 경제적 고통이 뒤따른다. 뿐만 아니라 증상에 대한 오해와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쉬쉬하고 감추는 병이기에 가족은 더욱 고통스럽다.먼저 1편 ‘피할 수 없는 전쟁’ 편에서는 다양한 치매환자 사례를 통해 치매환자 본인의 끔찍한 고통은 물론 가족들의 말 못할 고통과 그 심각성을 알아본다. 2편 ‘그래도 희망은 있다’ 편에서는 치매의 진행상황을 늦추고 완화시키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고, 이제는 치매가 환자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전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처방안을 찾아야하는 질병임을 이야기한다.한국의 치매 관련 예산은 OECD 최하 수준이며 치매 전문 인력도 절대 부족하다. 특히 대부분의 치매 환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농촌지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우리보다 앞서 치매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겪은 일본의 사례, 국내에서 치매증상 악화를 막거나 치매환자를 보듬어 안고 살아가는 사례들도 소개한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31.txt

제목: “바이오산업 신기술 눈으로 보세요”  
날짜: 201404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2710014096344  
본문: 바이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가 충북 오송에서 펼쳐진다. <br/> <br/>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청주시 등이 공동 개최하는 이 행사는 9월 26일∼10월 12일 ‘생명, 아름다움을 여는 비밀’을 주제로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펼쳐진다. 바이오엑스포는 바이오미래관(주제관)과 바이오 건강체험관, 바이오 뷰티마켓 등 다양한 전시관을 비롯해 국내외 우수 바이오기업이 참여하는 기업관과 산업관이 운영된다. <br/> <br/>바이오미래관은 ‘인류의 희망 바이오’를 주제로 기아와 질병, 기후변화 등 인류가 안고 있는 난제를 풀 바이오신기술을 소개하는 공간이다. <br/> <br/>DNA 이중나선 구조를 형상화한 터널을 빠져나오면 코에 뿌리는 독감백신,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와 혈관치료 로봇, 3D 프린터를 이용한 인공장기 생산기술, 중금속을 흡수하는 나무 등 최신 바이오 기술과 만날 수 있다. 피 한 방울로 6대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 암검진을 비롯해 주요 장기의 나이, 비만나이 등을 알 수 있는 생체나이 측정, 개인 맞춤의학을 위한 유전자 검사 등 다양한 진단과 검사로 ‘질병없는 바이오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br/> <br/>뷰티체험관은 바이오 기술로 예뻐지는 방법이 소개된다. 두피와 모발 진단, 스마트미용 기기와 미생물 비누 클렌징 체험, 기능성 의류와 식품 체험할 수 있다. 에듀체험관은 신비로운 생명의 세계와 생명공학의 기초지식을 소개하는 공간이다. 정상세포와 암세포 관찰, 동·식물세포 관찰, 다양한 과일의 DNA 추출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br/> <br/>충북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학계에서는 바이오신약 한 개 품목이 안겨주는 순이익이 자동차 300만대의 수출효과를 낸다는 분석을 낸 적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충북이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span>”이라고 기대했다. <br/> <br/>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32.txt

제목: 김영임, 남편 이상해 위암 회상하다 눈물 '왈칵'  
날짜: 201404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25100000205  
본문: 김영임이 남편 이상해의 위암 수술에 관해 회상하다 눈물을 보였다.김영임은 25일 방송된 KBS 2TV '여유만만'에서 "남편 이상해에게 종합검진을 받아보라고 했는데 화를 내더라. 너무 야속했다"고 입을 열었다.김영임은 "2년 후 다시 건강검진을 받아보게 했다. 남편의 건강검진 결과 암이더라. 의사가 정말 괜찮다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왔을 때 너무 눈물이 나더라"며 "평소에 담배피지 말고 술 마시지 마라고 했는데 왜 그런 것을 많이 해서 그랬을지 속상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이어 "당시 남편 생일이 얼마 안 남았을 때인데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 파티를 열었다. 그날까지만 술 많이 마시고 기분 좋게 지내길 바랐다"며 "이후 남편에게 사실을 전하자 바로 수술을 받더라. 결국 위 절제 수술을 받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이상해 위암 수술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상해 위암 수술, 안타깝네" "이상해 위암 수술, 수술 잘 됐나?"이상해 위암 수술, 술이 문제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뉴스팀사진=KBS 2TV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33.txt

제목: 수지상세포치료를 이용한 암줄기세포백신치료, 암치료 유효율 높여  
날짜: 20140424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2410014078481  
본문: 일본 센신병원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는 면역치료의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CTC검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br/> <br/>CTC(Circulating Tumor Cell)는 혈액순환종양세포· 즉 혈액 중에 떠다니는 암세포로 혈액이나 림프액의 흐름을 타고 순환하면서 장기로 이동해 전이 또는 재발을 일으킨다. 암세포 입자크기가 클 때에는 일반적인 검사로도 측정이 가능하지만 미세한 암세포일 때에는 측정이 어렵다. CTC검사는 이러한 미세한 암세포를 특수 기술로 검출해내는 최신 검사법으로 알려졌다. <br/> <br/>구라모치 박사는 “<span class='quot0'>5종복합면역요법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5종의 세포를 동시에 배양해 면역세포간의 상호 작용을 유도하고 팀플레이(Team Play)를 통해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치료법으로 암치료 유효율을 크게 높여 왔다</span>”고 전했다. <br/> <br/>이러한 치료방법은 일본 내 대학병원이나 종합의료기관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으며, 35여 개의 제휴 의료기관에 공급해주고 있다. 또한 ‘암 면역요법용 세포의 제조’에 관한 특허를 일본과 한국에서 취득했다. <br/> <br/>또한 5종복합면역요법을 개량해 암치료 유효율을 더욱 향상 시킨 DC-AIVac/WT1(新수지상 세포획득면역백신요법)은 암치료 유효율을 70~75%정도로 끌어 올렸다고 구라모치 박사는 설명했다. <br/> <br/>한편 구라모치 박사는 재작년, 식도암 판정을 받고 스스로 자신이 개발한 암 면역 치료를 시행   중이다. 작년 11월에는 서적 ‘당신은 암 환자라서 행복하다’를 출판했다. 이 책에는 암환자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기술돼있다. <br/> <br/>현재 구라모치 박사는 암의 근원인 암줄기세포를 타겟으로 한 DC-AIVac/CSC요법(암줄기세포특이항원백신요법)을 개발해 작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5종복합면역요법과 수지상 세포획득면역백신요법이 결합한 것에 암줄기세포 특이 항원을 추가로 인식시켜 암의 근원인 암줄기세포를 특이적으로 공격 하도록 한 암치료법이다. <br/> <br/>구라모치 박사는 “<span class='quot0'>DC-AIVac/CSC요법과 면역세포치료의 결과를 더욱더 정밀하게 관찰하고 측정하기 위해 CTC검사를 도입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암을 조기에 진단하여 예방하고 치료할 경우, 그만큼 암환자가 받게 될 고통도 줄일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34.txt

제목: 흉터 없는 유방혹 제거, 맘모톰 시술로 치료 가능  
날짜: 20140424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24100000034  
본문: 지난 2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 센터에서 발표한 ‘세계 암 보고서 2014’에 의하면 여성 암 발병은 유방암이 25.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세계적으로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은 과거 ‘서양인의 암’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서구식 생활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국내 유방암 환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유방암 초기에는 생존율이 90% 이상이지만 전이가 있는 유방암의 경우 생존율이 30% 낮아져 생존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조기발견과 치료가 필수적이다.연령대별로 20대에는 매월 자가진단을 30∼40대는 정기 검사를 통해 조기발견이 용이하며, 보통 유방에 통증이 있거나 만져지는 것이 있다면 유방암을 의심해볼 수 있고 질병의 진행에 따라 피부의 궤양이나 함몰이 일어날수도 있다.유방암 자가 진단은 생리를 하는 여성들의 경우 생리 후 2∼3일 정도 후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육안으로 피부함몰이나 돌출 부위가 있는지 살펴본 후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머리 위로 올린 후 가슴을 펴고 양쪽을 비교해 봐야 한다. 또한 팔을 들고 반대편 손의 검지와 중지, 약지를 이용해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만져가며 만져지는 것이 있는 지 불편한 느낌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만약 양쪽 유방의 크기가 다르거나 멍울이 만져진다면 유방전문병원을 방문해 유방촬영 및 유방초음파를 시행해야한다. 이때 유방초음파에서 유방혹이 발견된다면 유방혹의 모양에 따라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조직검사는 중심바늘생검 조직검사를 주로 시행하나 미세석회화를 동반한 경우에는 맘모톰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조직검사결과 유두종과 같은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거나 중심바늘생검 조직검사가 부족할경우, 미세석회화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병명을 파악하는 것을 위해 유방혹의 절제술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수술적 방법보다는 맘모톰 시술을 이용해 조직검사 및 절제를 시행한다. 또한 조직검사상 양성으로 나왔지만 증상이있는 경우, 혹이 너무 큰 경우, 지속적으로 자라는 혹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맘모톰 시술은 초음파로 병변을 관찰한 뒤 바늘을 가까이 두고 바늘 끝 옆면에 있는 홈으로 조직을 빨아들여 내부 칼날로 흡인된 조직을 잘라 밖으로 빼내는 치료 방법이다. 위 시술은 조직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유방 혹의 완전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흉터를 최소화하는 유방혹제거에 사용되어 진다.보건복지부지정 외과전문병원 민병원 유방센터의 김혁문 원장은 “<span class='quot0'>맘모톰 시술의 경우 종양의 크기에 상관없이 흉터가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효과적이며, 시술 후 봉합 테이프만 붙여 놓으면 자연 치유 되기에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대부분 맘모톰 시술은 국소 마취를 한 뒤 시행하나 실제 수술 시 통증과 소음 등으로 많은 환자들이 불안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병원 유방센터는 독자적인 수면 마취로 환자들이 더 편안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35.txt

제목: 이대목동병원, '유해환경 노출' 근로자 대상 특수건강진단 실시  
날짜: 20140424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2410014078480  
본문: 이대목동병원 특수건강진단실·국가건강검진실 개소식에서 이순남 이화의료원장(왼쪽에서 6번째), 유권 이대목동병원장(〃 7번째) 등 참석자들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이대목동병원(원장 유권)은 특수건강진단실과 국가건강검진실을 열어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및 국가 암 검진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br/> <br/>이대목동병원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분진·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유해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2014년부터 야간작업 종사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등 적용 범위를 차츰 확대하고 있다. <br/> <br/>이대목동병원은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공공 분야 및 보건, 사회복지업, 건물관리업 종사자를 주된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 경비, 주차, 요양보호사 등 고령 근로자가 많은 야간작업 수행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은 물론 일반 건강검진과 국가 암 검진도 동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br/> <br/>김정숙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장은 “<span class='quot0'>지역사회 근로자와 의료취약 계층에게 보다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앞으로 특수검진과 국가검진을 연계해 사업장 및 개인별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36.txt

제목: [기고] 세월호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날짜: 201404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2410014084185  
본문: 필자는 개인적으로 추자도에 연고가 있어 이곳을 오가는 여객선을 1년에 몇 번씩 탄다. 그러다 보니 이번 ‘세월호’ 참사가 내게 주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물론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 나온 생존자나 ‘세월호’ 침몰로 가족을 잃은 분에 비해 그 충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나의 슬픔은 일상에 영향을 줄 정도로 무척이나 크다. 지난 한 주를 마음이 먹먹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예전 같지 않았다. 불의에 발생하는 사고는 어쩔 수 없다지만 충분히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누군가의 욕심이 대규모 참사를 가져온 것에 대해 분노의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br/> <br/>현재 한국 사회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있다.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 많은 사람이 세월호 ‘트라우마’(trauma·정신적 외상) 증후군을 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소식이 연일 이어지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정신적인 충격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심한 사람은 병원을 찾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불면,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뿐 아니라 스트레스성 위염, 긴장성 두통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자살로 삶을 중지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예민한 청소년들은 더 큰 충격에 빠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br/> <br/>한의학의 정수인 ‘동의보감’을 보면 분노하면 기(氣)가 위로 솟구치고 심하면 중풍이 온다고 했다. 그리고 슬픔이 오래 되면 기가 감소해 활력이 없어지고, 슬픈 생각을 오래 하면 기가 뭉쳐 마음이 답답한 울증이 온다고 했다. 이렇게 생긴 마음이 지속되면 덩어리 즉 적취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대적인 의미로 말하면 암에 해당된다. <br/> <br/> 백태선 한의사·건국대의대 외래교수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저절로 아물듯 마음의 상처가 곧 치유돼 슬픔도 기억의 저편으로 희미해질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지만 마음의 상처가 잘 치료되지 않는다면 불안 공포 장애, 우울증 같은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br/> <br/>특히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된 생존자나 실종자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보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자신의 심리 상태를 진단받고, 필요하다면 상담심리 치료는 물론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이정승정(以情勝情)이라 하여 다른 감정을 통해 기존의 감정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가족과 여행을 하며 마음의 안정을 갖는 것도 좋다. 재미있는 책을 읽으며 감정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치유에 도움이 된다. 이때 지인들은 아픔을 겪은 피해자들이 절망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을 주는 배려가 중요하다. <br/> <br/>어떤 상처든지 시간이 지나야 치유가 되듯 생존자, 실종자 가족, 그리고 국민 모두가 슬기롭게 고통을 극복하도록 서로를 보듬는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br/> <br/>백태선 한의사·건국대의대 외래교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37.txt

제목: 논밭 사이 곳곳 조형작품 … ‘예술’이 된 시골마을  
날짜: 201404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2410014084306  
본문: 부산의 동쪽 해변은 외지인들이 여행지로 많이 찾는 남쪽 해변과는 전혀 다른 정취와 풍경을 품고 있다. 해운대·광안리·송도로 대표되는 남쪽의 해변은 고층빌딩, 카페, 식당으로 가득 차 있다. 도시, 젊음, 소비 등이 이곳의 정서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지 않을까 싶다. 반면 대부분 기장군에 속해 있는 동쪽 해변은 고즈넉하고 한적한 어촌, 포구의 연속이다. 흔히 떠올리게 되는 부산의 이미지와는 판이한 ‘또 다른 부산’을 기장의 해변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은퇴 후 기장군에 전원주택 개념으로 새 둥지를 트는 부산 사람이 적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라고 한다. <br/> <br/>부산의 남쪽 해안이 끝나는 해운대 동쪽의 문탠로드와 청사포를 지나 송정 해변에만 들어서도 부산 시내쪽 해변과는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부산 토박이들이 ‘가까운 바다에 간다’고 하면 송정을 말한다. 그들은 이젠 건물이 꽉꽉 들어차고 번잡한 해운대와 광안리에서는 바다의 정취를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자기네끼리 찾는 바닷가 횟집도 적어도 송정까지는 나가야 한다. <br/> <br/>아직 해운대구인 송정을 지나 기장군에 발을 디디면 가장 먼저 만나는 명소는 해동용궁사다. 바닷가 바위에 들어선 절집 중에는 우리 땅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널리 알려진 곳일 것이다. 3대 관음성지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유서 깊고 풍광이 빼어나 1년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br/> <br/>해동용궁사를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한적한 포구의 풍경이 펼쳐진다. 도로변에는 낡은 저층 건물이 늘어서 있고, 햇볕에 말리는 생선이 곳곳에 눈에 띈다. 만약 하늘에서 뚝 떨어져 이곳에 도달했다면 부산의 바닷가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풍경이다.  <br/> 부산 기장군 장안읍 오리 대룡마을의 ‘아트 인 오리’ 곳곳에 세워진 예술작품들. <br/> <br/> 축산농가가 떠나며 황폐해진 시골마을을 예술인들이 정감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해동용궁사에서 북쪽으로 4㎞쯤 올라가면 우리 땅의 최대 멸치 산지인 대변항이다. 대변항의 기장 멸치는 기장 미역과 함께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하던 특산품. 대변항은 전국 멸치 어획고의 60%를 차지하는 포구로, 이즈음 멸치잡이가 한창이다. 기장 멸치는 사철 잡히지만, 이맘때가 제철이다. 봄 멸치는 육질이 부드럽고 고소한 데다 씨알도 굵다. 그래서 국물 맛을 내는 보조 재료가 아니라 구워 먹고, 무쳐 먹고, 회로 먹는 요리의 주재료가 된다. 멸치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 이즈음 대변항에서는 배에서 막 내린 선원들이 그물을 흔들어 멸치를 털어내는 역동적인 작업도 눈요깃거리가 된다. <br/> <br/>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기장읍 죽성리인데, 해안도로가 끝나는 곳에 고산 윤선도가 6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던 두호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 바닷가 야트막한 언덕에 작은 성당과 등대가 서 있다. 원래는 드라마 ‘드림’의 촬영 세트장인데, 황금빛 갯바위와 쪽빛 바다를 배경으로 들어선 성당이 빚는 풍광이 더없이 이국적이고 낭만적이어서 기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가 됐다.  <br/> <br/>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두호마을의 드림성당.드림성당을 지나 울산 방면으로 계속 올라가면 일광, 장안 등 이름도 낯선 마을에 접어든다. 이곳의 산자락에는 작지만 정감 넘치는 문화공간이 살포시 들어서 있다. 부산 시내에서 출발한 후 동선을 따라 나열하다 보니 가장 뒤에 내놓았지만, 감흥의 깊이로만 보면 맨 앞자리에 올려놓고 싶었던 곳이다. <br/> <br/>장안읍 오리 대룡마을의 ‘아트 인 오리’(051-727-4364)는 작은 시골마을에 들어선 예술인촌이다. 원래 이곳에는 축산농가가 많았으나 1990년대 우유 파동사태를 겪으며 축산농가들이 폐업했고 마을은 황폐해졌다. 그러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부산지역 예술가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 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낮은 임대료가 작가들을 불러들였다. 빈 축사와 곡물창고는 하나둘 작업실과 전시실로 탈바꿈했고, 이 마을은 예술인 창작촌으로 거듭났다. <br/> <br/>대룡마을 작가들은 삼삼오오 모여 차를 마실 수 있는 공동 휴게실도 마련했다. 각자 작품 활동을 하느라 휴게실 관리자는 따로 없었다. 현재 대룡마을의 상징물로 불리는 무인 카페 ‘아트 인 오리’(Art in Ori)는 이렇게 탄생했다. 방문객도 카페 입구 작은 상자에 1인당 3000원을 넣고 커피를 마실 수 있다. <br/> <br/> 전시실로 탈바꿈한 대룡마을의 빈 창고.마을 곳곳에는 그동안 이 마을과 인연을 맺은 작가들의 작품이 설치돼 있다. 산비탈이나 논밭 사이, 폐가 옆에 들어선 조형 작품들은 이 마을의 일부인 것처럼 녹아들었다. 고즈넉하고 푸근한 정취를 지닌 대룡마을은 입소문을 타고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부산 시내를 빠져나와 1시간 이상 차를 몰아야 하는데도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br/> <br/>대변항 인근의 ‘토암도자기 공원’(051-721-22331)도 둘러볼 만한 곳이다. 이름은 도자기 공원이지만, 이곳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도자기가 아니라 흙으로 빚은 인형, 토우다. 비탈진 산책로 주변에 1400여개의 토우가 늘어 서 있다. 이곳은 대변포구가 한눈에 내려다보여 풍광도 그만이다. <br/> <br/> 대변항 인근의 토암도자기 공원.이곳은 1997년 도예가 토암 서타원 선생이 암 수술을 받은 뒤 들어와 토우를 빚으며 공원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토우들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또 한결같이 바보의 얼굴이다. 귀도 없고, 머리도 열려 있고, 바닥도 열려 있다. 헛된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의 욕심과 마음을 모두 비우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br/> <br/>부산=글·사진 박창억 기자 daniel@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38.txt

제목: [사설] 4·16, 公僕의 ‘썩은 관행’ 뿌리 뽑는 출발일 삼아야  
날짜: 201404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2410014084194  
본문: 4월16일은 대한민국호가 침몰한 날이다.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공직자는 자리 보전을 위해 ‘검은 결탁’을 하면서 국민의 안전은 내동댕이쳐졌다.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하나하나 드러나는 부실의 실상에는 공직자와 기업인의 직업윤리를 찾아보기 힘들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팽개쳐진 공공의 이익’만 적나라하게 드러날 따름이다. 어디 그뿐인가. 사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공직자의 꼴불견 행태는 시도 때도 없이 이어진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대한민국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br/> <br/>청와대와 정부는 진도 참사를 계기로 국가개조 수준의 적폐(積弊) 일소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어제는 전 부처에 걸쳐 3400개의 재난 매뉴얼도 점검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span class='quot0'>눈치 보는 공무원은 퇴출해야 한다</span>”고 말한 뒤 이어지는 움직임이다. <br/> <br/>적폐를 몰랐던 것인가. 아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공복의 썩은 관행과 자세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낙하산 인사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은 그중 하나다. 꽃 한번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앳된 학생들을 희생시킨 자는 누구인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세월호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을 우선 지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해수마피아’에 의해 방치된 관리감독이 자리하고 있다. 선박 안전검사는 물론 운항 관리감독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세월호가 아니더라도 대형 참사는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었다. <br/> <br/>해운회사와 선주의 이익을 위해 방패막이로 활동하는 해수마피아의 실상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선박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항운을 관리감독하는 한국해운조합의 수장은 모두 해양수산부 출신이다.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간 해수부 낙하산 이사장은 인사 한번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 조합의 주인은 이사장이 아니라 해운회사 대주주이기 때문이다. 그런 곳에 관리감독권이 넘어가 있었다. 이사장은 시녀 노릇을 했다. 한국선급에서 행한 선박검사 합격률이 2008년 이후 99.96%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준다. 해수부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을 터다. 그러나 썩은 관행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br/> <br/>무슨 의미인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 공직자가 스스로 의무를 방기했다는 뜻이다. 달콤한 ‘낙하산 유혹’에 빠져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곳에 그 권한을 넘겨줬다고 할 수 있다. 공복을 매개로 갑(甲)이어야 할 국민은 검은 유착에 영원한 을(乙)로 전락한다. <br/> <br/>일부 공직자의 ‘썩은 자세’는 참사 현장에서 온갖 문제를 일으킨다. 안전행정부 감사관이라는 사람이 사망자 현황표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것은 한 예일 뿐이다. <br/> <br/>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 암 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건강한 대한민국은 기약하기 힘들다. ‘국가개조 수준의 적폐 일소’는 바른 방향이다. 이를 말로만 다짐하며 어물쩍 위기나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실행 계획을 세세히 짜고 공복의 유착구조를 뿌리 뽑기 위한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4·16 참사에서 숨져간 어린 생명들이 대한민국에 던진 숙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39.txt

제목: 노바티스 항암신약 LDK378, ALK+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58%의 전체반응률 달성  
날짜: 20140423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23100000292  
본문: 노바티스에서 폐암치료제로 개발 중인 항암신약 LDK378(성분명 세리티닙)이 진행성 역형성 림프종 키나제 양성(ALK+)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게 1일 400mg 이상 투여한 결과 58%의 전체 반응률과 7개월의 무진행 생존 중앙값을 달성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의학 전문지 뉴잉글랜드 저널오브메디슨(NEJM)지에 게재됐다.이번 임상연구는 흔히 처방되고 있는 ALK 억제제 크리조티닙으로 치료를 받는 도중 또는 받은 후에 암이 진행한 환자와 과거에 ALK 억제제로 치료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를 포함해 총 114명의 ALK+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노바티스에서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임상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임상 총괄 책임 연구자인 보스턴 매사추세츠 병원 암센터의 앨리스 T. 쇼(Alice T. Shaw) 박사는 “<span class='quot0'>연구에서 다수의 환자들이 LDK378에 대한 임상적 반응을 경험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뿐만 아니라, 이전에 크리조티닙을 복용한 환자에서 중추신경계에 치료되지 않은 병변에서도 반응이 나타났다</span>”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결과는 대부분 환자들이 크리조티닙 치료를 시작하고 1년이 채 안 되어 재발되며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전했다.NEJM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서 1일 400mg에서 최대 750mg 내약용량의 LDK378로 치료받은 ALK+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7개월의 무진행 생존 중앙값(95% 신뢰구간: 5.6∼9.5개월)이 입증됐다. 연구에서는 이 밖에도 일일 750mg의 LDK378을 복용한 환자에서 59%의 전체반응률(ORR)(95% 신뢰구간: 47∼70%)이 보고됐다. 관찰된 반응을 통해 LDK378이 이전에 크리조티닙으로 치료 받았던 환자를 비롯해 ALK 유전자에 새로운 변이가 일어났거나 또는 일어나지 않은 진행성 ALK+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작용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오심(82%), 설사(75%), 구토(65%), 피로감(47%), ALT(alanine aminotransferase) 수치 상승(35%)이었다. 이번에 게재된 초기연구결과는 2013년 미국임상종약학회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바 있으며 현재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다.비소세포폐암은 가장 흔한 폐암으로 전체 폐암의 85∼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환자의 2∼7%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증식시키는 ALK 유전자 재배치가 일어난다. 주로ALK 음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보다 비흡연자이고 젊은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위한 치료 옵션은 현재 매우 제한적이다.노바티스 항암제사업부 사장이자 항암제 개발 및 의학부 글로벌 책임자 알렉산드로 리바(Alessandro Riva) 박사는 “<span class='quot0'>NEJM에 게재된 주요임상결과는 노바티스에서 LDK378 첫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0'>FDA가 승인신청서를 받아들여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FDA와 전세계 보건 당국과 협력해 최대한 빨리 이 중요한 치료 옵션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span>”고 전했다.FDA는 LDK378을 ‘획기적 치료제(Breakthrough Therapy)’로 지정한 바 있다. 획기적 치료제는 최소한 1개의 임상적으로 유의한 평가변수에 있어 기존 치료제보다 실질적인 개선을 입증한 경우에 심각하거나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의 개발 및 검토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현재 LDK378에 대한 여러 건의 주요 임상연구가 전세계 30여 개국의 300여 개 이상의 연구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40.txt

제목: “임종전까지도 삶은 전쟁터 방불… 한시도 소홀히 못해”  
날짜: 201404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2210014065089  
본문: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아파하고 있잖아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치매로 통제되지 않는 환자와 임종을 기다리는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br/> <br/>21일 오전 9시 울산시 상북면 양등리 138-1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비구니 다경 스님은 활짝 웃는 얼굴로 병실을 돌고 있다. 108병상에 70여명의 노인성 만성 질환자, 암투병 환자, 말기암 환자가 입원해 있는 곳이다. 이 가운데 스님 환자도 8명이 있다. <br/> <br/>“흔히 정토마을을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말하죠. 임종 직전까지 삶에 대한 집착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기 때문이죠.” <br/> <br/>자재요양병원에는 다경 스님을 포함해 비구니 스님 7명, 비구 스님 1명이 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목욕, 이발, 영적 돌봄 등 다양한 소임을 살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다경 스님은 요양병원에서 ‘예쁜 스님’으로 통한다. 환자들을 극진히 돌보는 데다 장난스러운 몸짓으로 잘 놀아주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다경 스님과 있는 시간이 즐거워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망각할 정도다. <br/> <br/>호스피스 수행자 다경 스님은 “누구의 죽음이던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대부분 시한부 삶을 살고 있지만, 이승에 머무르는 동안 편안한 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설령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죽음은 누구나 존경받아야 합니다.” <br/> <br/>치료실인 집중관리실에서 할머니 환자가 준 염주를 목에 걸고 1층에서 3층까지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는 다경 스님은 생후 6개월에 절에 들어온 동자승이었다. 19세에 서울 홍제동 환희사에서 출가했으며, 은사는 혜원 스님이다. 동국대를 나온 스님은 영국 브리스톨대학교에서 종교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br/> <br/>“2010년 영국에서 돌아와 고생했던 제 몸에게 2년간의 휴식을 허했지요. 쉬는 기간 우연히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면서 저의 내면에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스님은 고단한 환자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다. <br/> <br/>“임종실에 갈 시간이에요. 환자들이 임종 전 10일 동안 머물며 가족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지요.” <br/> <br/>총총히 발길을 옮기는 스님을 보며 부처님이 제자 하나는 참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 있으면 부처님오신날이다. <br/> <br/>정성수 종교전문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41.txt

제목: 이화의료원, 여성건강 증진 위한 8대 수칙 ‘여성행복, 사회건강’ 발표  
날짜: 20140422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22100000103  
본문: 이대여성암병원과 여성건강증진센터 개소 5주년을 맞아 지난 3월부터 여성 건강 캠페인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이순남)이 ‘여성 건강 8대 수칙’을 발표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발표한 ‘여성 건강 8대 수칙’은 캠페인의 슬로건인 ‘여성을 행복하게, 사회를 건강하게’에서 기억하기 쉬운 핵심 키워드인 ‘여성 행복 사회 건강’의 8개 단어를 머릿 글자로 여성들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건강 습관을 담았다.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제안하는 8대 건강수칙은 ▲여성 건강의 시작은 정기검진하기 ▲성심껏 준비한 컬러 푸드 맛있게 먹기 ▲행복을 위한 나만의 취미 갖기 ▲복부 비만은 만병의 근원, 정상 체중 유지하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기 ▲회복을 위해 하루 7시간 숙면 취하기 ▲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 멀리하기 ▲강한 의지로 하루 30분이상 주 5회 땀나게 운동하기이다.‘여성의 몸과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병원’을 모토로 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위해 노력해 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가정에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의 건강과 행복이 가정과 사회의 건강과 행복의 기초가 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여성건강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8대 여성건강 수칙 세부사항▲여성 건강의 시작은 정기검진하기=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섬세하고 민감하다. 특히 사춘기, 임신, 폐경에 따른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여성 특유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단순한 피로라고 무시할 경우 심각한 질병을 조기 발견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또한 최신 진단기기를 이용한 간단한 검진과정을 통해 여성의 과반수가 지니고 있는 자궁근종, 난소질환 및 각종 악성종양들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으므로, 조기치료가 가능해졌다. 정기 검진은 이제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임을 기억해야 한다.▲성심껏 준비한 컬러 푸드 맛있게 먹기=초록색 케일, 주황색 당근, 하얀색 양배추, 노랑색 파프리카, 보라색 포도, 빨간색 토마토와 같은 천연색소 음식들은 비타민과 섬유질의 보고이다. 항산화, 해독작용, 염증방지에 탁월한 신선한 컬러푸드를 충분히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들며, 암 발생의 3분의1을 막을 수 있다.▲행복을 위한 나만의 취미 갖기=자신만의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며, 동시에 자신의 소질을 찾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취미활동은 성취감을 높여주며 다양한 친구와 사회를 접하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 친밀한 인간관계와 소속감을 높여줌으로써, 특히 여성의 외로움과 우울증을 예방하여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복부 비만은 만병의 근원, 정상 체중 유지하기=세계보건기구(WHO)가 21세기 신종 전염병 중 하나로 비만을 꼽았다. 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성인 비만율은 매년 1.6%씩 높아져 연간 약 40만명씩 늘어나고 있다. 비만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뇌졸중, 각종 암 등을 유발 또는 악화시켜 생명을 단축시킨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둔해지고 입맛은 좋아지지만, 기초대사량이 줄어서 같은 운동을 해도 체중 감량은 예전만 못하다. 본인 기존 체중에서 1kg 이상 늘면 즉각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 1kg을 방치하면 금방 3kg이 되고 5kg이 된다.▲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기=봉사를 통해 마음을 나누면서 삶을 감사히 여기는 것은 자신의 세로토닌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건강행위다. 세로토닌 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실패나 아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는 진통 효과를 얻기도 한다. 봉사는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능력을 높이지만,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스스로를 향한 축복이다.▲회복을 위해 하루 7시간 숙면 취하기=잠은 피로를 풀어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자연적 치유행동으로, 한국인의 적정 수면시간은 7시간이다. 불면증 뿐 아니라 과도한 수면도 피로회복을 방해하므로 적당한 수면시간 유지가 중요하다. 수면장애는 치매, 고혈압, 뇌졸중, 동맥질환. 성기능 장애, 당뇨 및 비만 등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 술이나 담배, 카페인은 숙면의 적임을 기억해야 한다.▲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 멀리하기=사람의 몸과 마음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마음의 평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기나 피부트러블 같은 작은 증상부터 각종 심각한 신체 및 정신 질환까지 발생시킨다. 복식 호흡이나 스트레칭, 명상 등을 평소에 정기적으로 해 준다면 면역력 증강은 물론이고 ‘강한 멘탈’을 갖게 되어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강한 의지로 하루 30분이상 주 5회 땀나게 운동하기=주 5회, 하루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또한 살짝 땀이 날 정도로 하는 유산소 운동은 피로감퇴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적정량의 근육을 만들어 주어 비만을 예방한다. 달리기나 사이클과 같은 운동이 부담스러울 경우 요가나 스트레칭으로 땀을 흘리는 것도 좋다. 운동할 때 발산되는 땀은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이며 혈액순환과 피부미용에도 큰 도움이 된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42.txt

제목: 허술한 재난시스템…‘보여주기용’ 매뉴얼과 대책본부  
날짜: 201404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2110014053885  
본문: 지난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지만 정부와 선장 등이 우왕좌왕하며 초기 대응에 실패해 최악의 사태를 초래했다.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2시간여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보고 국민들의 대정부 신뢰도 함께 침몰했다. 정부는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 지하철 참사 등 대형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재난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993년 10월 발생한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이후 20여년이 흐른 지금도 정부는 제대로 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초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복잡한 보고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br/> <br/>◆‘안전대책’ 모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br/> <br/>지난해 2월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핵심 국정기조로 ‘안전’을 내세우며 지난 2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안전행정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해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 기능을 총괄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하지만 당시 전문가들은 안행부의 간부들이 재난 대처 경험이 미숙해 초기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법 개정을 반대했다. <br/> <br/>이런 우려가 현실이 됐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중대본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허둥댔고, 10개가 넘는 대책본부가 구성되는 등 사고 수습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br/> <br/>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인 노진철 경북대 교수는 “<span class='quot0'>중대본은 오랫동안 재난대응 역할을 주도하던 소방방재청의 인력을 흡수하지 않은 채 조직됐다</span>”며 “<span class='quot0'>긴급 해상 재난상황에서는 현장을 잘 알고 있는 해경 등이 주도해 상황을 끌고 가야 되지만 지휘체계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보고하는 과정만 늘어났다</span>”고 지적했다. <br/> <br/>노 교수는 “<span class='quot0'>순환근무를 하는 현 공무원 보직 시스템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재난안전’ 업무를 맡고 있어 돌발상황이 닥치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span>”고 덧붙였다. <br/> <br/>강남대 김근영 교수(도시공학)는 “<span class='quot1'>지난 2월 법 개정으로 자연재난일 때만 소방방재청이 간사로서 투입된다</span>”며 “<span class='quot1'>인재(人災)로 판명난 이번 사고에 경험이 없는 안행부 2차관이 지휘권을 갖게 되면서 컨트롤타워가 흔들려 여러 가지 오류들이 발생했다</span>”고 말했다. <br/> <br/>가천대 윤민우 교수(경찰안보학)도 “<span class='quot2'>어떤 부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인력 배치가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2'>하지만 현 정부의 개편안은 부처의 이름만 바뀐 채 인력은 그대로</span>”라고 지적했다. <br/> <br/>재난상황만 다루는 재난청을 신설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노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는 행정관리조직의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행정조직이 더 늘어날수록 컨트롤타워는 더 복잡하게 될 것</span>”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 역시 “<span class='quot1'>새롭게 조직을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고심해봐야 할 문제</span>”라고 말했다. <br/> <br/>◆‘보여주기용’ 매뉴얼과 대책본부 <br/> <br/>재난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법과 매뉴얼 등을 선진국 못지않게 잘 마련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하지만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어 돌발상황이 벌어졌을 때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br/> <br/>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선임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3'>우리 정부에는 재난 발생과 관련한 매뉴얼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하지만 기본적인 매뉴얼 숙지도 하지 않고 있어 변수가 생겼을 때 어떤 항목을 어디에 적용해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span>”고 말했다. 이어 “매뉴얼은 물론 잇따라 생기는 대책본부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의 대처 미숙은) 관료주의의 고질적인 암 덩어리가 드디어 터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br/> <br/>연세대 조원철 교수(토목·환경공학)도 “<span class='quot4'>(세월호 사태를 보면) 매뉴얼은 있지만 안행부 공무원들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전혀 숙지를 하지 않은 것 같다</span>”며 “<span class='quot4'>매뉴얼을 잘 알고 있는 컨트롤타워를 세우도록 제도화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윤민우 교수는 “<span class='quot5'>미국과 유럽 국가의 매뉴얼은 100쪽이 넘도록 상황별로 자세하게 모든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5'>반면 우리 매뉴얼은 ‘상부 보고’를 위해 한눈에 들어오도록 개요도로 표현하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span class='quot2'>그렇다보니 지휘부가 매뉴얼을 충분히 익히고 있지 않다</span>”고 덧붙였다. <br/> <br/>김근영 교수도 “<span class='quot6'>태안반도 등에서 수차례 해양 기름누출 사고를 겪은 뒤 정부는 이를 재난으로 분류하고 2월 법 개정에서도 이를 중대본이 다루도록 명시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6'>하지만 여객사고는 중대본의 매뉴얼에 빠져 있어 이번 사고 때 중대본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span>”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br/> <br/>이희경·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43.txt

제목: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지영씨 빈소 추모행렬  
날짜: 201404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2110014053881  
본문: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마지막까지 승객을 대피시키다 숨진 승무원 박지영(22·여)씨의 빈소에는 사고 엿새째인 21일 조문행렬이 계속됐다. <br/> <br/>19일 전남 목포 한국병원을 떠나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는 이날도 익명의 화환이 도착했다. 이 외에도 각종 동문회, 향우회, 동호회 이름으로 도착한 화환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 등 익명의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박씨의 거주지인 시흥시 공무원과 인천항만청 직원 10여명은 교대로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br/> <br/>교복 차림으로 빈소를 찾은 학생 등 일반인의 조문도 끊이지 않았다. 이날 친구들과 단체로 조문한 이소연(15·시흥여중)양은 “우리 같은 학생을 지켜주신 분인데 당연히 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학교 차원으로도 전 교생이 손을 모아 사고 현장에 구호물품을 보내려 한다”고 말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민소현(21·여)씨는 친구와 함께 빈소를 찾아 “나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그렇게 용감할 수 있다는 부분에 감동을 받아 오게 됐다”며 “와보니 더 울컥하기는 하지만 고인께서 편히 쉬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br/> <br/>인천시 곳곳에는 박씨를 추모하는 현수막이 걸렸고,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내 게시판에는 사고자를 추모하고 무사귀환을 바라는 쪽지들이 나붙었다. 인터넷에는 지난 18일부터 ‘세월호 고 박지영양을 국립묘지에 모십시다’라는 청원이 진행 중이다. 박씨를 의사자로 추천하자는 이 청원은 이날 오후까지 10만명 목표에 3만명에 육박하는 호응을 이끌어냈다. <br/> <br/>박씨의 모교인 수원과학대는 전날 명예졸업장을 전달했다. 박씨는 2011년 수원과학대 산업경영학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이듬해 아버지를 암으로 여의고 어머니와 여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계를 낸 뒤 청해진해운 승무원으로 근무했다. <br/> <br/>사고 뒤 청해진해운 측이 박씨 유족에게 장례비로 700만원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가 공분을 사기도 했지만 최근 장례비를 모두 지급하겠다는 방침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발인은 22일 오전 9시 인천 부평승화원에서 열린다. 인천시는 박씨와 함께 숨진 백모(60)씨의 장례비도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br/> <br/>인천=이돈성·김준영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44.txt

제목: [건강 단신]서울대병원, '대장내시경' 주제 건강강좌 열어 外  
날짜: 20140420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2010014043945  
본문: 서울대병원(원장 오병희) 건강증진센터는 25일 오후 3시 어린이병원 임상 제2강의실에서 ‘힘든 대장 내시경 검사 꼭 해야 하나요’라는 주제로 건강 강좌를 연다. 건강증진센터 문상희 교수가 대장 내시경 검사의 필요성, 검사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검사는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사전등록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02)2072-3336 <br/> <br/> 강동경희대병원(원장 곽영태)은 의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의 협진을 통한 ‘우리 아이 건강 검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신장·체중·비만도 등 신체 측정과 청력, 안과 등 기본 검사는 물론 폐기능, 초음파, 심전도, 심장 기능 등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침(타액)을 분석해 우리 아이가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 한 눈에 점검해 보는 ‘유전체 분석 검사’도 가능하다. (02)440-6000 <br/> <br/> 차병원그룹(회장 차광렬)은 ‘차움 프리미엄 10대 암 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인한테 자주 발생하는 위암·대장암·갑상선암 등 10대 암에 뇌종양 검사를 더한 광범위한 정밀 암 검진으로,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한 CT 및 MRI 검사를 활용한다. 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45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집중적 검사를 통해 성인병을 예방하고, 발병률이 높은 암도 조기에 발견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02)3015-5300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45.txt

제목: 뇌종양 후유증, 한방에서는 어떻게 관리할까?  
날짜: 20140418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810014037278  
본문: 직장인 남성 김씨(56)는 뇌종양 수술을 한 후 갑자기 팔과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았다. 얼마 전에는 말을 조금씩 더듬는 증상도 생겼다. <br/> <br/>뇌종양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술 후에 찾아오는 각종 후유증이다. 실제로 많은 뇌종양 환자들이 김씨와 같이 수술 후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 <br/> <br/>뇌종양은 우리 몸의 신경계를 담당하는 뇌에 발생하는 암이다. 뇌는 언어· 감정· 인지· 기억· 운동· 감각 등의 인지· 기억· 운동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매우 신중한 치료가 요구된다. <br/> <br/>전문가들은 뇌종양 수술은 종양을 즉각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후유증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뇌종양 환자들은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치료법에 주목하고 있다. <br/> <br/>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한방암치료가 침과 뜸 등의 치료를 통해 뇌종양 환자들의 후유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해졌다. <br/> <br/>책 ‘뇌종양, 독한 치료에 자신을 내주지 마라’를 집필한 소람한방병원의 성신 병원장은 "감각과 신경마비를 완화시키는 침 치료를 통해 후유증을 완화하고 있다"며 "특히 나아가 전이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46.txt

제목: [류현민의힐링스토리] 마음으로 몸 치유하기  
날짜: 2014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710014031718  
본문: 얼마 전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신입생 엑스맨 편이 화제다. 전국의 대학을 돌며 신입생 행세를 하고 다닌 젊은이 이야기다. 알고 보니 그는 ‘리플리 증후군(Ripley Syndrome)’ 환자였다. 리플리 증후군은 허황된 세계를 진실이라 믿는 일종의 과대망상이다. 문제는 자기보호 본능에 의해 왜곡된 자신의 태도나 행동마저도 심리적으로 정당화하는 합리화 과정이 누적될 경우이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기’ 전에 마음을 직시(直視)해서 성찰(省察)해야 하는 이유이다. <br/> <br/>뇌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인식하는 경우가 잦다. 그러므로 이를 긍정적인 현실로 창조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플라세보 효과(placebo effect)를 이용하면 좋다. 플라세보는 믿음이 치유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이론이다. 우리 내면에 치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넘쳐난다. 미국인 라이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br/> <br/> 류현민 한국전인치유연구소장·뷰티건강관리학말기 암환자 라이트는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는다. 우연히 크레바이오젠이라는 물질이 암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의사에 부탁해 주사를 맞는다. 그러자 종양이 기적적으로 사라졌다. 얼마 후 크레바이오젠이 효과가 없다는 보도를 접하자 종양은 재발했다.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는 것에 착안한 의사는 새로운 버전의 강력한 크레바이오젠이 출시되었다고 말한다. 대신 주사한 것은 증류수였다. 다시 한 번 환자는 극적으로 종양이 사라졌다. 그런데 크레바이오젠이 효과가 없다고 공식 발표한 명확한 기사를 접하고 이틀 후 그는 사망하고 말았다. 믿지 않으면 잘 낫지 않는 현상인 노세보 효과(nocebo effect)가 그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br/> <br/>각종 실험에 의하면 플라세보의 유효율은 10∼100%까지 다양하다. 플라세보 효과는 치료자와 치료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이 전제된다.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에게 처음에는 진짜 약을 주고, 환자 몰래 가짜 약으로 바꿔치기도 한다. 의심하지 않는 환자의 뇌는 서로 다른 약이지만 동일한 반응을 보이도록 조건화된다. 마치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실험과 같다. 개가 종소리를 듣는 순간 침을 흘리는 것처럼, 환자의 뇌는 믿음에 의해 동일한 화학반응을 일으킨다. 뇌의 신경회로는 언어와 운동, 상상에 의해 반응한다. 특히 지속적인 상상은 특정 뇌 부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뇌를 구조적·기능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 이론에 의해 뇌를 맞춤설계 하는 게 가능해졌다. 건강은 환자의 마음의 능력에 달려 있다. 마음의 힘을 키우는 방법은 원하는 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상상을 반복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방법이 주로 추천된다. <br/> <br/>과거 긍정적 감정을 느꼈던 상황을 오감을 동원하여 생생하게 떠올린다. 눈을 감고 이완된 상태로 그 장면을 온몸으로 느끼고 실재라고 생각한다. 긍정적 감정이 최고조로 올랐을 때 그 느낌을 가슴, 주먹, 손가락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조건화한다. 예를 들어 활력 있고 자신감 넘쳤던 장면을 상상하며 주먹을 쥐고 파이팅을 외치는 것을 반복해보라. 나중에는 주먹 쥐고 파이팅만 외쳐도 자신감으로 충만한 신체 상태를 맛볼 수 있게 된다. <br/> <br/>류현민 한국전인치유연구소장·뷰티건강관리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47.txt

제목: 아직 가슴이 뜨거운가… 세상 향해 소릴 질러봐!  
날짜: 2014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710014032260  
본문: “우리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어봐! …우리가 젊은 날, 보고 느꼈던 것들을 기억해 봐! 그것들이 우리가 삶에 지쳤을 때,… 힘이 되어 줄 거야.” <br/> <br/>‘386세대’란 단어는 19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신조어로,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혼란스럽던 사회 상황과 민주화 열기로 가득찬 1980년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뚫고 나와야 했던 세대로,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중·장년이 되었다. ‘내 심장의 전성기’(이시원 작, 최원종 연출·사진)는 한때 뜨거운 심장을 불태우며 헤비메탈 음악을 했지만, 시대의 흐름에 휘말리면서 높이 날아보지도 못한 채 날개를 접고 주변인으로 살아가게 된 50대 남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br/> <br/>젊음과 낭만이 살아 숨 쉬는 인천 송도의 카페 거리. 그 거리 끝자락에 민속주점 ‘핵폭발’이 있다. 주점 한쪽에 마련된 무대에서 왕년에 유망했던 헤비메탈그룹의 보컬 최광현이 간지나는 복장을 하고 파워풀한 무대를 연출한다. “누구 하나 들어주지 않아도 폼생폼사 내 스타일대로 노래하다 죽으리∼. 나는야 헤비메탈 그룹의 리더이자 보컬이니까∼.” <br/> <br/>‘핵폭발’은 광현이 젊은 시절 활동했던 그룹 이름이다. 80년대 초, 세상을 삼켜버릴 듯 폭발적으로 떠올랐던 ‘핵폭발’의 데뷔 앨범은 세상과 맞짱 떠보겠다는 내용과 욕설이 난무한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고 판매금지 처분된다. 설상가상, 민주화 운동으로 끓어오르던 대학가에서 누군가 ‘핵폭발’의 데뷔곡 ‘최후의 전쟁터’를 부르며 투신자살하는 바람에, ‘핵폭발’의 노래는 저항 음악으로 회자되고, 멤버들은 취조와 고문을 당하며 긴 머리를 잘린다. 그룹은 해체되고 뿔뿔이 흩어진 채 30년이 흘렀다. <br/> <br/>다른 멤버들이 모두 떠난 뒤로도 광현은 음악을 놓지 못하고 꿈의 언저리를 맴돌며 살았다. 그동안 딸도 하나 생겼다. 딸 보람은 음악을 한다며 가정을 돌보지도, 평범하게 살지도 못하는 아빠와 헤비메탈 음악에 진저리를 친다. 열 네살 때부터 복싱을 시작한 보람은 복싱을 통해 아빠로 대변되는 세상과 싸우고, 광현은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과 싸우며 피곤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광현은 후두암 진단을 받게 되고, 아빠와 딸은 인생의 전환기를 맞는다. 광현은 한번도 빛을 발하지 못한 자신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고, 딸에게도 한 번쯤 좋은 아빠가 되고자 딸이 흥얼거리며 부를 수 있는 곡 하나 남기기로 마음먹는다. 보람은 그토록 싫어했던 아빠의 음악이 자신에게 복싱을 하게끔 하는 원동력이었음을 깨닫는다. <br/> <br/>‘핵폭발’을 재결성하기 위해 멤버들을 모으는 광현. 그룹 해체 후 대기업 인사부장으로 중산층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던 전 멤버 석주를 드러머로 앉히고, 통기타를 튕기며 라이브카페에서 트로트를 부르는 두영이도 다시 데려온다. 숨은 실력자인 베이시스트 박사장까지 합세해 재결성된 ‘2014 핵폭발’. 이들의 시들지 않은 치열함을 배우려는 젊은 펑크 밴드 ‘칼슘과 마그네슘’까지 합세해, 그들은 마침내 헤비메탈로 하나가 된다. 30년 만에 재결성된 ‘핵폭발’은 보람의 복싱 경기 오프닝 공연을 장식한다. <br/> <br/>영화계와 연극무대를 오가며 명품배우로 거듭난 손병호가 최광현 역을 연기한다. 그는 한국 연극계의 거장, 극단 목화의 오태석 선생 수제자답게, 음악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자신과 가족을 지켜내지 못한 최광현으로 빙의한다. 이미 영화나 연극 뒤풀이에서 선보인 수준급의 가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는 듯, 그는 무대 위에서 실제 라이브로 연주하고 노래하며 투혼을 불사른다. <br/> <br/>‘왜 다시 헤비메탈인가?’라는 질문에 연출가 최원종은 “<span class='quot0'>헤비메탈이야말로 치열하게 세상과 부딪치며 싸우는 음악이기 때문</span>”이라고 말한다. 세상이 그들의 치열함에 답해줄 때까지 그 음악을 멈추지 않을 인물들을 통해 삶을 이야기하고 싶단다. <br/> <br/>386세대. 패기는 약해졌지만 열정은 가슴 속에서 영글어 인생을 너그럽게 바라볼 줄 아는 관록이 생겼다. 당신 심장의 전성기는 언제였는가. 가장 뜨겁게 가슴이 뛰고 있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을 위해 노래할 수 있는 지금이 바로 당신의 전성기가 아닐까. 헤드뱅잉이 인상적인 종반부, 연극 ‘내 심장의 전성기’는 우리에게 소리친다. <br/> <br/>“<span class='quot1'>눈치를 보지 말고, 겁먹지 멀고, 소리를 질러!</span>” <br/> <br/>6월 1일까지 대학로 자유극장. (02)765-1776 <br/> <br/>김신성 기자 sskim65@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48.txt

제목: 하베스트젯가슴지방이식, 부작용 줄이고 만족도 높이려면…  
날짜: 20140416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6100000064  
본문: 여성에게 만족도가 높은 미용시술 중 하나가 바로 ‘가슴성형’이다. 가슴이 빈약한 경우 보형물을 삽입하거나 자신의 지방을 주입해서 가슴을 보다 풍만하게 만들 수 있다. 보형물을 삽입하는 경우 한 번에 만족스러운 사이즈로 만들 수 있지만 이물질을 삽입한다는 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편이어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지방을 이식하는 자가지방가슴성형을 선택하고 있다.헌데 이러한 자가지방가슴이식수술도 부작용이 존재한다. 자신의 지방을 이식한다는 점에서 보형물 가슴성형에 비해 부담감이나 거부감은 적은 편이지만 가슴지방이식 역시 수술이기 때문에 부작용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자칫 자가지방가슴성형의 부작용이 과도하게 과장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 전문가들은 자가지방가슴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고 이를 잘 인지한 후에 시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전한다.가슴자가지방이식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미세석회화와 오일낭종이다. 1980년대 후반 미국성형형학회 임시위원회에서는 가슴지방이식 후 잠재적 상처나 석회화가 암진단을 방해할 수 있어 이 시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그 후 성형술과 영상의학 기술로 보다 안전한 가슴지방이식 수술이 가능해졌다.자가지방가슴수술로 인해 미세석회화나 그 밖의 변화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는 시술자의 섬세함이나 노하우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초음파나 MRI 등으로 충분히 가슴지방이식에 의한 변화와 암을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남 리연케이성형외과 김현수 원장은 “가슴지방이식에 의해 미세석회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슴전체가 딱딱해지는 거대 석회화는 거의 드물게 나타나며 오일낭종의 경우 심하지 않은 이상 큰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는 편이다”라고 설명했다.김현수 원장은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가슴지방이식을 위해서는 시술자의 노련한 전문기술이 필요하다. 지방괴사나 뭉침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외에 생착률을 높여야 보다 만족스러운 가슴지방이식성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생착률이란 시술 후 지방이 조직에서 소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시술 직후 만족도가 높았다가 서서히 이식된 지방이 소실되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도 생착률이 낮기 때문이다.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이식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 냉동지방이 아닌 신선한 지방을 이식하는 것 등의 방법이 있다.김현수 원장은 “<span class='quot0'>하베스트젯 가슴지방이식은 가슴지방이식에 최적화된 장비로 보다 안전하고 생착률을 높인 만족도 높은 가슴지방이식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span>”라고 말했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49.txt

제목: 공기청정기에 대한 잘못된 상식  
날짜: 20140416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610014020140  
본문: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4월과 5월이면 공기청정기 판매가 급증한다. 하지만 공기청정기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공기청정기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필수상식 몇 가지를 알아본다.    <br/> <br/>1. 공기청정기는 담배연기나 환경호르몬을 제거할 수 있다? <br/> <br/>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는 "공기청정기는 담배가스에 함유되어 있는 가스입자를 제거할 수 없고 일부 오존을 만들어내는 공기청정기들은 오히려 폐에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br/> <br/>만약 담배연기나 유해가스를 제거하려면 필터 내에 활성탄소같이 연기를 흡착하는 물질이 들어 있어야 한다. 또한 아토피나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포름알데이드 등 환경호르몬도 과망간산칼륨 같은 물질을 있어야 가능하다. 의료용 공기청정기 중 일부 제품이 필터 안에 이러한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다.   <br/> <br/>2 공기청정기는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다? <br/> <br/>일반 공기청정기로는 곰팡이를 제거하지 못한다. 곰팡이는 크기가 워낙 작아서 필터 사이를 그대로 통과해 버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는 없다. 곰팡이 같은 아주 작은 미립자를 제거하려면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공기청정기여야 가능하다.  <br/> <br/>3. 헤파필터를 쓴 공기청정기는 여과성능이 99.7%다?  <br/> <br/>미국자원부에 의해 정의된 헤파필터 성능기준은 직경 0.3µm 크기의 공기중의 미립자를 99.97% 여과하는 것이다. 문제는 진짜(의학적 헤파)와 가짜(헤파타입)가 있다는 것.   <br/> <br/>진짜 헤파시스템은 전체 시스템 효율성이 0.3미크론의 입자를 99.97% 이상 여과한다. 하지만 “헤파타입”은 필터 자체의 효율은 높지만 전체시스템의 여과효율은 훨씬 낮아서 99.9%가 아니라 50% 정도 밖에 안 된다. <br/>  <br/>입자들이 필터 옆으로 빠져 나오거나 또는 장치가 밀폐되어 있지 않아서 입자들이 주위를 우회하여 빠져 나오기 때문이다. 의료용 공기청정기는 입자들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밀폐장치를 갖추고 있다.  <br/> <br/>4. 헤파필터는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 <br/> <br/>헤파필터는 오히려 바이러스의 번식처가 될 수도 있다. 필터에 습기가 쌓일 때,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균류는 생존 및 알을 품거나 증식에 좋은 기회를 갖는다.  <br/>필터를 제때에 바꾸지 않으면 미생물은 필터를 통해서 번식하거나 필터를 바꿀 때 공기중으로 퍼진다. 또한 헤파필터는 공기중의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및 균류를 죽이지 못한다.  <br/> <br/>그래서 의학적으로 사용되는 헤파필터 시스템은 필터에 살아있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 자외선기기와 결합한다. 병원 무균실에서 사용하는 일부 의료용 공기청정기는 미생물을 죽이는 멸균장치를 갖추고 있다.  <br/> <br/>5. 공기청정기는 소음이 작은 제품이 좋다?  <br/> <br/>요즘 나오는 공기청정기들은 조용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조용한 공기청정기는 여과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주 조밀한 필터가 있다면 그 필터를 통하여 공기를 밀어 보낼 수 있는 강한 모터와 송풍기가 필요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음을 낳는다.  <br/> <br/>대부분의 제조업자들은 저속이나 중간 속도에서 아무런 공기도 밀어 넣지 않으며 오로지 조용한 것만 강조하고 있다. 진짜 헤파 시스템은 고속에서 0.3 미크론에 99.97% 효율성을 갖고 청정한 공기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제트기가 이륙할 때와 같은 소리가 난다.  <br/> <br/>6. 진공청소기의 헤파필터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br/> <br/>많은 진공청소기들이 헤파필터를 사용하고 있고 알레르기와 천식을 일으키는 미세입자(꽃가루와 집먼지진드기의 배설물과 같은)를 잡아준다고 광고한다. <br/>진공청소기에 있는 헤파필터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빨아들인 공기가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필터를 통해 방출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br/>  <br/>헤파필터는 있으나, 모든 공기가 반드시 필터를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HEPA같은" 이라며 시장에 내놓은 진공청소기 필터는 일반적으로 HEPA와 비슷한 구조를 갖는 필터를 사용하지만 여과 효과는 거의 없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50.txt

제목: “암환자에 문턱 낮춘 ‘힐링’ 병원 만들 것”  
날짜: 201404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510014010720  
본문: “<span class='quot0'>모든 환자를 ‘빽’ 있는 환자처럼 대하겠습니다.</span>” <br/> <br/>이철(65·사진) 연세대 의료원장이 암 환자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연세암병원 개원에 맞춰 ‘환자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15일 진료를 시작한 연세암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운영 방향을 밝혔다. <br/> <br/>“암 환자들은 병원에 가기 전 아는 사람한테 꼭 부탁을 합니다. 소위 ‘빽’이 있는 환자라야 의료진이 특별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여기는 탓이죠.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최대한 환자 입장에 서기로 했습니다.” <br/> <br/>연세암병원은 기존 세브란스병원 암센터를 별개의 병원으로 독립시켜 만들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곁에 연면적 10만5000㎡(약 3만2000평)의 새 건물을 지었다. 지상 15층, 지하 7층, 510병상 규모를 자랑한다. <br/> <br/>“최첨단 건물과 시설이 행여 암 환자들에게 ‘쉽게 가기 힘든 곳’이란 인상을 줄까봐 많이 염려했습니다. 비록 의료진과 시설은 최고, 최첨단이지만 환자의 사회적 지위나 소득, 국적, 연령 등 그 어떤 문턱이나 장애도 없는 병원이 목표입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51.txt

제목: "심한 코골이, 뇌졸중·암 위험 높아"  
날짜: 201404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5100000170  
본문: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뇌졸중과 암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란 수면 중 코를 심하게 골면서 간헐적으로 호흡이 끊기는 현상을 말한다.호주 시드니 대학의 너새니얼 마셜 박사는 보통 내지는 심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뇌졸중과 암 위험을 각각 4배, 2.5배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15일 보도했다.암과 뇌졸중 병력이 없는 성인 397명을 대상으로 20년에 걸쳐 진행한 조사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마셜 박사는 말했다.심한 코골이 그룹은 또 사망위험도 4.2배 높게 나타났다. 암으로 인한 사망위험은 3.4배 높았다.이 결과는 체중,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등 다른 위험요인들을 고려한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수면의학학회 학술지 '임상 수면의학 저널'(Journal of Clinical Sleep Medicine) 최신호(4월15일자)에 실렸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52.txt

제목: 고대안암병원, 17일 '유방암 환자 운동 요법' 주제로 건강 강좌 열어  
날짜: 20140415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510014004453  
본문: 고대안암병원(원장 김영훈)은 17일 오후 2시 8층 중회의실에서 ‘유방암 환자를 위한 운동 요법’을 주제로 건강 강좌를 연다. 스포츠의학센터 이진혁 운동처방사의 강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암 환자와 가족, 기타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무료 (02) 920-6569, 6670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53.txt

제목: ‘코리아 인술’ 우수성에 세계가 감동하다  
날짜: 201404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510014010719  
본문: 오랫동안 서양의학의 변방으로 인식됐던 대한민국. 하지만 ‘한류 메디컬 벨트’라는 말이 생길 만큼 현재는 세계 곳곳에 명성을 떨치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 ‘코리안 닥터’들이 있다. 500회를 맞은 KBS1 ‘생로병사의 비밀’은 16일 밤 10시 미국,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에티오피아, 일본, 몽골 등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의사들의 대활약을 담은 ‘코리안 닥터스, 세계중심에 서다’를 방송한다. <br/> <br/>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찾은 코리안 닥터는 외과의사 이승규. 4살이던 1955년 협착성 심낭염으로 죽을 고비를 맞았다가 일본에서 극적인 수술을 받고 살아났던 그는 이제 성인이 돼 최초 간이식 수술 4000회 집도, 성공률 96%의 대기록을 세운 외과의사가 됐다. 세계 최초 2대1 간이식 성공, 세계 최초 변형 우엽 간이식 성공 신화를 쌓은 이승규 박사가 담낭 장애로 죽음의 문턱에 선 4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몽골로 향한 여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br/> <br/>두 번째로 만난 의사는 홍완기 박사. 1980년대만 해도 후두암에 걸렸을 경우, 후두 전체와 성대를 절제해 환자들은 모두 목소리를 잃었다. 하지만 홍 박사의 항암화학요법이 개발되면서 수많은 환자들이 수술 없이 종양제거뿐 아니라 목소리까지 보존할 수 있게 됐다. 1970년 보릿고개 시절에 미국으로 건너간 가난한 나라의 청년이었다가 이제 MD 앤더슨 암 내과 총괄이 된 그를 통해 한국인 의사의 저력을 확인해본다. <br/> <br/>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홍완기 박사. 후두암 치료에 획기적인 그의 항암화학요법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목소리를 보존하면서 종양제거를 할 수 있게 됐다.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은 암 치료 10년간의 변화, 그 중심에 선 노동영 교수를 만나본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유방암에 걸리면 환자들의 가슴 전체를 절제했다. 하지만 노 교수가 ‘림프절 생검술’의 안전성을 입증하며 유방암 환자들이 가슴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 한국 유방암 치료 그 10년간의 변화, 그 이면에 남아 있는 외과의사 노동영의 노력을 조명해본다. <br/> <br/>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54.txt

제목: 국제성모병원, 23일 '두경부암의 이해와 치료' 주제 강좌 열어  
날짜: 20140415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510014007344  
본문: 국제성모병원(원장 천명훈)은 두경부암의 조기 발견과 예방법을 널리 알리고 두경부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23일 오후 2시 마리아홀 대강당에서 두경부암 무료 검진 및 공개 강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두경부암의 이해와 치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이비인후과 홍현준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김용호 교수가 강사로 나서 두경부암의 원인과 치료법, 예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어 3시부터는 두경부암에 대한 무료 검진을 시행한다. <br/> <br/>코와 목, 구강, 혀, 침샘, 갑상샘에서 발생하는 두경부암은 발생 부위가 얼굴과 목이니만큼 치료가 상당히 까다롭다. 암 병변 부위를 절제하기가 쉽지 않고, 치료를 하는 동안에도 손상된 외모로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완치율이 상당히 높은 암이기도 하다. <br/> <br/>국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홍현준 과장은 “<span class='quot0'>두경부암은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자가 검진을 통하여 미리 확인과 관리가 가능한 질병</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번 강좌 및 검진을 통해 건강한 귀와 목, 코와 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웠으면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강좌는 당일 현장에서 접수해 참관할 수 있다. 두경부암 무료 검진은 선착순 50명에 한해 진행한다. 무료 검진은 사전 접수도 가능하다. (032)290-3052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55.txt

제목: 조성모, '소풍'에 폐암 투병 모녀 초대…감동적  
날짜: 20140415  
기자: 최정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5100000176  
본문: 미성의 아이콘 조성모가 자신의 컴백 무대에 암 투병 중인 팬을 초대한 감동 사연이 공개됐다. 조성모는 14일 오후 경기도 장흥역에서 진행된 MBC뮤직 ‘피크닉라이브 소풍’ 녹화에 참여해 4년 만에 발표한 신곡 ‘유나야’의 컴백 무대는 물론 ‘아시나요’ '너의 곁으로‘ 등 그 동안의 히트곡을 열창하며 1시간 동안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선보였다. 조성모의 방송 컴백 무대이기도 한 이번 ‘소풍’ 녹화에는 ‘조성모의 사연 남녀’라는 사전 이벤트를 통해 ‘조성모’의 노래와 관련된 특별한 사연이나 잊지 못할 추억이 있는 시청자 30명을 선발해 녹화에 참여했다. 녹화 현장에서는 조성모의 콘서트가 인연이 되어 결혼 하게 된 커플과 조성모 모창으로 가수 준비를 하다 연인이 된 커플 등 조성모 덕분에 사랑을 이루게 된 커플들의 달콤한 사연이 이어졌고 조성모는 관객들의 사연에 즉석에서 ‘투 헤븐’, ‘편지’ 등을 들려주며 관객들에 화답했다. 그러던 중 녹화 말미에 몇 년 전부터 갑상선암, 자궁암 등을 이겨냈으나 최근 폐암 판정을 받으며 투병중인 어머니를 응원하는 딸의 사연과 함께 현장을 찾은 한 모녀 관객이 소개됐다.데뷔 때부터 조성모의 오랜 팬인 어머니가 힘겨운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조성모의 콘서트를 꼭 가고 싶어 한다는 사연을 딸이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이 사연을 접한 조성모가 ‘소풍’ 제작진에 직접 요청해 어머니와 딸을 현장으로 초대한 것. ‘소풍’ 제작진은 “조성모는 다음 달에 자신의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투병 중인 팬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와 규모가 큰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콘서트라 자신과 가까이에서 함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소규모의 관객 바로 앞에서 공연하게 되는 ‘소풍’ 녹화에 꼭 모녀 팬을 초대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다 전했다.현장에서 직접 사연을 소개한 조성모는 힘든 건강상태에도 대구에서 올라온 모녀 관객에게 감사함을 표했고, “항상 많이 웃으시고 꼭 쾌차하셔서 오랫동안 뵙고 싶다”라고 말하며 “저도 쾌차하시도록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조성모와 특별한 사연을 가진 관객들이 함께 하는 조성모의 방송 컴백 무대는 오는 4월 24일 오후 6시 MBC뮤직 ‘피크닉라이브 소풍’에서 만나볼 수 있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56.txt

제목: [재테크 특집] 한화생명  
날짜: 201404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510014010248  
본문: 한화생명이 은퇴(60세) 전 가장의 소득 상실에 대비한 종신보험 ‘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소득보장체증형)’을 이달부터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보험은 기존 종신보험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사고 발생까지 최초 월급여금을 매년 5%씩 늘려서 보장금액을 최대한 보장한다. <br/> <br/>한화생명의 ‘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은 총 가입금액의 2%를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늘려, 고객이 60세 전에 사망하거나 80% 이상 장해를 입으면 증가한 월급여금을 60세까지 매달 지급한다. 월급여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사망 시 가입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br/> <br/> 한화생명은 은퇴 전 가장의 소득 상실에 대비한 종신보험 ‘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소득보장체증형)’을 판매 중이다. <br/>한화생명 제공‘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은 종신보험이지만, 중대 질병(CI) 보험료납입면제특약 가입으로 암·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등 CI 진단 시에도 납입면제 혜택이 가능토록 했다. <br/> <br/>또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면,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45세 이후에는 연금전환 기능을 통해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미성년 자녀의 보험금 수령권 보장을 위해 양육자금전환특약도 탑재했다. <br/> <br/>이귀전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57.txt

제목: 중앙대병원, 17일 폐암 주제로 건강 강좌 열어  
날짜: 20140414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410013994111  
본문: 중앙대병원(원장 김성덕)은 17일 오후 2시 중앙관 4층 강의실에서 ‘폐암, 알고 싶어요!’란 주제로 건강 강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br/> <br/>폐암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로 알려진 암 중에서도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이다. 2012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남성은 폐암·간암·위암, 여성은 폐암·위암·대장암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br/> <br/>특히 폐암은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상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환자 대부분은 암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까닭에 발견이 늦은 편이다. 그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앙대병원 종양협진클리닉에서 이 분야 전문 교수들이 폐암의 최신 치료법과 협진에 의한 치료법 등을 강의한다. <br/> <br/>이번 강좌는 ▲폐암의 초기 증상과 내과적 진단(호흡기알레르기내과 신종욱 교수) ▲폐암의 수술치료(흉부외과 최주원 교수) ▲방사선 치료(방사선종양학과 최진화 교수) ▲항암화학요법(혈액종양내과 장정순 교수) 등으로 이뤄진다. 별도의 사전 접수 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02)6299-2219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58.txt

제목: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전립선암 로봇수술 100례  
날짜: 20140414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410013994108  
본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학원장 이수용)은 지난 11일 전립선암 로봇수술 100례를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br/> <br/>동남권원자력의학원 로봇수술센터는 2011년 4월 처음 로봇수술을 적용한 이래 3년 만에 전립선암 100례를 달성했다. <br/> <br/>100번째 수술을 받은 이모(74)씨는 “<span class='quot0'>전립선암 2기 판정을 받은 뒤 로봇수술 경험이 많은 선생님을 찾아왔는데 ‘수술 후 회복도 빠르고 부작용이 적다’는 말씀을 듣고 로봇수술을 선택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수술 다음날부터 바로 걸어다닐 정도로 회복속도가 빠른 것 같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완 로봇수술센터장은 “<span class='quot1'>로봇수술은 수술자의 손 움직임대로 540도 이상 회전하는 로봇관절이 있어 자유로운 손놀림이 가능하며, 3차원 입체영상으로 복강 내 장기들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span>”고 밝혔다. <br/> <br/>로봇수술은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전립선이나 대장, 직장과 같이 작고 좁아 수술이 까다로운 부위의 암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정교한 수술이 요구될수록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br/> <br/>그러나 로봇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로봇수술이 개복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에 비해 고가이기 때문에 굳이 로봇수술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br/> <br/>이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세계 유수의 전립선암 논문 38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립선암 로봇수술은 개복·복강경 수술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방광 목 부위가 수축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복강경 수술의 40%, 주변 장기 손상 위험은 23%에 불과했다. 특히 성기능 회복률이 복강경 수술보다 1.39배 높았다.  <br/> <br/>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59.txt

제목: 배수빈·이윤지의 '그런 사랑', 이런 게 진짜 연기다  
날짜: 201404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4100000040  
본문: ‘그런 사랑’은 상처가 있기에 더욱 아름다웠고 빛이 났다.지난 13일 방송된 KBS 2TV 드라마스페셜 단막 2014 ‘그런 사랑’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무기수 진욱(배수빈)과 매 맺는 아내 연수(이윤지)가 현실을 뛰어넘어 사랑을 시작하고 행복해가는 과정을 애틋하게 그려냈다. 교도소 안에서 살인을 저지른 무기수와 죄수들의 교화를 돕는 봉사자로 인연을 시작한 진욱과 연수. 벗어나고 싶은 현실 속에서 진욱을 통해 세상 유일한 내편을 만난 듯 행복했던 연수는 언제부턴가 진욱을 만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진욱 또한 낯설고 귀찮기만 한 존재였던 연수에게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말기암 때문에 시한부를 선고받고 가출소 형식으로 풀려난 진욱. 잔뜩 긴장한 얼굴로 연수 앞에 섰지만 연수의 왠지 모를 냉대에 적잖이 실망했다. 그러나 그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오며 눈물마저 메말라버린 연수의 감옥 보다 못한 현실을 목격하고 설움을 토해냈다. 두 사람은 애처로운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한 번 서로의 상처를 보듬기 시작했다. 죽음을 앞둔 진욱이었지만 연수와 함께이기에 더없이 행복했고, 연수는 진욱을 통해 다시 찾아온 희망의 나날들을 보내게 됐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기에 시청자들은 두 사람의 모습에 애틋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다. 확 트인 봄 바다를 마주하고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붙어 앉은 두 사람. 엔딩씬에서 연수가 눈물을 흘리며 부른 심수봉의 ‘사랑 밖에 난 몰라’는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터뜨렸다. 무엇보다 방송 전부터 배우들의 연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작품보다 높았던 ‘그런 사랑’. 배수빈과 이윤지는 서로를 통해 상처를 극복해가는 두 남녀의 감정을 세밀하게 그려내며 전작과 다른 연기 변신을 시도했고 흠잡을 데 없이 ‘살아 있는’ 연기는 진욱과 연수를 완벽히 그려냈다는 평가를 이끌어 냈다. 한편, 오는 20일 밤 11시55분에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휴스턴 국제 영화제에서 TV 부문 대상을 수상한 특집드라마 ‘고마워 웃게 해줘서’가 방송된다.윤기백 기자 giback@sportsworldi.com사진=방송화면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60.txt

제목: 공룡기업 vs 건보공단… 537억 담배소송 점화  
날짜: 201404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410013999713  
본문: 연매출 2조원이 넘는 ‘공룡’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공공기관의 첫 담배소송이 시작됐다. 법원이 암과 흡연의 인과성을 놓고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실패로 끝난 4차례의 개인 소송과 달리 이번에는 공공기관이 소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br/> <br/>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의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흡연과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했고, 흡연기간이 30년을 넘는 환자 3484명에게 건보공단이 2003∼2012년 10년간 부담한 진료비를 토대로 결정됐다. <br/> <br/> 안선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오른쪽)와 정미화 남산 대표변호사가 14일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br/>김범준 기자건보공단은 “담배는 극도로 유해하고 중독성이 있어 안전성이 결여된 제조물로서 결함이 있다”며 “담배회사는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흡연자를 포함한 일반 대중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 근거로 국내 연구자료와 미국 담배소송 결과 등을 적시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15년 만에 개인 패소로 끝난 담배소송에서 대법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와 ‘담배 설계·제조상의 결함’ 등 쟁점에 대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도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 ‘설계상의 결함’, ‘첨가물을 통한 유해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br/> <br/>안선영 건보공단 사내 변호사는 “<span class='quot0'>빅 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 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 등을 입증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이에 대해 KT&G 등이 소속된 한국담배협회는 “<span class='quot1'>건보공단이 승소 가능성이 작은데도 큰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소송이 제기된 만큼 법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br/>조병욱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61.txt

제목: 국내외 담배사 3곳에 537억 '흡연피해소송'…소송과정서 가액 늘려나갈 것  
날짜: 201404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4100000171  
본문: 세계일보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14일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를 상대로 54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건강보험공단은 이날 “<span class='quot0'>소송 대리인(법무법인)이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span>”며 “소송가액은 537억원으로, 소송 과정에서 가액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같은 소송 규모는 흡연과의 인과성이 큰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했고, 흡연기간이 30년을 넘는 사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2003~2012년 사이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건강보험공단과 소송 대리인은 피해액 추산을 위해 이들 환자의 일반검진자료·국암환자 등록자료(국립암센터)·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특정인구집단) 자료 등을 연계하여 분석했다.당초 건강보험공단측은 최대 2300억원대의 소송가액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승소 가능성·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자문위원과 사내외 변호사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송 규모를 낮췄다.이번 소송의 외부 대리인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모를 거쳐 법무법인 남산(대표변호사 정미화)이 선임됐다. 이들은 공단 내부 안선영·임현정·전성주변호사와 함께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 담배 소송을 본격 진행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국내외 전문가 자문,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온라인 뉴스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62.txt

제목: 건보공단, 국내외 담배사 3곳에 537억 '흡연피해소송'  
날짜: 201404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4100000421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14일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등 국내외 3개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약 54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소송 대리인(법무법인)이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소송가액은 537억원으로, 소송 과정에서 가액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같은 소송 규모는 흡연과의 인과성이 큰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했고, 흡연기간이 30년을 넘는 사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2003~2012년 사이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건강보험공단과 소송 대리인은 피해액 추산을 위해 이들 환자의 일반검진자료·국암환자 등록자료(국립암센터)·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특정인구집단) 자료 등을 연계, 분석했다. 당초 건강보험공단측은 최대 2300억원대의 소송가액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승소 가능성·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자문위원과 사내외 변호사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송 규모를 낮췄다.이번 소송의 외부 대리인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모를 거쳐 법무법인 남산(대표변호사 정미화)이 선임됐다. 남산은 지금까지 흡연자 30명이 담배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소송에서도 대리인을 맡았지만, 이 개인 '담배소송'은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미화 변호사 등은 앞으로 공단 내부 안선영·임현정·전성주 변호사와 함께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 담배 소송을 본격 진행하게 된다. 이번 소송을 맡는 법무법인은 착수금으로 1억3790만원을 먼저 받고, 승소율 40% 이상일 경우 성공보수로 2억758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를 포함, 소송 관련 비용은 모두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마련된다. 안선영 건강보험공단 사내 변호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는 "(개인 담배소송의 경우) 피고 KT&G가 자료 공개를 꺼려 증거를 통한 인과관계 입증에 한계를 느낀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건보공단의 소송 대상에는 이미 해외 담배소송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공개한 필립모리스·BAT가 포함돼있고, 흡연 피해자들에 대한 건보공단의 의학적 자료도 많아 개인사건과는 달리 승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회장 신민형)는 “<span class='quot2'>건보공단은 묻지마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span>”는 제목으로 “<span class='quot2'>국민과 1000만 흡연자를 위한 정직하고 투명한 담배정책을 펼쳐야 한다</span>”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63.txt

제목: 빅데이터로 무장한 건강보험, 담배회사 상대로 537억원 소송 제기  
날짜: 20140414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410013994113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마침내 담배소송을 제기했다. <br/> <br/>14일 건보공단은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1차로 537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br/> <br/>건강보험공단측은 이날 "소송 대리인(법무법인)이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소송가액은 537억원으로, 소송 과정에서 가액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r/> <br/>담배소송을 맡을 건보공단 측 소송 대리인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공모를 거쳐 법무법인 남산이 결정됐다. <br/> <br/>소송가액 537억원은 2001~2010년 폐암·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가운데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특정인구집단) 분석 대상에도 포함됐고, 20년 이상 매일 한 갑이상 담배를 피웠거나 흡연량에 상관없이 30년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에 대한 진료비를 근거로 추산했다. <br/> <br/>앞서 대법원은 국내 첫 담배소송과 관련해 특정 세부암과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따질 수 없다며 흡연자측 패소를 확정한 바 있다. <br/> <br/>그러나 건보공단측은 방대한 양의 슈퍼데이터를 앞세워 흡연과 암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 승소할 수 있다며 담배소송에 나섰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64.txt

제목: [인터뷰] ‘방황하는 칼날’ 정재영 “똑같은 아버지 연기 싫었다”  
날짜: 20140414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410013994096  
본문: 딸의 주검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떨구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은 아버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아버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끝없이 부정한다. <br/> <br/>지난 10일 개봉한 영화 ‘방황하는 칼날’(감독 이정호) 속 아버지 상현(정재영 분)의 이야기다. 일본의 미스터리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의 동명 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이 영화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살인자가 되는 비극적 상황을 담고 있다. <br/> <br/>‘방황하는 칼날’은 배우에게 있어 어려운 과제와도 같은 작품이었을 것이다. 극 중 주인공 상현 역을 연기한 정재영은 1996년 연극으로 데뷔한 이래 19년간 수많은 배역을 소화해왔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를 연기하는 것만큼은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br/> <br/>이번 작품에서 절절한 부정(父情)과 함께 살인자 연기를 동시에 선보여야 했던 그는 인터뷰에서 작품을 찍는 내내 상현이 답답하고 무겁게만 보이지 않을까 고민했다고 말했다. <br/> <br/>“처음엔 비상업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통쾌한 복수극은 아니니까. 이야기 자체가 워낙 무거워서 관객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가 좋아서 출연하게 됐죠. 사실 배우 입장에서 흥행이 되고, 안 되고는 그냥 막연한 생각일 뿐이거든요. 이야기가 끌리는 게 가장 우선이죠.” <br/> <br/>‘방황하는 칼날’이라는 제목부터가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한다. 강렬하면서도 절로 궁금증을 자아내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나중에서야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이라는 얘기를 듣고 무릎을 ‘탁’ 쳤다는 그다. <br/> <br/>“사실 실화는 아닌데, 제목만 듣고 관심이 가는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인데 뇌리에 강하게 박혔어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을 본 건 일본 영화 ‘용의자X의 헌신’이 처음이었는데, 그때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사실적인 대사나 표현, 디테일이 탁월하더군요. 꼭 그의 작품이라서 출연한 건 아니지만, 이번 작품도 그런 충격이 좀 있었어요.” <br/> <br/>‘방황하는 칼날’은 2009년 일본에서 영화로 제작돼 적지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작품이기도 하다. 암으로 아내를 떠나보낸 뒤 딸 수진(이수빈 분)과 단둘이 살아가던 주인공 상현은 어느 날 수진이 또래의 남학생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하다 숨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오열한다. <br/> <br/>상상하는 것조차 끔찍한 상황. 더군다나 상현은 범인의 집에서 성폭행 당하는 딸의 영상을 목도하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채 살인을 저지른다. ‘살인이 과연 정당화 될 수 있는가’ ‘그가 죽인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등의 물음은 이 장면에서 무의미하게 다가온다. 아무리 입을 틀어막아도 새어나오는 눈물과 절규, 오열하는 정재영의 연기는 모든 관객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br/> <br/>“‘방황하는 칼날’과 비슷한 복수극은 늘 있어왔어요. 그래서 뭣보다 차별화된 아버지의 연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상현의 장면에서만큼은 관객들이 상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고자 했어요. 분명한 건 이 영화는 특전사 출신의 아버지가 등장하는 ‘테이큰’과는 다른 목적을 가진 영화라는 거예요. 정의란 게 과연 뭔지 우리 사회에 문제 제기를 하는 영화죠. 마지막 억관(이성민 분)의 대사가 영화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br/> <br/>하나의 사건을 여러 인물의 시점을 통해 바라보는 것도 ‘방황하는 칼날’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 중 하나다. 실제 두 아들의 아빠이기도 한 그는 “상현에 의해 살해된 아이들 부모의 심정도 이해가 가더라”며 씁쓸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br/> <br/>“딸을 잃은 아빠를 연기한 입장에서 피의자 학생 부모들이 참 독하고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영화를 보면서 ‘우리 아들이 죽었잖아요’라고 소리 지르는 부모를 보니 그것도 맞는 말 같더라고. 결국 이 영화는 상현이나, 피의자이면서 피해자가 된 학생들의 부모나, 그리고 상현을 쫓는 형사 억관이나 모든 인물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거리를 주고 공감을 자아낸다는 게 큰 매력인 거죠.” <br/> <br/>요즘 충무로에서 정재영은 가장 잘 나가는 배우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9월 ‘우리 선희’(감독 홍사수)를 필두로 11월 ‘열한시’(감독 김현석), 1월 ‘플랜맨’(감독 성시흡), 현재 상영 중인 ‘플랜맨’, 그리고 오는 30일 개봉을 앞둔 ‘역린’(감독 이재규)까지 두세 달이 멀다 하고 출연작을 속속 개봉시키고 있다. <br/> <br/>영화 촬영기간과 개봉일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니 정재영이 철저히 ‘개봉 플랜’(?)을 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그가 충무로 관계자들의 러브콜을 많이 받는다는 점 만큼은 부인하기 어렵다. <br/> <br/>“가장 걱정인 건, 배우가 스크린에서 ‘인물’ 자체로 보여야 하는데 ‘다작’이 그걸 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배우로서 신비감을 계속 안고 간다는 건 욕심이지만, 적어도 관객들이 저를 보며 역할에 몰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능프로그램에 나가서 저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게 혹시나 작품에 해가 될까봐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연기자라는 걸 일찍부터 알아서인지 제 작품을 봐도 오롯이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웃음) 그런 조금 우려스럽단 거죠.” <br/> <br/>하지만 그의 열연 덕분일까. ‘방황하는 칼날’의 상현과 ‘플랜맨’의 정석이 행여나 동일인물로 보일 걱정은 접어둬도 좋을 듯 보인다. 아버지로서의 진심이 가슴을 울리는 영화 ‘방황하는 칼날’은 극장가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br/>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65.txt

제목: 젊은 여성 암환자 임신 확률 높아진다  
날짜: 201404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310013990383  
본문: 젊은 여성이 암에 걸리면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기가 쉽지 않다. 항암치료 탓에 난소의 세포 활동이 손상돼 임신 확률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 암 치료를 받은 여성 환자는 폐경과 불임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곤 했다. <br/> <br/>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동결 등을 통해 가임기 여성의 난자를 건강한 상태로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난자나 배아를 동결하는 방법은 실패할 경우 대체할 난자·배아가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가장 확실한 건 난자를 생산하는 난소 조직 전체를 동결하고 해동하는 방법인데, 이는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동안 활발히 시도하지 못했다. <br/> <br/>분당서울대병원은 이 병원 산부인과 가임력보존클리닉 서창석·이정렬 교수팀이 난소 조직 동결의 새로운 최적화 방법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방법은 젊은 여성 암 환자의 난소 조직을 동결해 보관할 때 난소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br/> <br/>연구팀은 먼저 생쥐의 난소 조직을 대상으로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다. 동결한 난소 조직을 해동 후 다시 쥐의 신장 조직에 이식하거나 조직 그대로 시험관에서 배양함으로써 난자의 성숙도와 호르몬 기능 회복을 관찰했다. 연구팀은 이식 후 생존율 면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인 동결 방법을 근거로 최적화된 난소 조직 동결법을 찾아냈다. <br/> <br/>서·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 결과는 난소 조직 동결의 성공률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임상 적용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암을 치료하면서 임신 능력도 함께 보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의 삶의 질 증진은 물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span>”이라고 말했다. 두 교수의 연구 결과는 보조생식 분야의 세계적 저널인 ‘인간생식(Human Reproduction)’ 4월호에 실릴 예정이다. <br/> <br/>김태훈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66.txt

제목: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전립선암 로봇수술에 100례  
날짜: 201404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3100000136  
본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학원장 이수용)이 4월 11일 전립선암 로봇수술 100례를 돌파했다.동남권원자력의학원 로봇수술센터는 2011년 4월 처음 로봇수술을 적용한 이래 3년 만에 전립선암 100례를 달성했다. 100번째 수술을 받은 이모(74)씨는 “전립선암 2기 판정을 받고 이 분야에서 로봇 수술 경험이 많은 선생님을 찾아왔다. 수술 후 회복도 빠르고 부작용이 덜하다고 해서 로봇수술을 선택했다. 첫날인데도 크게 아프지 않고 내일이면 걸어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이완 로봇수술센터장은 “로봇수술은 수술자의 손 움직임대로 540도 이상 회전하는 로봇관절이 있어 자유로운 손놀림이 가능하며, 3차원 입체영상으로 복강 내 장기들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술 후 회복과 기능보존 등에서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로봇수술은 이러한 장점 때문에 전립선이나 대장, 직장과 같이 작고 좁아 수술이 까다로운 부위의 암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정교한 수술이 요구될수록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한편, 로봇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많다. 로봇수술이 개복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에 비해 고가이기 때문에, 굳이 로봇수술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이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세계 유수의 전립선암 논문 38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립선암 로봇수술은 개복·복강경 수술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광 목 부위가 수축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복강경 수술의 40%, 주변 장기 손상 위험은 23%에 불과했다. 특히 성기능 회복률이 복강경 수술보다 1.39배 높았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로봇수술의 장점(1)회복속도가 개복수술에 비해 빠르다.(2)통증, 출혈이 개복수술에 비해 적다.(3)상처감염의 위험성이 개복수술에 비해 감소한다.(4)수술 후 회복이 개복수술에 비해 빠르다.(5)로봇수술은 복강경 수술에 비해 신경손상이 작고, 주변조직 손상이 작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67.txt

제목: 암치료, 미국까지 갈 필요 없다  
날짜: 20140412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210013985311  
본문: 세계적인 암 권위자로 알려진 김의신 박사가 최근 삼성동 소람한방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위해 강연을 진행했다. <br/> <br/>김 박사는 미국 텍사스 대학교 MD엔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종신교수로 재직하고 ‘미국 최고의 의사’로 수 차례 선정되었던 인물로 알려졌다. <br/> <br/>이날 강연에서 김 박사는 수십 년간 공부하고 경험한 암 치료와 암환자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br/> <br/>김 박사는 “<span class='quot0'>미국인은 암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우는 사람이 없다</span>”· “<span class='quot0'>여성적인 사람이 전립선에 걸리는 걸 본적이 없다</span>” “<span class='quot0'>한국 장비와 의료진도 훌륭하기 때문에 암 치료를 위해 굳이 미국까지 갈 필요 없다</span>”고 말했다. <br/> <br/>소람한방병원 내원 환자 및 보호자들은 강의가 끝난 뒤 질의 응답 시간에 환자 본인들의 고민을 상담하기도 했다. <br/> <br/>김 박사는 이 날 약침, 쑥뜸 등의 면역요법을 통해 암환자를 진료하는 소람한방병원을 방문, 의료진의 진료 시스템을 둘러 보았다. <br/> <br/>소람한방병원 성신 병원장은 “<span class='quot1'>미국· 유럽에서는 이미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병행하는 통합의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span>”며 ”국내에서도 치료율 향상·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통합적인 시각으로 환자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68.txt

제목: 상근이 암 투병 중 숨져… 과거 방송 모습 아련해  
날짜: 2014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2100000200  
본문:  국민견 상근이가 사망한 가운데 과거 방송 출연 장면이 화제다. 상근이는 지난 2004년 4월 16일에 태어난 그레이트 피레니즈 종으로 KBS2 '해피선데이-1박2일'에 출연하며 '국민견공'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당시 상근이는 은지원과 장난을 치고 슬레이트를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지난 11일 상근이의 주인인 이웅종 이삭애견훈련소 소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날 상근이의 사망소식을 알리고 "사랑하는 상근이에게, 옆에 있어주어서 고맙고 행복했다. 편안하게 쉬렴"이라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상근이는 2011년 4월 방송 활동을 중단, 소장의 자택에서 노후를 보내던 중 암 투병으로 숨을 거뒀다.누리꾼들은 “상근이 슬프다” “상근아 잘 살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뉴스팀사진=KBS 2TV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69.txt

제목: 상근이가 앓았던 비만세포종은 어떤 암?  
날짜: 2014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2100000194  
본문: 국민 애완견 상근이가 숨을 거뒀다. 상근이는 지난 11 오후 1시께 자택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괴사성 비만세포종(mast cell tumor)을 앓고 있던 상근이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었다고 알려졌다.상근이가 앓았던 괴사성 비만세포종(mast cell tumor)은 결합조직에 존재하는 비만세포의 악성증식이다. 이 병은 비만과는 상관없는 병으로, 개와 고양이에서 발병하는 부스럼이 산발성을 띄는 질환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스럼인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악성종양이라고 판정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상근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상근이 안타깝네” “상근이 암이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뉴스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70.txt

제목: 상근이, 살아생전 이웅종 소장과 행복했던 그때  
날짜: 2014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2100000206  
본문: 상근이가 세상을 떠났다.동물과 사람 측은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 국민의 애견 상근이가 암으로 투병 중 11일 오후 1시 경 자택에서 죽음을 맞았다"고 밝혔다.이어 이날 상근이의 주인인 이웅종 이삭애견훈련소 소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날 상근이의 사망소식을 알리고 "사랑하는 상근이에게 옆에 있어주어서 고맙고 행복했다. 편안하게 쉬렴"이라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이에 상근이에게 과자를 주던 이웅종 소장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누리꾼들은 “상근이 안타깝네” “상근이 잘 가라” “상근이한테 악플 달지 마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뉴스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71.txt

제목: 상근이 사망, 누리꾼 애도물결 이어져…  
날짜: 2014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2100000183  
본문: 국민 애견 상근이의 사망소식에 애도물결이 이어지고 있다.11일 동물과 사람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 국민 애견 상근이가 암으로 투병 중 오늘 오후 1시 경 자택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다”며 “현재 이웅종 교수와 주변 관계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상근이 곁을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근이 사망, 행복과 기쁨을 주어 고맙다” “상근이 사망, 고통 없이 잘 살아라” “상근이 사망,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뉴스팀사진=동물과 사람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72.txt

제목: 상근이 사망… "14일부터 일반인 대상 애도 장소 마련"  
날짜: 2014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2100000023  
본문: ‘국민견’ 상근이의 사망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지난 11일 동물과 사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span class='quot0'>온 국민의 애견 상근이가 암으로 투병 중 11일 오후 1시 경 자택에서 죽음을 맞았다</span>”고 밝혔다. 상근이의 병명은 ‘괴사성 비만세포종’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이삭애견훈련소의 이웅종 교수와 주변 관계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상근이 곁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과 사람 측 관계자는 “<span class='quot1'>14일부터 상근이의 애도 장소를 마련하오니 바쁘신 와중에 애도를 부탁드린다</span>”고 덧붙였다.상근이 사망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근이 사망, 믿을 수 없어" "상근이 사망, 좋은 곳으로 가기를" "상근이 사망, 1박2일에서도 조문 가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상근이는 KBS 2TV ‘1박2일’에 출연하며 국민견으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스포츠월드 연예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73.txt

제목: 상근이 사망, 이제 화장터로 이동… 누리꾼들 깊은 애도  
날짜: 2014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2100000110  
본문: ‘국민견’ 상근이가 오늘(12일) 11시 화장장을 치른다. 온라인에는 상근이를 추억하며 애도물결이 한창이다.동물과 사람은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span class='quot0'>온 국민의 애견 상근이가 암으로 투병 중 11일 오후 1시 경 자택에서 죽음을 맞았다</span>”고 밝혔다. 상근이의 병명은 ‘괴사성 비만세포종’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이삭애견훈련소의 이웅종 교수와 주변 관계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상근이 곁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근이는 KBS 2TV ‘1박2일’에 출연하며 국민견으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으며, 당시 ‘1박2일’의 인기를 견인차 했다.동물과 사람 측 관계자는 “<span class='quot1'>14일부터 상근이의 애도 장소를 마련하오니 바쁘신 와중에 애도를 부탁드린다</span>”고 덧붙였다. 장례식장은 12일 11시 김포 엔젤스톤(경기도 김포시 소재)에서 화장장으로 치러진다.상근이 사망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근이 사망, 믿을 수 없어" "상근이 사망, 좋은 곳으로 가기를" "상근이 사망, 1박2일에서도 조문 가려나" "좋은 곳으로 가거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스포츠월드 연예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74.txt

제목: 상근이 사망… 오늘 김포서 화장장으로 치러져  
날짜: 2014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2100000061  
본문: ‘국민견’ 상근이의 사망소식이 전해져 온라인을 중심으로 애도물결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11일 동물과 사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span class='quot0'>온 국민의 애견 상근이가 암으로 투병 중 11일 오후 1시 경 자택에서 죽음을 맞았다</span>”고 밝혔다. 상근이의 병명은 ‘괴사성 비만세포종’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이삭애견훈련소의 이웅종 교수와 주변 관계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상근이 곁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과 사람 측 관계자는 “<span class='quot1'>14일부터 상근이의 애도 장소를 마련하오니 바쁘신 와중에 애도를 부탁드린다</span>”고 덧붙였다. 장례식장은 12일 11시 김포 엔젤스톤(경기도 김포시 소재)에서 화장장으로 치러진다.상근이 사망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근이 사망, 믿을 수 없어" "상근이 사망, 좋은 곳으로 가기를" "상근이 사망, 1박2일에서도 조문 가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상근이는 KBS 2TV ‘1박2일’에 출연하며 국민견으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스포츠월드 연예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75.txt

제목: 상근이 사망… 오늘 오전 화장장 치른다  
날짜: 2014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2100000116  
본문: ‘국민견’ 상근이가 사망, 오늘(12일) 11시 화장장을 치른다.지난 11일 동물과 사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 국민의 애견 상근이가 암으로 투병 중 11일 오후 1시 경 자택에서 죽음을 맞았다”고 밝혔다. 상근이의 병명은 ‘괴사성 비만세포종’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이삭애견훈련소의 이웅종 교수와 주변 관계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상근이 곁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근이는 KBS 2TV ‘1박2일’에 출연하며 국민견으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으며, 당시 ‘1박2일’의 인기를 견인차 했다.동물과 사람 측 관계자는 “<span class='quot0'>14일부터 상근이의 애도 장소를 마련하오니 바쁘신 와중에 애도를 부탁드린다</span>”고 덧붙였다. 장례식장은 12일 11시 김포 엔젤스톤(경기도 김포시 소재)에서 화장장으로 치러진다.상근이 사망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근이 사망, 믿을 수 없어" "상근이 사망, 좋은 곳으로 가기를" "상근이 사망, 1박2일에서도 조문 가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스포츠월드 연예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76.txt

제목: 상근이 사망… "14일부터 상근이 애도 장소 마련"  
날짜: 2014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2100000035  
본문: ‘국민견’ 상근이의 사망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동물과 사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 국민의 애견 상근이가 암으로 투병 중 11일 오후 1시 경 자택에서 죽음을 맞았다”고 밝혔다. 상근이의 병명은 ‘괴사성 비만세포종’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이삭애견훈련소의 이웅종 교수와 주변 관계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상근이 곁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근이는 KBS 2TV ‘1박2일’에 출연하며 국민견으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으며, 당시 ‘1박2일’의 인기를 견인차 했다.동물과 사람 측 관계자는 “<span class='quot0'>14일부터 상근이의 애도 장소를 마련하오니 바쁘신 와중에 애도를 부탁드린다</span>”고 덧붙였다. 장례식장은 12일 11시 김포 엔젤스톤(경기도 김포시 소재)에서 화장장으로 치러진다.상근이 사망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근이 사망, 믿을 수 없어" "상근이 사망, 좋은 곳으로 가기를" "상근이 사망, 1박2일에서도 조문 가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스포츠월드 연예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77.txt

제목: 상근이 암투병으로 사망… '1박2일' 멤버들 조문올까?  
날짜: 2014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2100000062  
본문: ‘국민견’ 상근이의 사망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1박2일 팀이 조문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11일 동물과 사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span class='quot0'>온 국민의 애견 상근이가 암으로 투병 중 11일 오후 1시 경 자택에서 죽음을 맞았다</span>”고 밝혔다. 상근이의 병명은 ‘괴사성 비만세포종’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이삭애견훈련소의 이웅종 교수와 주변 관계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상근이 곁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과 사람 측 관계자는 “<span class='quot1'>14일부터 상근이의 애도 장소를 마련하오니 바쁘신 와중에 애도를 부탁드린다</span>”고 덧붙였다.한편, 상근이는 KBS 2TV ‘1박2일’에 출연하며 국민견으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또 ‘1박2일’도 상근이 효과를 톡톡히 보며 인기행진을 이어갔기 때문에, 상근이 조문 행렬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상근이 사망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근이 사망, 믿을 수 없어" "상근이 사망, 좋은 곳으로 가기를" "상근이 사망, 1박2일에서도 조문 가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스포츠월드 연예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78.txt

제목: 상근이 사망 소식에… 누리꾼들 "좋은 곳으로 가거라" 애도물결  
날짜: 2014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2100000126  
본문: ‘국민견’ 상근이의 사망소식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조의를 표하고 있다.지난 11일 동물과 사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span class='quot0'>온 국민의 애견 상근이가 암으로 투병 중 11일 오후 1시 경 자택에서 죽음을 맞았다</span>”고 밝혔다. 상근이의 병명은 ‘괴사성 비만세포종’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이삭애견훈련소의 이웅종 교수와 주변 관계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상근이 곁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과 사람 측 관계자는 “<span class='quot1'>14일부터 상근이의 애도 장소를 마련하오니 바쁘신 와중에 애도를 부탁드린다</span>”고 덧붙였다. 장례식장은 12일 11시 김포 엔젤스톤(경기도 김포시 소재)에서 화장장으로 치러진다.상근이 사망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SNS 등 공간을 통해 애도를 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상근이 사망, 믿을 수 없어" "상근이 사망, 좋은 곳으로 가기를" "상근이 사망, 1박2일에서도 조문 가려나" "좋은 곳으로 가거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상근이는 KBS 2TV ‘1박2일’에 출연하며 국민견으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으며, 당시 ‘1박2일’의 인기를 견인차 했다.스포츠월드 연예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79.txt

제목: 클라라, 상근이 사망에 애도… 유기견 돕기 행사로 맺은 연  
날짜: 2014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2100000164  
본문: 상근이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유기견 돕기 행사에 참여했던 ‘국민 견공’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동물과 사람은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span class='quot0'>온 국민의 애견 상근이가 암으로 투병 중 11일 오후 1시 경 자택에서 죽음을 맞았다</span>”고 밝혔다.’상근이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웅종 이삭애견훈련소장에 따르면 상근이는 최근 괴사성 비만세포종(mast cell tumor)이라는 진단을 받고 남몰래 투병생활을 해왔다.상근이의 사망 소식과 함께 눈길을 끄는 것은 상근이가 한 유기견 돕기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 상근이의 주인은 과거 가수 이효리, 아이돌그룹 비스트 등과 함께 유기견 돕기 행사인 '사랑의 스타애장품 기부경매 이벤트'에 상근이와 함께 참여, '1박2일' 촬영으로 전국을 누빌 때 쓰던 목줄과 생일파티에서 선물 받은 미니 인형을 내놓는 등 좋은 일에 동참한 바 있다.상근이 측 관계자는 당시 "상근이가 그동안 과분하게 받은 사랑을 이제는 돌려주고 싶다"라고 동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 당시 상근이 나이는 9살이었으며 외부행사는 힘겨웠던 만큼 건강유지에 힘을 썼던 상태였다고. 특히 지난 여름에는 유기견 돕기 화보촬영에 클라라와 함께 나서기도 했다. 이에 상근이와 함께 화보를 촬영했던 클라라는 12일 상근이 사망 소식을 접하자 깊은 애도를 표했다.상근이 사망 소식에 누리Rnesmf은 “상근이 사망 안타깝네” “<span class='quot2'>상근이 사망, 듬직한 게 보기 좋았는데 아쉬워</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뉴스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80.txt

제목: 김의신 박사, 소람한방병원 환자에 암 치료 조언  
날짜: 201404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1100000314  
본문: 세계적인 암 권위자라고 알려진 김의신 박사가 삼성동 소람한방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위해 강연을 실시했다.김 박사는 미국 텍사스 대학교 MD엔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종신교수로 재직하고 ‘미국 최고의 의사’로도 수 차례 선정된 바 있다.김 박사는 이날 약침, 쑥뜸 등의 면역요법을 통해 암환자를 진료하는 소람한방병원을 방문하여 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강연을 실시했다.특히 김 박사는 암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인식 차이, 암 환자들을 위한 음식 관리와 마음가짐 등 양한방 통합 암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조언했다.소람한방병원 성신 병원장은 “<span class='quot0'>미국, 유럽에서는 이미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병행하는 통합의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국내에서도 치료율 향상,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통합적인 시각으로 환자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한편 김 박사는 강연 후 소람한방병원 의료진의 진료 시스템을 둘러보았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81.txt

제목: 민병원, 조기위암 내시경 점막하박리술로 완치 가능  
날짜: 20140411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1100000115  
본문: 조기위암 치료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201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인구 10만명당 142.8명이 암으로 사망한다 발표했으며,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보면 남자는 3명 중 1명이, 여자는 4명중 1명이 암에 걸린다는 결론이다.이중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위암 발생율이 높은 나라로 연간 신규 위암환자 수는 약 3만여 명으로 갑상선암에 이어 두 번째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위암의 발생빈도는 남성에서는 1위이며, 여성은 3위로 알려져 있다.위암의 발생 빈도가 높다 보니 국내의 위암 진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위암 수술합병증 발생빈도는 10%, 수술사망률은 1% 내외로 과거에는 위암을 진단 받으면 전신마취 후에 개복수술을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했지만 최근 들어 조기 위암을 수술 없이 내시경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내시경점막하박리술’이 기존의 위암 치료법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내시경점막하박리술’은 위를 절제하지 않고 위내시경을 이용하는 시술로 전신마취 없이 수면내시경 상태에서 시행하는 방법이다. 내시경과 내시경용 전기칼을 이용해 병변을 직접 확인하면서 선택적으로 암이 있는 부분만 절개하는 고난도 치료내시경 시술이기에 국내에서는 대학병원 외에 민병원에서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술법이다.지금까지 내시경점막하박리술은 주로 대학병원에서만 시행될 정도로 고난도 내시경시술로 알려져 있었으나, 민병원에서 대학병원 교수 출신 치료내시경 전문 팀을 구성하면서 활발히 시행중에 있다.내시경점막하박리술의 장점은 위를 개복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아 흉터가 없고 회복시간이 빨라 시술 다음 날부터 식사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치료성적이 우수해 국내외 학술지에서 발표한 완전 절제율과 완치율이 모두 95% 이상으로 개복수술과 같은 수준으로 알려져 조기위암 환자의 경우 믿고 수술을 받을 수 있어 더욱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지정 외과전문 조원형, 복진현 원장은 “<span class='quot0'>내시경 역량은 대학교수때부터 국내외 치료내시경 라이브시연 및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조기위암과 조기대장암의 치료내시경수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유명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점막하박리술의 경우 의료비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원의 고가진료를 받지 않더라도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용하기에 좋다</span>”고 설명했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82.txt

제목: 차가버섯, 베타글루칸을 비롯한 유효성분 다량 함유  
날짜: 20140411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110013982612  
본문: 보완대체식품 전문기업 고려인삼공사는 천연 대체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차가버섯에 베타글루칸 외에도 다양한 유효성분들이 다량 함유됐다고 설명했다. <br/> <br/>차가버섯에 함유된 것으로는 익히 알려진 베타글루칸, SOD 항산화물질을 비롯한 폴리페놀은 물론이고 이노시톨· 망간· 아연· 각종 유기산 등 여러 생리 활성 물질 등이 있다. <br/> <br/>이 중에서도 오랜 연구결과, 유독 차가버섯에 많이 들어있고 약효가 우수한 성분은 베타(1-3)글루칸이다. <br/> <br/>베타(1-3)글루칸은 차가버섯의 효능을 좌우하는 매우 주요한 성분이다. 베타글루칸은 다당류의 일종으로 대부분의 버섯류에 함유되어 있다. <br/> <br/>하지만 차가버섯에 함유된 베타(1-3)글루칸은 다른 버섯류가 갖고 있는 베타글루칸과 비교해 차이를 보인다. <br/> <br/>베타(1-3)글루칸은 질병이 있는 환자의 몸에 흡수되어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일부 암에도 높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r/> <br/>차가버섯의 베타(1-3)글루칸 함량은 항암버섯으로 유명한 아가리쿠스보다 5배 이상, 상황버섯과 비교하면 10배 이상의 높은 차이를 보인다. <br/> <br/>러시아 키트(K&T LTD)차가버섯의 아시아·미국총판을 맡고 있는 고려인삼공사의 관계자는 ”차가버섯에는 베타클루칸 외에도 칼슘· 철·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C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무수한 유효성분들이 많이 있다”며 ”때문에 차가버섯의 효능은 베타글루칸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유효성분들의 복합적인 작용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83.txt

제목: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폐암 종류 다양해 다른 요인 일 수 있어  
날짜: 20140410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0100000071  
본문: 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흡연자 측이 패소했다.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없다는 점도 인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모씨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9년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의 확정 판결이다.재판부는 “<span class='quot0'>흡연과 원고들에게 발병한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모두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위와 같은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span>”고 밝혔다.역학적 인과관계는 다수의 집단 구성원과 특정 질병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을 기초로 연관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반면 개별적 인과관계는 외부적인 환경 요인 외에도 연령과 면역체계 등 개인별 신체 특성을 감안해 따져보는 것이다.대법원은 흡연과 특정 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적어도 이번 상고심까지 올라온 원고들의 사례에선 흡연과 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이번 상고심의 경우 항소심에서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리 판단을 하지 않았다.항소심은 흡연자 6명 중 특히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높다고 알려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걸린 4명에 대해서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반면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에 걸린 나머지 2명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흡연과 특정 암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획일적·전면적으로 선언한 게 아니라, 상고심까지 온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별적 특성을 감안해도 흡연에 따른 발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84.txt

제목: [종합]대법원, "흡연과 폐암 개별적 인과관계 인정하기 힘들다"며 흡연자 패소 확정  
날짜: 20140410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010013969456  
본문: 15년간을 끌어 왔던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흡연자측이 패소했다. <br/> <br/>패소 이유는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제조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며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br/> <br/>10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김모씨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r/> <br/>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의 확정 판결이다. <br/> <br/>재판부는 "흡연과 원고들에게 발병한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모두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위와 같은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br/> <br/>대법원이 말한 '역학적 인과관계'란 다수의 집단 구성원과 특정 질병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을 기초로 연관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반면 '개별적 인과관계'는 외부적인 환경 요인 외에도 연령과 면역체계 등 개인별 신체 특성을 감안해 따져보는 것이다. <br/> <br/>대법원의 판단은 흡연과 특정 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적어도 이번 상고심까지 올라온 원고들의 사례에선 흡연과 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br/> <br/>대법원은 이번 상고심 때 항소심에서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리 판단을 하지 않았다. <br/> <br/>항소심은 흡연자 6명 중 특히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높다고 알려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걸린 4명에 대해서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r/> <br/>반면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에 걸린 나머지 2명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br/> <br/>대법원은 이들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br/> <br/>즉 대법원이 '흡연과 특정 암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획일적·전면적으로 선언한 게 아니라, 상고심까지 온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별적 특성을 감안해도 흡연에 따른 발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br/> <br/>재판부는 이들 2명에 대해 "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흡연이 아닌 환경오염물질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br/> <br/>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피고들이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br/> <br/>두 사건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당시 조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에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r/> <br/>항소심인 서울고법 민사9부(당시 성기문 부장판사)도 2011년 2월에 "국가와 KT&G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결론을 유지했다. <br/> <br/>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원고들 중 폐암 환자 4명에 대해 "흡연과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KT＆G의 담배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br/> <br/>두 소송의 애초 원고는 각각 31명과 5명이었지만 소송이 길어지면서 암으로 숨지는 사람이 생겨났고, 원고 수는 각각 26명과 4명으로 줄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85.txt

제목: '담배소송'흡연자의 책임…패소 확정‘인과입증 안돼’  
날짜: 201404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0100000289  
본문: 세계일보 제공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흡연자 측이 패소했다.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없다는 점도 인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흡연 피해자 7명과 그 가족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9년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의 확정 판결이다.재판부는 “흡연과 원고들에게 발병한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모두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위와 같은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역학적 인과관계는 다수의 집단 구성원과 특정 질병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을 기초로 연관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반면 개별적 인과관계는 외부적인  환경 요인 외에도 연령과 면역체계 등 개인별 신체 특성을 감안해 따져보는 것이다.대법원은 흡연과 특정 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적어도  이번 상고심까지 올라온 원고들의 사례에선 흡연과 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이번 상고심의 경우 항소심에서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리 판단을 하지 않았다.항소심은 흡연자 7명 중 특히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높다고 알려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걸린 4명에 대해서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반면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에 걸린 나머지 3명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흡연과 특정 암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획일적·전면적으로 선언한 게 아니라, 상고심까지 온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별적 특성을  감안해도 흡연에 따른 발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흡연이 아닌 환경오염물질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또 재판부는 “<span class='quot1'>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피고들이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span>”고 말했다.두 사건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당시 조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에 “<span class='quot1'>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span>”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항소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민사9부(당시 성기문 부장판사)도 2011년 2월에  “국가와 KT&G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결론을 유지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원고들 중 폐암 환자 4명에 대해서는 “흡연과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KT＆G의 담배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두 소송의 당초 원고 수는 각각 31명과 5명이었지만 소송이 길어지면서 암으로  숨지는 사람이 생겨났고, 원고 수는 각각 26명과 4명으로 줄었다. 한편 대법원 선고 이후 원고와 피고 측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암으로 숨진 흡연피해자의 친형 이모씨는 “생명을 중시하지 않고 피고의 눈치를보는 정책적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1년에 5만8천명을 숨지게 만드는 제품인  담배를 만드는 회사에 면죄부를 주고 기업을 옹호한 판결”이라며 “인고의 세월을 기다려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KT&G측 소송을 맡은 박교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이번 판결이 담배의 제조와 안정성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 뉴스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86.txt

제목: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인과 입증안돼"  
날짜: 201404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0100000473  
본문: 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흡연자 측이 패소했다.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없다는 점도 인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흡연 피해자 7명과 그 가족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의 확정 판결이다.재판부는 "흡연과 원고들에게 발병한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모두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위와 같은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역학적 인과관계는 다수의 집단 구성원과 특정 질병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을 기초로 연관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반면 개별적 인과관계는 외부적인 환경 요인 외에도 연령과 면역체계 등 개인별 신체 특성을 감안해 따져보는 것이다.대법원은 흡연과 특정 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적어도 이번 상고심까지 올라온 원고들의 사례에선 흡연과 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이번 상고심의 경우 항소심에서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리 판단을 하지 않았다.항소심은 흡연자 7명 중 특히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높다고 알려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걸린 4명에 대해서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반면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에 걸린 나머지 3명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흡연과 특정 암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획일적·전면적으로 선언한 게 아니라, 상고심까지 온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별적 특성을 감안해도 흡연에 따른 발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흡연이 아닌 환경오염물질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또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피고들이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두 사건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당시 조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에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항소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민사9부(당시 성기문 부장판사)도 2011년 2월에 "국가와 KT&G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결론을 유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원고들 중 폐암 환자 4명에 대해서는 "흡연과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KT＆G의 담배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두 소송의 당초 원고 수는 각각 31명과 5명이었지만 소송이 길어지면서 암으로 숨지는 사람이 생겨났고, 원고 수는 각각 26명과 4명으로 줄었다. 한편 대법원 선고 이후 원고와 피고 측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암으로 숨진 흡연피해자의 친형 이모씨는 "생명을 중시하지 않고 피고의 눈치를 보는 정책적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1년에 5만8천명을 숨지게 만드는 제품인 담배를 만드는 회사에 면죄부를 주고 기업을 옹호한 판결"이라며 "인고의 세월을 기다려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KT&G측 소송을 맡은 박교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이번 판결이 담배의 제조와 안정성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87.txt

제목: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건보 수백억 소송 제동?  
날짜: 201404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010013974215  
본문: 국내 첫 ‘담배소송’이 15년 만에 흡연자들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워 암에 걸렸다”며 제조사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일부 암이 담배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제조사인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도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조사를 상대로 준비 중인 담배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br/> <br/>◆“흡연은 개인 선택” <br/> <br/>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폐암 환자와 유족 등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r/> <br/>재판부는 “<span class='quot0'>흡연과 원고들에게 발병한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모두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해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과 비특이성 질환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span>”고 밝혔다. <br/> <br/>이는 흡연자가 폐암에 걸렸다고 해도 무조건 담배를 암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는 없고 개별적 사람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 봐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비소세포암과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은 흡연과 전혀 관련 없이 걸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흡연보다는 환경오염물질에서 유발될 때도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br/> <br/>재판부는 이어 “<span class='quot0'>흡연 시작은 물론이고 이를 계속할 것인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담뱃갑에 경고문구를 기재하는 외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된다고 하기는 어렵다</span>”고 말했다. <br/> <br/>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2009년 폐암으로 사망한 이기홍씨의 동생 이기호씨가 ‘담배소송’ 최종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폐암 환자와 유족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r/>이재문 기자◆건보공단 담배소송에 큰 영향 줄 듯 <br/> <br/>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준비 중인 수백억원대의 소송은 당장 이번 판결의 직접 영향권을 받게 됐다. 건보공단은 “<span class='quot1'>흡연으로 불필요한 치료비가 나가고 있다</span>”며 이르면 14일쯤 법원에 소장을 낼 계획이다. 소송규모는 537억원가량으로 잠정결론을 냈다. 이는 2001∼2010년 폐암, 후두암 진단을 받은 암등록 환자 가운데 한국인 암예방연구 코호트(특정 집단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기법) 자료에 포함되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답한 3484명에 대한 공단의 치료비 부담금이다. <br/> <br/>그러나 대법원이 담배 제조와 표시상의 결함 등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건보공단의 소송은 큰 장애물을 만났다. 또 대법원이 흡연과 일부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선언한 이상 입증책임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br/> <br/>다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일부 폐암에 대해서는 “흡연이 원인”이라고 인정했고,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점은 건보공단에 유리한 점이다. <br/> <br/>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88.txt

제목: 흡연과 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폐암 종류별로 달라  
날짜: 201404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0100000442  
본문: 장기간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다고 주장한 흡연자들이 제조사인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대법원은 10일 흡연자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15년간 이어진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앓고 있는 폐암의 종류와 개별적 특성을 따져서 내린 '제한적 결론'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주장을 펴는 소송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할지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일부 유형에는 향후 동일한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다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기존 소송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KT&G의 고의·과실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기존 판례대로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이 이날 선고에서 KT&G가 제조·판매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 담배소송의 쟁점은 크게 3가지다.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담배에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는지, KT&G 측이 담배가 해롭지 않다고 광고하거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흡연을 조장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다.우선 대법원은 인과관계에 대해 대체로 의학계의 통설에 따라 결론을 내놓았다.재판부는 "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며 상고심까지 온 원고들의 경우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발병이 흡연이 아닌 환경오염물질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의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폐암은 조직형태에 따라 크게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뉜다.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 중 편평세포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매우 크지만 다른 비소세포암인 선암은 관련성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된다고 대법원은 전했다.소송을 낸 흡연자 측 7명 중 4명은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았다.이들 4명의 폐암은 소세포암 3명, 편평세포암 1명이었다. 법원이 의학계의 통설을 받아들여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나머지 3명의 경우 각각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선암의 일종), 선암, 비소세포암(세부적으로 어떤 유형의 폐암에 해당하는지 밝혀지지 않음) 등이었다. 대법원은 이들 3명의 상고심에서는 암 발병과 흡연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의학계의 견해대로 비소세포암 중 편평세포암과 소세포암에 대해서는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나머지 상고심 3명의 경우 흡연과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각 개인의 개별적 인과관계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봤다.또 손해배상과 관련해선 KT&G 측의 제조·판매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고 제조물로서 담배의 결함도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통상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불법행위가 인정돼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담배의 표시·설계 결함에 대해 "흡연이 폐를 포함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돼 있다고 보이고, 흡연을 계속할지 여부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며 과도한 흡연의 책임이 전적으로 담배회사에 있지는 않다고 봤다.또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이전부터 국내에서 소비된 담배와는 다른 특별한 위해성이 있다거나 피고들이 위해성을 증대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 KT&G가 담배 유해성을 은폐했다거나 흡연을 조장했다는 원고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89.txt

제목: 암세포에 방사선 쪼여… 3분이면 수술 끝  
날짜: 201404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010013974246  
본문: 뇌종양 환자를 트루빔으로 치료하는 모습. <br/>울산대병원 제공수술시간 평균 3∼10분, 칼도 대지 않고 뇌종양만 제거한다. <br/> <br/>울산대학교 병원은 첨단 방사선 치료기인 트루빔을 이용한 뇌종양 수술을 국내 최초로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트루빔은 암 조직이 아닌 정상세포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 기존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한 입체방사선 치료기다. 가격은 120억원. 국내에서는 울산대학교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3곳에서 보유하고 있다. <br/> <br/>이 수술은 머리에 상처를 내지 않고 방사선을 암세포에 쬐는 것으로 치료한다. 6방향 입체 시스템으로 종양 위치를 기존 방사선 수술 치료기보다 정확하게 파악한다. 환자의 들숨과 날숨,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능도 있어 암 조직이 아닌 정상세포가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br/> <br/>치료시간도 기존 방사선 수술 치료기보다 최대 9배 정도 줄였다. 기존 방사선 수술 치료기인 사이버나이프는 평균 1시간에서 1시간30분, 감마나이프는 평균 4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된다. 분당 방사선 조사량은 기존 치료기기에 비해 비해 최대 4배 이상 높다. <br/> <br/>몸 속의 종양조직도 직접 확인한다. 수술 중에도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확인하는 기능이 있어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수술의 정확성이 높아졌다. 꼭 필요한 부위에 최적의 방사선량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br/> <br/>울산대병원은 11일 트루빔 방사선수술센터 개소식을 연다. <br/> <br/>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90.txt

제목: “간접흡연 노출, 유산·사산 위험↑”  
날짜: 201404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010013966023  
본문: 평소 간접흡연에 노출된 여성은 유산, 사산, 자궁외 임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미국 로스웰 파크 암 연구소(Roswell Park Cancer Institute)의 앤드루 하일랜드 박사는 50-79세 여성 8만 762명을 대상으로 흡연 여부와 어렸을 때부터 평생 얼마만큼 간접흡연에 노출되었는지, 임신 중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를 조사분석한 결과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br/> <br/>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은 경우 간접흡연에 노출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사산율이 2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간접흡연 노출 정도 가장 심한 여성은 사산율이 55%, 유산율이 17%, 자궁 외 임신율이 61% 높았다. <br/> <br/>간접흡연 노출이 가장 심했다는 것은 어렸을 때 10년 이상, 성인 때 20년 이상,직장에 다닐 때 10년 이상 간접흡연에 노출된 경우를 말한다. <br/> <br/>이러한 위험은 본인이 직접 담배를 피웠을 경우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일랜드 박사는 밝혔다. <br/> <br/>이 결과는 체중, 교육수준, 음주 등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위험요인들을 감안한 것이다. <br/>전체적으로 약 3분의 1이 최소한 한 번 이상 유산을 겪었고 4.4%는 한 차례 이상 사산했다. <br/> <br/>한 번 이상 자궁외 임신을 한 여성은 2.5%였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91.txt

제목: "흡연과 폐암발병, 인과관계 없다" 대법 판결  
날짜: 20140410  
기자: 고용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0100000129  
본문: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로 인해 암이 발병했다면서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5년에 걸친 재판 끝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흡연 피해자들이 국가와 KT&G(옛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span class='quot0'>흡연과 비소세포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span>”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 결론이다. 이번 소송 쟁점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담배에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이 존재하는지, 담배가 해롭지 않다고 광고하는 방법으로 흡연을 조장했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span class='quot1'>담배에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span>”고 판결했다.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 소송에서 흡연 피해자 측이 승리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이번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조경란)는 2007년 1월 1심에서 “<span class='quot2'>폐암 발병과 흡연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해도 폐암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span>”고 판결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KT&G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고용석 기자 kys135@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92.txt

제목: [김기환의 완벽한 쇼핑] ‘폭탄주’ 왜 빨리 취하는 걸까  
날짜: 201404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010013974668  
본문: 주당들 상당수는 처음 한두 잔은 소주를 마시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폭탄주’를 돌린다. <br/> <br/>폭탄주는 어느 한 종류의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맥주, 소주, 양주 등을 섞어 마시는 것으로 사람을 심하게 취하도록 만든다. 술을 섞어 마시면 빨리 취하는 이유는 뭘까? <br/> <br/>폭탄주가 한 종류의 술을 마셨을 때보다 더 취하는 것은 알코올의 농도와 관계가 깊다. 일반적으로 알코올의 농도가 20%일 때 사람 몸에 가장 빨리 흡수된다고 한다. 그런데 알코올 농도 40%의 양주와 4.5%인 맥주가 섞이면 농도가 20% 정도로 희석된다. 그래서 맥주와 양주를 섞은 폭탄주는 알코올이 사람 몸에 빨리 흡수돼 그만큼 빨리 취하게 된다. <br/> <br/>맥주에 소주를 섞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술에 사이다나 콜라 같은 탄산음료를 섞으면 탄산이 알코올 흡수를 촉진시켜 빨리 취하게 만든다. 마시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여러 명의 술자리에서 돌아가는 폭탄주는 ‘완샷’을 해야 한다. 술이 취하는 정도는 술 마시는 속도와 비례하는 법. 단숨에 마시게 되면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천천히 술을 즐기는 것보다 더 쉽게 취한다. <br/> <br/>폭탄주가 해로운 것은 몸에 빨리 흡수돼 빨리 취하는 것만이 아니다. 알코올 흡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간에 독성이 많이 쌓인다. <br/> <br/>특히 서로 다른 술에 있던 불순물이 반응해 혈관, 근육, 신경, 그리고 뇌세포 등의 중추신경계를 교란시킨다. <br/> <br/>이 가운데 일부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알코올 산화효소에 의해 숙취의 원인이자 소관기관 암을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뀐 후 혈액으로 들어간다. 한마디로 폭탄주는 건강을 해치는 독주다. 폭탄주에 대해 이쯤 알았으면 오늘 저녁은 부드러운 술로 가볍게 즐기는 게 어떨까. 맥주업체들은 최근 출시한 맥주가 폭탄주용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br/> <br/>청량감을 강화하고 부드러운 목 넘김을 강조하거나, 거품의 풍부한 맛을 즐겨보라고 권유한다. 맥주는 보리로 만들어 섬유질이 풍부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보리속의 실리콘이 인체의 알루미늄을 제거해 치매를 예방해주고, 맥주 1∼2잔을 마시면 동맥혈류가 개선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br/> <br/>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93.txt

제목: 건강보험 이르면 14일 담배소송 낼 듯, 흡연자 패소와 다른 결과 자신  
날짜: 20140410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010013970632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패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담배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br/> <br/>10일 대법원은 김모씨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r/> <br/>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공단의 소송은 이번 판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br/> <br/>건보공단 안선영 법무지원실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이 예상보다 빨리 났다"며 "건보 공단의 소송도 늦출 이유가 없어 그대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br/> <br/>건보공단측은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담배사의 책임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공단은 공단의 검진자료를 비롯한 대규모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에 나서는 만큼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워 다른 양상이 전개 될 것으로 믿고 있다. <br/> <br/>건보측은 서울고법이 일부 인정한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담배사 위법성 입증도 나름의 '전략'이 갖고 있다고 했다. <br/> <br/>안 변호사는 "개인의 경우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게 될 것"이라며 "(위법성 입증이) 쉽지는 않겠지만 국내외 전문가는 물론 세계보건기구(WHO)와도 협조할 예정이라 개인보다는 훨씬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br/> <br/>현재 건보공단은 예정대로 담배 소송을 진행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br/> <br/>11일 소송 대리인 모집이 마감되면 곧바로 평가를 거쳐 소송을 맡을 법무법인 선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14일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br/> <br/>소송 규모와 대상은 대리인 선임 이후 확정할 예정이다. <br/> <br/>알려진 바로는 건보공단은 손해배상 규모를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했던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수준인 537억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br/> <br/>이는 2001∼2010년 폐암, 후두암 진단을 받은 암등록 환자 가운데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에 포함되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한 답한 3484명에 대한 공단의 치료비 부담금이다. <br/> <br/>소송 대상은 국내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 가운데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KT&G,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3개사에 JT인터내셔널코리아를 추가하는 것도 생각 중이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94.txt

제목: 우주 암흑물질 공개, 관찰 불가능한데 어떻게?…최초 구현  
날짜: 20140409  
기자: 이소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0910013956820  
본문:   <br/> <br/>'우주 암흑물질의 실제 형체가 최초로 구현돼 누리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br/> <br/>영국 과학전문매체 뉴사이언티스트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국립 페르미 가속기연구소 연구진들이 암흑물질이 유력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형체를 이미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br/> <br/>최근 연구진은 NASA (미 항공 우주국) 페르미 우주망원경이 왜소은하(dwarf galaxy) 부근을 촬영해 보내온 우주 사진 데이터를 입수했다. 이어 사진을 정밀분석해 해당 이미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br/> <br/>공개된 이미지에는 왜소은하 중심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감마선들이 어지럽게 서로 충돌하고 있고 주변으로 푸른색의 입자들이 박혀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br/> <br/>암흑물질은 우주를 구성하는 총 물질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아 육안으로 관찰이 불가능하다. 암흑물질 분포가 현 태양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이번 연구의 성과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br/> <br/>우주 암흑물질 공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주 암흑물질 공개, 태양계 비밀 풀리나" "우주 암흑물질 공개, 이미지 구현이면 실제 사진은 아닌 듯?" "우주 소식은 언제 들어도 재밌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뉴스팀 news@segye.com <br/>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95.txt

제목: 유방 절제와 동시에 재건 수술한 유방암 환자 20년새 9배↑  
날짜: 20140408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08100000120  
본문: 유방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유방재건술이 중요한 치료방법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유방 절제와 동시에 재건 수술을 받는 여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20년 사이 유방 절제와 동시에 즉시재건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가 9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방암으로 가슴을 잃은 여성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즉시재건술을 받고 있으며, 재건 후 5년 생존율은 9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이택종 교수팀은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유방암 환자 3000명 이상에게 유방재건술을 시행하고, 이 중 유방 절제와 동시에 즉시재건술을 받은 2800여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임상적 특징과 변화 경향을 분석했다고 최근 밝혔다.유방암 수술은 보통 유방 절제술로 암이 더 이상 전이되지 못하게 유방을 잘라내게 되는데 유방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유방재건술을 받게 된다.유방재건은 그 시기에 따라 유방 전절제술을 포함한 유방암 치료 후 시행하는 지연재건술과 유방 전절제술과 동시에 시행하는 즉시재건술로 나뉘는데, 이러한 즉시재건술의 시행률을 살펴본 결과 1994년 4.1%에서 최근 4년간 36.8%로 20년새 9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94년 유방암으로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즉시재건술을 받은 여성은 단 4.1%에 그쳤으나 1995년부터 5년간의 시행률은 8.3%를 보여 2배 가량의 증가를 보였고, 2000년부터는 빠른 증가율을 보여 그 시행률이 18.4%를 웃돌기 시작했다.2005년부터는 즉시재건술이 급증해 29.6%의 시행률을 보였고 2010년부터 최근 4년 동안에는 시행률 36.8%를 상회해 최근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환자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절제와 동시에 유방재건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즉시재건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의 재건 후 생존율이 9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유방 전절제술만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과 비교해 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이었다.이택종 교수는 이러한 유방재건술 증가에 대해 유방암 환자의 증가 및 생존율 향상,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유방내분비외과와 성형외과 간의 유기적 협조, 유방재건술의 발전 등을 그 원인으로 꼽으며, “<span class='quot0'>최근에는 환자들의 요구 수준이 매우 높아져 유방암에 걸린 경우 병의 치유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정상적인 모습을 다시 갖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span>”고 설명했다.유방의 절제와 동시에 재건이 이뤄지는 즉시재건술은 유방 절제로 인해 겪는 여성의 상실감과 심리적 충격을 줄일 뿐만 아니라 두 번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택종 교수는 “<span class='quot0'>즉시 유방재건술을 받는 경우 암 재발 시 발견이 늦어지지 않을까, 혹은 생존율이 나빠지지 않을까하는 환자들의 우려가 있는데, 즉시 유방재건술을 받더라도 환자의 생존율에는 차이가 없어 즉시 유방재건술의 안정성과 유효성 또한 확보됐다</span>”고 말했다.특히 서울아산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안세현 교수팀은 유방조직을 덮고 있는 피부를 살리면서 유방 조직 및 유두유륜을 제거하는 피부보존 유방절제술을 널리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즉시 유방재건술도 급격히 늘어 날 수 있었다고 이 교수팀은 전했다. 또한 암의 상태에 따라서는 유두유륜까지 보존시켜 주어 최상의 미용효과와 함께 환자 만족도를 극대화 시키고 있었다.이택종 교수는 “<span class='quot0'>유방암클리닉의 유기적 협조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환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일 수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유방 절제 후 겪게 되는 환자의 상실감 및 우울증을 완화하고, 여성이 적극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있어 유방재건술은 유방암 치료의 필수적인 요소로 정착되고 있다</span>”고 덧붙였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96.txt

제목: 최재원 교수, 국민건강증진 향상 공로 대통령 표창 수상  
날짜: 20140408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08100000421  
본문: 최재원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 소장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이날 행사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보건의료인, 공무원 등 개인 218명과 단체 4개 기관에 대해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대통령 표창이 가장 훈격이 높은 상이다.정부는 최재원 교수가 지난 2008년부터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 소장을 역임하면서 개인별 건강상태, 가족력 등에 따른 맞춤형 건강검진 시스템을 도입해 암을 포함한 중증질환에 대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이번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또한 최 교수는 국내 건강검진의 질적 선진화를 이끌어나가면서 외국인 건강검진 고객들의 꾸준한 유치를 통해 메디컬 코리아 위상을 제고하고, 지난 2011년부터 대외협력실장을 겸임하면서 사회 각계각층 기부문화 정착을 통해 국내외 의료소외계층 지원에 앞장선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97.txt

제목: 보험계약 취소, 청약 15일내 → 증권 수령 15일내로  
날짜: 201404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0810013952362  
본문: 동양사태, 카드사태 등이 이어지면서 올해에도 금융권에서는 ‘소비자보호’가 화두다. 복잡한 금융상품 약관에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놓치거나 ‘사기성 계약’을 당하는 등 피해가 나오면서 구제의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은 빈발하는 민원의 문제점을 파악, 이를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난히 상품 구조와 가입·해지 절차가 복잡한 보험상품이 개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최근 개선된 소비자 보호 정책 및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보험 정보를 살펴보자. <br/> <br/>◆고주파 치료 등도 보험금 지급 <br/> <br/>보험설계사의 설득에 혹해 보험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등 청약 철회 기간이 앞으로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청약 철회 기간을 청약일 기준으로 15일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수정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때 업무처리가 지연되거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권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청약서 교부의무, 중요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철회 가능 기간이 3개월까지 늘어난다. 계약자의 충동적 청약가능성 등을 고려해 청약 철회의 이유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금감원에는 콜센터로 청약 철회를 신청하자 설계사를 통해야 한다면서 업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청약 철회를 영업점에서만 신청하도록 강요한다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했다. 금감원은 “<span class='quot0'>보험회사의 이러한 내부절차와 무관하게 계약자는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3일을 초과해 환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책임을 가입자에게 떠넘겼던 ‘직업 변경 고지 의무’도 변한다. 그동안은 계약 후 보험사에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약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을 때만 해지가 가능해진다. <br/> <br/>보험금이 지급되는 수술도 확대된다. 전통적인 외과 수술 기법에 한정됐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열이나 고주파 등을 이용한 최신 수술기법에도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간암 환자에 대한 극초단파 열 치료술, 고주파를 이용한 흉강경하 심방세동 수술 등도 ‘수술 범위’에 포함된다. ‘수술 범위’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정된다. <br/> <br/>◆보험료 할인과 납입 면제는 소비자 권리 <br/> <br/>보험을 잘 안다는 사람들도 흔히 놓치는 혜택이 바로 ‘납입 면제’다. 납입 면제는 사고·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일부 납입 면제는 보험금 지급 조건과 동일해 자동적으로 납입면제를 적용받기도 하지만 일부 상품은 보험금 지급조건 이외 장해 정도에 따라 납입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암보험 가입자가 장해 50%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보험회사에 해당사항을 확인하면 보험료 납입의무는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조건과 다른 만큼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관련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왕왕 발생한다.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보험료 납입 면제 제도를 보장성보험에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보험, 자녀를 위한 어린이보험 등에도 납입 면제 특약을 별도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납입 면제 조건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br/> <br/>납입과 함께 소비자로서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할인제도’다. 보험료 할인은 통상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시점에서 고액계약 할인, 장기유지 할인, 자동이체 할인 등 해당 조건 만족 여부 확인 후 자동 적용받을 수 있다. 건강체 할인, 다자녀 할인 등 일부 할인제는 개인정보에 근거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추가로 가입할 수도 있다. 종신보험 가입자가 1년 이상 비흡연상태, 혈압 90∼140㎜Hg, BMI(Body Mass Index·체중/키의 제곱) 17∼26의 조건을 만족하면 보험사에 할인(6∼8%) 신청이 가능하다. 통상 자녀 2명 이상에 적용하는 다자녀 할인은 이미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지만 자녀가 1명인 상태에서 가입 후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이후에 보험료 할인 신청이 가능하다. 실버암보험은 가입시점 또는 가입 후 6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 당뇨·고혈압이 없는 경우 보험료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br/> <br/>정진수 기자 je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98.txt

제목: 암 권위자 김의신 박사, 소람한방병원서 특강 진행  
날짜: 201404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07100000285  
본문: 세계적인 암 권위자 김의신 박사가 7일 삼성동 소람한방병원에서 한국의 암 환자들을 위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김 박사는 미국 텍사스 대학교 MD엔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종신교수로 재직하고 ‘미국 최고의 의사’로도 수차례 선정되었던 인물이다.이날 특강은 면역치료를 받고 있는 내원 환자는 물론 강연을 듣기 위해 모인 환자와 보호자들로 가득 찼다.김 박사는 투병 중인 환자들을 위한 조언은 물론 암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인식 차이, 양한방 통합 암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099.txt

제목: 이대여성암병원, 개원 5주년 기념 ‘여성암 심포지엄’ 개최  
날짜: 20140407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07100000048  
본문: 이대여성암병원이 개원 5주년을 기념해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7시까지 개원의를 대상으로 여성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우재희 마취통증의학과 임상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먼저 김승철 부인종양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여성암정복 특성화연구센터 개요 및 업적 소개’를 시작으로 ▲갑상선암 검사를 둘러싼 논란(전혜진 건강증진센터 교수) ▲건강검진에서 PET의 역할(김범산 핵의학과 교수) ▲초음파유도하 중심부 생검(정진 영상의학과 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이어 문병인 유방암·갑상선암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암환자의 통증관리(임우성 유방암·갑상선암센터 교수) ▲물방울 유방재건술(서현석 성형외과 교수)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스트레스 관리(임원정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진다.아울러 정종일 포미즈 여성병원장이 ‘지역사회에서 이대여성암병원의 역할’에 대해 강연할 계획이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의 사전등록은 4월 16일까지로 참가하는 개원의들에게는 연수평점 4점이 부여된다. 문의 이대여성암병원 (02)2650-2801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00.txt

제목: 대법원 오는 10일 담배관련 소송 선고예정, 사상 처음이자 소송낸지 15년만의 일  
날짜: 20140407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0710013940968  
본문: 흡연으로 인한 암 발병을 주장하며 제조회사에 보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0일 결정된다. <br/> <br/>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KT&G(옛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나선 것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상고심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br/> <br/>7일 대법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김모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 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br/> <br/>2건 모두 신영철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으며 확정 판결은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의 일이다.  <br/> <br/>두 사건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당시 조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에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r/> <br/>항소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민사9부(당시 성기문 부장판사)도 2011년 2월에 "국가와 KT&G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결론을 유지했다. <br/> <br/>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원고들 중 폐암 환자 4명에 대해서는 "흡연과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KT＆G의 담배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br/> <br/>두 소송의 당초 원고 수는 각각 31명과 5명이었지만 소송이 길어지면서 암으로 숨지는 사람이 생겨나는 등 원고 수는 각각 26명과 4명으로 줄었다. <br/> <br/>국내에서 제기된 담배소송은 총 4건이다. <br/> <br/>모두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린 사람과 그 가족이 흡연으로 질병을 얻었거나 사망했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r/> <br/>그러나 원고 측이 승소한 경우는 1·2심을 통틀어 한 건도 없었다. <br/> <br/>이 중 1건은 항소 포기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1건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이 재판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줄 전망이다. <br/> <br/>한편 소송대리인 선임 공고를 낸 건보공단은 11일까지 로펌을 모집한 뒤 소송가액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01.txt

제목: 음경 임플란트 수술로 고령자도 건강한 부부생활 가능  
날짜: 20140407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07100000182  
본문: 발기부전은 심혈관계 위험인자들을 가진 환자에서 발기부전의 유병률이 증가하며 발기부전 환자에서 역시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발기부전은 고령으로 나타나는 각종 질병의 원인과 특별한 원인이 없어도 나이가 들면 환자가 느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다.노화로 인해 음경 모세 혈관이 막히고 손상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 혈액 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으로 인해 남성의 그곳에 있는 혈관이 좁아지고 손상되어 부부관계시에도 무력감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다.발기부전이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혈류의 공급이 안된다든지 공급이 되더라도 정맥으로 혈류 차단이 되지 않고 유출될때는 스펀지 모양의 음경 해면체의 내압이 상승되지 않아 발기 상태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거나 오래 지속시키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발기부전의 원인은 크게 심인성 원인과 기질적 원인으로 나눠지는데 최근 연구는 심인성 원인보다 기질적 원인에 더 비중을 두고있다. 현대인의 경우 사회생활에서의 과중한 스트레스나 당뇨병 같은 성인병도 발기부전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기질적 원인에 따른 발기부전은 약물복용이나 주사로 주입해 치료하는 방법이 주로 쓰이고 외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쓰이고 있다. 그러나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해 약물복용이 어렵고 고령으로 인해 약물 효과가 없거나 오랜 흡연,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전립선 질환, 암 수술후 후유증 등이 원인이 돼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난치성의 경우에는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최근 음경 임플란트 수술은 전 세계가 인정한 수술로 음경 해면체에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방법이다. 본인이 원할 때 발기가 가능하고 감각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음경 임플란트는 크게 굴곡형과 팽창형으로 나뉜다. 굴곡형은 자유롭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수술방법으로 평상시에는 구부려 놓았다가 사용할때만 쭉펴서 발기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수술 시간도 짧은 편이며 비용도 저렴한 편이다. 국소마취로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 당일 곧바로 퇴원이 가능하다. 반면 팽창형은 세 조각형 임플란트라고도 하는데 펌프를 이용한 발기작동 원리로 음낭내의 설치한 작은 펌프를 눌러주면 음경 해면체에 마치 혈액이 충만되는 것과 같이 생리 식염수가 음경내 실린더로 충만되기 때문에 젊은시절 발기력과 거의 흡사하게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또한 평상시에는 자연스러운 외양을 유지할수 있어서 수술한 표시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강남J(제이)비뇨기과 박천진 원장은 음경의 길이와 둘레가 동시에 20%증가하는 AMS700 MS LGX (optimize Girth and Length with up to 20% elongation possible)수술을 시행해 실제적 자연발기와 가장 흡사한 모양으로 자연스러움을 추가시켰다. 특히 임플란트수술은 생리 식염수를 펌프에 채워 발기시키는 방법으로 실제 자연 발기과정과 유사하다. 현존하는 외과수술중 가장 자연스럽고 관계 중에 임플란트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어 선호하는 방법이다. 박천진 원장은 “<span class='quot0'>수술 후에도 음경의 감각이 남이있기 때문에 극치감을 얻는데에도 문제가 없고 고령의 발기부전 환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 난 후의 만족감도 매우 높은 편이다</span>”라고 말했다. 이 수술은 연령이나 질환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술이 가능하다. 한번 수술하게 되면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체내에 삽입된 펌프를 누르면 언제든지 팽창과 수축이 가능해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02.txt

제목: 야구 처음 열린 울산까지 원정온 암표상들 경찰에 덜미 잡혀  
날짜: 20140407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0710013935539  
본문: 울산에서 프로야구가 처음 열린 틈을 놓치지 않고 암표상들이 뛰어 들었다가 경찰이 잡혔다. <br/> <br/>7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문수야구장에서 암표를 판 송모(55)씨 등 암표상 7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r/> <br/>이들 암표상들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울산 남구 문수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와 삼성의 프로야구 3연전에서 관람객들에게 1만2000원짜리 표를 2만∼3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잡혔다. <br/> <br/>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암표상은 모두 부산에서 왔으며, 3연전 첫날 대전에서도 일부 암표상들이 왔다가 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br/> <br/>경찰은 다음 달 열릴 문수야구장 프로야구 경기에 1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할 계획이다. <br/> <br/>암표를 팔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03.txt

제목: 암조직 찾아 치료제 투하… ‘나노수류탄’ 개발  
날짜: 201404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0610013932263  
본문: 나노입자 연구단 현택환(사진) 단장과 가톨릭대학교 나건 교수 공동 연구팀이 암을 진단하는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나노수류탄’을 개발했다. <br/> <br/>6일 기초과학연구원(IBS)에 따르면 나노수류탄은 산화철 나노입자와 광역학 치료제를 결합해 만들어졌다. 나노수류탄은 정상조직에서는 다발 형태의 구 모양을 띠고 있지만, 정상조직보다 산도가 낮은 종양세포에서는 붕괴돼 형태가 사라지면서 형광 빛과 함께 MRI 시그널을 나타내게 된다. <br/> <br/>나노수류탄이 암 조직에 도달하면 매우 작은 3㎜ 이하의 초기 종양조직을 MRI와 형광 영상을 통해 진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노수류탄이 터지면서 함께 나오는 ‘광감각제’(빛에 의해 작용하는 물질)에 레이저를 쏘아줌으로써 이질적 종양의 광역학 치료도 가능하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br/> <br/>나노입자를 이용한 기존 종양 치료법은 ‘종양의 이질성(종양세포가 특성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복제 종양세포를 생성하는 현상)’으로 인한 약물 내성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가 어려웠다. 연구결과는 화학분야 학술지인 ‘미국화학회지(JACS)’ 2일자에 실렸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04.txt

제목: “암 조기 발견·치료는 환자의 권리”  
날짜: 201404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0610013932142  
본문: 보건복지부가 갑상선암 진단에 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한 뒤에도 ‘과잉진단’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br/> <br/>‘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의사연대)의 주장에 대한갑상선학회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2라운드로 치닫는 모양새다. <br/> <br/>대한갑상선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정재훈 교수는 최근 내놓은 A4 2장 분량의 글에서 “<span class='quot0'>갑상선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의 권리를 누구도 제한할 수 없다</span>”고 강조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갑상선암 발생은 환경보다 유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보다 갑상선암 발병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게 정 교수 주장의 핵심이다. 갑상선암 환자의 급증은 과잉진단 때문이 아니고 의학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현상이란 것이다. <br/> <br/>정 교수는 ‘의료계의 갑상선암 진단 남발로 의료비가 폭증한다’는 지적에 대해 “<span class='quot0'>개인이 돈을 내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건 일종의 기본권</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어느 누구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할 수 없다</span>”고 단언했다. <br/> <br/>처음 문제를 제기한 의사연대 측은 과잉진단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br/> <br/>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서홍관 교수는 언론 기고문에서 “<span class='quot1'>우리나라 전체 암의 5년 생존율은 66.3%인데 놀랍게도 갑상선암은 100%</span>”라며 “<span class='quot1'>갑상선암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일반인의 생존율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같은 셈</span>”이라고 꼬집었다. <br/> <br/>증세가 별로 심각하지 않은데도 병원들이 ‘암’에 대한 환자의 공포심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br/> <br/>서 교수는 “<span class='quot1'>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갑상선암 발생률 1위이며, 지난 30년 동안 무려 30배가 증가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갑상선암에 얽힌 한국만의 이 ‘기형적’ 현상을 합리적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 <br/> <br/>김태훈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05.txt

제목: 임신 중 암 걸렸는데…아기 위해 죽음 택한 母의 사랑  
날짜: 20140404  
기자: 이소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0410013920701  
본문:   <br/> <br/>복중 아이를 위해 항암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택한 미국인 엄마의 사랑이 전세계의 감동을 낳고 있다. <br/> <br/>3일(현지시간) CNN의 보도에 따르면 엘리자버스 조이스(36)는 불임을 무릎쓰고 항암 치료를 받던 지난해 여름 아이를 가지게 됐다. <br/> <br/>기적같은 소식에 행복도 잠시, 조이스는 임신 한달 만에 허리에 암이 재발해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후 조이스는 암 전이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전신 스캔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이를 지워야 한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듣게 됐다. <br/> <br/>생사의 기로에서 고민하던 조이스는 결국 자신의 목숨이 아닌 아이의 생명을 택하기로 했다. 모든 암 치료를 중단한 조이스는 임신 3개월째 암이 퍼지고 있음을 직감했으며 폐에도 종양이 생겨 숨쉬기조차 힘겨운 고통을 겪어야 했다. <br/> <br/>그러나 그는 끝까지 아기를 지키려고 노력해 출산 예정일을 두 달 앞두고 인공분만으로 딸 릴리를 얻었다. 그 사이 조이스의 암은 심장과 뼈까지 전이돼 더는 손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br/> <br/>출산 6주 후 조이스는 딸을 안은 남편의 곁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다. <br/> <br/>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br/>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06.txt

제목: 엄마의 조건없는 사랑 ‘살신성인’…임신중 암 ‘감동’  
날짜: 201404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04100000417  
본문: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새 생명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선택한 미국인 엄마의 조건없는 사랑 얘기가 감동을 낳고 있다.불임을 무릅쓰고 항암 치료를 받은 엘리자베스 조이스(36)가 아이를 가진 것은 지난해 여름이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임신 한 달 만에 허리에 암이 재발했고 다시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종양은 제거했지만 그다음이 문제였다. 수술 후 암의 전이 여부를 판별하려면 전신 스캔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아이를 지워야 한다는 게 의료진의 설명이었다.생사의 기로에서 번민하던 조이스는 결국 아이의 생명을 택하기로 하고 암 치료를 중단했다.임신 3개월째가 되자 조이스는 암이 퍼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곧 폐에도 종양이생겨 숨쉬기조차 힘겨웠지만 그래도 생명은 포기할 수 없었다.고통 속에서 아기를 지키려고 분투하던 조이스는 출산 예정일을 두 달 앞두고  인공분만으로 딸 릴리를 낳았다.암이 심장과 뼈에 전이돼 더는 손 쓸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었지만, 아이를  보는 즐거움은 병상의 고통을 잊게 했다.출산 6주 후 조이스는 딸을 안은 남편의 곁에서 영면에 들었다.남편인 맥스는 “<span class='quot0'>삶에 대한 아내의 낙관적 태도와 용기는 모든 이에게 희망을 안겨줬다</span>”고 3일 CNN에 말했다.온라인 뉴스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07.txt

제목: 잘 쓰면 약·모르면 독… 다양한 식물 이야기  
날짜: 201404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0410013925492  
본문: 김원학 등 지음/문학동네/2만4000원독을 품은 식물 이야기/김원학 등 지음/문학동네/2만4000원 <br/> <br/>2007년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생 22명이 점심을 먹고 복통과 울렁거림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2009년에는 경기도 성남의 대형 쇼핑몰 직원 80여명이 복통, 구토,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보였다. 집단 발병의 주범은 이들이 학교, 회사의 식당에서 먹은 원추리 나물이었다. 원추리에는 콜히친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체내에서 산화된 후 이산화콜친을 만들어 학생과 직원들이 보인 증상을 유발한다. 콜히친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반찬으로 제공했던 게 문제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03∼09년 동식물 등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은 18건에 환자 수는 231명이었다. 이 중 식물에 의한 것은 11건 211명이었다. <br/> <br/>오래전부터 나물이나 약재로 사용한 식물에도 독이 있어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다. 식용 식물과 비슷하게 생겨 잘못 먹거나 접촉하게 되어 큰 위험을 부르는 것도 있다. 특히 봄에 돋는 새싹은 식용 식물과 독초를 구별하기 어려워 더 조심해야 한다. 약용 식물은 효과가 과장되거나 부작용의 위험이 간과돼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다반사다. 책은 우리 주변의 이런 식물들을 정리했다. 감자와 고사리, 피마자 등 식용 식물에서 미치광이풀, 겨우살이, 더위지기 등 약재로 쓰이기도 하는 독초 등의 식물을 소개했다. 이런 식물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함께 지내온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려 준다. <br/> <br/>장수식품으로 각광받았던 살구씨 이야기를 들어보자. 살구씨에 포함된 아미그달린은 1970년대 말 미국에서 비타민으로 팔리기도 했고 항암, 통증 완화, 혈압 조절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암 치료를 위해 아미그달린이 들어간 약을 복용하던 사람이 사지마비, 보행 불능으로 입원한 기록이 있다. 1980년 멕시코에서 항암 치료를 받다 죽은 미국의 영화배우 스티브 매퀸도 이런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다. <br/> <br/>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08.txt

제목: 유방 석회화, 유방 촬영술로 정확한 유방암진단 필수사  
날짜: 20140403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03100000403  
본문: 유방암을 발견하는 최적의 방법은 유방암 검진이다. 유방암 검진은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는 유방암 검진이 보편화되어 여성분들이 매년 유방암 검진을 한다. 이 같이 단지 정기검진을 목적으로 시행한 유방암 검진에서 ‘유방 석회화’가 보이는 경우가 있다.유방 석회화란 칼슘이 침착되어 사진 상으로 석회가루처럼 흰점이 보이는 것이다. 유방 석회화는 여러 모양이 있고, 개수와 분포가 다양하다. 대부분 암과 관련이 없으나 크기가 유방촬영을 했을 때 크기가 큰 경우 오히려 암과 관련이 없고 오히려 크기가 미세할수록 암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유방 석회화는 유방암과 연관 유무를 구별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유방 석회화 소견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양성을 시사하는 양성 유방 석회화와 악성을 시사하는 악성 유방 석회화가 있다. 양성 유방 석회화는 전형적인 석회화로서 모양이 일정하게 둥글거나 혹은 팝콘 모양이다. 이는 한 곳에 뭉쳐있지 않고 여러 곳에 퍼져있거나 단독으로 존재하며 대개 유방암과 관련이 없다. 반면에 악성 유방 석회화는 모양이 불규칙하게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한 곳에 5개 이상 군집을 이루거나 나뭇가지 모양으로 뻗어나가는 형태이며 유방암을 유발하는 석회화이다. 유방촬영술에서 악성 유방 석회화가 발견되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전형적인 양성 유방 석회화의 특징을 보이면 유방 촬영술만으로 진단을 끝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확대 촬영이나 조직검사 등의 추가검사가 필요하다.특히 한 부분에 미세한 유방 석회화가 모여 있는 경우 유방암의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암세포들의 일부가 죽어 변성되면서 생기는 석회화인데 암이 진행되면 종양이 만져지거나 초음파에서 쉽게 종양이 확인되어 조직검사가 간단하게 시행될 수 있다. 그러나 유방암의 전단계인 상피내암인 경우에는 유방초음파로 보아도 유방암 조직이 확인이 안 될 정도의 작은 암에서 유방 석회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이 유방 촬영술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 유방암을 진단하는데 유방촬영술은 중요한 진단법이다.유방 석회화는 양성에서부터 암이 확실한 악성에까지 그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여성분들 중에는 유방촬영술이 아프고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이유로 유방초음파 검사만 받으려는 경우가 있다. 유방 석회화는 유방초음파 검사로는 정확한 진단이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유방암진단을 위해 유방촬영술은 중요하다. 유방암이 의심되는 유방 석회화가 보이면 조직 검사로 초기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다.유방 촬영술은 양쪽 유방을 다른 방향으로 각각 2장씩 촬영하는 것이 기본이다. 검사 시간은 약 5~10분이며 특별히 고안된 플라스틱판으로 유방을 꾹 눌러서 찍는다. 송파구 잠실에 위치한 유방외과 아산유외과 홍수정 원장은 “<span class='quot0'>유방 촬영술은 검사 시, 많이 눌러 유방이 납작해질수록 방사선에 노출이 적으며 유방 내부가 잘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는 작은 암도 진단이 가능한데 유방은 부드러운 조직으로만 되어 있어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영상이 흐리게 나오므로 적절한 압박이 필요하다</span>”고 설명했다.유방암은 한국 여성 암 중에 1위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여자라면 방심할 수 없는 병이다. 40~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 비만과 모유 수유의 감소로 인해 20~30대 여성들도 유방암으로부터 안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높은 완치율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예후가 좋다. 유방암은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조기 유방암 진단의 기본은 유방 촬영술인 X-ray촬영과 유방 초음파이다. 유방 촬영술은 초기 암에서 잘 나타나는 유방 석회화를 유방 초음파보다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검사이다. 이와 관련 아산유외과 홍수정 원장은 “<span class='quot0'>동양 여성의 경우 유선조직이 촘촘한 치밀 유방인 경우가 많아 유방촬영만으로 확인이 어렵다</span>”며 “<span class='quot0'>유방촬영술에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많아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므로 치밀 유방이라면 반드시 유방초음파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09.txt

제목: "암 치료, 제대로 먹는 것부터 시작하라!"  
날짜: 20140401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0110013888495  
본문: 최고의 암 식사 가이드/노성훈·세브란스병원 영양팀 지음/비타북스/1만7000원 암 환자들은 대부분 암 진단을 받고 난 뒤에야 암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찾기 시작한다. 하지만, 항암 효과가 있는 음식들이 암 ‘예방’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도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암을 예방하는 식사와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사는 다르다</span>”며 “<span class='quot0'>암 치료 중과 치료 후 각각에 맞는 식사를 해야 한다</span>”고 조언한다. <br/> <br/> ‘최고의 암 식사 가이드’는 암 치료의 권위자로 꼽히는 노성훈 연세암병원장이 세브란스병원 영양팀과 함께 쓴 책이다. 암 치료 중 체력 유지를 위한 식사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에 따른 요리법을 소개한다. 수술 후 회복 단계별 요리는 어떻게 하는지, 항암 치료 중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식사가 어려울 때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알려준다. 식사 중간에 부족한 영양소와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건강 간식 만드는 비결도 들어 있다. <br/> <br/>저자들에 따르면 암 치료 후에는 재발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체중이 감소하기 쉽지만 되레 식욕 증가로 인한 체중 증가를 겪기도 한다. 이 경우 위장 기능 저하로 인한 소화 장애, 배변 활동의 문제, 골다공증의 위험 등 여러 증상을 겪을 수 있다. 책은 각각의 증상에 따른 식사법을 알려주고 그에 맞는 요리들을 소개한다. 또, 치료 중과 치료 후에 각각 어떻게 식단을 구성해야 하는지도 보여준다. <br/> <br/>저자인 노 병원장은 “<span class='quot1'>암 환자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올바른 가이드와 다양한 메뉴를 연구해 책에 담았다</span>”며 “<span class='quot1'>환자와 가족들이 책에서 제안하고 있는 메뉴와 식단을 참고해 먹을거리에 대한 혼동과 부담을 줄이고, 치료와 건강 유지에만 전념해 암과의 싸움에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10.txt

제목: "아스피린, 대장암에 효과있다" 연구결과 발표  
날짜: 20140401  
기자: 고용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01100000458  
본문: 두통치료제·해열제·진통제·항류머티즘제 등으로 잘 알려진 아스피린이 대장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과학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닷컴은 네덜란드 레이덴 대학 메디컬 센터 연구진이 아스피린 복용 시 체내에서 항암작용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단백질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연구진은 2002~2008년 사이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 999명의 종양 조직을 분석한 결과, 주목할 만한 사실을 알아냈다. 이들 중 평소 정기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했던 환자는 총 182명 이었고 그중 2012년 1월 사망자수는 69명이었다. 반면 평소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았던 817명의 환자 중 같은 해 사망자수는 396명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연구진은 아스피린 복용 시 생성되는 단백질 항체인 HLA(human leucocyte antigen, 조직적합항원)가 암 면역체계에 특별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추정했지만 아직 정확한 기전(機轉)은 밝혀지지 않았다.레이덴 의료센터 게릿 장 리퍼 박사는 “<span class='quot0'>이는 아스피린이 암세포 성장과 전이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span>”라며 “<span class='quot0'>아직 아스피린을 항암제라 정의할 수는 없지만 만일 명확한 작용원리가 증명되면 값비싼 암 치료 비용이 상당부분 절감 될 것</span>”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span class='quot0'>현재 아스피린을 항암제로 추천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되는 중</span>”이라고 전했다. 고용석 기자 kys135@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11.txt

제목: 대장 안에서 암 발생 억제하는 활동 발견  
날짜: 201404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01100000438  
본문: 대장조직에 암 발생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조광현 석좌교수는 송제훈 박사과정 연구원, 영국 암연구소 오웬 삼손 박사 연구팀, 아일랜드 연구소 보리스 콜로덴코 박사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주도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생명체는 손상된 조직을 스스로 복구할 수 있지만, 복구를 위해 세포를 분열하는 과정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변이가 생기기도 한다. 특히 대장 점막에 있는 '장샘'은 세포분열 속도가 빠르고, 소화과정에서 생기는 독성물질의 영향을 받아서 유전자 변이 확률이 높다.연구팀은 대장조직이 암을 억제하기 위해 유전자 변이로 발암 가능성이 높아진 세포를 장샘에서 빨리 내보낸다는 것을 알아냈다. 변이된 세포의 장샘 체류시간을 줄여 비정상적 세포분열을 억제하는 방어 메커니즘이 대장에 내재돼 있다는 것이다.연구팀은 수학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규명했다. 또 생쥐를 모델로 한 실험에서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했다.유전자 변이로 '윈트신호전달'이 강화된 변이세포는 장샘의 위로 더욱 빠르게 이동하고, 장샘을 벗어나 장내로 배출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윈트신호전달은 세포의 증식과 분화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경로로 항상성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포 외부에서 윈트신호가 들어오면 베타카테닌을 분해해주는 복합체가 억제되면서 세포증식을 돕는 유전자가 발현되고, 세포증식이 일어난다.유전자 변이로 윈트신호전달의 핵심회로인 베타카테닌이 분해되지 못하면, 축적된 베타카테닌이 세포증식을 활성화하고 세포의 접착력을 높인다. 비슷한 접착력을 가진 세포들이 모이려는 성질 때문에 결국 변이된 세포는 장샘에서 배출된다.조 교수는 "다세포 생명체는 비성장적 세포변이가 발생해도 조직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돼 있음을 규명한 것"이라며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를 융합한 시스템생물학 연구로 생명현상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음을 보였다"고 말했다.미래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도약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결과는 셀(Cell) 자매지인 '셀 리포츠'(Cell Reports) 온라인판 3월28일자에 게재됐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12.txt

제목: 자살선택자 대부분 주변에 암시  
날짜: 201404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0110013894442  
본문: # “엄마, 미안해.” <br/> <br/>A(17)군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문장이다. A군은 요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그의 스마트폰 검색 목록에는 ‘안 아프게 죽는 법’ ‘고통 없이 죽는 법’ 등 자살 관련 검색어가 가득하다. 지난 주말에는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했다. 스마트폰에 있던 글과 사진도 모두 지웠다. <br/> <br/># “어머니·아버지 잘 모셔라” <br/> <br/>B(52)씨는 요즘 들어 그답지 않게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한다. 그는 지난달 20년간 다니던 회사를 명예퇴직했다. 부쩍 말수가 줄었고, 입맛도 없다. 방에 틀어박혀 가족들과 대화도 잘 나누지 않던 그가 이상하게도 오늘은 평소와 달리 혼자 이불을 빨아 널어놨다. 어제는 외출을 하더니 돌아오는 길에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사 왔다. <br/> <br/>◆SNS의 자살암시글은 신호 <br/> <br/>앞의 사례는 보건복지부의 ‘2013 자살실태 조사’ 가운데 자살사망자의 심리적 부검을 통해 밝혀진 세대별 자살 징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br/> <br/>연령대별로 자살 징후는 달랐다. 20대 이하는 우선 학교와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를 하나씩 정리한다. 이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자살에 관한 사진이나 문구를 쓰기도 하고, 온라인에 남겨놓았던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등 신변을 다각도로 정리한다. <br/> <br/>30∼40대는 폭음한다. 이어 주변 사람부터 가족까지 관계가 점차 단절되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경향도 보인다. 50∼60대는 갑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많고, “죽고 싶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곤 했다. <br/> <br/>조사를 맡은 김경일 아주대 교수(심리학)는 “<span class='quot0'>연령이 낮을수록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등을 통해 자살을 암시하는 경향이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1 대 1로 자살 암시를 전하는 경우가 많았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정신과(남)·소화기 질환(여) 호소 늘어 <br/> <br/>자살 사망자 6000여명의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통해 자살 전 의료기관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자살 시점에 가까울수록 의료기관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자살 3개월 전에 10∼12개월 전과 비교해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의료이용률이 50% 늘었다. 여성의 경우 소화기계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47%가 늘어나는 특징을 보였다. <br/> <br/>이에 대해 안용민 서울대 교수(정신건강의학)는 “<span class='quot1'>우울증 환자의 상당수는 정신과보다 우울증과 동반된 불면증이나 소화장애로 내과나 가정의학과를 찾는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여성의 경우 이런 신체적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암 같은 중증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초기 자살률이 높아 주의가 요구됐다. 암 진단 6개월 이내의 사람들은 5년이 지난 사람들에 비해 자살 위험도가 남성은 2.6배, 여성은 3배가 각각 높았다. 반면 암 발생 후 1년이 지날 때마다 자살 위험도는 10%가량 낮아졌다. <br/> <br/>세종=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13.txt

제목: ‘착한 암’ 갑상선암의 진실 혹은 거짓  
날짜: 201404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0110013895201  
본문: 호르몬을 통해 우리 몸의 생존과 성장을 관장하는 갑상선. 최근 10년 새 갑상선암 발병률이 급증하면서 갑상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KBS1 ‘생로병사의 비밀’은 2일 밤 10시 최근 의료계의 핫이슈로 떠오른 갑상선을 다룬 ‘착한 암의 두 얼굴, 갑상선’을 방송한다. <br/> <br/>갑상선암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우리나라 갑상선암은 대부분 성격이 온순한 ‘유두암’이다. 갑상선 유두암의 경우 완치율이 98%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갑상선암을 흔히 ‘착한 암’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갑상선암은 림프절뿐 아니라 폐, 뼈, 뇌 등으로 전이가 잘되고 그중 15%는 난치성암으로 성격이 바뀌기도 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조기에 암을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갑상선에는 암과 같은 결절이 생길 수도 있지만 호르몬의 분비량에 따라 기능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갑상선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 우리 몸은 과열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반면,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산모에게는 유산, 조산 등과 같은 심각한 산과적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 <br/> <br/> 흔히 위험성이 낮은 ‘착한 암‘으로 간주되는 갑상선암. 하지만 갑상선암은 전이가 잘되고 기능 이상의 문제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질환이다.무엇보다 다른 암과 달리 갑상선암은 ‘나이’가 많을수록 예후가 좋지 않다. 보통 갑상선암은 45세를 기준으로 병기를 나누는데, 45세가 넘으면 꼼꼼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갑상선암은 수술 범위도 좁아지고 회복 역시 빠르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암이 바로 갑상선암이다. 갑상선암을 유발하는 또 다른 위험요인은 ‘방사능’이다. 최근 과도한 엑스레이 촬영과 빈번한 비행기 여행 등으로 생활 속 방사능 피폭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 <br/> <br/>생각보다 위험할 뿐 아니라 성인병과 같은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는 갑상선 기능 이상. 프로그램은 갑상선암에 대한 최신 이슈와 치료법 등을 알아본다. <br/> <br/>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14.txt

제목: 사후세계 궁금해 하고 과거 잘못 빈다면…자살위험요인 14가지  
날짜: 201404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01100000129  
본문: 보건복지부가 1일 발표한 ’2013년 자살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실제 자살사망자 72명의 유족을 면담하고 유서를 분석하는 등의 ’심리적 부검’을 처음 실시하고, 자살 사망자 8000여 명의 통계 자료를 분석해 자살 사망자의 유형별 특징과 위험요인,징후 등을 제시했다.이번 심리적 부검을 통해 드러난 자살 위험요인은 모두 14가지다. 이 가운데 �팀玟� 2회 이상 또는 자살시도 1회 이상 �팅玲� 2회 이상의 반복적인 자살의도 표현 �팁ㅍ키珦� 진단 1회 이상이 공통 위험 요인이다. 여기에 �튼喚� 단절 �틜チ�·파산·실직·5000만원 이상의 빚 중 2개 이상 ��12개월 이내 생애사건 중 4개 이상 �틱뵈�레스 반응 여부 �팀京�·사별·독신·별거 중 2개 이상 등의 11개의 추가 위험요인과 연령대별 가중 요인을 제시했다. 공통 위험요인이 1∼2개 이상에 추가 위험요인 3∼5개 이상, 연령대별 가중위험요인이 포함되면 자살이 임박한 ’고위험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령대별로 특징적인 자살 예고 징후도 있다.20대 이하의 경우 학교·직장에서의 관계를 정리하고 SNS 사진이나 문구가 자살과 관련된 내용으로 바뀌며 보험 해지, 하드 포맷 등의 신변 정리에 들어간다. 또  사후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인터넷에 자살 방식을 검색하게 된다.30∼40대의 경우 알코올 복용이 심해지고 주변인에서 가족까지 관계 단절이  확장되는 양상이 나타나며 주변 사람들에게 과거의 잘못을 빌기도 한다.50∼60대는 주위 사람들에게 평소와는 다르게 호의를 베푸는 등 특이한 행동을 하며,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하거나 자식들에게 ’어머니/아버지를 잘 모시라’는  당부의 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불을 빨거나 가족을 위해 무엇을 사놓는 행동등도 자살을 앞둔 이들의 특징적인 행동이었다.자살 사망자들은 사망 전 병원 출입도 잦아졌다. 자살 사망자 6000여 명의 자살 이전 의료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자살 전 1년  동안의 의료이용이 자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많아졌다.     특히 자살 전 3개월 내에는 10∼12개월 전에 비해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이 51% 늘었다. 이밖에 남성은 상해로 인해 병원을 찾은 비율이 35% 늘었고, 여성은 소화기계 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이 47% 늘어난 것이 특징이었다. 여성의 경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소화불량 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자살하기 전 우울증 관련 약물의 이용도 늘었는데, 그 중에서도 자살 3개월  이내 수면제의 이용이 10∼12개월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항정신병약물과 항우울제·항불안제 이용도 각각 75%, 50% 증가했다. 암 진단 초기의 자살률도 높았다.암 진단 후 6개월이 안 된 사람들은 5년 이상 경과한 사람들에 비해 자살  위험도 가 남자는 2.6배, 여자는 3배 높았다. 암 진단 후 암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대한 관심도 중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암 발생 후 1년이 지날 때마다 자살 위험도는 남자 11%, 여자 12%씩 낮아졌다.온라인 뉴스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15.txt

제목: KBS1 생로병사의 비밀  
날짜: 20140401  
기자: 서필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0110013890807  
본문: 호르몬을 통해 우리 몸의 생존과 성장을 관장하는 갑상선. 최근 10년 새 갑상선암 발병률이 급증하면서 갑상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KBS1 ‘생로병사의 비밀’은 2일 밤 10시 최근 의료계의 핫이슈로 떠오른 갑상선을 다룬 ‘착한 암의 두 얼굴, 갑상선’을 방송한다. <br/> <br/>갑상선암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우리나라 갑상선암은 대부분 성격이 온순한 ‘유두암’이다. 갑상선 유두암의 경우 완치율이 98%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갑상선암을 흔히 ‘착한 암’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갑상선암은 림프절뿐 아니라 폐, 뼈, 뇌 등으로 전이가 잘되고 그중 15%는 난치성암으로 성격이 바뀌기도 하여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조기에 암을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br/> <br/>또한, 갑상선에는 암과 같은 결절이 생길 수도 있지만 호르몬의 분비량에 따라 기능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갑상선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 우리 몸은 과열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반면,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산모에게는 유산, 조산 등과 같은 심각한 산과적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 <br/> <br/>무엇보다 다른 암과 달리 갑상선암은 ‘나이’가 많을수록 예후가 좋지 않다. 보통 갑상선암은 45세를 기준으로 병기를 나누는데, 45세가 넘으면 꼼꼼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갑상선암은 수술범위도 좁아지고 회복 역시 빠르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암이 바로 갑상선암이다. 갑상선암을 유발하는 또 다른 위험요인은 ‘방사능’이다. 최근 과도한 엑스레이 촬영과 빈번한 비행기 여행 등으로 생활 속 방사능 피폭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갑상선암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방사능 과다 노출’을 지적한다. <br/> <br/>생각보다 위험할 뿐 아니라 성인병과 같은 합병증을 불러 올 수도 있는 갑상선 기능이상. 프로그램은 갑상선암에 대한 최신 이슈와 치료법 등을 알아본다.  <br/> <br/>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16.txt

제목: 대장 내 암발생 억제 메커니즘 규명했다  
날짜: 201404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0110013895324  
본문: 대장조직에 암 발생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다. <br/> <br/>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조광현(사진) 석좌교수는 송제훈 박사과정 연구원, 영국 암연구소 오언 삼손 박사 연구팀, 아일랜드 연구소 보리스 콜로덴코 박사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주도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 <br/> <br/>대장 점막에 있는 ‘장샘’은 세포분열 속도가 빠르고, 소화과정에서 생기는 독성물질의 영향을 받아서 유전자 변이 확률이 높다. 연구팀은 대장조직이 암을 억제하기 위해 유전자 변이로 발암 가능성이 높아진 세포를 장샘에서 빨리 내보낸다는 것을 알아냈다. 변이된 세포의 장샘 체류시간을 줄여 비정상적 세포분열을 억제하는 방어 메커니즘이 대장에 내재돼 있다는 것이다. <br/> <br/>이번 연구의 결과는 셀(Cell) 자매지인 ‘셀 리포츠’(Cell Reports) 온라인판 3월28일자에 게재됐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17.txt

제목: 깜빡한 연말정산 있다면… 5월 추가신청 하세요  
날짜: 201404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0110013894796  
본문: 올해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으로 돌아온 근로소득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낙담하기엔 이르다. 과거 5년간 신청하지 못했던 소득공제 항목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 1일 국세청과 한국납세자연맹 등에 따르면 다음달 한 달간 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물게 돼 울상을 짓는 직장인들이 많다. 재작년 9월 간이세액표 개정과 장기주택 마련 폐지, 신용카드 공제 축소, 장기주식형 저축공제 일몰기간 종료 등으로 지난해보다 환급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까지 모두 환급이 가능하므로 직장인들이라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br/> <br/>납세자연맹은 근로자나 연말정산 담당직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가 꽤 많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br/> <br/>근로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이 부담스러우면 납세자연맹이 지원하는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br/> <br/>납세자연맹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한 이 제도로 지난 11년간 3만4000여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가 약 281억원을 추가 환급받았다. 환급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3만원의 환급금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다. <br/> <br/>납세자연맹이 작년에 추가환급을 받은 근로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소득공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우선 지난해 퇴사한 근로자들이 이전 직장에서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다.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때 그 해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놓친다. 이는 작년에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추가환급 유형이다. <br/> <br/>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 소득공제를 빠뜨린 경우다. 부양가족(배우자·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가 실직인 사실이나 사업 부진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br/> <br/>또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경우도 있다.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자신이 장애인인 사실,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 교육비 공제를 자진해서 빠뜨린 경우도 충분한 추가 환급 신청 사유가 된다. <br/> <br/>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도 있다. 출산휴가, 휴직, 연말정산 시기에 출산·사고로 인한 입원·퇴직, 외국근무·외국출장·외항선 승선, 장기 입원으로 인한 공인인증서 미갱신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br/> <br/>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도 상당수다. 암·중풍·치매·난치성 질환자의 장애인공제, 부모가 국가유공자 상이자인 경우의 장애인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등이다.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br/> <br/>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를 늦게 받거나 2008년 이후에 놓친 공제를 소급해서 받을 수도 있다. 부양가족(부모·배우자·자녀)의 간소화 서비스 정보제공 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2008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동의신청하고 2008∼2012년의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다. <br/> <br/>또 이번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면서도 신청하지 못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 가구주인 월세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며 임차계약서의 주소지와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 등본, 계좌이체 확인서나 월세 납입 확인이 가능한 통장 사본 등 월세 납입 증명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월세액의 50%에 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만원이다. <br/> <br/>이 외에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 누락이 있거나,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했거나, 근로자가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도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br/> <br/>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18.txt

제목: ‘과일주스가 암치료제?’…광고 사기범 무더기 덜미  
날짜: 20140331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3110013877713  
본문: 과일주스를 항암제로 속여 팔아 암환자들을 두 번 울린 일당이 적발됐다. <br/> <br/>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식품이 마치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5)씨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br/> <br/>식약처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 암환우회 카페에 자신들이 파는 식품이 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글을 올린 혐의다. 이들은 과채주스, 혼합 식용유, 액상차 등 암치료와 전혀 관련 없는 식품을 팔아 3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br/> <br/>식약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암환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광고를 강력히 단속하겠다</span>”며 “<span class='quot0'>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span>”고 말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19.txt

제목: 전립선염, 청장년 전립선 건강을 위협한다  
날짜: 20140331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31100000074  
본문: 대개 전립선 질환을 떠올리면,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배뇨장애의 문제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와 다르게 전립선염은 20~40대에 더 흔한 질병이다. 또한 성인 남성의 50%정도가 평생 동안 한번쯤은 경험할 정도로 아주 흔한 질병이기도 하다.전립선은 방광 밑에 위치한 밤톨 모양의 남성생식기관으로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 배출하고, 배뇨를 관장하는 남성 고유의 기관이다. 따라서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면, 회음부 근방에 통증을 동반하여 사정 장애 및 소변줄기가 약해지는 배뇨장애가 전립선 비대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 염증이 생긴 전립선은 부어오르게 되어 전립선 부근인 회음부에 작열감 같은 통증을 일으키며, 심하면 전립선요도를 압박해 방광에서 나오는 소변의 흐름을 방해하게 된다. 또한 사정이 원활하지 않고, 사정액의 양상 변화 및 사정통이 동반할 수도 있다. 전립선염은 요로계 감염, 전립선내로의 요역류, 대장과 연관된 세균 등에 의해 생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규명된 것은 아니다.직장수지검사를 통한 전립선액 (EPS)의 염증 여부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항문을 통해 직장수지검사를 하여 전립선의 촉감을 확인하고 마사지를 통해 전립선액을 얻을 수 있다. 전립선액, 소변 혹은 정액에서 세균 또는 백혈구를 확인해 진단할 수 있다. 전립선 마사지는 이런 진단적 효과 뿐 아니라 치료적 효과도 지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PSA(전립선 특이 항원)피검사, 경직장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는 전립선 비대와 전립선 암을 감별진단하기 위함이다. 다만, 급성 전립선염의 경우 간혹 PSA 상승을 보기도 하나, 대개의 경우 항생제 복용시 정상치로 돌아가게 된다.임상 양상에 따라, 급성 증상이 있으며 균이 확인된 Ⅰ형 (급성세균성 전립선염), 3개월 이상의 만성 증상이 있으며 균이 확인된 Ⅱ형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 전립선염 증상이 있으면서 균은 확인되지 않은 Ⅲa Ⅲb형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전립선염 증상은 없으나 전립선 액이나 정액 등에서 염증이 우연히 발견된 Ⅳ형 (비증상성 염증성 전립선염)으로 나눈다. 이런 분류가 필요한 이유는 임상양상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이다.코넬비뇨기과 군자점 우광재 원장은 “특히, 세균성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항생제를 근간으로 하는 약물적 치료가 꼭 필요하다”면서, “증상에 따라 항염제 진통제, 알파차단제 및 항콜린제 등을 추가적으로 복용할 수 있다. 대개 4주 정도 약물치료하면, 증상적인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만성 전립선염의 경우 증상적인 호전이 미비하며 자주 재발하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또한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하는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음주 흡연을 가급적 삼가고 좌욕이나 반신욕 통해 혈류를 개선하는 것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이렇듯 전립선염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청장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 질병이기에 배뇨 장애와 더불어 회음부 골반 부위 통증이 있는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 전립선 검사하기를 권하고 싶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20.txt

제목: "말기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입소후 통증 감소"  
날짜: 201403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30100000146  
본문: 완화의료기관에 입소한 말기 암환자들이 입소 전보다 뚜렷하게 통증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암센터가 최근 발간한 ‘통계로 본 암 현황’에 따르면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이용한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소 전 평균 통증이 4.0, 입소 1주일 후 평균 통증이 2.9로 입소 전후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였다.완화의료기관에서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의 치료 만족도도 높아, 응답자의 76%가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입소 전 다른  암 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32%에 그쳤다.완화의료 전문기관은 말기암 환자의 통증 관리와 전인적 돌봄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제를 도입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서울성모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등 전국에 53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이곳에서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말기암 환자들이 효과가 거의 없는 치료에 매달려 시간과 의료비를 허비하지 않도록 통증관리를 받으며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웰 다잉(Well-dying)’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완화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2008년 7.3%에서 2012년 11.9%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조원익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21.txt

제목: "남자 같다"… 학교에서 쫓겨난 8세 여아 '논란'  
날짜: 20140330  
기자: jyp87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3010013872923  
본문: 최근 남자 같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사실상 쫓겨난 서니 케일(8)양미국에서 ‘남자 같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사실상 쫓겨난 8세 여아가 논란이 되고 있다. <br/> <br/>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에 거주하는 서니 케일(8)양은 지난달 24일 다니던 팀버레이크 기독교 학교에서 편지 한 통을 받고 학교를 어쩔 수 없이 그만뒀다. 케일의 외양이 학교가 요구하는 성서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br/> <br/>베키 보우만 교장은 편지에서 “<span class='quot0'>(케일과 케일의 가족이) 신이 케일의 여성성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맞게 옷을 입고 다니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학교는 케일의 미래를 위해 최적의 학교가 아니다</span>”며 “<span class='quot0'>전학을 가는 것을 고려해보라</span>”고 말했다. 이어 케일의 반 친구들이 케일의 성에 대해 혼란스러워 한다고 덧붙였다. 케일은 머리를 짧게 자른 채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학교에 다녔다. <br/> <br/>케일의 할머니 도리스 톰슨은 “<span class='quot1'>편지를 읽고 나서 기가 막혔다</span>”며 “<span class='quot1'>케일도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단지 남자아이들처럼 하고 다니길 원할 뿐이다</span>”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케일 역시 또래 여자아이들처럼 곰 인형을 좋아하지만 남자아이들처럼 야구도 좋아한다는 것. <br/> <br/>케일이 남자처럼 하고 다닌 것은 3년 전의 일이다. 톰슨은 “<span class='quot2'>케일이 5세 때 암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머리카락을 기부하고 나서 전형적인 남자처럼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박진영 기자 jyp@segye.com <br/>사진=인디펜던트 제공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22.txt

제목: 뇌종양도 칼 안대고 내시경 수술한다  
날짜: 201403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3010013873158  
본문: “뇌 수술 하면 흔히 머리뼈를 절단해 뇌를 드러내고 하는 개두술(開頭術)부터 떠올려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코를 통해 내시경으로 수술하면 흉터가 남지 않고 머리를 여는 것에 대한 환자들의 막연한 불안감도 최소화할 수 있죠.”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남도현(51) 교수의 말이다. 이 병원 뇌종양센터는 2월부터 ‘뇌종양내시경수술클리닉’을 열어 남 교수가 속한 신경외과 의료진과 이비인후과·내분비대사내과 교수진이 공동으로 뇌종양 수술을 하고 있다. <br/> <br/>남 교수에 따르면 뇌종양 내시경 수술은 머리를 비롯한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고 내시경으로만 치료한다. 환자의 양쪽 콧구멍을 통해 내시경과 기타 미세한 수술 기구를 넣어 정상 뇌조직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종양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br/> <br/>개두술로도 접근하기 힘든 부위를 절개 없이 수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뇌하수체 종양, 두개인두종, 척색종, 뇌수막류, 뇌수막종, 후각신경아세포종 등 뇌에 인접한 대부분의 비강 종양에 적용이 가능하다. <br/> <br/>“뇌종양 내시경 수술은 좋은 치료 성적뿐 아니라 수술 후 환자들 삶의 질이 더 높아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2008년부터 400여건을 진행해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은 뒤 이번에 정식으로 클리닉을 개설했습니다.” <br/> <br/>뇌종양 내시경 수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질환은 뇌하수체 선종이다. 전체 뇌종양의 10∼15%를 차지할 만큼 발병 빈도가 높다. <br/> <br/>뇌조직 중 호르몬 분비를 담당하는 뇌하수체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으로, 종양이 주변 세포조직을 압박해 시력을 떨어뜨리는 증상이 가장 흔하며 호르몬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r/> <br/>남 교수는 “<span class='quot0'>뇌하수체 선종은 과거에도 코를 통한 현미경적 수술을 시행했으나, 수술 시야가 좁고 한정돼 코 안의 정상적 구조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등 단점이 많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신경외과 교수들이 이비인후과·내분비대사내과 의사들과 긴밀한 협진 체계를 갖춤으로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span>”고 소개했다.  <br/> <br/>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남도현 교수(가운데)가 이비인후과 홍상덕 교수(오른쪽)와 함께 뇌종양 내시경 수술을 하고 있다. 내시경을 이용해 뇌종양 수술을 하면 흉터가 남지 않고 머리뼈 절개에 대한 환자들의 두려움도 없앨 수 있다. <br/>삼성서울병원 제공현재 삼성서울병원 뇌종양내시경수술클리닉에는 남 교수를 비롯해 신경외과 설호준·공두식 교수, 이비인후과 동헌종·홍상덕 교수, 내분비대사내과 허규연 교수가 각각 참여하고 있다. <br/> <br/>“수술 전 과정을 통해 이비인후과 등 다른 진료과 의사와 수시로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죠. 최근에는 비강 내 점막을 거의 100% 보존하면서 시행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고안해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뇌종양 내시경 수술은 좁은 공간에서 수술이 이뤄지는 만큼 내시경을 이용한 미세 수술에 대한 의료진의 충분한 경험이 필수적이다. 당연히 의사들도 상당 기간의 훈련을 거쳐야 한다. <br/> <br/>남 교수는 “<span class='quot0'>삼성서울병원은 국내 최초로 내시경 뇌하수체 종양 수술을 시행한 강점이 있고, 임상 경험도 풍부한 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신경외과를 비롯한 3개 진료과가 힘을 합친 다학제 진료를 통해 환자들 삶의 질을 좌우하는 코 건강과 호르몬 건강을 배려한 수술로 발전시켜나갈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남 교수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전임의, 미국 텍사스대 MD엔더슨암센터 연구원 등을 거쳐 2009년부터 삼성서울병원 난치암연구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다. <br/> <br/>오랫동안 뇌종양 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1일 제7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23.txt

제목: 의료기술 선도기업 올림푸스, '문화 나눔'도 으뜸  
날짜: 20140328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8100000006  
본문:  봄이 성큼 다가온 27일, 맑은 봄 하늘을 날아 오르는 듯한 음악이 서울의 한 병원 로비를 가득 채웠다. 바로 올림푸스한국이 문화를 통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올림푸스 앙상블의 ‘2014 힐링 콘서트’ 현장이다.◆문화 나눔의 선순환을 위해 올림푸스 앙상블 운영, 병원서 힐링 콘서트 진행올림푸스한국의 ‘힐링 콘서트’는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기업 정신을 담아, 병원 치료로 인해 상대적으로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적은 환우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진행해 온 프로그램이다. 지난 달 25일에는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올림푸스 앙상블이 발달장애청소년 클라리넷 연주자들로 구성된 ‘하트클라리넷앙상블’과 함께 2014년 첫 힐링 콘서트를 진행한 바 있으며, 눈높이를 맞춘 클래식 음악을 통해 심리적 치유에 기여하고 희망을 전하는 ‘착한 클래식 공연’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이번 공연은 맑은 하늘을 날아오르는 듯 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스티브 바라캇의 ‘플라잉’ 등 설레는 봄을 느끼며 희망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곡들로 구성했으며, 영화 ‘여인의 향기’ OST, 드라마 ‘하얀거탑’ OST 등 대중적인 곡으로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무대를 선보였다.또한 이번 힐링 콘서트에서도 올림푸스 앙상블과 발달장애청소년 오케스트라인 ‘하트하트오케스트라’의 금관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된 ‘하트금관앙상블’이 함께해, 영화 ‘007 제임스 본드’의 테마곡인 ‘노먼’과 징글벨, 캉캉 등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곡들로 이뤄진 ‘인스턴트 콘서트’를 연주해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다.올림푸스한국은 단순한 CSR이 아닌 문화를 통한 사회공헌, 즉 CCR(Corporate Cultural Responsibility)을 목표로 2010년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 ‘올림푸스홀’을 개관해, 다양한 분야의 뮤지션을 초청, 기획공연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2년 ‘올림푸스 앙상블’을 창단했다. 올림푸스 앙상블은 ‘문화를 통한 소통과 행복’이라는 테마로 ‘병원음악회’외에도 각 지역사회와 사회 구성원들,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해 이들의 재능이 따뜻하게 환원되도록 다양한 문화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병원’에서의 이색 문화공헌… 60여년간 의료 사업 펼쳐온 올림푸스의 이유 있는 선택올림푸스한국이 다른 곳도 아닌 병원에서 이러한 문화공헌 활동을 펼치게 된 계기는, 1950년 세계 최초의 위 카메라를 개발한 이래 지속적으로 의료 사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약 60여년간 의료진과의 지속적인 R&D를 통해 약 3997의 의료관련 특허를 보유하는 등 소화기 내시경 분야의 첨단의료 기술 개발을 선도해 왔고, 암의 조기 검진에 큰 공헌을 해왔다.올림푸스가 위장 내부를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는 위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후 파이버 스코프(fiber scope)를 탑재한 위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조기 암 진단 영역을 식도, 십이지장, 대장, 기관지, 담도 및 외과 영역으로 크게 확대됐다. 또 1985년 비디오 스코프를 출시해 여러 의사 및 의료 종사자가 검진 화면을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진단의 정밀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이 밖에도 이미지의 고해상도화, NBI(Narrow Band Imaging, 협대역 화상 강화 기술)에 의한 암 검진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됐다.올림푸스는 소화기 내시경 검진만으로 위암이나 대장암 등의 조기암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처치구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내시경을 통해 인체 내부를 관찰하는 동시에, 내시경에 끝에 삽입된 처치구로 병변을 치료할 수 있게 되어, 몸에 메스를 대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해진 것이다. 올림푸스는 현재 700여 가지 처치구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내과’ 이어 ‘외과’로 영역 확대… 최소 침습 치료로 인류의 건강 증진 목표전세계 소화기 내과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올림푸스는 인류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앞으로는 최소침습치료의 가치를 제공하는 외과영역을 강화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소 침습 치료는 수술부위가 작아지는 만큼 흉터가 적게 남고 입원 기간도 짧아져 환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검진 후의 치료에 큰 비중이 있는 만큼, 외과분야에서 보는 것과 동시에 수술 시 의사의 ‘손’이 되는 치료 기구가 중요하다.그런 의미에서 올림푸스는 검진 기기와 함께 ‘에너지 디바이스(Energy Device)’ 영역을 외과사업의 큰 축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이에 얼마 전 세계 최초의 에너지 통합 수술 기구 ‘썬더비트(THUNDERBEAT)’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기존 복강경 수술에서 여러 에너지 기구를 바꿔가며 사용하는 복잡한 과정을 없애고 한번의 조작만으로도 조직을 예리하게 절단하고, 혈액을 응고시키면서 환부를 절개할 수 있어 효율적인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주는 제품이다.또 개복하지 않는 복강경 수술에서 모니터의 영상만으로도 실제 육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사실적인 영상을 구현하는 3D 복강경 ‘엔도아이 플렉스 3D는’도 함께 내놨다. 세계 최초로 상·하·좌·우 네 방향으로 각각 0~100도까지 구부러지는 편향팁이 탑재되어 깨지지 않고 선명한 화면을 통해 수술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보다 신속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올림푸스한국은 최근 복강경 수술이 대중화 됨에 따라 두 신제품의 시너지를 통해 최소 침습 치료에 더 많이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올림푸스한국 이나도미 카츠히코 사장은 “<span class='quot0'>건강한 삶과 문화를 통한 치유와 감동은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이며 이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앞으로도 더 많은 인류의 생명을 위한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다양한 문화공헌 활동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span>”고 전했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24.txt

제목: SBS스페셜, 숲으로 간 사람들  
날짜: 201403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8100000008  
본문: 이번주 ‘SBS스페셜’(사진)에서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숲속에서 삶에 대한 새로운 삶은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본다.시한부 판정을 받고 숲으로 간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숲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다. 죽음을 받아들인 그 끝에서 비로소 생을 다시 시작했다는 사람들이다. 수많은 나무사이에 뿌리내리고 살던 절박한 이야기를 만났다. 숲에서 홀로 암과 싸우던 이들의 치열했던 150일간의 기록을 ‘SBS스페셜’에서 함께 한다. 30일(일) 저녁 11시 15분 방송. 스포츠월드 연예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25.txt

제목: 대한방사선수술학회 새 회장에 장홍석 가톨릭대 교수  
날짜: 20140328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810013863785  
본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장홍석(사진) 교수가 대한방사선수술학회 회장에 선출됐다. <br/> <br/>28일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장 교수는 최근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열린 제9차 대한방사선수술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회장으로 뽑혔다. 임기는 2015년 3월까지 1년 동안이다. <br/> <br/>대한방사선수술학회는 지난 2004년 창립했다. 방사선종양학과, 신경외과 전문의, 의학물리사 등 방사선 수술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회원 수가 300명이 넘는다. 장 교수는 앞으로 “<span class='quot0'>방사선종양학과 신경외과, 방사선물리학이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뤄 기존의 방사선으로 치료할 수 없었던 많은 암 환자들을 위해 첨단 방사선 수술을 선도하는 학회가 되도록 힘쓰겠다</span>”고 포부를 밝혔다. <br/> <br/>장 교수는 1985년 가톨릭대 의대를 졸업했으며 현재 서울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임상과장, 의료협력센터장을 맡고 있다. 앞서 가톨릭대 방사선종양학교실 주임교수와 대한방사선종양학회·대한방사선수술학회 보험이사를 역임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26.txt

제목: [차준영의견제구] ‘편안한 죽음’  
날짜: 201403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810013866476  
본문: “<span class='quot0'>잠자는 듯이 죽을 수 있다면….</span>” 나이 든 사람들이 죽음을 의식할 때 흔히 하는 말이다. 사실 누구라도 운명의 순간이 편안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죽음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누가 알겠는가. <br/> <br/>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찾는 곳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설이다. 실버인구가 날로 늘어가면서 완화의료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기존 시설 가운데 운영난을 겪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한다. 왜 그럴까?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br/> <br/>정책적 과제와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필요한 듯하다. 호스피스 완화시설은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고 임종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고 있다. 환자나 그 가족들은 완화시설로 옮겨 가기보다는 대개 일반 병실에서 마지막까지 치료를 더 받으려고 한다. 그렇지만 이미 의학적으로 치료 불가능 또는 불필요의 소견이 나온 말기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을 이용해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환자 본인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기 마련이다. 품위 있는 죽음을 어렵게 만든다. 의료진으로서는 환자나 가족이 원하는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없다. 환자의 분명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의료기술과 지식을 다해 생명 연장을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의료윤리의 원칙이다. <br/> <br/>차준영 객원논설위원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도 크다. 암 환자의 경우 숨지기 직전 2개월 동안의 진료비 지출이 가장 높은 편이고,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해마다 3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사회적 인식과 제도 개선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br/> <br/>말기 환자의 치료에는 의학적인 ‘생명 연장’만을 우선시할 수는 없다. 죽음에 대한 준비, 이승을 어떻게 하직할 것인지에 대한 임종의 질적 내용도 중요하다. 연명치료 여부를 환자가 사전 선택하게 하고 이를 법적으로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점에서 설득력이 크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이 ‘연명의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뒷받침해줄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도 있다. 그 핵심이 바로 사전의료의향서다. <br/> <br/>말기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존중하고 최대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도록 돕자는 것이 사전의료의향서의 취지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여러 선진국이 이미 이를 법제화하여 법적인 표준양식을 사용하고 있거나 등록처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br/> <br/>한국에서도 보건복지부가 표준양식을 만들어 시범 운영해 왔지만, 대국민 홍보가 미흡해 보인다.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말기환자가 많고, 의향서를 작성한 환자일지라도 작성 시점이 대부분 임종 직전에 집중돼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환자의 뜻보다는 가족이나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 연명치료 여부가 결정되는 게 다반사이다. 환자의 의식이 분명할 때 이를 사전 안내, 작성토록 하여 의사와 가족에 의한 임의의 판단이나 개입을 줄여야 마땅하다. <br/> <br/>보건복지부나 국회가 공론화해 법적 근거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호스피스 완화의료시설 확충과 내실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자리, 평온한 죽음을 돕는 만큼 사회복지의 품격도 높아진다. <br/> <br/>차준영 객원논설위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27.txt

제목: 과도한 흡연, ‘탈장’ 부른다  
날짜: 201403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8100000037  
본문: 국민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유발되는 주요 암질병에 대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담배는 니코틴, 타르 등 발암인자 및 독성물질이 들어있어 일반인들에게 백해무익한 기호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담배는 폐와 관련된 암 또는 기관지계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담배가 일으킬 수 있는 질병 중에는 일상 속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질병이 있다. 바로 국민 100명 중 2명에서 3명이 경험한다는 탈장이다. 사실 탈장과 흡연의 상관관계는 의학계에서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탈장이 어떻게 흡연과 연관이 있는지, 또한 흡연으로 인한 탈장의 치료법 및 예방책에 대해 알아봤다.◆흡연 후 잦은 기침, 복압 상승으로 탈장 초래탈장은 내장을 받쳐주는 근육층인 복벽이 약해지면서 생긴 구멍을 통해 장이 복벽 밖으로 밀려나온 현상을 말한다. 탈장의 원인은 크게 복압의 증가, 복벽 조직의 약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흡연은 이 두 가지 종류의 탈장을 모두 유발할 수 있다. 먼저 흡연 시 유발되는 기관지염으로 인한 만성기침은 복압을 상승시켜 탈장을 유발 시킨다.지속적인 기침이 복압을 끊임없이 상승시키면 약해진 복벽 중 주로 사타구니 주변이 돌출되는 서혜부 탈장을 유발한다. 서혜부 탈장은 탈장의 75%를 차지하는데, 남성의 경우 어렸을 때 복부에서 사타구니로 고환이 내려온 흔적 때문에 일종의 ‘터널’이 있어 여성보다 더 쉽게 서혜부 탈장이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로 흡연 시 마이오스타틴(myostatin)이라는 물질의 생성이 증가한다. 이 물질은 근육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작은 혈관들을 파괴하고 종합적으로 복벽의 조직을 약화시켜 탈장을 일으킨다.민상진 메디힐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자신이 흡연자이고 평소 심한 기침이 자주 동반될 경우 기관지계 질환은 물론 탈장의 위험성까지 주의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배꼽 및 사타구니가 튀어나오면 탈장 의심, 빠른 수술이 최선책탈장이 생기면 서서 배에 힘을 줄 때 사타구니나 배꼽부위가 불룩하게 튀어나오는데, 눕거나 해당 부위를 누르면 다시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밖에 기침을 할 때 배 안에서 압력이 느껴질 때도 탈장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진단을 받아야 한다. 탈장은 수술이 유일한 치료법이기 때문이다. 탈장은 구조적인 결함이기 때문에 자연 치유되거나 약물치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발견 즉시 수술하는 것이 좋다. 탈장 수술은 위급하거나 복잡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병원이 아니라도 복강경시술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소화기센터나 외과가 개설된 전문병원에 내원해 수술을 받으면 된다.민상진 메디힐 병원장은 “탈장은 초기에 특별한 통증이 없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복벽의 구멍을 통해 빠져나온 장이 오래 방치되면 해당 부위에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장기가 썩는 등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 장을 절개해야 하는 큰 수술이 동반돼 치료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증상 발견 후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복강경 수술법 선택과 금연으로 탈장 재발률 줄일 수 있어탈장 수술 후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수술방법의 선택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직접 절개하는 수술보다 복강경 수술방법을 선호하는 편이다. 탈장 시 복강경을 이용한 후복막 보강술은 복벽 안쪽에 인공그물을 넣어 약해진 복벽을 튼튼하게 보강하는 수술방식이다. 인조그물이 안쪽에 설치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만져지지 않으며 이물감도 느껴지지 않고 인조그물을 복벽에 고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성수술 후 통증의 발생 빈도도 낮다. 무엇보다 복강경 수술은 1㎝정도의 작은 구멍 3개를 뚫고 수술을 하므로 회복속도가 빨라 조기 퇴원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흡연은 탈장 환자의 수술 후 재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실제 다수 연구에서도 흡연은 복부 수술상처가 감염 등의 이유로 근육층이 벌어져 내장이 밀고 나오는 창상탈장 및 서혜부 탈장의 수술 후 재발 위험인자로 보고되고 있다.민상진 메디힐 병원장은 “탈장 수술 경력이 있는 흡연자라면 수술이 끝났다고 방심하지 말고 재발을 막기 위해 금연할 것을 추천한다. 또한, 고령 및 비만, 전립선 비대증, 과도한 육체노동이나 운동 등의 위험인자에 노출된 사람이라면 더더욱 금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조원익 기자 wick2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28.txt

제목: 함평천지 나비수! 알칼리 환원수로 당뇨 잡았다.  
날짜: 20140328  
기자: 최종범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810013860647  
본문: 경기도 부천에 사는 김 모(42 여)씨는 20년 전부터 소아당뇨로 앓아 인공췌장을 늘 달고 다녔지만 혈당수치가 200-400이 보통이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 손발 저림도 심했으며 몸이 붓고 밤에 잠을 제대로 잔적이 없었는데 함평에서 나오는 알칼리 환원수를 마시고 인공췌장기도 떼고 식후 혈당수치가 110미만으로 정상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br/> <br/>광주광역시에 사는 김 모(60세)씨는 당뇨 고혈압을 30년간 앓아 합병증으로 신장투석과 심장수술 2회를 받으며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하던 2007년 함평의 알칼리 환원수를 마셨더니 그날부터 혈당, 혈압이 잡혀 당뇨, 고혈압 약 각 5알씩 먹던 것을 4알=> 3알=> 2알=> 1알=> 1/2알씩으로 줄여 끊고 정상인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다. <br/> <br/>30년 당뇨도 약 끊을 수 있다. 확률 90% <br/> <br/>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br/> <br/>세계보건기구(WHO)는 좋은 물을 마시면 질병의 80%를 치료한다 하였고 프랑스의 '루르드샘물'을 마시면 암, 당뇨, 고혈압 등의 불치병이 치료된다 하였는데 이 물에는 미네랄이 적당히 함유되고 PH가 8.2정도의 약 알칼리성 물이라는 것이나 최근 규산이 많이 함유되었다는 사실이 과학자들의 논문으로 발표되었는데 함평의 물에 규산이 다량 존재한다는 사실과 2009년 함평군(군수 이석형)과 연세대의과대학기능수연구단(단장 이규재 교수)의 당뇨에 관한 동물실험, 임상시험에서 약 90%의 혈당 혈압 개선효과를 확인하였다. <br/> <br/>이에 함평군은 '나비수(http://www.naviwater.co.kr/)를 이용한 건강 웰빙 식품 개발 특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10년 9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관련 연구조사를 한바 있고 천지영천수를 라는 제품 브랜드로 판매하는 업체 대표(김혜민 45세)는 이 제품을 이용한 모든 고객이 만족해하였으므로 우리나라 500만 당뇨환자, 나아가 지구촌의 모든 당뇨환자들에 획기적 도움이 될 것이나 사람들은 “<span class='quot0'>물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span>”고 믿지 않으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br/> <br/>출처: www.naviwater.co.kr/ <br/> <br/>미디어콘텐츠@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29.txt

제목: 삶의 질 우선시하는 미래 선도기술, ‘폐암의 면역암치료’  
날짜: 201403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7100000307  
본문: 최근 환자의 면역세포를 강화시켜 인체가 스스로 암을 치료할 수 있게 한 면역 치료법이 美 ‘사이언스’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연구성과(Top 10 Breakthroughs of the year)’ 중 1위를 차지한 소식이 화제가 됐다.의학계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은 통합의학· 암을 국소병이 아닌 전신병· 만성병으로 인식하고 치료에 임하는 시각은 세계적인 암 권위자 김의신 박사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도 암을 양한방 통합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관련 전문가는 전했다.특히 폐암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소세포폐암은 항암제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한방치료 병행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입 주변 농포나 가려움· 흉부 이상 피부에 염증 발생, 설사 또는 간질성폐렴에 대해 한방에서는 유근피를 활용한 면역약침을 부작용 병변 부위에 도포하거나 투여해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고 있다.치료과정에서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국내에서도 전문의료기관 부문의 미래선도 혁신 브랜드로 면역암치료 한방병원이 선정되는 등 면역암치료· 통합의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미래선도 혁신 브랜드로 선정된 소람한방병원 성신 한의학 박사는 “<span class='quot0'>부작용을 동반하는 항암치료의 경우, 부작용으로 인해 항암치료효과마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보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최근 한약재의 추출물을 항암치료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복약시켰을 경우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치료효과도 증가된다는 사실이 국제적인 논문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span>”고 전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30.txt

제목: 유방암 수술로 잃은 가슴, 유방재건술로 신체적·심리적 치료  
날짜: 201403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7100000450  
본문: 유방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하고도 심각한 질병 중 하나는 암이다.국내에서는 해마다 1만여 명의 유방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여성 암 가운데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 유방암은 자궁근종과 골다공증 등과 함께 여성의 3대 질병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다.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서구형 식생활이나 조기검진으로 인해 유방암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발병연령도 젊어지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유방암과 함께 유방 재건술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유방재건술은 종양제거와 함께 동시에 시술하는 즉시재건술과 유방암이 완치판정을 받은 후 시행하는 지연재건술 두 가지로 나뉜다.조기에 발견된 암일 경우 즉시재건술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병원의 전문의가 유방암수술 시에 심사숙고해 결정할 문제다. 또 경우에 따라 수술 후에 방사선 요법이나 항암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건수술이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유방암 환자가 선택할 수 없다.유방절제술 환자들은 옷을 입었을 때나 대중목욕탕· 수영장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은 자신감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도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져 유방 재건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성형외과 시술을 통해 유방 재건술을 받음으로써 외형적 자신감뿐만 아니라 심리적 치료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유방재건술에는 크게 보형물 삽입과 자가지방 이식으로 나뉜다.보형물 삽입술은 실리콘백· 코헤시브겔백(코젤백) 등 보형물 삽입을 통한 수술은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주로 대흉근과 소흉근 사이에 실리콘백을 이식하는데 수술이 간단하고 다른 신체 부위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하지만 남아 있는 한쪽 정상 유방과 모양이나 촉감이 다를 수 있다는 한계와 구형구축(보형물 주위조직이 단단해짐)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자가지방 이식술은 유방 모양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고 동시에 허벅지나 복부 등에 있는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는 효과까지 있지만 너무 말라 지방이 부족한 경우는 시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어떤 수술이 적합한지는 환자의 나이· 체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유방재건술은 유방절제술 환자의 꼭 필요한 성형 수술임에도 많은 환자가 수술을 고민하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바로 유방 재건술 비용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국내는 아직 건강보험에 지정되지 않아 건강보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유방 절제 후 예상되는 우울증이나 인체 비대칭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에 필요하다면 유방 재건도 치료로 봐야 한다면서 의료실비로 수술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유진성형외과 강태조 원장은 “<span class='quot0'>유방암으로 절제술을 받은 많은 환자가 가슴 상실에 대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유방 재건수술은 단순미용의 목적이 아닌 가슴을 상실한 여성들의 자신감도 되찾고 정신적인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수술임을 인식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강 원장은 이어 “<span class='quot0'>보통 암 초기나 재발이 적은 경우 암 제거와 함께 즉시 유방 재건술을 시행하지만, 즉시 재건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술 후 방사선 치료가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 의료실비 등 꼼꼼히 체크한 다음 수술을 받는다면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줄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31.txt

제목: SBS스페셜, 숲으로 간 사람들  
날짜: 201403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7100000358  
본문:   이번주 ‘SBS스페셜’(사진)에서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숲속에서 삶에 대한 새로운 삶은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숲으로 간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숲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다. 죽음을 받아들인 그 끝에서 비로소 생을 다시 시작했다는 사람들이다. 수많은 나무사이에 뿌리내리고 살던 절박한 이야기를 만났다. 숲에서 홀로 암과 싸우던 이들의 치열했던 150일간의 기록을 ‘SBS스페셜’에서 함께 한다. 30일(일) 저녁 11시 15분 방송. 스포츠월드 연예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32.txt

제목: 초등학생, 암투병 친구 격려하려 삭발했다 정학처분 ‘논란’  
날짜: 201403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6100000180  
본문: 사진=CNN 캡처미국에서 초등학생이 암과 싸우는 친구를 격려하려 삭발했다가 용모 규정 위반으로 정학 처분을 받아 논란이다.25일(현지시간) 콜로라도 지역 언론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캡록 아카데미 학생 캠린 린프로(9)는 월요일인 지난 24일 삭발을 한 채 등교했다. 소아암에 걸려 치료 과정에서 머리를 빡빡 깎은 친구 딜래니 클레멘츠를 격려하려는 행동이었다.린프로의 부모도 딸이 친구를 위해 삭발을 하겠다고 하자 동의하고 칭찬까지 해줬다.하지만 삭발한 채 등교한 린프로에게 학교 당국은 용모 규정을 어겼다며 교실에 입장하지 못하는 징계를 내렸다.린프로는 하는 수 없이 학교 근처 공원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다. 딸이 학교 수업을 받지 못하는 정학 처분을 받자 어머니 제이미 올슨 린프로가 페이스북에 이런 사정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린프로가 삭발한 클레멘츠와 똑같이 머리를 빡빡 민 채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클레멘츠의 어머니도 린프로를 거들었다.그녀는 “린프로의 행동은 매우 용기 있고 칭찬받을 일”이라며 “린프로가 정학을당했다고 해서 많이 슬펐다”고 말했다.그러자 온라인에서 학교 측의 조치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자율형 공립학교인 캡록아카데미 학교 운영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 린프로에게 내려진 정학 처분을 거둬들였다.린프로는 25일 학교 수업을 다시 듣게 됐다. 운영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span class='quot0'>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만한 분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삭발한 학생은 교실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하지만 이번 사안은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돼 정학 처분을 유예한다</span>”고  밝혔다.제이미 린프로는 지역 방송  KUSA-TV와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있는 규정을 원칙대로 적용한 학교의 조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다만 규정을 바꿔달라고 말하고 싶다</span>”고 말했다.온라인 뉴스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33.txt

제목: 한화생명 "독거노인들의 건강을 돌봅니다"  
날짜: 20140326  
기자: 세계파이낸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6100000545  
본문: 한화생명보험 중부지역본부는 26일대전검진센터(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재)에서 대전지역 독거노인 30명을 초청해 건강검진을 실시했다.한화생명은 독거노인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흉부 X선, 혈액검사 등의 기본 건강검진에 폐암, 대장암 등의 암검사와 류마티스, 골다공증, 전립선, 심전도 검사 등은 물론, 안저촬영기를 활용한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실시했다. 한화생명은 검진결과를 일주일 후 각 가정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상소견 발견시에는 독거노인 돌보미센터와 연계해 추가 의료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건강검진을 받은 김창희씨(86세)는 “<span class='quot0'>나이를 먹으니 감기가 한 달이 지나도 낫지를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에 한화생명이 이렇게 건강검진을 해주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span>”고 말했다.한화생명 중부지역본부는 이밖에도 노인들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 생명존중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 겨울에는 대전 동구지역 독거노인들께 연탄 10,000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화생명은 이처럼 지역사회의 어려움에 맞는 봉사활동을 통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사회공헌철학인 ‘함께 멀리’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김남희 세계파이낸스 기자 nina1980@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34.txt

제목: 위암 발생률 아시아국가 중 1위, 비갱신형 암보험 비교사이트 저렴할까?  
날짜: 20140325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5100000033  
본문: 우리나라의 암 발생 수준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인의 암 발생은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단연 최고 수준이며, 특히 위암의 경우 일본과 함께 1, 2위를 다투는 위암 고위험 국가이다. 인구 10만 명당 7.2명인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봐도 10만 명당 69.5명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았을 때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수명인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이며 남성이 77세 까지 생존할 경우 5명 중 2명(38.1%), 여성이 84세까지 생존할 경우 3명 중 1명(33.8%)이 암에 걸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우리나라의 암 발생률은 국가 암 등록 통계가 공식적으로 생산된 199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매년 1.5%, 여성의 경우 매년 5.3% 암 발생률 증가가 이뤄지고 있다.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은 암 발생률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5년 생존율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학회에서는 암 진단 후 5년이 되는 시점까지 생존한다면 암이 완치가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을 중요한 통계 지표로 사용하는데 국내 1993년~ 1995년 사이에 진단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41.2%인 반면 2004년~2008년 사이에 진단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59.9%로 10년 동안 암 환자의 생존율이 무려 18.3%나 향상됐다.하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2009년 국립암센터 자료에 의하면 암 발병 시 가장 부담되는 점으로 치료비가 67.5%를 차지했다. 고액치료비가 필요함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의 경우 1억~1억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며 치료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통원치료, 식단조절, 간병, 항암제 주사에 필요한 비용과 소득감소, 생활비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 암에 걸리더라도 가족 모두가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 수 있다.암 보험은 이러한 사태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비책이라 할 수 있다. 암 보험은 암 진단받을 시 암 진단금을 보장하며 암 입원비, 암 수술비, 방사선항암 약물치료비 등을 보장해 준다.암 보험의 단점은 보험료의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암 보험금이 큰 탓에 암 보험료도 높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나와있는 암 보험 상품들을 비교하고 따져보면 내가 필요한 특약 등이 저렴하게 구성되어 있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암 보험비교사이트( http://www.phsy.co.kr/ ) 오수영 팀장은 “암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다. 하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암 보험료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미리 가입하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비교사이트를 활용해 여러 가지 상품을 비교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암 보험 상품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35.txt

제목: 비타민C 결핍, 알츠하이머 발병에 영향준다  
날짜: 20140325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5100000411  
본문: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의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비타민C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25일 서울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는 ‘제4회 비타민C 국제심포지엄’이 ‘비타민C와 고령화 사회의 웰니스(Vitamin C and wellness for aging society)’라는 주제로 열렸다.한국식품과학회(회장 이호)가 주최하고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이 후원하는 비타민C 국제심포지엄은 비타민C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 의학, 약학, 식품영양학 등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학술행사로, 2008년부터 2년마다 국내외 비타민C 연구의 각계 권위자들이 발표와 토론의 장을 열어왔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비타민C가 알츠하이머, 골다공증 등 노화관련 질병과 유방암 등 암질환에 예방 및 치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들이 발표됐다. 특히 비타민C 연구의 대가로 알려진 미국의 피오나 해리슨 교수(Fiona Harrison, Ph.D.)는 비타민C 결핍이 알츠하이머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피오나 해리슨 교수는 ‘노화와 알츠하이머 마우스 모델에서 비타민C의 영향에 관한 연구(Vitamin C in mouse models of aging and Alzheimer's Disease)’라는 주제로 발표한 연구결과에서 “<span class='quot0'>사람은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없으므로 비타민C가 더욱 중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비타민C 결핍은 알츠하이머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밀로이드를 축적한다</span>”고 말했다. 또한 “체내 비타민C 수치는 신경근육 및 기억력 결손과 직결되며, 비타민C의 섭취는 인지 능력, 그리고 노화를 진행시키는 산화 스트레스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미국 존스홉킨스 의대 에드거 밀러 교수(Edgar Miller III, Ph.D., M.D.)는 ‘비타민C 보충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Vitamin C Supplements effects on Blood Pressure)’이라는 주제로 비타민C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임상결과를 발표했다.에드거 밀러 교수는 “비타민C를 매일 60~4000mg 정도 복용한 1407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타민C 섭취가 단기적으로 혈압을 감소시켰으며 비타민C가 노화를 진행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pan class='quot1'>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더 큰 혈압 감소 효과를 보였다</span>”고 덧붙였다.국내 연자의 암질환 관련 발표도 눈길을 끌었다. 서울의대 이왕재 교수의 ‘유방암에 대한 비타민C 치료의 지침이 되는 비타민C 수용체(SVCT-2)연구’는 세포실험 및 동물실험을 통해 유방암 세포에 대한 비타민C의 항암치료에 대한 가능성을 검증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이왕재 교수는 “<span class='quot2'>유방암 세포주에 비타민C를 전달하는 단백질인 SVCT-2(비타민C 수송체, sodium-dependent vitamin C transporter)가 많이 발현하면 비타민C의 암세포 사멸 경향이 높고, SVCT-2가 적게 발현하면 비타민C의 암세포 사멸 경향이 적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2'>기존의 항암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가 대다수인 현실에서, SVCT-2가 많이 발현하는 유방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밝혔다.이외에도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지바 의대 타카히코 시미즈 박사가 ‘마우스에서 비타민C의 노인성 질병 예방 효과’란 주제로 알츠하이머와 골다공증 상관관계 발표를, 고신대 의대 최종순 교수가 ‘비타민C의 암 치료의 임상적 결과’, 염창환 대한비타민연구회 회장이 ‘비타민C의 항암 부작용 관리와 삶의 질’을 발표하는 등 비타민C와 노인성 질병 및 암 질환에 대한 다양한 고찰이 이뤄졌다.또한 덕성여대 조애리 교수와 한양대학교 이현규 박사, 연세대 황재관 박사가 비타민C의 피부노화 억제 효과 등을 다뤄 다양한 주제의 비타민C 관련 연구 발표가 이어졌다.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한 한국식품과학회는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보다 많은 효능을 밝혀냄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제적이면서도 건강에 다양한 도움을 주는 비타민C가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광동제약 최성원 대표이사는 축사에서 “비타민C 500mg을 드링크 한 병에 담은 ‘비타500’이 출시된 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 받고 있는 것은 그 동안 비타민C의 효능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온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광동제약은 산학협동을 통해 비타민C에 대한 공동연구를 계속해나갈 것이며 다양하고 풍부한 비타민C 관련 연구 성과들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36.txt

제목: 가슴지방이식 부작용치료, 딱딱한 멍울은 반드시 제거해야  
날짜: 201403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5100000197  
본문: 지방이식수술의 역사는 오래됐지만 가슴성형에 지방이식이 쓰인 역사는 비교적 짧다. 가슴지방이식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보고된 바가 전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부작용 및 합병증에 관해 거의 알려지지 않다 보니 의사들조차 잘 모른다는 어려움이 있다.생착율을 높이기 위해 하베스트젯2 등의 기기가 개발됐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이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이마나 얼굴에 넣는 지방은 매우 소량을 넣는데 이렇게 소량을 넣어도 이물질반응이 나타나고 육아종성 염증반응이 나타나서 처음 몇 달간은 매우 만족스럽지만, 1년 정도 지나면 딱딱한 멍울이 만져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더욱이 가슴지방이식수술의 경우 대량으로 이식하는 위험성이 있어서 혈액공급이 충분하지 못 하하면 중심부는 지방괴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물론 여기 저기 구석구석 조금씩 넓게 넣으려는 시도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초음파를 보면서 소량을 어느 특정한 부위에 넣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보고 눈짐작으로 지방을 넣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뭉쳐질 수 밖에 없는 수술기법 상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가슴지방이식을 하면 흔히들 석회화가 생길까 염려하는 이들도 있다. 실제 석회화가 생겨도 유방암과 구별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이런 석회화가 몸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저 뭉치고 딱딱해진다는 문제만 유발할 뿐이다. 또 이런 석회화가 암으로 변하지도 않는다.이보다 더 중요한 부작용은 염증이다. 실제 가슴지방이식 부작용으로 내원하시는 이들 대다수가 염증을 가지고 있다. 급성염증은 피부가 빨개지고 열이 나며, 어느 부분만 매우 아프기 때문에 환자도 금방 알고, 의사도 금방 알 수 있다.하지만 지방괴사와 이물질반응으로 인해 생긴 만성염증은 처음에는 은근한 불편감만 느끼기 때문에 환자가 알기 어렵고, 몸에서 계속 만성염증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가슴지방이식수술을 한 이후에 이상하게 쉽게 피곤해지고 몸 컨디션이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이런 시간들을 몇 달 겪으면, 녹아 내릴 지방은 다 녹아 내려서 흡수되고, 차라리 다 녹아 내리면 문제가 안 생기는 데, 뭉쳐진 지방들을 감싸는 방어막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가슴지방이식 수술 후 1년이나 지나야 딱딱한 멍울들이 수십 개가 만져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특히 이런 작은 자잘하게 만져지는 가슴 멍울들은 유방의 아래 부분에 대부분 위치하게 된다.만약 유방초음파로 보았을 때 이식한 지방이 다 녹아 내리고 액체만 차 있는 기름낭종처럼 보인다면 간단히 주사기로 제거 가능하다. 이 경우도 주사기로 이미 이루어진 방어막을 뚫기 때문에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또는 아예 이물질반응을 일으켜서 처음부터 딱딱해지고 가슴의 일부분이 부어 오르는 것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이미 딱딱해진 상태라서 주사기로 해결이 되지 않고, 맘모톰으로 제거하거나 긴 흉터를 내는 수술적 절제가 요구된다.제거된 부분의 감염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적인 치료도 필요로 한다. 급성염증은 그 원인이 되는 부분을 잘 치료하면 쉽게 해결이 되지만, 만성염증은 이미 넓게 퍼져있는 경우가 많아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해결이 쉽지 않다. 육아종성 변화를 보이는 부분도 역시 맘모톰을 제거하거나 수술적 절개를 통해 제거해야 새 살이 돋게 된다.중요한 것은 어느 부분을 주사기로 쉽게 제거할 지, 어느 부분을 맘모톰이나 수술적 절개를 통해서 제거할 지 등에 대해 정밀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유방외과의사의 풍부한 임상경험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아예 건드리지 않는 편이 더 좋은 예후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강남유외과 신승호 원장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37.txt

제목: [재테크 특집] 삼성생명  
날짜: 201403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510013834557  
본문: 삼성생명이 지난 1월부터 판매 중인 ‘통합 스마트 변액 유니버설 CI종신보험’(무배당)은 기존 중대질병(CI)보험에 종신보험 기능을 부가한 대표적인 100세 시대 대비 보장성 상품이다. <br/> <br/>기본적으로는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등 큰 부담이 되는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고, 실적 배당이나 적립전환 등 종신보험의 새로운 기능들이 갖춰져 있다. 여기에 가족이 함께 가입할 수 있는 통합보험의 기능까지 부가되면서 가족 보장을 강화하는 형태로 설계됐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3명까지 가족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이후에도 필요한 보장이 생기는 경우를 위해 가입 후 6개월부터는 추가로 특약의 중도 부가가 가능하다. <br/> <br/>삼성생명의 ‘통합 스마트 변액 유니버설CI 종신보험’(무배당)은 기존 중대질병(CI)보험에 실적배당이나 적립전환 등 종신보험의 기능들을 갖춘 상품이다. <br/>삼성생명 제공또 은퇴 이후 보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연금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장기요양상태가 되면 그전에 지급하던 연금액의 두 배를 최대 10회까지 간병비용으로 지원하는 특약도 갖추고 있다. <br/> <br/>‘통합 스마트 변액 유니버설 CI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중대한 암,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루게릭병 등의 중대한 질병과 심장, 간, 신장 등 5대 장기이식 수술, 관상동맥우회술 등의 중대한 수술까지 총 19종의 질병과 수술을 보장한다.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주 보험료의 납입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r/> <br/>각종 특약을 통해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수술에 대해 최대 두 번까지 CI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비교적 경미한 종양에 대한 별도의 보장이 가능하며, 실손의료비 보장특약도 추가로 가입해서 한 건 가입만으로도 종합적인 질병 보장이 가능하다. 배우자나 자녀도 한꺼번에 가입할 수 있는 통합보험의 기능과 장기요양연금 기능이 추가된 점도 이전의 상품에 비해 개선된 점이다. 변액보험이므로 장기투자에 따른 수익 추구가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38.txt

제목: 암 예방의 날 기념, 차가버섯의 명품 김동명차가버섯 이벤트 실시  
날짜: 20140324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410013817842  
본문: 암 예방의 날인 3월 21일을 맞이하여 차가버섯의 명품 ‘김동명차가버섯(www.amcare.co.kr’)이 소비자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br/> <br/>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기념일로 지정한 암 예방의 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암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암 예방 정보와 조기 진단 및 치료와 실천을 권장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br/> <br/>김동명차가버섯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건강한 식단과 올바른 식습관· 적당한 운동을 기본으로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몸을 차갑게 하지 않는 일상의 작은 노력들이야말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기본 수칙</span>”이라고 밝혔다. <br/> <br/>암 예방의 날 기념 이벤트 기간은 오는 4월 13일까지 이며, 이벤트 기간 동안 차가버섯 제품 구매 중량에 따라 건강증진에 도움 되는 제품인 ‘무암촌 미네앤자임’과 ‘차가홍삼활력’을 증정한다. <br/> <br/>차가버섯 제품 300g 이상 구매 시 ‘톳’과 생청국장을 배합한 식이제품인 ‘무암촌 미네앤자임’을 100g~200g 구매 중량별로 증정하고, 차가버섯 제품 1kg 이상 구매 시에는 차가버섯에 발아현미와 25가지 곡물 및 식물, 발효홍삼을 더한 활력제품인 ‘차가홍삼활력’ 500g을 증정한다. <br/> <br/>이벤트 적용 대상 제품은 러시아 차가버섯추출분말을 특허출원공법을 적용하여 발효한 ‘발효차가버섯’· 효소처리 공법을 적용한 환타입의 ‘엔자임차가버섯’· 가장 기본적인 추출제춤인 ‘차가버섯추출분말’ 제품군이다. <br/> <br/>김동명차가버섯 김동명 대표자문위원은 “<span class='quot1'>건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드는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span>”며 평소 생활 속에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갈 것을 강조했다. <br/> <br/>암 예방의 날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동명차가버섯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br/> <br/>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39.txt

제목: ‘3년 오진’으로 폐암 말기…“위자료 5000만원 지급하라”  
날짜: 20140324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410013816880  
본문: 지속된 오진으로 30대 남성이 폐암 말기에 이른 것과 관련 해당 병원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br/> <br/>24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에 따르면 강모(36)씨는 지난 2008년 3월, 우측 흉부 통증으로 찾은 경기도 평택의 한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에도 병원은 계속된 통증으로 찾아온 강씨에게 ‘정상’ 판정만 내렸다. <br/> <br/>2011년 11월, 잦은 기침과 호흡 곤란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강씨는 다른 병원을 찾았으며,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씨의 폐암을 초기에 진단하지 못한 병원은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했으므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br/> <br/>위원회는 병원이 초기에 흉부 CT검사를 실시했다면 강씨의 폐암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었을 거라고 지적했다. 또 최초 엑스레이검사에서 나타난 폐병변 크기가 초기 암 수준에 해당하는 2cm였다는 점을 들어 적절한 치료가 있었다면 강씨는 완치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br/> <br/>다만 위원회는 ▲ CT검사를 하지 않아 암의 진행 정도를 알 수 없었던 점 ▲ 환자가 현재 생존한 점 등을 들어 위자료 배상으로 책임을 제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의사의 오진으로 환자가 말기암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30대 환자의 노동 능력 상실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40.txt

제목: '캡틴 아메리카 2' 예매율 1위… 어벤져스 효과?  
날짜: 20140324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410013823414  
본문: 오는 26일 전 세계 최초 개봉을 앞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감독 조 루소/안소니 루소, 이하 캡틴 2)가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다. <br/> <br/>24일 오후 영진위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캡틴 2'는 30%가 넘는 높은 예매율로 1위를 차지했다. 개봉을 이틀 앞둔 시점에 지난 주말박스오피스 1위인 '노아'와 15%의 큰 격차를 보이며 흥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br/> <br/>'캡틴 2'의 예매율 1위는 제작사인 마블스튜디오에 대한 국내 팬들의 관심을 입증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br/> <br/>특히 캡틴 아메리카(크리스 에반스)가 출연하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감독 조스 웨던, 이하 어벤져스 2)이 이달 말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촬영될 예정이어서 국내 관객들의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 <br/> <br/>한편, '캡틴 2'는 지난 주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시사회가 열려 해외 매체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일으킨 가운데, 24일 언론배급시사회를 통해 국내에도 첫 공개됐다.  <br/> <br/>어벤져스 뉴욕 사건 이후 현대에 정착해 살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가 새롭게 드러난 쉴드의 정체를 알게 되고 내부에 암처럼 퍼져 있는 악의 무리와 한판 대결을 펼치는 이야기를 그린다. <br/> <br/>캡틴 아메리카와 블랙 위도우(스칼렛 요한슨), 그리고 닉 퓨리 국장(사뮤엘 L. 잭슨)이 전하는 쉴드의 비밀은 곧 내년 개봉될 '어벤져스 2'의 스토리와도 무관하지 않아 더욱 관객들의 관심을 한 데 모으고 있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41.txt

제목: 사망 최다 원인, 男은 간암·女는 폐암  
날짜: 201403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310013812916  
본문: 생명보험 계약 통계로 집계된 최다 사망 원인이 남성은 간암, 여성은 폐암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23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생명보험 상품 전체 계약을 통해 집계된 남성의 사망 원인 1위는 간암이었다. 이 수치는 2010년 2889명, 2011년 2925명, 2012년 2990명으로 3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3년 연속 2위는 폐암이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고, 이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성별 구분 없이 폐암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남성은 폐암-간암-위암, 여성은 폐암-위암-대장암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br/> <br/>오상철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종양내과)는 “<span class='quot0'>의료계나 통계청에서 집계한 통계보다 생명보험 계약에서 나타난 결과가 정확하고 유의미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은 저소득층이나 노인이 자연사하면 주변 사람의 진술로 사망 원인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은 보험금을 받으려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명확한 사인이 들어간 진단서를 끊어야 하기 때문이다. <br/> <br/>여성의 사망원인은 지난 3년간 폐암이 1위였으며 2010년 1069명, 2011년 1123명, 2012년 1216명이었다. 오 교수는 “<span class='quot1'>폐암은 암 가운데서도 치료가 가장 어렵다</span>”면서 “<span class='quot1'>흡연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잘못된 믿음 등의 영향으로 최근 여성 흡연자와 폐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span>”라고 설명했다. <br/> <br/>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42.txt

제목: 아산재단, 제7회 아산의학상 시상식 개최  
날짜: 20140323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3100000169  
본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3월 21일 송파구 풍납동 아산생명과학연구원에서 제7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을 열고, 기초의학과 임상의학부문 수상자 서판길(62) 울산과기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이경수(57) 성균관대 의대 교수에게 각각 상금 3억 원을 수여했다.이와 함께 젊은의학자부문(기초의학·임상의학) 수상자로 선정된 고재원(35) 연세대 생명시스템대 교수와 박덕우(40) 울산대 의대 교수에게 각각 상금 5000만 원을 수여하는 등 총 7억 원의 상금을 시상했다.기초의학부문 수상자 서판길 교수는 생명현상의 기본원리인 세포신호전달의 개념과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암 성장과 전이 과정의 비밀을 밝혀냈고, 임상의학부문 수상자 이경수 교수는 영상장비를 이용해 폐암의 조기진단과 암의 진행 상태인 병기 결정을 실용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 고재원 교수는 뇌신경세포들을 연결해주는 시냅스의 핵심 분자 메커니즘을 밝혀냈고, 박덕우 교수는 관상동맥질환에서 약물용출성 그물망 시술 후 항혈소판제의 적절한 사용기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아산의학상’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초·임상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뤄낸 국내 의과학자를 발굴해 격려하기 위한 시상으로 지난 2007년 제정됐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43.txt

제목: 과잉진단 논란 갑상선암, 가이드라인 만든다  
날짜: 201403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310013812918  
본문: ‘과다진단’으로 불필요한 암환자를 양산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갑상선암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br/> <br/>보건복지부는 23일 국립암센터에 연구용역을 맡겨 건강검진 때 갑상선암을 검사해 진단하는 기준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평가와 검증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br/> <br/>우리나라는 방사능 유출사고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해마다 갑상선암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암등록 통계자료에 따르면 1986년 갑상선암 발병률은 인구 10만명당 6.9명에 그쳤으나 2011년 발병률은 10만명당 81명으로 30배 정도 늘었다. 이는 세계 평균의 10배가 넘는 수치다. 1999∼2011년 10여년간 연평균 갑상선암 증가율은 23.7%로 전체 암 연평균 증가율 3.6%를 크게 웃돈다. 인구당 발생률과 연간 증가율은 세계 의료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기현상이다. <br/> <br/>일부 의사는 건강에 대한 집착과 무분별한 건강검진 체계가 낳은 결과라고 주장한다.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는 의학적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검진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br/> <br/>의사연대는 “<span class='quot0'>기형적으로 갑상선암이 증가한 원인은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강조하면서 빚어진 ‘과다진단’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span>”고 말한다. <br/> <br/>그러나 갑상선암 전문의 가운데 상당수는 “최근 스웨덴·노르웨이 등 전 세계적으로 갑상선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수술하지 않을 경우 수술한 경우보다 사망률이 4배 정도 높다”고 주장해 어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br/> <br/>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44.txt

제목: 발암물질 ‘라돈’의 공포에 온국민 ‘화들짝’  
날짜: 201403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3100000050  
본문: 대한민국이 라돈의 공포에 휩싸였다. 발암물질인 라돈은 그동안 토양, 암석 등에서 자연 발생해 건물의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된다. 라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신장독성, 폐암 등에 걸릴 수 있다. 22일 방송된 KBS ‘추적 60분’에서는 ‘문제는 집이다. 암 발병 원인에 대한 가장 새로운 분석’을 통해 마감재로 쓰인 석고보드에서 다량의 라돈이 방출되고 있음을 제기했다. 폐암 말기 환자의 17층 아파트 아이의 방에서 충격적인 수치인 5피코큐리(pCi) 라돈이 검출된 것. 방송된 17층 아파트 방 벽면에서 수거한 석고보드를 조사한 라돈의 수치는 놀랍게도 7피코큐리(pCi)가 넘었다.국내에서 석고보드를 생산업체는 KCC와 벽산 라파즈의 두개의 기업이다. 그동안 석고보드는 불에 타지않고 단열효과 있어 건축마감재로 인기가 높다. 가격도 저렴하다. 아파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건축물에 마감재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석고보드 원재료로 인광석이 쓰였다는 점이다. 방송 말미에서 ‘추적 60분’은 “국내에는 환경부 조차 방사성 물질인 라돈사용에 대한 규제조차 마련하지 않아 석고보드 업체를 규제할수 없다”며 정부의 안전 불감증과 제품의 위험성을 인지하면서 사실을 은폐한 업체의 부도성을 비판했다.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방송에서 지적한 석고보드 제조회사는 그 사회적 책임을 피할수 없게 됐다. ‘추적 60분’은 후속편에서도 라돈이 방출되는 자재들을 추가로 취재해 방송할 것이라고 예고 했다.류근원 기자 stara9@sportsworldi.comKBS ‘추적 60분’ 방송화면 캡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45.txt

제목: [응답하라 어저께TV] 김재원, 마성의 자석남 등극  
날짜: 201403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2100000098  
본문: 배우 김재원의 자석 같은 매력이 다시 한 번 빛을 발했다. 지난 21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사남일녀' 11회에서는 충북 청원군 옥산면의 곽창영 아버지와 한영애 어머니와 함께 하는 마지막 날 모습이 그려졌다. 이 날 방송에서 김재원은 어머니의 용돈을 사수하기 위해 김구라, 김민종, 서장훈, 이하늬, 신보라와 함께 양팔을 걷어붙인 채 자식 노릇을 톡톡히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어머니의 용돈을 마련하고자 아버지와 윷놀이 시합을 벌이는데 이어 서장훈, 이하늬와 젖소 농장을 찾아가 젖 짜는 일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김재원은 이외의 상황에서 순간순간마다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특유의 자석 같은 매력으로 암 송아지까지 홀릭시키며 안방 시청자들에게 '빅 웃음'을 선사했다. 송아지에게 먹일 우유 짜기 업무를 맡게 된 세 사람. 유착기가 아닌 손으로 직접 젖을 짜야 하는 상황 속에 서툰 손놀림으로 젖을 짜는 서장훈, 이하늬와 달리 김재원은 능숙한 젖 짜기 솜씨를 선보여 보는 이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했다. 무엇보다 젖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 안절부절 못하는 이하늬에게 "부드럽게 어루만져야 한다"면서 소의 젖을 어루만진 뒤 젖을 짜는 모습은 그야말로 못 하는 게 없는 '만능 아들'의 진면모를 고스란히 드러낸 순간이었다. 송아지에게 우유를 먹일 때도 그의 위력은 여전했다. 김재원은 송아지에게 직접 우유를 먹이기 위해 우리에 들어갔고, 그의 등장에 송아지는 뒷걸음치는 것도 잠시 금세 경계를 푼 뒤 김재원이 건네는 우유를 맛있게 얻어 마셨다. 급기야 옆 칸 송아지까지 김재원의 우유통에 매달리는 등 유독 암 송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김재원은 "얘도 암컷이네"라며 "암컷을 어쩔 수 없어"라며 자신감을 불태워 웃음을 안겼다. 무엇보다 송아지 우리를 떠나려는 김재원이 못내 아쉬운 듯 그의 손가락을 어미의 젖인 양 빨아대며, 자신을 몸을 비비는 등 갖은 재롱을 부리며 애정공세를 펼치는 진풍경이 그려지기도 했다. 그간 김재원은 '뽀마쉐프'에 걸맞은 출중한 요리 솜씨는 물론 수준급의 목공일까지, 무슨 일이든 몸을 아끼지 않고 달려드는 것은 물론 이마저도 완벽히 해내며 '별에서 온 재원'이라는 애칭까지 얻은 터. 젖 짜기부터 보기만해도 감탄이 절로 나오는 살인미소로 송아지까지 단번에 사로잡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내기 충분했다.무엇보다 밤새껏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잠을 청한 모습에서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의미와 어머니를 향한 따뜻함을 전하고 싶은 아들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달됐다. 사소한 행동이지만 그의 배려와 다정함에 행복한 미소를 짓는 어머니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입가의 미소가 떠나지 않게 했다. 스포츠월드 연예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46.txt

제목: 달고 짜고 기름진 입맛이 암을 부른다  
날짜: 2014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1100000251  
본문: 19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 자리 잡은 암은 그 발생자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암 발생의 원인은 노령인구의 증가, 암진단 기술의 발달, 조기 검진 활성화, 암 유발 촉진 환경 등 여러 가지가 거론되지만, 무엇보다 식생활의 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 암연구소는 잘못된 식습관이 암 발생 원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한국건강증진재단이 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암 발생 증가는 육류, 지방, 당 섭취 증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육류섭취는 1998년보다 2012년에 68%, 지방은 16%가 증가했다. 1인 1일 평균 당 섭취량도 2008년 49.9ｇ에서 2010년 61.4ｇ으로 느는 추세다. 나트륨 1일 섭취량은 2012년 기준 4583mg으로 권장섭취량(2000mg)의 2배 이상이다.에너지 섭취의 주요 공급원도 백미, 돼지고기, 라면, 빵, 소주, 우유 순으로 나타나 기름지고 짠 음식이 상위권을 차지한다.이와 달리 채소·과일의 하루 섭취량은 467.3g으로 권장량인 500g보다 적다.건강증진재단은 "암 억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신선한 녹황색 채소 및 과일 섭취를 늘려야 하고 저지방·저열량 식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금연과 절주, 규칙적인 운동 등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암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건강증진재단은 당부했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47.txt

제목: 癌 예방부터 말기까지 국가가 관리  
날짜: 2014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110013805162  
본문: 우리나라 성인들의 암 발병 현황으로 미뤄 평균수명인 81세까지 생존할 때 암에 걸릴 확률은 36.9%로 분석됐다. 남성은 5명 중 1명, 여성은 3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암을 경험할 것으로 추정되는 셈이다. <br/> <br/>보건복지부는 21일 ‘제7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자료를 발표하면서 올해 안에 국가 암관리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r/> <br/>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의 2011년 국가 암등록통계 자료를 보면 2012년 1월 현재 ‘암 경험’ 인구는 모두 109만7253명으로 집계됐다. 국민 45명당 1명이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암 치료 후 살아 있는 셈이다. <br/> <br/>복지부의 종합대책은 암 예방부터 조기 발견, 암 치료 및 말기 암관리 등 모든 진행단계를 아우르게 된다. 복지부는 또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공익적 임상연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암 연구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이다. <br/> <br/>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48.txt

제목: 올해안 국가 암관리 종합개선대책 마련한다  
날짜: 2014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1100000232  
본문: 정부가 올해 안에 국가 암 관리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암 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암 예방 및 치료,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어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종합대책은 암 예방부터 조기 발견, 암 치료 및 말기 암 관리 등 모든 진행 단계를 아우르게 된다.이를 통해 복지부는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공익적 임상연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암 연구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이다.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암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금주, 금연, 건강한 식습관, 주기적인 운동 등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서는 8년째 아시아태평양암예방기구(APOCP)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아시아 전역의 암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 유근영 서울대학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맞춤형 암 치료 유전체 연구를 선도한 김열홍 고려대학교 교수, 암 환자 살의 질 개선에 앞장선 태영숙 고신대학교 교수는 근정포장을 수상했다.지난해에 이어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암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됐다.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의 2011년 국가 암등록통계 자료를 보면, 2012년 1월 현재 '암 경험' 인구는 모두 109만7253명(여성 60만5천748명, 남성 49만1505명)으로 집계됐다. 암 경험 인구는 전국 단위 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11년 말까지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서 2012년 1월 기준으로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이를 전체 인구(2011년 기준 5011만1483명)와 비교하면 현재 국민 45명당 1명이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암 치료 후 살아있는 셈이다. 특히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13명당 1명(남성 9명당 1명·여성 18명당 1명)이 암 경험자였다. 이런 발병 현황으로 미뤄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 수명(81세)까지 생존할 때 암에 걸릴 확률은 36.9%로 분석됐다. 성별로는 남성(평균 수명 77세)의 5명 중 1명, 여성(84세) 3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암을 경험할 것으로 추정됐다 암 종류별로는 갑상선암이 가장 흔했고, 이어 위암·대장암·유방암·폐암·간암 등의 순으로 암 경험자가 많았다.이처럼 암은 갈수록 흔해지고 있지만, 의료 기술 발달 등에 힘입어 초기 단계에 발견하면 대부분 환자가 5년 이상 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07~2011년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5년 이상 생존할 확률(5년 생존율)은 66.3%로, 지난 2001~2005년 진단 환자의 53.8%보다 12.5%포인트나 올랐다.다음은 복지부가 제시한 10가지 암 예방 수칙이다.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2.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3.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4. 술은 하루 두 잔 이내로만 마시기5.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6.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7.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 예방접종 받기8.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9.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10.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49.txt

제목: 암 예방의 날 기념  
날짜: 20140321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110013804264  
본문: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기념일로 지정한 암 예방의 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암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암 예방 정보와 조기 진단 및 치료와 실천을 권장하고자 지정한 날이다. <br/> <br/>차가버섯 제품 300g 이상 구매 시 ‘톳’과 생청국장을 배합한 식이제품인 ‘무암촌 미네앤자임’을 100g~200g 구매 중량별로 증정하고, 차가버섯 제품 1kg 이상 구매 시에는 차가버섯에 발아현미와 25가지 곡물 및 식물, 발효홍삼을 더한 활력제품인 ‘차가홍삼활력’ 500g을 증정한다. <br/> <br/>이벤트 적용 대상 제품은 러시아 차가버섯추출분말을 특허출원공법을 적용하여 발효한 ‘발효차가버섯’, 효소처리 공법을 적용한 환타입의 ‘엔자임차가버섯’, 가장 기본적인 추출제춤인 ‘차가버섯추출분말’ 제품군이다. <br/> <br/>김동명차가버섯 김동명 대표자문위원은 “<span class='quot0'>건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드는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span>”며 평소 생활 속에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갈 것을 강조했다. <br/> <br/>암 예방의 날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동명차가버섯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50.txt

제목: 아산의학상 시상식 열려… 서판길·이경수·고재원·박덕우 '영예'  
날짜: 20140321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110013805293  
본문: 사진설명=21일 아산의학상 시상식 직후 수상자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는 젊은 의학자 부문(임상) 수상자 박덕우 울산대 의대 교수, 네 번째는 기초의학 부문 수상자 서판길 울산과기대 생명과학부 교수, 다섯 번째는 임상의학 부문 수상자 이경수 성균관대 의대 교수, 일곱 번째는 젊은 의학자 부문(기초) 수상자 고재원 연세대 생명시스템대 교수다. 서울아산병원 제공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21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아산생명과학연구원에서 제7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을 열었다.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부문 수상자 서판길(62) 울산과기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이경수(57) 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각각 3억원씩의 상금을 받았다. <br/> <br/> 이와 함께 젊은 의학자 부문(기초의학·임상의학) 수상자로 선정된 고재원(35) 연세대 생명시스템대 교수와 박덕우(40) 울산대 의대 교수도 각각 5000만원씩의 상금을 받는 등 총 7억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br/> <br/> 기초의학 부문 수상자 서판길 교수는 생명현상의 기본원리인 세포신호전달의 개념과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암 성장과 전이 과정의 비밀을 밝혀냈다. 임상의학 부문 수상자 이경수 교수는 영상장비를 이용해 폐암의 조기진단과 암의 진행 상태인 병기 결정을 실용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br/> <br/> 젊은 의학자 부문 수상자 고재원 교수는 뇌신경세포들을 연결해주는 시냅스의 핵심 분자 메커니즘을 밝혀냈다. 박덕우 교수는 관상동맥질환에서 약물용출성 그물망 시술 후 항혈소판제의 적절한 사용기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br/> <br/> ‘아산의학상’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인류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기초·임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은 국내 의과학자를 격려하고자 제정했다. 지난 2007년 만들어져 올해가 7회째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51.txt

제목: ‘암환자’ 두 번 죽인 그들…불법 의료행위로 억대 갈취  
날짜: 20140321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110013803483  
본문: 말기 암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거짓 의료행위를 하고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br/> <br/>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치료를 해주겠다며 암환자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58·여)와 B(57)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A씨의 남편 C(64)씨는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br/> <br/>검찰에 따르면 말기 암환자에게 접근한 A씨는 “<span class='quot0'>황우석 박사와 줄기세포를 연구한 사람이 있다</span>”며 속인 뒤 중국의 한 시설로 유인해 B씨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받게 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5명으로부터 4억8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br/> <br/>A씨 등은 환자들에게 치료액이라며 아미노산 화합물을 주사했으나 면역력 증강 효과는 전혀 없었다. 결국 이들에게 치료받은 말기 암환자 6명 중 3명이 숨지고 나머지 3명은 현재 국내에서 치료받고 있다. <br/> <br/>검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암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여죄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span>”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보건범죄 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52.txt

제목: “액티브엑스, 액티브하게 ‘X’ 해달라”  
날짜: 2014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110013796839  
본문: 20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액티브엑스(Active X)’가 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 암적 규제로 지목됐다. <br/> <br/>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한류 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 중국에서는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한다”며 “바로 액티브엑스 때문이다. 아주 액티브하게 ‘X’ 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액티브엑스는 인터넷 이용자가 다양한 파일과 데이터들을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PC에 설치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플러그인 기술이다. 본인확인이나 결제 등을 위해 자주 쓰이는데, MS의 브라우저인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액티브엑스나 공인인증서를 깔지 않더라도 신용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쉽게 결제가 가능하다. <br/> <br/>그러나 우리나라는 윈도와 IE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 대부분의 온라인 사이트가 결제 과정에서 보안 등을 이유로 액티브엑스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br/> <br/>박근혜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span class='quot0'>드라마(‘별에서 온 그대’)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 <br/>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53.txt

제목: 민주주의 성찰과 미래 대안 제시  
날짜: 2014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110013805353  
본문: 마이클 해링턴 지음/김경락 옮김/메디치미디어/2만1000원오래된 희망, 사회주의/마이클 해링턴 지음/김경락 옮김/메디치미디어/2만1000원 <br/>  <br/>미국의 사회주의 운동가이자 정치학자 마이클 해링턴이 1989년 암으로 사망하기 직전에 펴낸 책이다. 원 제목은 ‘Socialism: Past and Future’. 해링턴은 “<span class='quot0'>자본주의는 자유와 정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21세기 인류가 전례 없는 삶의 조건 속에서 찾아내야 하는 자유와 정의를 위한 희망</span>”을 얘기한다. 그리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에 대해 성찰하고 미래의 대안을 제시한다. 사회주의에 대한 3가지 가설이 흥미롭다. 첫째, 자유와 정의 같은 가치들이 21세기에도 살아남는다면 사회주의 운동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유와 정의는 사회·경제 구조의 지배를 받는다. 셋째, 자본주의가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지금 수준의 자유와 정의도 누릴 수 없다. <br/> <br/>해링턴은 1962년 저서 ‘또 다른 미국(The Other America)’을 내놓아 빈곤 문제를 미국 사회의 현안으로 부상시켰고,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를 이끌어냈다. 자본주의뿐 아니라 동유럽의 관료주의적 사회주의, 서유럽·미국의 신좌파 세력과 대립각을 세운 결과 보수주의자들과 주류 사회주의자들 양쪽에서 이단자 취급을 받았다. 논쟁으로 점철된 삶이 거둔 지적인 결실들이 책 곳곳에 녹아 있다. <br/> <br/>박완규 기자 wgpar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54.txt

제목: 건보공단 내달 중순경 담배 소송 제기한다  
날짜: 2014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0100000490  
본문: 담배 소송 카드를 검토해온 건강보험공단이 이르면 4월 중순경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어 그간의 담배소송 준비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보고받고 소송액수를 정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이사회가 끝나고 곧바로 소송을 맡을 내외부 법률전문가들로 소송대리인단을 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름가량 공모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건보공단 흡연피해구제추진단 관계자는 19일 "담배 소송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송규모를 결정하게 되며, 내부 변호사와 외부변호사로 대리인단을 구성해 실제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건보공단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소송대상은 국내외 담배회사들이다. 실제 어떤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지는 소송대리인단이 출범하는 대로 자체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거쳐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내에서는 KT&G와 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JT인터내셔널코리아 등 4개 국내외 담배회사가 활동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애초 3월 안에는 담배 소송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법적으로 소송규모를 정교하게 계산하느라 내부적으로 잡았던 소송일정을 다소 뒤로 늦췄다.건보공단은 이미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분석 작업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등 담배 소송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건보공단은 연구결과, 흡연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등을 대상으로 일단 시범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소송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소송규모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애초 소송액수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에서 정할 예정이었다.건보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흡연으로 말미암은 사망자는 한해 5만8000명에 달한다. 비흡연자와 비교해 흡연자의 암 발병확률은 2.9~6.5배 높다. 흡연으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10조원에 이른다.흡연 관련 35개 질병 진료비는 연간 1조7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건강보험 연간 진료비의 3.7%, 전체 국민의 한 달 보험료에 해당하는 액수다.건보공단은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내지만, 연간 수천억원의 수익을 내는 담배사업자는 흡연 피해에 대해 부담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긴다"며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를 실현하고 흡연관련 질병 치료로 발생하는 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고자 담배제조 및 판매사들을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55.txt

제목: 달걀 노른자 섭취, 단점 보다 장점 많다  
날짜: 20140320  
기자: kys135@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0100000271  
본문: 콜레스테롤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우려로 계란 노른자를 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함량(계란 1개 200㎎)과 하루 섭취 권장량만(300㎎)을 비교하면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다.대한비만학회는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육류 섭취량과 하루 평균 지방질 섭취량이 서양인보다 적기 때문에 계란만으로 콜레스테롤의 상승을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기는 하나, 장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식품으로 하루 1-2개정도 섭취가 가능하다"며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 및 심혈관질환의 원인이 되는 나쁜 생활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란 콜레스테롤만 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스티븐 제이셀 박사팀은 "계란 노른자에 함유된 콜린 성분은 유방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연구결과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또 노른자가 건강에 좋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간편한 비타민 D 섭취 =가장 쉽고 편하게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다. 계란 노른자 한 개를 먹으면 40IU의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다. 비타민 D 결핍은 골절뿐만 아니라 암ㆍ심혈관질환ㆍ당뇨병 등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키 성장에 도움 =노른자에 함유된 비타민 D는 '칼시페롤'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칼시페롤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를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면 키가 더 자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비타민 D는 달걀노른자 외에 버터와 우유에도 많이 들어있다.▲혈중 콜레스테롤 떨어뜨려 =계란 노른자에 유화제의 역할을 하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또한 계란에 함유된 비타민 B 복합체의 하나인 콜린은 동맥경화와 상관성이 높은 혈중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의 농도를 낮추어 준다.▲기억력이 좋아진다 =계란 노른자의 콜린 성분은 뇌 속의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분비를 활성화시킨다. 아세틸콜린 분비가 늘어나면 기억력과 근육을 조절하는 능력이 좋아진다.▲기형아 출산 예방과 태아의 두되발달에 도움 =노른자의 콜린은 몸 세포의 기능을 돕는 영양분이어서 임신부의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고 태아의 두뇌 발달과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가임기 여성은 콜린이 부족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시력이 좋아진다 =역시 노른자에 들어있는 루테인은 눈의 산화와 노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또 노른자에 많은 비타민 A는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용석 기자 kys135@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56.txt

제목: 건강보험공단 내달께 담배소송 나설 듯  
날짜: 20140320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010013786336  
본문: 건강보험공단이 빠르면 4월중순 담배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br/> <br/>20일 건보공단 흡연피해구제추진단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과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담배소송 규모를 결정하고 내부 변호사와 외부 변호사로 대리인단을 구성해 실제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br/> <br/>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담배소송 준비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보고받은 뒤 소송액수를 정할 방침이다. <br/> <br/>건보공단은 이사회가 끝나고 곧바로 소송을 맡을 내외부 법률전문가들로 소송대리인단을 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름가량 공모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br/> <br/>따라서 빠르면 다음 달 중순께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r/> <br/>소송대상은 국내외 담배회사들. <br/> <br/>실제 어떤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지는 소송대리인단이 출범하는 대로 법률적 판단을 거쳐 정할 것으로 보인다.  <br/> <br/>현재 국내에는 KT&G와 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JT인터내셔널코리아 등 4개 담배회사가 영업 중이다. <br/> <br/>건보공단은 3월안에 담배 소송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법적으로 소송규모를 정밀하게 설계하는 등의 영향으로 소송일정을 다소 늦췄다. <br/> <br/>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분석 작업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등 담배 소송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br/> <br/>건보공단은 흡연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등을 대상으로 일단 시범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br/> <br/>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소송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br/> <br/>따라서 소송규모는 소송이 진행될 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br/> <br/>건보공단은 애초 소송액수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에서 정할 예정이었다. <br/> <br/>건보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흡연으로 말미암은 사망자는 한해 5만8000명에 달한다. <br/> <br/>비흡연자와 비교해 흡연자의 암 발병확률은 2.9~6.5배 높다. 흡연으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10조원에 이른다. <br/> <br/>흡연 관련 35개 질병 진료비는 연간 1조7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건강보험 연간 진료비의 3.7%, 전체 국민의 한 달 보험료에 해당하는 액수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57.txt

제목: 높아져가는 치료비, 합리적인 암보험 비교 수요 ‘증가’  
날짜: 201403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9100000366  
본문: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보험으로 대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암의 경우 치료비가 만만치 않은 데다 발병 이후 경제활동까지 어렵게 되는 질환이어서 암 보험을 대안으로 삼는 이들이 많다.이러한 암 보험은 크게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나뉜다. 갱신형 암 보험은 처음 가입할 때의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지만 40-50대 이후 보험료가 크게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갱신형의 납부 기간이 비갱신형보다 긴 편이며, 누적보험료를 계산해보면 갱신형이 두 배 이상인 것으로 산출된다.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암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보험 가입 이후 몇 년 만에 암이 발생하지 않는 한 비갱신형이 더 나은 조건</span>”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일부 갱신형 상품이 저렴한 초기 보험료만을 강조한 나머지 소비자가 향후 보험료 변동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그렇다면 암 진단 시점에 얼마의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 최근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100세 만기 암 보험을 찾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하고, 진단자금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암 보험은 어릴 때 가입해두어야 이점이 많다. 성별과 가족력 등을 잘 따져보아 최대한 유리한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하지만 암 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사별 보장 내용이 다르고, 상품도 다양해 비교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이에 암 보험 전문사이트를 통해 기본사항을 확인했다.우선 암 보험은 비갱신은 필수이고 환급여부는 선택이다. 30대에 1만 원대로 가입한 암 보험료가 알고 보니 60대에 4배 이상 인상되는 상황이라면 갱신형 상품에 가입한 것이다. 반면 비갱신형은 만기까지의 보험료가 가입 시에 결정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저렴하다. 또한 환급에 있어서도 보험사와 본인의 조건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두 번째, 암진단금과 보장기간도 중요하다. 암 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막론하고 암 진단 시점에 얼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100세까지 보장되는 암 보험을 찾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인 흐름이다. 연령에 따라 진단자금의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암 보험은 특히 가입자의 연령이 낮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셋째, 일반 암의 보장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모든 암 진단자금에 똑 같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고액 암과 일반 암· 소액 암· 남녀생식기계 암 등 암 진단자금을 확인해야 한다. 최근 발병률이 높아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진 유방 암· 자궁 암· 전립샘 암 등 남녀생식기계 암을 소액으로 지급하는 보험도 많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판매율이 높은 상품이라고 해도 설계에 따라 의무부가담보나 적립금 등에 따라 보험료는 천차만별이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건강조건과 경제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려면 특정 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별로 여러 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하라고 강조한다.특히 같은회사 동일상품일지라도 가입하는 지점마다 의무적으로 넣어야하는 사망보장이 다르므로암 보장만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곳을 찾아 비교해야 한다.도움말을 준 이곳에서(http://cancer.boheommall.kr/)는 기존 유지하고 있는 보험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각 보험사별 비교설계와 전문적인 보상청구대행팀을 운영하여 사후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58.txt

제목: 내 몸 속 ‘세균’ 바꿔야 장(腸)이 튼튼해져  
날짜: 20140319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9100000082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2011년 암발생률, 암생존율 등의 통계를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등의 순으로 발생 비율이 높았고 갑상선암, 대장암 등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발생 증가 원인은 고령화, 서구형 식생활, 신체활동의 감소 등 생활 습관의 변화가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식생활과 생활습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암은 소화기관에서 발생하는 대장암이다. 평소 음식을 짜게 먹거나 타고 그을린 음식,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의 붉은색 고기의 과다 섭취가 대장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또한 습관적으로 술을 마신다거나 쉬는 날 없이 자주 많이 마실 경우 대장암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대장암의 주요 증상은 설사와 변비,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흑갈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설사와 변비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신경성으로 인한 과민성대장증후군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빈혈과 복통, 체중감소를 보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한다.◆어떤 음식 섭취하느냐에 따라 20년 후 질병 패턴 바뀌어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이 젊고 건강한 20대부터 식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 어떠한 음식을 내 몸에 흡수시키느냐에 따라 20~30년 후 건강의 척도가 달라질 수 있다. 평소 섬유소가 풍부한 채소를 골고루 먹고 장에 유익균을 늘려주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섬유소는 대장으로 유입되는 내용물을 희석시켜 장 흐름을 원활히 하고 대변의 부피를 늘려 배변 활동을 도와준다. 단백질은 가급적 붉은색 육류 보다는 닭고기와 생선 같은 흰색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붉은색 육류는 소화 흡수 시 다량의 활성산소가 발생해 대장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장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내 유익한 세균이 잘 증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내 세균은 대장에 서식하는 미생물로 보통 사람의 몸 속에 약 100조 개, 500종류 이상이 존재한다. 이로운 균과 해로운 균, 상황에 따라 해롭게 작용하는 균 등 다양하며, 이로운 균이 장 환경을 향상시켜 배변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준다.◆이로운 균 늘리는데 ‘낫토균’과 ‘락토민’ 섭취가 도움돼장내 세균은 배변시 변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늘려줄 필요가 있다. 발효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유산균은 몸 속의 이로운 균을 늘려주며 장의 면역력을 높여 몸의 저항력을 길러준다. 장 건강을 개선하고 유익균을 늘려주는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는 낫토가 있다. 몸과 장에 유용한 미생물인 나토바실리스균은 몸 속 유익균인 비피더스 균의 증식을 높여주고, 낫토의 점액성분이 혈전을 분해하는 작용을 한다. 변비나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일 뿐 아니라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암작용, 피부질환개선 등에도 효과가 있다.낫토균과 유산균(락토민)의 더블생균을 주성분으로 한 정장제도 있다. 지난해 한국코와에서 출시한 ‘더가드코와 정장정’은 장내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의 증식을 촉진하고 유해균 증식을 억제해 손상된 대장의 기능을 회복시킨다. 한국코와주식회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더가드코와 정장정에는 더블생균뿐 아니라 양배추의 MMSC성분도 함유되어 위장 기능을 개선하는 역할까지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장기 복용할 경우 일시적인 완화가 아닌 근본적인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span>”고 말했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59.txt

제목: 암줄기세포 면역치료, 암 해결 위한 새로운 가능성 제시  
날짜: 20140318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810013764527  
본문: 현대의학의 발달로 암은 초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통계적으로 높은 치료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암의 중기·말기의 경우 여전히 낮은 치료 효과율을 보이고 있어 암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br/> <br/>일본에서는 제4의 치료법인 면역요법과 같은 암 치료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 큐우슈우지역 구마모토에 소재한 암 면역 전문병원인 센신병원의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이하 ‘박사’)는 면역세포치료 분야의 권위자다. <br/> <br/>박사는 면역세포의 동시배양을 통해 면역세포가 팀이란 개념으로 암 세포를 없애는 치료법을 시행하고 있다. <br/> <br/>병원 측에 따르면 박사가 개발한 5종복합면역요법을 수지상세포에 인식시킨 ‘DC-아이백•WT1요법’이 높은 암 치료 유효율을 보이고 있어 일본 내 암 환자들의 한줄기 빛이 되고 있다. <br/> <br/>현재 박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치료법은 ‘DC-아이백•CSC요법’으로 일명 ‘암 줄기세포 특이항원면역백신요법’이다. <br/> <br/>구라모치 츠네오 박사는 “<span class='quot0'>암 줄기세포는 암세포를 만들어 내는 암세포의 근원이 되는 세포로 정상세포의 줄기세포와 마찬가지로 ‘자기복제능력’과 ‘다분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암 줄기세포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차단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암 줄기세포는 평소 휴면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암제 공격을 받지 않는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츠네오 박사는 일본 유명 제약회사와 공동으로 암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항원을 3년의 연구 끝에 개발했다. <br/> <br/>특히 5종복합면역요법과, 수지상세포획득면역백신요법 그리고 암 줄기 세포 특이항원 펩티드가 결합된 DC-아이백•CSC요법으로 75% 이상의 높은 치료율을 기대하고 있다. 박사는 지난해 말부터 이 치료법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br/> <br/>현재 츠네오 박사의 센신병원은 일본 정부의 지원금으로 도쿄에 제2병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일본 지역 내의 35여 개의 제휴병원을 통해 암 치료를 위한 면역세포를 제공하고 있으며 표준 치료로의 발전을 노리고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60.txt

제목: 박 대통령 "장애인 인권침해 막기 위해 시설 전수조사"지시  
날짜: 20140318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810013765623  
본문: 박근혜 대통령은 장애인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 근절을 위해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br/> <br/>박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얼마 전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오래 전부터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고질적 관행을 이젠 끊어야겠다"고 말했다. <br/> <br/>이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단하고 전국 장애인 시설을 전수 조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r/> <br/>박 대통령은 또 "최근 중증 장애인을 둔 가족이 (장애인) 부양의 어려움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장애와 질병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가족을 지탱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 보호·지원체계도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br/> <br/>이날 박 대통령은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은 공무원이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때 해결할 수 있다"면서 "공무원 한사람 한 사람이 열정과 집념을 쏟아 부어 우리 국민 삶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각오로 온 몸을 던져 달라"고 당부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61.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병원’ 출범, 환자중심 ‘통합치료’ 길 터  
날짜: 201403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810013770729  
본문: 심장질환·뇌졸중·혈관질환을 한데 묶어 통합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문을 열었다. 환자들이 진찰을 위해 각 진료과를 찾아다녀야 했던 기존 문화에서 벗어나 의료진이 한곳에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 중심 병원으로 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br/> <br/>삼성서울병원(원장 송재훈)은 심장과 뇌졸중, 혈관질환 등 유관 진료과를 모두 합친 ‘심장뇌혈관병원’을 출범시켰다고 18일 밝혔다. ‘튼튼한 심장, 깨끗한 혈관, 행복한 뇌’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 병원은 산하에 심장센터·혈관센터·뇌졸중센터·이미징센터·예방재활센터 등 5개 센터와 운영지원실을 두고 있다. <br/> <br/>심장뇌혈관병원 출범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진료과들 간의 ‘협업’을 통해 환자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병원 측에 따르면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은 암에 이어 한국인의 사망 원인 2, 3위를 나란히 차지한다. 무엇보다 발병 원인이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두 질환을 동시에 앓거나 한쪽이 다른 한쪽의 뒤를 이어 발병한 사례가 이미 여러 차례 발견됐다. <br/> <br/>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병원 오재건 원장(모니터를 가리키는 사람)이 심장질환·뇌졸중·혈관질환 등 유관 진료과에 속한 의사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br/>삼성서울병원 제공실제로 뇌졸중 위험인자를 똑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심장 또는 혈관질환을 앓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뇌졸중 발병 위험이 4.3배나 높다는 게 의학계의 정설이다. “<span class='quot0'>뇌졸중이 발병한 환자의 26%는 관상동맥이 50% 이상 막혀 있는 무증상 관상동맥협착증 환자</span>”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심근경색 등 심장혈관 질환에 쓰인 혈전용해제와 아스피린 등 약물을 뇌경색 환자에게 적용하기까지 15년 넘게 걸렸을 만큼 관련 전문가들의 상호 교류와 공동 연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br/> <br/>새로 발족한 심장뇌혈관병원은 심근경색 환자의 뇌졸중처럼 두 군데 이상의 혈관에서 질환이 발생하는 다혈관질환 클리닉, 목에서 뇌로 피를 공급하는 경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동맥협착 클리닉, 불규칙하게 맥박이 뛰는 심방세동 환자 클리닉 등 환자 중심의 새로운 통합진료 클리닉을 개설했다. 향후 고난이도 중증·응급 환자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br/> <br/>심장뇌혈관병원 초대 원장에 임명된 오재건(62) 교수는 “<span class='quot1'>환자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만 고민하겠다</span>”며 “<span class='quot1'>앞으로 우리나라 심장·뇌졸중·혈관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span>”고 각오를 밝혔다. <br/> <br/>김태훈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62.txt

제목: 고려인삼공사 차가버섯, 후코이단 수록된 대체요법 도서 출간  
날짜: 20140317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710013752597  
본문: 보완대체식품 전문기업 고려인삼공사는 지난 1월 ‘암환자를 위한 대체요법’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br/> <br/>이번 도서는 지난해 11월 출간된 ‘암환자를 위한 건강가이드’ 후속권으로 대체 식품 및 요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br/> <br/>총 9장으로 구성된 대체요법은 천연 대체 식품인 차가버섯을 시작으로 바닷속 건강 파워 ‘후코이단’· 베리류의 제왕 ‘아로니아’· 차가버섯을 이을 신비의 약용버섯 ‘말굽버섯’ 등의 대체 식품과 온열 요법· 운동 요법· 심리 요법 등을 다루고 있다. <br/> <br/>책에서는 현대의학에 중점을 두고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에게 가장 알맞은 대체요법을 병행하는 보완적인 치료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암을 치유하기 위한 자연치유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br/> <br/>저자 이평수 대표는 “<span class='quot0'>이 책은 지난해 출간된 ‘암환자를 위한 건강가이드’에 대한 자사 회원들의 호평이 이어져 출간이 당초 계획한 시기보다 앞당겨졌다</span>”며 “<span class='quot0'>한시라도 지체할 시간이 없는 많은 암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span>”고 전했다. <br/> <br/>한편 저자가 대표로 있는 고려인삼공사는 2000년 대 들어서부터 보완대체식품에 관심을 갖고, 천연 원료를 이용한 제품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차가버섯· 후코이단· 수소수 등 여러 제품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10만 여 암 환우들과 함께하는 보완대체식품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63.txt

제목: '나 곧 죽어' 시한부 오정세, 김슬기에 위안 얻어  
날짜: 201403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7100000248  
본문: ‘나 곧 죽어’ 오정세의 이별여행이 시작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지난 16일 방송된 KBS 2TV 드라마스페셜 ‘나 곧 죽어’에서는 우진(오정세 분)이 암 선고를 받는 내용이 전파를 탔다.서른다섯의 이른 나이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우진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위해 호텔 스위트룸을 빌렸다. 우연찮게 첫사랑을 만나게 된 우진은 이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알게 된다. 우진에게 돌아온 대답은 “그때 너밖에 몰랐잖아. 서운했어”였다.이윽고 불꽃처럼 현재를 즐겁게 살자는 뜨거운 인생관의 4차원 소녀 사랑(김슬기 분)에게서 위안을 얻은 우진은 삶의 위안을 얻고 긍정 에너지를 받게 된다.‘나 곧 죽어’ 오정세와 김슬기의 모습에 누리꾼들은 “‘나 곧 죽어’ 오정세 김슬기 연기 잘하더라” “‘나 곧 죽어’, 김슬기 귀여웠어” “‘나 곧 죽어’ 오정세가 김슬기 만나서 얻는 힘이 어느정도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뉴스팀사진=KBS 2TV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64.txt

제목: 의료실비보험 가입방법, 비교추천은 필수  
날짜: 20140317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7100000083  
본문: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질병 노출이 될 위험성이 높다. 때문에 병원을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기 마련인데, 우리나라 국민 1명이 평생 쓰는 의료비는 평균 1억원 정도다. 이 중에서 절반 가량이 64세 이후인 노년에 집중적으로 지출된다. 의료비 항목의 절반을 차지하는 노후 의료비 대안 지금부터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의료실비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실손으로 보장받는 상품으로 국민의 60% 이상은 가입을 하는 편이다. 하지만 보험 가입에 앞서 보장내용이나 가입 금액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며 비교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의료실비보험 가입시 알아둘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첫째,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의료실비보험은 질병이나 다쳤을 때 실질적으로 병원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병으로 인한 치료중이라면 가입이 제한된다.둘째, 보험료는 연령이 낮을수록 저렴하고 높을수록 의료비용 지출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으며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셋째, 실손보험 이기에 중복보장이 안된다.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일정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되므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 하나만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암 보험을 선택특약으로 할 경우 암 진단만 비갱신형으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의료실비 자체 비갱신형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체크해야 한다.대신 중복보장이 가능한 경우는 의료실비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는 건강보험의 경우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특정질병이 발병될 위험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 내용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넷째, 의료실비보험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통원,입원,수술비 등을 보장받기에 보험금 청구횟수가 잦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빠른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다섯째, 본인부담금 설정은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데, 가능한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10%,20%가 있는데 10%를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실생활에 꼭 필요한 보험이기에 의료실비보험 비교추천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의료실비보험 가격비교견적 추천사이트(http://silbi-bohum114.co.kr/?inType=270017)는 나에게 맞는 의료실비보험 실시간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고, 비교추천해주는 곳으로 어린이 부모님 의료실비보험 등을 저렴하게 비교 가입할 수 있다.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 LIG손해보험 닥터플러스건강보험/희망플러스자녀보험,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의료종합보험, 흥국화재 더플러스사랑보험/무배당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 현대해상 하이콜종합보험/굿앤굿어린이CI보험 등의 인기상품의 의료실비보험순위와 가격비교를 할 수 있다.이러한 보험 상품들의 무료상담은 물론 가입시 유의할 점, 의료실비보험료 계산, 보장 내용 축소에 대한 설명과 무료 보험설계를 받을 수 있어 의료실비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보험정보를 알려준다. 의료실비보험 가격견적비교사이트를 꼭 활용해 가입하기를 추천한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65.txt

제목: '나 곧 죽어' 오정세-김슬기, 연기력 호평 이어져  
날짜: 201403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7100000244  
본문: ‘나 곧 죽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오정세가 김슬기에게 고백했다.16일 방송된 KBS 2TV 드라마스페셜 ‘나 곧 죽어’에서는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우진(오정세 분)과 사랑(김슬기 분)의 첫 만남이 전파를 탔다.서른다섯의 이른 나이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우진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위해 호텔 스위트룸을 3개월 동안 빌렸다. 그런 우진에게 사랑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고, 두 사람은 사귈 준비를 하게 된다. 우진의 프로포즈를 받은 사랑은 “<span class='quot0'>여러분, 지금 이 남자 분이 저한테 프러포즈를 했어요</span>”라며 기뻐했다. 특히 사랑은 우진에게 긍정 에너지를 선사하며 마지막을 달리는 그에게 힘이 돼 줬다. 하지만 우진의 병은 암이 아닌 위염으로 밝혀져 시선을 모았다.‘나 곧 죽어’ 오정세와 김슬기의 연기를 접한 누리꾼들은 “‘나 곧 죽어’ 오정세-김슬기, 연기력 좋다” “‘나 곧 죽어’ 오정세, 김슬기도 드라마서 많이 봤으면 좋겠어” “‘나 곧 죽어’ 오정세, 김슬기한테 프러포즈 할 때 얼마나 좋았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뉴스팀사진=KBS 2TV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66.txt

제목: 암치료의 다각화…수지상세포치료에 이어 암줄기세포면역치료  
날짜: 2014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4100000298  
본문: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암환자 수는 110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연평균 3% 넘는 신규 암환자가 생겨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환자는 현대의학의 표준 치료에 의존해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많은 암환자들은 삶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진단의학의 발달로 인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경우에는 높은 치료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진행 암이나 말기 암의 경우 낮은 치료 효과율을 보이고 있다.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에서의 암 치료 또한 현대의학의 표준 치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국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제4의 치료법이라고 말하는 면역요법과 같은 암 치료 분야에서는 국내와 확연히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다.일본, 큐우슈우지역 구마모토에 소재한 암 면역 전문병원인 센신병원의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이하 ‘박사’)는 면역세포치료로 유명하다.박사는 5가지 면역세포의 동시배양을 성공 시켜면역세포간 네트워크(Network)화로 암세포에 대한 팀플레이(Team play)를 가능하게 해 암치료 유효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5종복합면역요법’이란 치료법으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과 같은 의료 기관으로부터 주목과 관심을 받는 상황.더불어 5종복합면역요법에 수지상세포에 WT1 암 펩티드(암항원)를 인식시켜 개발한 '新수지상세포획득면역백신요법'이라고 불리는 ‘DC-아이백•WT1요법’은 높은 암 치료 유효율을 보이고 있다.현재 츠네오 박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치료법은 DC-아이백·CSC요법이다. 다시 말하면 암 줄기세포 특이항원면역백신요법이다.1997년, 캐나다 연구팀에 의해 세계 최초로 급성골수성 백혈병환자의 세포에서 암 줄기세포가 발견되어 학계에 발표되었고, 그 이후로 여러 암세포에서 암 줄기세포가 발견되었고 현재까지 12종류의 암에서 줄기세포가 발견되고 있다.암 줄기세포는 암세포를 만들어 내는 암세포의 근원이 되는 세포로 정상세포의 줄기세포와 마찬가지로 ‘자기복제능력’과 ‘다분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암 줄기세포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차단할 수 있다. 암 줄기세포는 평소 휴면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암제 공격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박사는 암 줄기세포의 근원적인 치료를 위하여 일본의 유명 제약회사와 공동으로 암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항원을 3년여의 연구 끝에 개발했다.DC-아이백·CSC요법은 5종복합면역요법· 新수지상세포획득면역백신요법 그리고 암 줄기세포 특이항원 펩티드가 결합된 암 치료법으로 높은 치료유효율을 기대하고 있다.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작년 말부터 이 치료법을 시행하여 지금까지 몇 개월 되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경과를 보이고 있다.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암 치료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센신병원은 박사의 연구 기술과 실력을 정부에서 인정하여 정부 지원금으로 도오쿄오(동경)에 제2병원(린카이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35여 개의 제휴병원에 암 치료를 위한 면역세포를 제공하고 있고 표준 치료로의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67.txt

제목: 천문학적 돈 쏟아붓는데… 암 정복 요원한 까닭은?  
날짜: 2014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410013740453  
본문: G 에드워드 그리핀 지음/석혜미 옮김/포북/2만8000원암 없는 세상/G 에드워드 그리핀 지음/석혜미 옮김/포북/2만8000원 <br/> <br/>파키스탄 북부의 훈자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든 인기 애니메이션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의 배경이 된 곳이다. 살구로 유명한 고장답게 이곳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살구씨를 즐겨 먹었다. 훈자 사람들이 좀처럼 암에 걸리지 않는 점에 착안한 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살구씨에 항암 작용을 하는 영양소가 있음을 밝혀냈다. ‘비타민 B17’로 불리는 영양소가 그것이다. 드디어 인류는 암 정복을 눈앞에 두게 된 걸까. <br/> <br/>책에 따르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암은 여전히 ‘치명적’ 질병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암 예방과 치료에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하다. “<span class='quot0'>살구씨만 널리 보급해도 될 텐데</span>”라는 의문 제기는 차라리 순진하다. 저자는 500쪽 가까운 책을 암 정복이 요원한 이유 설명에 온전히 할애한다. <br/> <br/>1부 ‘암 치료의 과학’부터 살펴보자. 살구씨에 함유된 항암 영양소를 치료제로 개발한 물질이 ‘레이어트릴(Laetrile)’이다. 1960년대에 상당수 의사는 구하기 쉽고 값도 싼 레이어트릴이 암 예방과 치료를 한결 쉽게 만들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딘 버크 박사와 에른스트 크렙스 주니어 박사, 독일의 한스 니이퍼 박사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반발도 거셌다. 미국 암학회 헬렌 브라운 박사는 1973년 언론 기고문에서 “<span class='quot1'>레이어트릴은 저주받아 마땅한 의료 사기</span>”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br/> <br/>결론부터 말하면 레이어트릴은 미국 의학계 주류의 ‘공인’을 얻지 못했다. 암학회 지도부는 레이어트릴에 ‘검증되지 않은 암 치료법’이란 딱지를 붙였다. 이는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레이어트릴은 미국·멕시코·독일 등에서 처방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체의학요법’의 하나쯤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로 치면 ‘민간요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못한 셈이다. <br/> <br/> 의료진이 첨단 의료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암발병 여부를 검진하고 있다.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암은 여전히 치명적 질병으로 남아 있다. <br/>세계일보 자료사진2부 ‘암 치료의 정치’는 레이어트릴이 실패한 근본 원인의 규명을 위해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나치 시절 독일 이야기를 꺼낸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제약 분야 독점업체인 IG파르벤과 나치 정권 간에 엄청난 규모의 ‘검은 유착’이 있었다. 당시 IG파르벤의 위세는 독일은 물론 미국·영국 등 연합국 정부조차 두려워할 만큼 대단했다. 2차 대전 말기 연합국 공군이 프랑크푸르트에 ‘융단폭격’을 가할 때에도 이 도시에 있던 IG파르벤 본부는 멀쩡히 살아남았다. 말 그대로 ‘돈’의 힘이었다. <br/> <br/>2차 대전 당시 IG파르벤이 누린 권력은 독일 패망 후 미국 제약업체로 고스란히 옮겨갔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한 제약업체들은 막강한 로비력으로 의학계 주류는 물론 정부기관인 식품의약국(FDA)까지 주물렀다. 책은 “제약업체·의사·FDA로 구성된 거대 카르텔이 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약이나 요법의 시장 진입을 철저히 가로막으며 자기네 이익만 챙긴다”고 고발한다. <br/> <br/>저자의 직업은 과학자나 의사가 아니고 영화감독 겸 다큐멘터리 작가다. “<span class='quot0'>레이어트릴을 활용하면 암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span>”는 저자의 주장을 100% 받아들이기 어려운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음모론’으로 치부해 간단히 넘길 사안은 아니다. 저명한 의사·과학자 가운데 레이어트릴을 지지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고, 저자는 그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생생하게 전한다. 이 책이 암을 다루는 의학계와 제약업체에 ‘건강한’ 논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68.txt

제목: 자죽염, 9번 구워야 얻을 수 있는 '땀의 결정체'  
날짜: 2014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4100000266  
본문: 자죽염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다.13일 방송된 MBN '리얼다큐 숨'에는 서해 천일염과 왕대나무, 황토, 소나무 등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사용해 9번 구워내야 얻을 수 있는 땀의 결정체인 자죽염이 전파를 탔다.이날 방송에서 공개된 자죽염은 3번 구워낸 죽염과 달리 1000도에서 8번 반복해 구워낸다. 또 1700도 이상 고온에서 다시 소금을 녹이는 까다롭고 인내가 필요하다. 만고의 노력이 깃든 자죽염은 정화 기능이 있는 황토, 뼈와 근육 강화에 좋은 소나무의 장점도 고루 녹아 있다고.최근 바이러스와 암을 예방하는데 자죽염 만한 것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은 온통 자죽염에 쏠려 있다. 온라인 뉴스팀사진=MBN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69.txt

제목: 제3기 방통위 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적재산권 전문가  
날짜: 20140314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410013736095  
본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5일 임기 만료되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최성준(5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br/> <br/>14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최 내정자가 법원의 주요 보직을 두루거치며 리더십과 재판역량 등을 인정받았으며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관련 전문성과 경험도 갖췄다"고 평가했다. <br/> <br/>이어  "조직내 신망이 두텁고 성품이 곧아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를 판사로 재직하며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으로 판단해 발탁했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br/> <br/>청와대는 청문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음주 초 국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br/> <br/>지난 2008년 3월 출범한 방통위는 임기 3년의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br/> <br/>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여당 1명, 야당 2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br/> <br/>3기 방통위 위원 중 국회 추천 몫인 3명의 위원인 허원재(새누리당 추천), 김재홍 고삼석(이상 민주당 추천) 위원은 지난달 국회 동의를 거쳐 확정됐다.  <br/> <br/>2기 방통위은 이명박 전 정권시절 실세로 알려졌던 최시중 위원장이 1기에 이어 2기 위원장으로 있었으나 지난 2012년 1월 사퇴, 이계철 위원장이 자리를 이어 받았다.  <br/> <br/>하지만 이계철 위원장 역시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 이경재 위원장이 뒤를 물려 받았다. <br/> <br/>최성준 방통위 위원장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br/> <br/>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한 뒤 서울민사지법·서울형사지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br/> <br/>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회장 등을 거친 최 내정자는 지적재산권 관련 재판을 맡아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br/> <br/>한편 최성준 내정자는 지난 2009년 9월 그해 돌아가신 모친 고(故) 한명자 여사가 남긴 유산 5억원을 동생인 최경준 법무법인 양헌 대표와 최기준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와 함께 암환자 지원에 써달라며 아산병원에 기부해 잔잔한 감동을 준 바 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70.txt

제목: 암 예방 위해서라면…안젤리나 졸리, 두 번째 수술 고려  
날짜: 20140313  
기자: 이다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310013731488  
본문: 할리우드 유명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두 번째 암 예방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br/> <br/>13일 미국 연예매체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에 따르면 지난해 암 예방을 위해 유방절제수술과 재건 수술을 받은 안젤리나 졸리가 다음 단계에 나설 것을 밝혔다. <br/> <br/>졸리는 인터뷰를 통해 “아직 다른 수술(난소 절제술)이 남아있다”며 “다음 단계를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br/>지난해 수술에 대해서는 “내 결정에 매우 행복하고 훌륭한 의사를 만난 것도 매우 행운이었다”고 전했다. <br/> <br/>졸리는 지난해 5월 유방암과 난소암 위험 인자를 발견하고 예방 차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당시 BRCA1으로 알려진 유전자 때문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였고 난소암도 50%의 확률이 나왔다고 밝혔다. 졸리의 어머니는 난소암으로 10년 가까이 투병하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br/> <br/>뉴스팀 news@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71.txt

제목: 미혼여성,기혼여성 비해 심장병 사망위험 28% 높다  
날짜: 201403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3100000424  
본문: 사진=세계일보 제공미혼 여성은 결혼한 여성에 비해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28% 높다.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새러 플라우드 박사가 심장병, 뇌졸중, 암 병력이 없는 여성 73만4626명(평균 연령 60세)를 대상으로 평균 8.8년 진행한 조사분석 결과,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심장병 발병률은 기혼 여성이나 미혼 여성이나 차이가 없었으나 심장병  사망률은 미혼 여성이 기혼 여성보다 28% 높게 나타났다.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생활방식 등 다른 위험요인들을 고려했지만 이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기혼 여성이 미혼 여성보다 심장병 사망률이 낮은 것은 배우자의 치료 권고, 정신적 지원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플라우드 박사는 설명했다.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두 3만747명이 심장병이 발생했고 이 중 2148명이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이 연구결과는 영국의 온라인 과학전문지 ’바이오메드 센트럴-의학’(BioMed Central - Medicine)에 실렸다.온라인 뉴스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72.txt

제목: [설왕설래] 말의 정치  
날짜: 201403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310013731487  
본문: “<span class='quot0'>인사 청탁하면 패가망신을 시켜주겠다.</span>” 돈 싸들고 출세길 찾는 사람에겐 강력한 경고였다. 이 말은 비극으로 끝났다. “<span class='quot0'>좋은 학교 나오신 분이 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머리 조아리고 돈 주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span>”고 하자 당사자는 한강에 투신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이 말로 ‘검사스럽다’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국민엔 고압적이고 권력엔 눈치 보는 검찰 아닌가. 이런 말들은 메시지가 뭔지 대번에 알 수 있다. 이 정도에서 멈췄으면 좋았을 것이다. <br/> <br/>그는 구어체적이고 감상적인 어휘 구사에 일가견이 있었다. 그가 “기자 여러분! 내 쌍꺼풀 예쁩니까?”, “여자는 뺑뺑이용과 오솔길용이 있어야 한다”고 농담을 던졌다고 해서 책할 것은 아니다. “반미하면 안 되나?”라는 것도, “<span class='quot0'>남북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다 깽판 쳐도 괜찮다</span>”는 것도, “<span class='quot0'>국보법 그거 썩어 빠진 퇴보법</span>”이라고 한 것도 메시지 하나만은 충분히 전달됐다. 과유불급(過猶不及) ! 이게 항상 문제다. “쓸데없는 삽질만 하려고 군대 간 것도 아닌데. 썩는 거 맞죠?”, “대통령 못해 먹겠다”, “권력 통째로 내놓을 수도”, “캬, 토론하고 싶은데 그놈의 헌법”이라는 숱한 거친 말들은 그를 추락시켰다. 메시지는 온데간데없고 황량한 말의 파편만 남았다. 그는 말로 일어서 말로 무너졌다. <br/> <br/>메시지를 잘 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성이다. 촌철살인(寸鐵殺人)해야 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요약이 아니다. 무자비할 정도로 곁가지를 쳐내고 핵심만 남겨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반복이다. 기업가 잭 웰치는 “기업의 핵심 가치는 700번 이상 반복해서 부하직원들에게 말하라. 신물이 날 정도로”라고 했다. <br/> <br/>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단순하고 반복적이다. 메시지 전달 분야에선 고수다. “참 나쁜 대통령”,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손톱 밑 가시’나 ‘신발 속 돌멩이’ 같은 표현은 감성적인 데다 부드럽다. 국민의 언어 순화에도 도움이 된다. 초등학생이 따라 한들 무슨 문제가 있으랴. 요샌 어떤가. “<span class='quot0'>살점이 완전히 뜯겨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 진돗개 정신</span>” , “<span class='quot0'>천추의 한을 남기면 안 된다</span>” , ‘불타는 애국심’, ‘쳐부술 원수’, ‘암 덩어리 같은 규제’ 등은 자극적이고 과격하다. 지나치면 메시지는 사라지고 말의 조각만 흉흉하게 남을 텐데. 걱정이다. <br/> <br/>백영철 논설위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73.txt

제목: ‘용감한 기자들’ 절벽서 뛰어내린 말기암 기러기아빠의 사연은?  
날짜: 20140312  
기자: 방송최정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2100000073  
본문: E채널 ‘용감한 기자들’에는 말기암 오진으로 한 가정이 송두리째 망가진 기러기 아빠의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된다.12일 밤 11시에 방송될 E채널 ‘용감한 기자들’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들이 방송된다. 이 중 보험 전문 기자는 ‘죽지 못해 사는 기러기 아빠’의 사연을 공개한다.사연의 주인공인 기러기 아빠 김씨는 외국에서 생활 중인 아내와 아들에게 매년 1억 원의 돈을 성실히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간 김씨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됐다.김씨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보다 상해로 사망하면 4배가 넘는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아직도 2년의 공부가 더 남은 아들의 교육비 걱정에 고의로 절벽에서 뛰어내려 사고사 위장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척추와 장기에 심각한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채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그러나 이 사고로 인해 입원한 병원에서 폐암 판정이 오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중소기업에서 곧 임원으로 승진 예정이던 김씨는 직장도 잃고 말았다. 또한, 고의적인 사고로 보험 보상금도 받지 못했다. 김씨는 오진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로금 500만원을 받고 현재까지 병상에서 생활하고 있다.오진으로 벌어진 한 가장의 극단적 선택에 MC 신동엽을 비롯한 스튜디오 출연진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유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뒤로하고 반신불수 상태의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다는 아들의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한 것. 패널 홍석천은 “<span class='quot0'>지금까지 나온 사연 중 이 사람이 가장 억울하다</span>”며 가슴 아파했다.한편, 이날 방송되는 ‘용감한 기자들’에는 ‘톱스타의 환불로 괴로운 백화점’ ‘프로야구팀을 분열시킨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연이 펼쳐진다. 12일 수요일 밤 11시 E채널 방송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74.txt

제목: [건강 단신] 12일 ‘암, 알아야 이긴다’ 주제로 강좌 외  
날짜: 201403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110013707563  
본문: 12일 ‘암, 알아야 이긴다’ 주제로 강좌 <br/> <br/>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12일 오후 3시 경기 화성시 석우동 병원 4층 화상회의실에서 ‘암, 알아야 이긴다’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혈액종양내과 정주영 교수가 암 검진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와 국가 암 검진 안내에 대해 설명한다. 정 교수는 “<span class='quot0'>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span>”며 “<span class='quot0'> 체계적인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span>”고 말했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031)8086-2395 <br/> <br/>20일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강좌 <br/> <br/>서울아산병원 천식센터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풍납동 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최신 치료’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연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잦은 감기와 기침에 시달린다면 다른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호흡 곤란, 객혈, 가래, 체중 감소 등 증상이 동반되면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날 강의에서는 권혁수 알레르기내과 교수와 이세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과 개인별 맞춤 치료법에 대해 설명한다. (02)3010-5051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75.txt

제목: 아산의학상 서판길·이경수씨  
날짜: 201403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110013707991  
본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제7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서판길(왼쪽 사진) 울산과기대 생명과학부 교수(기초의학부문)와 이경수(오른쪽 사진) 성균관대 의대 교수(임상의학부문)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br/>서판길 교수는 암 성장과 전이 과정의 비밀을 규명한 업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경수 교수는 영상장비를 이용해 폐암의 조기 진단과 암의 진행 상태인 병기 결정을 실용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76.txt

제목: 임신 중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가능해요  
날짜: 201403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110013707564  
본문: 임신 4개월에 접어든 신모(30)씨는 아기를 갖기 전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린다. 임신 전 자궁경부암과 풍진 백신을 맞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씨는 “<span class='quot0'>가임기 여성에게 권고되는 백신을 임신 중에 맞아도 되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예방접종 종류도 많은데 어떤 게 되고 안 되는지 전혀 모르겠다</span>”고 말했다. 전문의들에 따르면 자궁경부암과 풍진 백신은 임신 중에는 맞으면 안 된다. 산전 검사에서 항체 없음으로 나타나도 출산 후에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부천성모병원 신재은 교수의 도움말로 임신 중에 접종해도 되는 백신과 안 되는 백신에 대해 알아봤다. <br/> <br/>◆자궁경부암·풍진… 임신 중 접종 NO <br/> <br/>백신은 살아있지만 성질이 약해진 균을 투입하는 생백신과 죽은 균의 일부를 접종하는 사백신으로 구분된다. 생백신은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임신 중 접종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백신은 적절한 항체를 보유하기 위해 1∼8개월 간격으로 1∼3회 맞아야 하므로 접종 의지가 있다면 여유 기간을 두는 게 좋다. <br/> <br/>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은 임신 중 접종으로 인한 기형 발생 보고는 없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유일한 암인 만큼 임신을 계획하기 전에 맞아야 한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외에 자궁경부 상피내종양, 회음부 상피내종양, 생식기 사마귀, 항문암 등을 유발한다. <br/> <br/>풍진도 여성에게 강력 추천하는 백신이지만 임신 중에는 맞으면 안 된다. 생백신이어서 살아있는 균이 태반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 풍진 백신을 맞았을 때는 한 달간 임신을 피해야 한다. 생백신인 홍역과 수두 백신도 마찬가지다. <br/> <br/>수두는 보통 어린 시절 앓고 지나가지만 성인 감염은 폐렴·뇌막염 등 중증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훨씬 위험하다. 임신 중에 감염되면 1% 확률로 태아에게 선천성 감염을 일으킨다. 항체가 없다면 예방접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산전 검사에서 발견했을 때는 접종을 포기해야 한다. <br/> <br/> 한 여성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태아 기형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임신 중에는 맞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br/>한림대의료원 제공◆인플루엔자 백신… 언제든 OK <br/> <br/>임신 중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은 금지 항목보다 많다. 신종플루 같은 유행성 인플루엔자가 창궐할 때 임신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행히도 인플루엔자 백신은 임신 전, 임신 중, 출산 이후 모두 맞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백신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임신 기간을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B형 간염, A형 간염, 폐렴구균 백신이 이에 해당한다. 단 항체가 없는 군인, 외식업·의료계 종사자 등 고위험군은 임신 중이라도 접종이 권고된다. <br/> <br/>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는 필수 예방접종으로 분류돼 있어 대부분 어린 시절 항체를 갖지만 성인이 되면서 그 수치가 점점 떨어진다. 이 중 백일해는 세계적으로 발병 사례가 늘고 있는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집단 발병 사태가 일어났다. 신생아 감염은 사망 원인이 된다. 가족 간 감염률이 높아 부모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br/> <br/>일부에서 백신의 위험성을 주장하지만 신 교수는 “<span class='quot1'>그 어떤 항생제도 백신만큼 질병에 의한 사망률을 줄여주지 못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임신부는 면역 능력이 떨어져 감염 시 폐렴 또는 패혈증 등 각종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크고, 임신부 감염은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요 질병에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77.txt

제목: [재테크 브리핑] 1만원대 보험료로 어린이 질병 종합 보장 외  
날짜: 201403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110013707201  
본문: 1만원대 보험료로 어린이 질병 종합 보장 <br/> <br/>하나생명은 1만원대 보험료로 어린이,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각종 질병을 종합 보장하는 ‘행복디자인어린이보험’을 출시했다. 순수보장형과 행복자금형 두 종류로 나뉜다. 이 상품은 암,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 재해장해, 재해골절, 깁스치료, 5대 장기이식 수술비 등을 보장한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이 노출된 각종 질병에 대한 수술비, 입원비, 통원비를 세분화해 보장하며 특정법정감염병치료비, 시청각질환통원비 등을 보장한다. 두 상품 모두 0세부터 1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가능 연령은 달라진다. 만기는 30세다. <br/> <br/>학교생활중 재해장해 최고 2억원 지급 <br/> <br/>KDB생명은 어린이 전용보험 ‘스마트 어린이보험’을 판매 중이다. 주보험에서는 어린이 11대 질병과 컴퓨터관련질환, 법정감염병, 골절, 유괴납치 등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 및 사고를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학교생활 중 입은 재해장해는 등급에 따라 최고 2억원까지 지급한다. 진단특약·암종합특약 등을 통해 질병 관련 보장액을 늘릴 수 있고, 응급실 내원특약을 통해 병원비 부담을 덜 수도 있다. 고령 산모인 경우 조산·임신중독·임신당뇨 등 산모질환특약으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태아부터 2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100세까지 보장한다.  <br/> <br/>은퇴 전엔 사망·은퇴 후엔 건강 2배 보장 <br/> <br/>흥국생명은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은퇴 이전에는 사망을, 은퇴 이후에는 건강을 2배로 보장하는 ‘두배로UL평생보장보험’을 출시했다. 왕성한 경제 활동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30∼40대의 경우 사망보험에 집중해 보장하다가 노년이 되면 치료, 수술 등을 이유로 나가는 병원치료비를 보장해 준다. 사망보험에서 치료비 보장 보험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55세, 60세, 65세, 70세, 80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암진단특약, 2대 질환진단특약, CI보장특약, 입원특약 등 4개 특약은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보장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78.txt

제목: “‘진주 암석’의 철 함유량 엄청나…운석일 수도”  
날짜: 20140311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110013705911  
본문:   <br/> <br/>지난 10일 경남 진주시의 한 비닐하우스에 떨어진 암석은 운석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r/> <br/>최변각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철성분 함유량을 볼 때 암석은 운석일 가능성이 높다</span>”고 11일 말했다. 최 교수는 이날 인천 송도국제도시 극지연구소에서 암석을 관찰했다. <br/> <br/>최 교수는 “암석에는 철이 5~10% 정도 함유됐다”며 “<span class='quot0'>철이 산화하는 지구에서 돌이 다량의 철을 함유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span>”이라고 말했다. 비닐하우스에 뚫린 구멍과 관련해서는 “암석이 9kg 남짓이라 화구가 생길 수 없으며, 운석이 떨어질 때 화구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br/> <br/>앞서 극지연구소 이종익 박사도 ‘진주 암석’의 운석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진단했다. 이 박사는 “<span class='quot1'>인공적인 힘이 미치지 않았다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분명하다</span>”며 “<span class='quot1'>표면의 탄 흔적과 내외부 모양 등을 모두 분석해야 운석인지 알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암석의 폭은 20cm, 길이는 30cm 정도로 무게는 9.5kg에 달한다. 운석 판명까지는 약 2주가 걸리며 운석이 맞을 경우 국제운석학회에 조사 내용이 보고된 후 이름이 붙는다. 현재까지 국내 기록에 남은 가장 큰 운석은 ‘두원운석’으로 1943년 전남 고흥군에서 발견됐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KBS 방송화면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79.txt

제목: 정신나간 군의관… 병사 종양발견하고도 7개월 방치  
날짜: 201403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010013695137  
본문: 군의관의 실수로 암 치료 시기를 놓치고 7개월이나 방치됐던 육군 병장이 군 제대를 한 달여 앞두고 민간병원으로 후송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br/> <br/>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의 강모 병장은 지난달 24일 체력단련 중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좌우 폐 사이에 있는 ‘종격동’의 악성종양 4기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문제는 지난해 7월26일 강 병장이 국군대구병원에서 엑스선 촬영을 받으면서 이미 종격동에서 9㎝의 종양이 발견됐다는 사실이다. 국군의무사령부 조사 결과, 당시 건강검진을 담당한 군의관 A 대위가 강 병장의 진료 기록 카드에 적힌 ‘종양’이란 문구를 보지 못하고 ‘합격판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br/> <br/>국방부는 “<span class='quot0'>만약 A 대위가 이를 보고 후속 조치를 취했다면 강 병장의 증상을 조기에 식별했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강 병장은 종양이 15㎝로 커졌고, 비장과 림프샘까지 암이 전이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A 대위에게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고, 강 병장의 치료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키로 했다</span>”며 “병사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br/> <br/>김선영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80.txt

제목: 군의관 실수로 악성종양 병사 7개월간 방치  
날짜: 20140310  
기자: kys135@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0100000356  
본문: 폐 부분의 악성종양을 앓던 병사가 군의관의 실수로 7개월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세가 더 나빠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의 K모 병장은 지난달 24일 체력단련 중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로 부대 의무대에서 약물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7일 진해 해양의료원으로 이송됐다.해양의료원은 K 병장에 대해 좌우 폐 사이에 있는 '종격동'의 악성종양 4기로 판정했고, K 병장은 부산대학교병원을 거쳐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K 병장은 현재 비장과 림프절까지 암이 전이되는 등 상태가 더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국군의무사령부는 이 병사의 병세가 이처럼 악화한 것과 관련, 군병원의 치료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조사에 들어갔다.한편, K 병장은 상병 시절인 작년 7월26일 국군대구병원에서 X-레이 촬영을 했고 종격동에서 9㎝의 종양이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군의관 A 대위(영상의학과 전문)는 이를 진료기록 카드에 작성했다. 그러나 당시 건강검진을 맡았던 군의관 B 대위(가정의학 전문)는 K 병장의 진료기록 카드에 적힌 '종양'이란 문구를 보지 않고 합격 판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B 대위가 이를 보고 후속 조치를 취했다면 K 병장의 증상을 조기에 식별했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국군의무사령부는 군의관 B 대위에 대해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내달 전역을 앞둔 B 대위는 정직기간 만큼 전역이 보류된다. 국방부는 또 K 병장의 치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키로 했고 공상처리했다고 말했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병사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고용석 기자 kys135@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81.txt

제목: 음경 임플란트 수술로 고령자도 행복한 부부생활 문제 없다  
날짜: 20140310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0100000153  
본문: 건강수명이 연장 되면서 건강한 부부생활을 이어가는 노인이 늘고 있다. 하지만 고령의 남성은 고혈압, 당뇨병, 전립선 질환, 암 수술후 후유증 등이 주요 원인이 돼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난치성 발기부전 즉 약물치료와 주사치료로도 큰 개선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시도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음경 임플란트 수술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음경 임플란트 수술은 전 세계가 인정한 수술로 음경의 발기조직에 발기 기능을 대신할 임플란트를 삽입해 언제든지 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세 조각형 임플란트라고도 하는데 펌프를 이용한 발기 작동 원리로 관계시 음낭내의 위치한 작은 펌프를 몇번 눌러주면 음경 해면체에 마치 혈액이 충만되는 것과 같이 생리 식염수가 음경내 실린더로 충만되기 때문에 젊은 시절 발기력과 거의 흡사하게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강남 J(제이)비뇨기과 박천진 원장은 음경의 길이와 둘레가 동시에 20% 증가하는 AMS700MS LGX(optimize Girth and Length with up to 20% elongation possible)삽입수술을 국내 최초로 시행했으며 실제적 자연 발기와 가장 흡사한 발기 모양으로 자연스러움을 추가 시켰다.이렇듯 이제 임플란트 수술은 발기부전이나 조루 개선 뿐만 아니라 팽창과 수축 또한 가능하다. 음경의 굵기와 길이가 모두 늘어나 확대의 효과까지 느낄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다. 강남J(제이)비뇨기과 박천진 원장은 “<span class='quot0'>음경 임플란트 수술은 한번 수술하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으며 관계시 체내에 위치한 펌프를 누르면 언제든지 발기 시킬 수 있어 부부생활이 가능하다</span>”고 말했다. 또한 관계전 평상시에는 자연스러운 외양을 유지할 수 있어서 수술한 표시가 전혀 나지 않고 연령이나 질환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술이 가능하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82.txt

제목: 중복//비만병 급증, 무릎 관절 ‘빨간불’ 켜졌다  
날짜: 20140310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0100000145  
본문: 세계는 현재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2배로 증가했으며, 2008년 기준 남성 2억명, 여성 3억명이 비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성인의 경우 약 30% 정도의 비만율을 보이며, 3명 중 1명은 비만으로 나타났다. 설탕이 다량 함유된 인스턴트 식품과 정크 푸드 등 쉽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현대인들의 운동 부족현상은 이같이 전세계적으로 ‘비만병’을 유행시켰다. 비만은 각종 질병의 발병원인으로 꼽힌다. 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비만이 꼽혔으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특히 비만은 무릎 관절에 악영향을 미친다. 비만으로 인해 체중이 늘면서 무릎 부위에 심한 압박을 가하기 때문이다. 무릎은 사람의 체중을 온전히 버티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그보다 2~3배 이상에 해당하는 무게가 무릎에 가해진다. 체중이 늘수록 무릎 내에 연골이 손상되어 닳기 시작하며, 이는 퇴행성관절염으로 이어져 심한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 문제는 연골은 한 번 손상되어 닳기 시작하면, 스스로 재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골은 상처가 나면 새 살이 돋는 것처럼 스스로 재생되어 회복되지 않는다. 때문에 연골은 가능한 한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퇴행성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연골이 닳아서 말기에는 뼈끼리 맞닿아 통증을 유발시키는 질환이다. 과거에는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주로 나타났지만, 최근 비만환자가 늘어나면서 젊은 연령층에서도 퇴행성관절염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비만이거나 과체중에 해당한다면, 퇴행성관절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다리 근력이 약하고 몸이 무거운 상태에서는 연골이 체중의 압박으로 관절 연골이 쉽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퇴행성관절염은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한 보존적 치료나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연골재생 치료 등을 이용해 관리한다면, 부작용 없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줄기세포 치료법은 손상된 연골에 줄기세포를 주입해 재생시키는 원리다. 줄기세포는 본인의 골수나 지방에서 추출이 가능하며, 타인의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해서도 치료가 가능하다. 연세사랑병원 관절센터 서동석 소장은 “<span class='quot0'>특히 자가지방 줄기세포 치료는 환자의 둔부나 복부에서 추출해 낸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해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추출할 수 있는 지방 세포의 수가 풍부하다는 장점을 가진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채취시간도 20분 정도로 짧으며, 최소 절개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들도 큰 위험이나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타가 줄기세포는 다른 사람의 제대혈에서 추출한 중간엽 줄기세포를 무릎 내 연골 손상 부위에 도포하는 방법이다. 대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는 자가 줄기세포치료와는 다르게, 타가 줄기세포치료는 무릎 부위를 절개해 관절을 개방한 상태에서 시술된다. 손상된 연골 부위에 미세 구멍을 만들고 제대혈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를 붙여주는 방법이다. 시술 시간은 연골 상태에 따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며, 단 1회의 시술과 적절한 재활 치료만으로도 연골 재생 효과를 얻을 수 있다.하지만 무엇보다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비만을 해결하고 무릎 관절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수영과 자전거 타기 운동은 무릎에 하중을 가하지 않으면서, 근력을 높일 수 있고 칼로리 소모가 많아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좋은 운동법이다. 식단은 체중감량과 근육의 증가를 위해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을 각각 5:3:2의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불포화지방산이 포함되어 있는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며, 칼슘과 리보플라빈 성분이 함유돼 있는 우유도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83.txt

제목: 비만병 급증, 무릎 관절 ‘빨간불’ 켜졌다  
날짜: 20140310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0100000168  
본문: 세계는 현재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2배로 증가했으며, 2008년 기준 남성 2억명, 여성 3억명이 비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성인의 경우 약 30% 정도의 비만율을 보이며, 3명 중 1명은 비만으로 나타났다. 설탕이 다량 함유된 인스턴트 식품과 정크 푸드 등 쉽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현대인들의 운동 부족현상은 이같이 전세계적으로 ‘비만병’을 유행시켰다. 비만은 각종 질병의 발병원인으로 꼽힌다. 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비만이 꼽혔으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특히 비만은 무릎 관절에 악영향을 미친다. 비만으로 인해 체중이 늘면서 무릎 부위에 심한 압박을 가하기 때문이다. 무릎은 사람의 체중을 온전히 버티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그보다 2~3배 이상에 해당하는 무게가 무릎에 가해진다. 체중이 늘수록 무릎 내에 연골이 손상되어 닳기 시작하며, 이는 퇴행성관절염으로 이어져 심한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 문제는 연골은 한 번 손상되어 닳기 시작하면, 스스로 재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골은 상처가 나면 새 살이 돋는 것처럼 스스로 재생되어 회복되지 않는다. 때문에 연골은 가능한 한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퇴행성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연골이 닳아서 말기에는 뼈끼리 맞닿아 통증을 유발시키는 질환이다. 과거에는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주로 나타났지만, 최근 비만환자가 늘어나면서 젊은 연령층에서도 퇴행성관절염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비만이거나 과체중에 해당한다면, 퇴행성관절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다리 근력이 약하고 몸이 무거운 상태에서는 연골이 체중의 압박으로 관절 연골이 쉽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퇴행성관절염은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한 보존적 치료나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연골재생 치료 등을 이용해 관리한다면, 부작용 없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줄기세포 치료법은 손상된 연골에 줄기세포를 주입해 재생시키는 원리다. 줄기세포는 본인의 골수나 지방에서 추출이 가능하며, 타인의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해서도 치료가 가능하다. 연세사랑병원 관절센터 서동석 소장은 “<span class='quot0'>특히 자가지방 줄기세포 치료는 환자의 둔부나 복부에서 추출해 낸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해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추출할 수 있는 지방 세포의 수가 풍부하다는 장점을 가진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채취시간도 20분 정도로 짧으며, 최소 절개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들도 큰 위험이나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타가 줄기세포는 다른 사람의 제대혈에서 추출한 중간엽 줄기세포를 무릎 내 연골 손상 부위에 도포하는 방법이다. 대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는 자가 줄기세포치료와는 다르게, 타가 줄기세포치료는 무릎 부위를 절개해 관절을 개방한 상태에서 시술된다. 손상된 연골 부위에 미세 구멍을 만들고 제대혈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를 붙여주는 방법이다. 시술 시간은 연골 상태에 따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며, 단 1회의 시술과 적절한 재활 치료만으로도 연골 재생 효과를 얻을 수 있다.하지만 무엇보다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비만을 해결하고 무릎 관절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수영과 자전거 타기 운동은 무릎에 하중을 가하지 않으면서, 근력을 높일 수 있고 칼로리 소모가 많아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좋은 운동법이다. 식단은 체중감량과 근육의 증가를 위해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을 각각 5:3:2의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불포화지방산이 포함되어 있는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며, 칼슘과 리보플라빈 성분이 함유돼 있는 우유도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84.txt

제목: 7년간 시신 방치한 방배동 미라 사건은?  
날짜: 201403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0100000239  
본문: ‘방배동 미라’ 사건이 보는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 준다.지난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남편의 시신을 집안 거실 한가운데 7년간 보관한 약사 출신의 아내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지난 2013년 11월 7년간 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남편은 실종된다.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제보를 받고 급히 집을 찾은 제작진은 아내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주민들이 여자의 집 주변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며 신고했지만 집 안에 있는 여성은 묵묵부답이었다.이어 같은 해 12월 26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고 집안을 뒤지자 한 남자의 시신이 거실에서 발견됐다. 시신은 7년 동안 방치됐으나 완전히 부패하지 않은 미라 상태에 가까웠다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 “잘 지내고 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전해왔다. 주변인의 언급에 따르면 아내는 시신과 함께 밥을 먹거나, 취짐, 심지어 씻긴다고 전했다. 집에는 세 자녀와 남자의 친 누나도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이들은 모두 남성이 살아있다고 믿었다.신기하게도 ‘방배동 미라’는 부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방배동 미라’는 타살 흔적은 없었고,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사인은 불분명했다. 방배동 미라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방배동 미라, 무섭다”, “<span class='quot0'>방배동 미라, 어떻게 이런 일이</span>”, “<span class='quot0'>방배동 미라, 난 무서워서 보지도 못하겠어</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뉴스팀사진=SBS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85.txt

제목: '세바퀴' 오미희 "39살에 암 투병" 고백  
날짜: 201403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09100000116  
본문: '세바퀴' 오미희가 암 투병을 고백했다.8일 방송된 MBC ‘세상을 바꾸는 퀴즈’(이하 세바퀴)에서는 ‘우여곡절 인생스토리’ 특집이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배우 오미희는 서른아홉 나이에 암 판정을 받은 사연을 털어놔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오미희는 “<span class='quot0'>39살에 융모상피암에 걸렸고 구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1인실을 사용했다</span>”고 밝혔다. 이어 “항암 치료를 하면서도 라디오를 진행했다”고 밝혀 좌중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세바퀴 오미희에 누리꾼들은 "오미희 안타까워" "세바퀴 오미희 눈물나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뉴스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86.txt

제목: '생로병사의 비밀' 기스트 암 치료제 '이매티닙' 새삼 주목  
날짜: 201403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09100000367  
본문: 최근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기스트 암을 소개하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다.기스트 암은 식도와 위 등 소화기관 내 위장관벽에 발생하는 희귀암으로, 일반적인 암과 다르게 근육층에 생긴 종양이다. 전신으로 전이도 쉽게 되는 터라 치료하기 까다로운 암으로 알려져 있다.이 ‘생로병사의 비밀’은 기스트 암의 치료제로 ‘이매티닙’을 소개했다. 이 약은 기스트 암에 쓰이는 표적치료제이며 암세포만 공격하는 특징이 있다.‘생로병사의 비밀’ 기스트 암을 접한 누리꾼들은 “‘생로병사의 비밀’ 기스트 암, 신기하다” “‘생로병사의 비밀’ 기스트 암, 얼마나 아플까” “‘생로병사의 비밀’ 기스트 암, 근육 암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뉴스팀사진=KBS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87.txt

제목: 식탁 파고든 방사능 공포… 꼭 알아야 할 것들  
날짜: 201403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0710013677470  
본문: 김익중 외 지음/반비/1만8000원탈핵학교/김익중 외 지음/반비/1만8000원 <br/> <br/>“방사능이 여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방사능 피폭자가 많아지면 암 중에서도 여성 갑상선암이 가장 많이 증가해요. 그 다음이 유방암이고요. 세포 분열이 빠른 아이들은 성인의 20분의 1만 쪼여도 동일한 위험에 노출돼요. 10년 안에 일본 어린이 사이에서 백혈병 환자가 많이 증가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상태죠.”(김익중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 <br/> <br/>이 책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탁을 차리고 싶은 주부, 건강검진에서 방사능을 쪼일까 걱정하는 직장인, 핵발전을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는 종교인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는 이야기를 담았다. 2011년부터 ‘탈핵 학교’라는 이름으로 13명의 전문가가 발표한 시민 강의를 정리했다. <br/> <br/>김익중 교수는 가장 핵심적인 피폭 경로인 먹거리 문제에 집중한다. 그가 직접 구입한 방사능 측정기로 국내 거의 모든 농수산물을 측정한 결과 국내 재료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일본 수산물, 특히 명태·대구·고등어다. 김 교수는 우리 정부의 안전 기준치가 매우 비현실적이어서 위험한 일본 수산물이 국내에 그대로 반입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br/> <br/>주영수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는 “<span class='quot0'>건강검진으로 인해 병원 방사선을 적지 않게 쏘이게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CT 촬영의 경우 핵 발전소 종사자의 안전 기준만큼이나 많은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span>”고 강조한다. 이 밖에도 원폭2세환우회의 한정순 회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계수 교수,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등 각계 인사들이 의학적·역사적·사회적·윤리적·종교적 관점을 토대로 핵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방사선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88.txt

제목: 한화생명, 블로그 어워드 대상 수상  
날짜: 20140307  
기자: 세계파이낸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07100000440  
본문:  한화생명 공식블로그 ‘라이프앤톡(www.lifentalk.com)’이 2030세대와 통했다.한화생명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블로그산업협회가 주최하는「제5회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에서 보험부문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는 1년간 가장 왕성하고 의미있는 블로그 활동을 보여준 기업 및 공공기관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수상기업을 선정한다.한화생명 공식블로그 ‘라이프앤톡’은 2012년 5월 오픈 이후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 약 2백만명, 일 평균 약 4000명(13년 기준)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임직원으로 구성된 전문 필진 10여명이 금융 관련 정보를 게시한다.한화생명 블로그의 인기 비결은 어려운 금융, 보험 정보를 친근한 소재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보험사 입사 노하우, 보험 자격증 취득비법과 같이 2030세대의 관심이 높은 주제는 물론, 상품기획자가 들려주는 보험 이야기, 암보험 가입 노하우, 세법개정 대비 절세방안 등 전문적인 보험정보도 알기 쉽게 제공한 것이 타사 블로그와의 차별점이다.한화생명은 2030세대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블로그 외에도 페이스북(www.facebook.com/hanwhalife), 트위터(https://twitter.com/hanwhalife), 유튜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와 이벤트를 1일 1회 이상 제공하고 있다.김남희 세계파이낸스 기자 nina1980@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89.txt

제목: 제4회 비타민C 국제심포지엄 열린다  
날짜: 2014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06100000080  
본문: 지난 해부터 불었던 비타민C 열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화를 방지하는 비타민C의 항산화 효능에 주목하면서, 바람직한 비타민C 복용법에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발맞춰 국내외 의료, 의약, 식품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비타민C에 대한 다양한 토론의 장이 열린다.제4회 비타민C 국제 심포지엄이 ‘비타민C와 고령화 사회의 웰니스’라는 주제로 오는 25일 개최된다. 한국식품과학회(회장 이 호)가 주최하고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의료, 의약, 식품 분야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고령화 사회에서의 비타민C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비타민C의 노인성 질환 예방 효과’, ‘비타민 C의 암 치료 및 관리 효과’, ‘비타민C의 피부노화 억제 효과’ 등 총 3가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 피오나 해리슨 박사,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 에드거 밀러 3세 교수 등 해외 석학들과 서울대학교 의대 이왕재 교수, 대한비타민연구회 염창환 회장 등이 연자로 참여한다.행사는 오는 25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프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며, 한국식품과학회 홈페이지(www.kosfost.or.kr)에서 사전등록 후 참석할 수 있다.한편 한국식품과학회와 광동제약은 비타민C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이고 효과 높은 필수 성분임을 알리기 위해 2008년부터 국내외 석학을 초청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2008년 제1회 행사는 ‘생활질환과 비타민C의 건강보호 효과’, 2010년 제2회는 ‘비타민C의 면역증진과 항바이러스 효과’에 대해, 2012년 제3회는 ‘노화 관련 질환에 대한 비타민 C의 역할’을 주제로 하여 열린 바 있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제4회 비타민C 국제심포지엄 포스터제3회 비타민C 국제심포지엄 행사장 모습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90.txt

제목: 고단백 식사 65세 이상은 '보약' 이하는 '독약'  
날짜: 20140305  
기자: kys135@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05100000296  
본문: 65세 이하 성인에게 고단백 식사가 흡연만큼이나 해롭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고단백식을 통해 체중을 감량하며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불렸던 ‘황제다이어트’나 ‘구석기 다이어트’ 방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미국과 이탈리아 합동연구팀이 20년간 육류와 달걀, 유제품 등 동물성단백질을 과다 섭취한 중년 성인의 건강상태를 저단백식을 유지해온 성인과 비교한 결과, 암이나 당뇨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4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가디언 등이 4일 보도했다. 이는 흡연으로 인한 암 발병률과 비슷한 수치로, 고단백식을 했던 성인의 평균 사망률도 저단백식 성인보다 2배가량 높았다. 이번 연구는 미국 국민건강영양실태조사(NHANES)에 참여했던 6381명의 5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로, 세계적 생명과학 학술지 ‘셀메타볼리즘(Cell Metabolism)’에 게재됐다.연구를 주도한 서던캘리포니아대(USC) 수명연구소 소속 발터 롱고 교수는 “<span class='quot0'>동물성단백질의 과다 섭취는 흡연만큼 해로울 수 있다</span>”며 체중 1㎏당 하루 0.8g의 단백질 섭취량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고단백식이 모든 연령에 해로운 것은 아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고단백식이 영양 공급과 기력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이 고단백식을 유지할 경우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60%까지 감소하며 평균 사망률도 28% 줄어든다고 밝혔다.고용석 기자 kys135@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91.txt

제목: [단독] 담배 소송 청구액 500억으로 늘린다  
날짜: 201403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0510013645663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하기로 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액 규모를 당초 계획한 130억원의 4배 가까운 500억원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WPRO)가 이번 소송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해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br/> <br/>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4일 “<span class='quot0'>당초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고등법원에서 흡연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폐암 중 소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손해배상 대상을 한정하려고 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그러나 전문가 자문 결과 의학적으로 폐암 중 편평상피세포암도 소세포암만큼 흡연과의 인과성이 높아 소송 범위를 편평상피세포 폐암까지 확대키로 해 소송 청구액이 500억원으로 늘었다</span>”고 말했다. <br/> <br/>폐암은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뉘는데, 편평상피세포암은 비소세포암의 일종으로 전체 폐암의 20∼25%를 차지한다. 소세포 폐암의 비중은 10∼15%이다. 당초 공단이 계획한 담배소송청구액은 2003∼2012년 폐암 중 소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의 총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130억원이었다. <br/> <br/>최근 폐암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규명한 삼성서울병원의 박근칠 교수는 “<span class='quot1'>미국 브로드 연구소와 공동으로 국내 편평상피세포 폐암 환자 104명의 유전체 전부를 분석했는데, 99명이 흡연자였다</span>”면서 “<span class='quot1'>흡연은 편평상피세포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지난달 26일 건보공단 정기이사회에서는 이 같은 담배소송의 최종 청구액 규모가 정식 안건으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한편 담배소송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안선영 변호사 등 4명의 실무진은 지난 3일 WHO와 실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WPRO 마닐라 본부로 떠났다. 안 변호사는 출국 전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span class='quot2'>WHO에서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이 아시아 국가 금연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국제변호사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소송지원에 필요한 협약도 체결하고 소송에 필요한 정보와 전략도 협의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92.txt

제목: 7월부터 노인 임플란트 50%만 본인 부담  
날짜: 201403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0510013654021  
본문: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비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 각종 고가항암제와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대장암 치료제 등 4대 중증 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에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br/> <br/>보건복지부는 5일 열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br/> <br/>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었던 임플란트의 경우 틀니와 동일하게 본인부담률을 50%로 산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부담상한제(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이 적용되는 치아의 부위와 개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5월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br/> <br/>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93.txt

제목: 고기 많이 먹는 당신, 식습관부터 바꿔라!  
날짜: 201403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0410013642683  
본문: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살코기·생선·달걀 등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권장되고 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호흡기 방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고기는 되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전문의들은 “<span class='quot0'>한국인은 돼지고기·소고기 등 지방 함유량이 높은 붉은색 고기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대장암에 걸리는 비율이 높다</span>”며 “<span class='quot0'>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붉은 계열보다 닭고기·생선 등 흰색 고기를 선택하는 게 좋다</span>”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는 헝가리·체코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대장암 발병률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br/> <br/>◆핏빛 고기의 역습…대장암 유발 <br/> <br/>대장은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지닌 내장기관이다. 소장에서 넘어온 음식물의 수분을 빨아들인 뒤 찌꺼기를 직장에 모았다가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영양분의 소화와 흡수 대신 생리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유독한 노폐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br/> <br/>지방을 과다 섭취하는 서구식 식습관은 대장암의 큰 원인으로 꼽힌다. 육류 소비량과 대장암의 인과 관계는 세계 각국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오래전에 밝혀졌다. 돼지고기·소고기 등 지방 함량이 높은 붉은색 고기는 대장암 발생 원인으로 알려진 담즙산 분비를 촉진한다. 담즙산은 대장 내 세균에 의해 발암 물질로 바뀌면서 대장 점막을 자극한다. 이 때문에 대장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된다. <br/> <br/>한국인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대장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에는 돼지고기·소고기 등 붉은색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문화가 있다. 대장 건강을 위해서는 닭고기·생선 등 흰색 고기를 택하고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br/>세계일보 자료사진동물성 지방은 채소나 곡물에 비해 대장 통과 시간이 길다. 우리 몸에 발암 물질이 생겼을 때 다른 기관에 비해 접촉 시간이 길어 암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칼로리 과다 섭취와 비만은 그 자체로 대장암 위험도를 높인다. 비만인 경우 정상인에 비해 1.5∼3.7배 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음주와 암 발생률도 비례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국인은 술 때문에 약 11.1개월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 한두 잔 가볍게 마시는 게 아닌 거나한 음주는 대장뿐 아니라 간·식도의 암 발병률을 높인다. 이대목동병원 정순섭 위암·대장암협진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1'>과음으로 인해 췌장암·결장암 발병률이 2배 늘고 전립선암과 대장암 위험은 80% 이상 높아진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채소·과일 섭취…베리류 효과 ‘쏠쏠’ <br/> <br/>대장암은 초기 증상이 미미한 ‘소리없이 다가오는 질병’에 속한다.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5개년 질병통계에 따르면 대장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6개월 넘도록 증상을 방치한 뒤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에서도 복통·설사·혈변 등 대장암 증상을 급성 장염이나 기능성 장염으로 오진하는 경우가 많다. <br/> <br/>대장암 예방에는 식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붉은색 계열보다 닭고기와 생선 같은 흰색 계열을 택하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과일 중에는 딸기·블루베리·아사이베리 등 베리류가 큰 도움을 준다. 바나나보다 2.5배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한 블루베리는 당과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장내 독소 생성을 억제해준다. 보석 중의 보석은 아사이베리다. 아사이베리는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지수가 블루베리의 21배, 석류의 23배, 적포도의 55배, 키위의 120배 높아 ‘베리 중의 베리’로 불린다. <br/> <br/>블루베리단, 야채는 적당량 섭취해야 한다. 무턱대고 많이 먹는 게 좋지만은 않다. 비빔밥에 들어가는 껍질 및 줄기류의 고섬유질 채소는 대장의 수분을 지나치게 빨아들여 부종과 변비, 심하면 장폐색을 초래하기도 한다. 육류 섭취를 제한하는 채식주의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과 철분이 부족해지기 쉽다. 생선·두부를 적당히 섭취하며 영양균형을 맞춰야 한다. <br/> <br/>대장암을 비롯한 각종 암 발병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인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35.53%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는 얘기다. 이를 예방·극복하려면 이미 알고 있는 건강 수칙을 지켜야 한다. 채식·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흡연·음주를 삼가는 것이다. 대한대장항문학회는 50세 이상 성인이 첫 검사에서 정상일 경우 5∼10년 주기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94.txt

제목: 늘어난 의료비 부담, 의료실비보험 설계 시 주의사항  
날짜: 201403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04100000443  
본문: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고 상해 및 감염성 질병 등의 의료비 지출 부담마저 늘고 있다. 이에 대안으로 부상한 의료실비보험도 실제 해마다 가입자 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의료실비보험이란 가입자가 실제 지출한 병원 치료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다. 국민건강보험의 공단 부담금 외에 환자본인 부담금은 물론,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 보장을 해준다.하지만 보험회사별로 의무 부가담보의 조건과 보험료· 특약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그렇다면 자신의 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의료실비보험 선택을 위해 전문가로부터 가입 전 검토해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 봤다.첫째, 기존에 있던 보험부터 확인해야의료실비보험은 임신이나 출산관련 사항과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보충과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비를 보장한다.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이나 상해· 치료에 필요한 CT· MRI 등의 검사비도 해당된다. 기존에 암 진단비나 CI같이 중대한 질병의 보장금액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실비보험 가입 시에 해당특약을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둘째, 실비보험의 다양한 특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의료실비보험의 주요 특약으로는 암· 뇌졸중과 같은 중대질병의 진단비· 상해질병입원일당· 운전자 특약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설계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료로 여러 혜택을 얻을 수 있다.특히 사망률 1위인 암의 경우 기존의 80세가 아닌 100세까지 진단금의 설계가 가능하며, 만기까지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 비갱신형도 구성이 가능하다.다만 주의할 점으로는 고액 암· 일반 암· 소액 암과 같은 보험사별 특약의 특징과 보험료· 보장기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암· 뇌졸중· 성인질병· 심장질환 등의 큰 질병들은 고액의 수술비와 치료비용이 발생하므로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다.셋째, 각 보험사 별, 보험상품 비교 선택은 필수마지막으로 보험사별 민원 발생 및 보상 관련 소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의 민원평가 등급을 살펴보거나, 보험사 비교 가입이 가능한 전문 사이트에서 가입방법과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도 합리적인 보험가입에 도움이 된다.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간단한 통원과 입원 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 비해 청구 횟수가 빈번하다</span>”라며 “<span class='quot0'>가입 이후에도 상세한 안내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담당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전했다.실제 매년 신종플루와 같은 새로운 질병 발생률 증가와 노년기 잦은 통원· 입원 탓에 의료비 보상청구 요청횟수는 잦아지고 있으나, 수요가 많은 만큼 불친절한 서비스 응대로 이어져 고객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도움말을 준 이곳(http://cancer.boheommall.kr)에서는 소비자의 만족도와 사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돕는 전문 보상청구 대행팀을 조직, 운영하는 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편 보험사별 불완전 판매 비율은 금감원과 금융소비자연맹의 공시자료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95.txt

제목: "죽여 달라" 고통받는 말기 암 父 부탁 들어준 남매 징역형  
날짜: 20140304  
기자: 이소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0410013632565  
본문: 말기 암으로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5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br/> <br/>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아버지 이모(57)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아들(28)에게 징역 7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딸(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56)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br/> <br/>이날 배심원단 9명은 피고인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해 양형 의견을 최저형으로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br/> <br/>재판부는 "설사 내일 죽는 사람,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오늘 죽이면 살인"이라며 "돌아가신 분의 (죽여달라는) 의사를 함부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br/> <br/>또 "고인이 피고인들에게 '죽여달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병상에서 혼란된 상태에서 한 말은 진지한 뜻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r/> <br/>아들은 지난해 9월 누나, 어머니와 회의를 거쳐 뇌종양으로 시한부를 선고받은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버지를 죽인 죄책감에 시달리던 아들은 내막을 전혀 모르는 작은 누나에게 범행을 알리고 자살을 기도했다가 경찰에 신고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br/> <br/>이 사건으로 세간에 말기 암 환자 가족의 고통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br/> <br/>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96.txt

제목: [건강 단신] ‘대사증후군’ 건강 강좌 외  
날짜: 201403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0410013642684  
본문: ‘대사증후군’ 건강 강좌 <br/> <br/>을지대학교 을지병원은 5일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동선보건지소 2층 회의실에서 ‘대사증후군’에 대한 건강 강좌를 개최한다. 김정환 가정의학과 교수가 대사증후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건강관리법을 설명한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등으로 인해 심혈관 질환 및 당뇨 발병에 영향을 주는 무서운 질환</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영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불균형한 식사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생활 습관을 관리해 대사증후군을 예방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02)920-2895 <br/> <br/>‘여성건강과 예방접종’ 강연 <br/> <br/>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5일 오후 4시 경기도 부천성모병원 옴니버스홀에서 ‘여성건강과 예방접종’을 주제로 강연을 연다. 백신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대우 산부인과 교수)과 ‘임신과 예방접종’(신재은 산부인과 교수), ‘성인 예방접종이란?’(유인숙 산부인과 간호사)에 대해 설명한다. 이해남 산부인과 과장은 “<span class='quot1'>많은 사람이 어린이만을 예방접종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가임기 여성이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100세 시대 건강하게 살려면 여성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외과임상종양’ 심포지엄 개최 <br/> <br/>대한임상종양학회가 7, 8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맞춤형 항암치료 시대에 있어서의 외과임상종양 조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췌담도암 등 외과종양학 분야의 국내 전문가와 함께 유럽종양외과학회 회장인 영국의 그레엄 존 포스톤 교수, 일본종양외과학회 회장인 히데오 바바 교수 등 4개국에서 온 12명의 석학들이 참석한다. (070)4120-1649 <br/> <br/>팔통증 원인·치료법 설명회 <br/> <br/>중앙대학교병원은 12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흑석동 병원 중앙관 4층 강의실에서 ‘상지통증-팔이 아플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연다. 서경묵 재활의학과 교수가 상지(팔)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과 진단 및 치료법에 대해 설명한다. 서 교수는 “<span class='quot2'>상징통증은 40∼50대 주부나 과도하게 팔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span>”이라며 “<span class='quot2'>팔 통증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span>”이라고 전했다. (02)6299-2219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97.txt

제목: 카레의 비밀, 치매와 암 예방에 효과 탁월해  
날짜: 201403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03100000279  
본문: '카레의 비밀'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최근 한 커뮤니티에는 '카레의 비밀' 이란 글이 올라왔다.게시글에 따르면 카레는 천연 향신료 10여 종 이상을 혼합하여 건조시켜 만든 분말인 '카레가루'와 카레가루에 '밀가루 루(roux)'를 혼합해 끈기를 더한 '카레 루'로 분류된다.카레가루는 이것을 구성하는 천연 향신료, 즉 스파이스의 배합에 따라 색상, 향기, 맛 그리고 약리적 효과까지 각기 다르다.카레의 대표적인 건강 효과로는 향산화 작용, 식욕 증진, 암 예방과 면역력 증가, 치매 예방 및 기억력 향상 등이 있다. 이밖에도 고추에 함유된 캡사이신과 후추, 생강, 마늘 등의 향신료에 들어있는 유사한 효능을 지닌 성분이 상승 작용해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 비만 예방에 도움을 준다.'카레의 비밀'을 접한 누리꾼들은 "카레의 비밀, 여름엔 카레가 짱이지" "카레의 비밀, 알고 싶었는데" "카레의 비밀, 카레 사랑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뉴스팀사진=MBC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98.txt

제목: 카레의 비밀, 암·치매 예방에 기억력 향상까지?  
날짜: 201403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03100000379  
본문: '카레의 비밀'이 화제다.최근 한 커뮤니티에는 '카레의 비밀' 이란 글이 올라왔다.게시글에 따르면 카레는 천연 향신료 10여 종 이상을 혼합하여 건조시켜 만든 분말인 '카레가루'와 카레가루에 '밀가루 루(roux)'를 혼합해 끈기를 더한 '카레 루'로 분류된다.카레가루는 이것을 구성하는 천연 향신료, 즉 스파이스의 배합에 따라 색상, 향기, 맛 그리고 약리적 효과까지 각기 다르다.카레의 대표적인 건강 효과로는 향산화 작용, 식욕 증진, 암 예방과 면역력 증가, 치매 예방 및 기억력 향상 등이 있다. 이밖에도 고추에 함유된 캡사이신과 후추, 생강, 마늘 등의 향신료에 들어있는 유사한 효능을 지닌 성분이 상승 작용해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 비만 예방에 도움을 준다.'카레의 비밀'을 접한 누리꾼들은 "카레의 비밀, 여름엔 카레가 짱이지" "카레의 비밀, 알고 싶었는데" "카레의 비밀, 카레 사랑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뉴스팀사진=MBC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199.txt

제목: 암보험의 합리적 비교, 연령대 등 가입 조건 꼼꼼히  
날짜: 20140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28100000416  
본문: 암 보험의 변화는 최근 몇 년 보험업계에서 주목할 만 한 흐름 중 하나다. 조기발견에 따른 암 발생자 수가 늘면서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누적된 암 보험은 판매가 축소돼 왔다. 하지만 최근 오히려 보장기간이 늘어난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만큼 암 보장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이러한 사실은 실제 암 관련 통계(2010년 12월 보건복지부 국가 암 등록통계)를 살펴봐도 알 수 있듯 우리나라의 암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암 환자 70만 명 시대를 맞아 암 보험 선택도 그만큼 중요해졌다</span>”고 밝히며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이를 정리하면 암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암의 진단금액이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국회토론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이 평균 6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40~50대 가장이 암 투병 이후 사망했을 경우 가족이 짊어질 경제적 부담은 더욱 크다.사람이 평균수명까지 산다는 가정 하에 통계적으로는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암 보험의 진단금액은 최소한 본인의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일부 보험사들 상품의 경우 진단율이 높은 남녀생식기계 암을 소액 암으로 분류해서 일반 암의 20%만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 암에 어떤 암들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또한 암이라는 질병의 특성상 가족력이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 고액 암과 특정 암의 진단금을 고려해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 권장된다.이 중 갱신형은 5년, 10년 등 일정기간마다 연령증가에 따른 위험률 등을 고려해서 보험료가 재산출된다. 특히 암 발생이 급증하는 50대에서부터 보험료도 비례해서 증가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가입시점부터 만기까지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 비 갱신형이 안정적인 보험유지에 유리할 수 있다.통상 암 보험은 가입하고 나서 한번 암이 발생되면 진단자금은 더 이상 보장이 되지 않고 끝나는 것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 두 번째 발생한 암이나 암이 완치되지 않고 잔류하는 암에 대해서 보장하는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암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추가로 이러한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분위기다.하지만 판매율이 높은 상품이라고 해도 설계에 따라 의무부가담보나 적립금 등에 따라 보험료는 천차만별이다. 때문에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보장하는 범위와 보험료, 가입기준이 달라 여러 회사의 암 보험을 가격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권장된다.현재 국내 주요 판매회사에는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AIA생명· 라이나생명· 삼성생명· 동양생명 암 보험 등이 있다.이러한 다양한 상품들 가운데 자신의 건강조건과 경제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려면 특정 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별로 여러 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도움말을 준 이곳(http://cancer.boheommall.kr)에서는 전문상담원이 각 보험사별 상품을 고객의 성별· 건강· 연령 등을 고려해서 설계하고 가입에서 보상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합리적인 보험 설계를 위해 이를 활용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00.txt

제목: [새로 나온 책] 암이래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  
날짜: 20140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2810013611275  
본문: 암이래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주정미 지음, 팬덤북스, 1만2000원)=서울대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89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보건복지부 부대변인, 보건복지부 보육과장,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한 저자는 2009년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다. ‘내게 왜 이런 혹독한 시련이 주어졌을까….’ 삶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가 항암 치료의 선택 기준, 항암 부작용 이겨내는 법, 올바른 식사 습관, 암 환자의 겨울나기, 항암 치료와 치아의 연관관계 등 직접 겪으며 터득한 정보를 담았다. “<span class='quot0'>4년여간의 생존 기록이자 암 치료 보고서</span>”인 셈이다. <br/> <br/>미지에서 묻고 경계에서 답하다(고산 외 22인 지음, 사이언스북스, 1만5000원)=인류의 호기심은 좁게는 뇌와 유전자·소립자에서 넓게는 심해·사막·우주까지 들여다보며 앎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삶·우주·인간·과학을 둘러싼 미지를 향해 나아가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걸그룹 2NE1의 멤버 씨엘의 아버지로 유명한 이기진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한국 최초의 우주인 후보였던 고산 타이드 인스티튜트 대표, 영화 ‘은교’를 찍은 정지우 감독 등 23인의 지식인이 ‘미지와 경계’를 주제로 각자의 경험과 사색을 풀어놓는다. <br/> <br/>리더를 위한 로마인 이야기(시오노 나나미, 한성례 편역, 혼미디어, 1만3800원)=‘로마인 이야기’로 스테디 셀러 작가가 된 시오노 나나미는 출판계에서 좀처럼 다루지 않았던 로마사를 손쉽게 읽히도록 집필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로마가 저지른 일들의 발단과 결과를 소개하며 “자기 반성은 반드시 혼자 해야 한다. 결단을 내리는 것도 고독하지만 반성하는 것 또한 고독한 행위다”, “위기의 시대에는 리더가 빈번하게 바뀐다. 리더가 바뀌면 위기를 극복해내리라 기대하는 심리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꿈에 불과하다” 등 오늘날의 리더들이 참고할 만한 역사적 교훈을 전달한다. <br/> <br/>사막 위에 세운 미래, 아랍에미리트 이야기(권태균·지규택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1만5000원)=지난 40년간 우리는 중동에서 석유와 가스를 들여오고 건설 사업에 뛰어들며 교류를 이어왔다. ‘제2의 중동 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동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나라가 아랍에미리트다. 3년간 아랍에미리트 한국대사관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7개 토후국의 연방으로 이뤄진 아랍에미리트의 정치·경제적 특성과 사업할 때 유의해야 할 점 등 중동 진출을 꿈꾸는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담았다. <br/> <br/>포커스: 당신의 잠재된 탁월함을 깨우는 열쇠(대니얼 골먼 지음, 박세연 옮김, 리더스북, 1만8000원)=삶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주목받지 못한 정신적 자산 중 하나가 주의력이다.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의력은 근력처럼 잘 훈련하면 강해지지만 제대로 쓰지 않으면 서서히 위축된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페이스북 등 디지털 세상이 열리며 우리의 주의력을 흩트리는 요인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1995년 ‘EQ 감성지능’을 펴내며 EQ돌풍을 일으킨 저자는 주의력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리더의 의사 결정, 조직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br/> <br/>소평소도: 오늘의 중국이 설계된 길(김상문 지음, 아이케이, 1만5000원)=중국이 자랑하는 3인의 정치 지도자가 있다. ‘건국의 아버지’ 마오쩌둥과 인민들로부터 열화와 같은 사랑을 받았던 저우언라이, 중국의 미래를 설계한 덩샤오핑이다. ‘소평소도(小平小道)’란 덩샤오핑이 부총리에서 공장 노동자로 추락했던 기간에 매일 걸었던 산책로를 말한다. 그는 이 길을 산책하며 중국의 개혁·개방 철학을 세웠다. 덩샤오핑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일대기를 그리며 그의 정치철학을 돌아본다. <br/> <br/>난학의 세계사(이종찬 지음, 알마, 2만2000원)=조선에 실학이 있었다면 일본에는 근현대 일본의 이념적 토대가 된 난학(蘭學)이 있었다. 난학은 에도 시대 일본이 네덜란드로부터 받아들인 서양의 실용주의 학문이다. 일본은 난학을 통해 기존의 중화적 세계를 넘어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를 지향한다”는 탈아입구 세계관을 정립했다. 중국식 한자어가 아닌 일본식 한자어도 새롭게 창조했다. ‘난학사시’, ‘해체신서’ 등 난학의 고전을 아우르며 난학의 본질을 들여다본다. <br/> <br/>동물들의 침묵(존 그레이 지음, 김승진 옮김, 이후, 1만6000원)=세상에는 야만인과 문명인이라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 게 아니다. 그저 자기 자신과 영원히 전쟁을 치르는 인간 동물이 있을 뿐이다. 저자는 “<span class='quot1'>‘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며 인류는 진보할 것’이라는 믿음은 비행접시를 믿는 종교 집단의 맹신과 다를 바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인류가 구축한 문명의 진보는 사실이 아니라 신화</span>”라고 말한다. 자신의 위대함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내는 존재로서 인간에 초점을 맞춘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01.txt

제목: 네번이나 도난당한 렘브란트 초상화, 그 이유는?  
날짜: 20140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2810013610897  
본문: 조슈아 넬먼 지음/이정연 옮김/시공아트/2만원사라진 그림들의 인터뷰/조슈아 넬먼 지음/이정연 옮김/시공아트/2만원 <br/> <br/>“미술계에서는 보통 돈거래가 무기명으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어떤 신사의 작품 판매건’과 같은 식이죠. 철저한 비밀주의는 악당들에게 아주 유리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br/> <br/>미술품 약탈과 도난은 영화에 나오는 먼 세계 이야기가 아니다. 전 세계를 오가며 미술품 도난 사건 담당 형사와 FBI직원, 작품을 도난당한 미술관장, 미술품 도둑 등 12명의 관계자를 인터뷰한 저자는 “<span class='quot0'>한국은 훔친 작품이 세탁되는 제3국에 속한다</span>”고 지적한다. 예술품 도난은 국경을 초월하며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br/> <br/>암거래 시장에 나오는 물품은 누구나 아는 명화가 아니다. ‘프로 도둑’들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 수십억달러의 그림을 훔치면 언론의 관심을 끌고 경찰 수사로 이어진다. <br/> <br/>불법 거래 시장의 진짜 주인공은 소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덜 유명한 그림들이다. 런던 ‘덜위치 미술관’에 있는 렘브란트 초상화 ‘야코프 데 헤인 3세의 초상’은 아트 딜러가 범죄 조직과 연합해 빼돌리는 등 각기 다른 이유로 네 번이나 도난당했다. 다행히 매번 미술관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많은 미술관이 고객이나 기증자가 알게 되는 걸 두려워하며 도난 사실을 숨긴다. <br/> <br/>저자는 “이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span class='quot1'>미술관, 갤러리, 옥션 하우스, 컬렉터들이 협력해 도난 미술품 목록을 공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span>”고 지적한다. 지난해 독일 뮌헨의 한 낡은 아파트에서 나치가 약탈한 미술품 1500여점이 발견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나치는 문화를 약탈하고 기반을 무너뜨리며 단시간에 동유럽의 많은 소수민족을 말살시킬 수 있었다. “<span class='quot2'>미술계 비밀주의를 걷어내지 않으면 각 나라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화유산을 지켜낼 수 없다</span>”고 저자는 말한다. <br/> <br/>이 책은 미술품 도난 사건을 둘러싼 미술관·경찰·도둑, 우연히 벼룩시장에서 보물을 발견한 직장인 등 다양한 사람들의 고백을 한데 모아 범죄 세계를 생생하게 그려낸다. 암시장의 작동 원리와 돈 세탁 과정, 도난 미술품 알선 중개인이 법망을 빠져나간 수법 등 뒷거래 시장의 민낯까지 담았다. 캐나다 기자의 취재 일기지만 추리 소설을 읽는 것처럼 긴장감을 선사한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02.txt

제목: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법안 국회통과  
날짜: 20140228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2810013606952  
본문: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해 보관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r/> <br/>최근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이 일어나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출한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도록 했다. <br/> <br/>암호화 적용 대상이나 대상별 적용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03.txt

제목: 미래를 바꿀 신기술 ‘10가지’ 공개…‘세상’을 바꿔라  
날짜: 20140227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2710013583435  
본문:   <br/> <br/>미래를 바꿀 신기술 10가지가 공개돼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br/> <br/>미국 현지 언론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미래를 바꿀 새로운 기술 10개를 선정했다고 지난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br/> <br/>보도에 따르면 학계, 산업계 등의 지도자로 구성된 ‘글로벌 어젠다 위원회’는 앞선 1월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분석해 신기술을 선정했다. 누버 어페이언 위원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신기술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의 틀과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span>”고 역설했다. <br/> <br/>제일 먼저 소개할 신기술은 ‘생각만으로 조작되는 컴퓨터 인터페이스’다. 말 그대로 뇌파를 이용해 장치를 움직이는 기술이다. 이는 특히 손발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움직일 때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br/> <br/>바닷물을 담수화하는 기술과 기존 모델보다 40% 이상 가볍고 에너지 소비도 대폭 줄일 수 있는 초경량 자동차도 눈길을 끈다. 태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잉여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전기 그리드 방식도 나오며, 심박동수와 스트레스 지수 등의 건강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입는 전자제품도 곧 나온다. <br/> <br/>힘세고 수명이 오래가는 나노와이어 리듐 이온 배터리도 미래를 바꿀 키(key)다. 또 3차원 이미지가 공간으로 튀어나오는 디스플레이도 나오며, 암 같은 난치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인체 미생물 치료법도 기대를 모은다. 이 외에도 ‘RNA 기초 치료법’이나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예측 모델이용’도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WEF 홈페이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04.txt

제목: 승객 중에 숨어있는 테러범을 잡아라!  
날짜: 20140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2710013598705  
본문: 이 남자, 나이 들수록 더 멋지다. 리엄 니슨 이야기다. ‘쉰들러 리스트’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자리하나 싶더니, 어느 때부터선가 ‘악전고투남’ ‘복수의 아이콘’ ‘국민 아빠’의 이미지와 함께 정의의 액션배우로 변신했다. ‘테이큰’ ‘타이탄’ ‘다크 나이트 라이즈’ ‘베틀쉽’ ‘테이큰 2’ 등을 거치며 남들과는 달리 늦은 나이에 액션 히어로로 승승장구하는 그는 카리스마와 휴머니즘이 공존하는 연기 스타일로 여심을 앗아간다. <br/> <br/>새영화 ‘논스톱’에서도 마찬가지다. 완벽한 액션 이면에서 느껴지는 인간적인 모습과 아빠·항공수사관·남자의 매력을 두루 갖춘 업그레이드 된 캐릭터로 또다시 국내팬들을 사로잡을 듯 싶다. <br/> <br/>“<span class='quot0'>1억 5000만 달러를 입금 시키지 않으면, 20분마다 승객을 한 명씩 죽이겠다.</span>” <br/> <br/>미 항공수사관 빌(리엄 니슨)은 4만 피트 상공의 뉴욕발 런던행 비행기 안에서 의문의 협박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 빌은 범인의 요구를 들어주며 시간을 벌어보려 하는데, 수사 당국은 계좌가 빌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되레 그를 의심한다. 정확히 20분 뒤 한 사람이 죽게 되고 빌은 범인을 찾아내려 사투를 벌이지만, 아내와 이혼하고 빚에 시달리던 그는 외려 비행기 납치 테러범으로 몰리게 된다. <br/> <br/>관객이 모든 승객을 용의자로 간주하도록 몰아가는 발빠른 템포가 보는 재미를 더한다. 빌이 ‘CSI수사대’와는 거리가 먼 ‘꼰대’ 같은 구식 수사방법으로 풀어가지만 긴장감을 조성하기엔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리엄 니슨의 힘이다. 오히려 그의 나이 든 모습이 ‘결국에는 해낼 것’이라는 믿음감을 주기 때문이다. ‘본’ 시리즈의 맷 데이먼에 비견할 만하다. <br/> <br/>특히 첫 번째 희생자가 테러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수사관 빌의 손에 죽게 만드는 대목이 묘미다. 여기서부터 관객은 자신도 납치된 비행기 안 어느 한쪽에 타고 있는 듯 스크린에 몰입할 수 있다. <br/> <br/>하지만 리엄 니슨에게 마음을 내 준 관객들이 그를 마치 ‘슈퍼맨’처럼 간주하는 관람 방식은 자칫 재미를 반감시킬 수 있다. ‘논스톱’의 주인공 빌은 유능하고 지능적인 ‘미션임파서블’식의 첩보원이 아니다. 일개 ‘보안요원’일 뿐이다. 이혼 당하고 빚도 있는 데다 음주운전을 하며 비행기 화장실 안에서는 테이프로 센서를 가리고 담배도 몰래 피우는 그런 인물이다. 뉴욕 경찰관 퇴직 후 항공수사관으로 고용된 그는 오랜 직업병처럼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보는 자신의 ‘답답하면서도 정직한’ 수사원칙을 고지식하게 지킨다. <br/> <br/>궁지에 몰리던 주인공 빌이 단 한 번의 해명으로 자신을 의심하는 승객들의 눈초리를 돌려놓는 장면이 잠시 걸리기는 하지만, 뭐 ‘영화니깐’ 괜찮다. 미국 관객의 눈으로 보자면 빌의 처지를 충분히 공감할 만하기 때문이다. “<span class='quot0'>딸과 아내에게 한 번도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 되어주지 못했다</span>”고 털어놓는 대목에서는 미국 사회의 그림자가 함축된 상태로 드러난다. <br/> <br/>범인이 누구인지 관객들이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여기저기 배치해놓은 심리적 트릭들이 눈맛을 당긴다. 후반부, 범인이 미리 설정해둔 시한폭탄이 터지고 비상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는 긴장감과 박진감이 최고조에 달한다. 마침내 정체가 드러난 범인과의 최후 대결을 펼치는 마지막 10여 분의 액션 시퀀스는 “역시 리엄 니슨이야”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리기에 손색이 없다. ‘테이큰’의 리엄 니슨 팬이라면 놓쳐선 안될 필견작이다. <br/> <br/>카메라는 빌이 어린 소녀 승객을 구해내는 장면에 애정을 쏟는다. 오래전 암으로 잃은 어린 딸에게 한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좋은 아빠’의 모습을 대신 보여주며 마치 면죄부를 얻듯 기억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장면은 ‘가족사랑’을 중시하는 할리우드 영화의 전형이다. <br/> <br/>김신성 기자 sskim65@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05.txt

제목: 혈액검사로 5년내 사망 위험 예측…혈액속 4개지 핵심 생물표지  
날짜: 20140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27100000461  
본문:  현재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5년 안에 의학적인 이유로 사망할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혈액검사법이 개발됐다고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핀란드 분자의학연구소의 요하네스 케투넨 박사가 개발한 이 혈액검사법은 혈액속의 4가지 핵심 생물표지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생물표지란 혈액, 체액 또는 조직 속에서 발견되는 생물분자로 어떤 비정상적인과정 또는 질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이다. 이 4가지 생물표지는 알부민, 알파-1-산성 당단백, 구연산, 초저밀도지단백으로이 수치들이 높으면 5년 내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케투넨 박사는 밝혔다.대체로 건강한 사람 1만7000여 명으로부터 혈액샘플을 채취해 수백 가지의 생물표지를 측정하고 5년간 지켜본 결과 이 중 684명이 암, 심혈관질환 등 각종 질병으로 사망했는데 사망자들은 한결같이 이 4가지 생물표지 수치가 비슷하게 높았다는 것이다.이 생물표지 수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은 20%가 혈액검사 후 첫해에 사망했다.이 4가지 생물표지는 간과 신장 기능, 염증, 감염, 에너지 대사, 혈관건강과 관련된 것들이다.보기에는 건강한 사람도 이 특정 생물표지 수치가 높으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결함이 몸속에 숨겨져 있다는 신호라고 케투넨 박사는 설명했다.그는 이 4가지 생물표지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그러나 이 혈액검사법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이 혈액검사로 5년 내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속수무책이라면 누가 검사를 받으려 하겠느냐고 그는 반문했다. 이 연구결과는 온라인 과학전문지 ’공중과학도서관-의학’(PLoS Medicine)에  실렸다.온라인 뉴스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06.txt

제목: 합리적인 암보험 비교, 연령대에 맞게 여러 조건 확인해야  
날짜: 20140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26100000372  
본문: 최근 몇 년 보험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흐름은 암보험의 변화다. 암 조기발견에 따른 암 발생자 수가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누적된 암보험은 판매가 축소되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암 보장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발생함에 따라 오히려 보장기간이 늘어난 상품들이 등장한 것이다.실제 암 관련 통계(2010년 12월 보건복지부 국가암등록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암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암 환자 70만 명 시대를 맞아 암 보험 선택도 그만큼 중요해진 시점. 전문가의 견해를 토대로 주의사항을 정리해 봤다.첫째, 암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암 진단금액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국회토론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이 평균 6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40~50대 가장이 암 투병 이후 사망했을 경우 가족이 짊어질 경제적 부담은 매우 크게 다가온다.평균수명까지 생존 시 3명중 1명이 암에 걸린다고 볼 때 암 보험의 진단금액은 최소한 본인의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보험사들 상품의 경우 진단율이 높은 남녀생식기계 암을 소액 암으로 분류해서 일반 암의 20%만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 암에 어떤 암들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력 등을 고려하면서, 비갱신형 암 보험으로암이라는 질병의 특성상 가족력이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 고액 암과 특정 암의 진단금을 고려해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 권장된다.갱신형은 5년, 10년 등 일정기간마다 연령증가에 따른 위험률 등을 고려해서 보험료가 재산출된다. 특히 암 발생이 급증하는 50대에서부터 보험료도 비례해서 증가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가입시점부터 만기까지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 비갱신형이 안정적인 보험유지에 유리할 수 있다.셋째, 이차 암 등을 보장하는 재진 암 진단비 준비통상 암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한번 암이 발생되면 진단자금은 더 이상 보장이 되지 않고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 두 번째 발생한 암이나 암이 완치되지 않고 잔류하는 암에 대해서 보장하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미 암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추가로 이러한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판매율이 높은 상품이라고 해도 설계에 따라 의무부가담보나 적립금 등에 따라 보험료는 천차만별이다. 때문에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보장하는 범위와 보험료, 가입기준이 달라 여러 회사의 암 보험을 가격비교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현재 판매회사로는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AIA생명, 라이나생명, 삼성생명, 동양생명 암 보험 등이 있다.이러한 다양한 상품들 가운데 자신의 건강조건과 경제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려면 특정 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별로 여러 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권장된다.도움말을 준 이곳(http://cancer.boheommall.kr)에서는 전문상담원이 각 보험사별 상품을 고객의 성별, 건강, 연령 등을 고려해서 설계하고 가입에서 보상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합리적인 보험 설계를 위해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07.txt

제목: [독자투고] 서민 쌈짓돈으로 건보공단 재정 충당 바람직 안해  
날짜: 20140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2610013573522  
본문: 세상에는 건강에 유해한 것이 무척 많다. 그중에서도 술은 간질환을 유발하고 담배와 자동차 배기가스는 폐질환을 일으킨다.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는 비만을 일으켜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을 발생시킨다. 이는 누구나 아는 일반적인 상식이다. <br/> <br/>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단다. 그 근거는 담배를 피우면 암 발생 위험이 크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1조5600억원 정도가 지출되니 그 돈을 담배회사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br/> <br/>이런 논리라면 “왜 담배만?”이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술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2011년 기준 2조4336억원이나 되고,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약 2조7000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그렇다면 술을 판매하는 회사와 비만을 유발하는 식음료를 판매하는 회사는 왜 가만히 두는가. <br/> <br/>특히 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담배의 3배 이상이고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 10건 중 4건 정도가 술 때문에 발생한다. 방화와 폭력은 45%, 공무집행방해는 60% 정도가 주취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건보공단 논리대로라면 소방방재청과 경찰청도 주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다. <br/> <br/>흡연자들은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담배 한 갑 살 때마다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증진부담금 대부분은 건보공단의 재정지원에 쓰이고 있다. 즉, 흡연자들은 담배 소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흡연자들에게 돈을 더 내라는 건보공단의 소송은 서민들로부터 이중삼중으로 돈을 더 받아내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br/> <br/>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이번 소송은 해외 사례와 그간의 국내 담배소송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한다. 만약 패소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된다. 종합해보면 건보공단이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결국 소비자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다. <br/> <br/>물론 담배가 우리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민들이 즐겨찾는 대표적인 기호품이기도 하다. 서민들의 쌈짓돈으로 건보재정을 충당하겠다고 하는 소송이 과연 옳은 일인지 건보공단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br/> <br/>박호용·라셋파트너스 대표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08.txt

제목: KBS 아침 '뉴스타임', 견과류, 두피 및 탈모 관리에 도움된다  
날짜: 20140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26100000148  
본문: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12만 명을 상대로 30년간 추적 관찰 했더니 매일 견과류를 먹으면 사망률이 20% 감소하고, 일주일에 1번씩만 꾸준히 먹어도 사망률이 11% 감소했다고 했으며 암과 사망률까지 낮춰주니 가히 슈퍼 푸드 라고 할 수 있는 견과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해주며 항암효과가 기대되는 건강식품이다.26일 방송된 KBS ‘아침 뉴스타임’에서는 동료들에게 견과류의 전도사로 유명한 버스운전을 하는 경기도 성남에 사는 이정일 씨가 소개됐다. 이정일 씨는 버스 운전으로 인한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영양 불균형으로 3개월 전 탈모가 발생되어 고생을 했다고 전했다. 3개월간 두피관리와 꾸준히 견과류는 복용한 이정일씨는 두피센터에서 탈모 전후 상태를 확인해보니 모발이 더욱 촘촘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에 을지대학교 피부관리학과 정훈 교수는 “<span class='quot0'>견과류에는 두피의 건조함을 막는 셀레늄과 모발을 건강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아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견과류를 하루에 일정량 섭취하는 것이 탈모에 상당히 좋다</span>”고 말했다. 스포츠월드 연예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09.txt

제목: 늘어나는 교육비 부담…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날짜: 20140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2510013569732  
본문: “<span class='quot0'>나중에 아이가 대학교에 입학하면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span>” <br/> <br/>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앞두고 학생들의 마음은 설레겠지만 자녀의 교육을 책임진 부모의 마음은 무겁다.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나날이 늘어가는데 행여나 갑작스런 실직이나 사고로 자녀의 ‘희망’이 꺾이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런 고민 많은 부모라면 아이의 장래를 위해 ‘교육보험’ 하나쯤은 들게 마련이다. 교육보험 중에는 아이가 성인이 된 후 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보험과 상해와 질병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도 많아 활용도가 높다. 보험사마다 교육자금 지원금과 보장 내용이 다른 만큼 내 아이에게 맞는 교육보험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br/> <br/>◆교육전용보험으로 사교육비도 해결 <br/> <br/>현재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공·사교육과 관련한 모든 것을 망라하는 교육 전용 보험, 만기까지 대학학자금이라는 목돈을 만들고 필요시 중도 인출이 가능한 저축성 변액연금, 부모 유고 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보장형 교육보험 등으로 나뉜다. <br/> <br/>변액보험의 경우 목적이 학자금 마련이지만 만기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상해와 질병 등을 보장하는 어린이 종합 보험에 들어간 특약 중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해로 인해 수입이 끊길 경우 정해진 금액의 교육비를 보장한다. <br/> <br/>다른 내용을 배제하고 교육에만 특화한 상품도 있다. 교보생명의 ‘교보 우리 아이 교육보험’은 입학이나 졸업 등에 맞춰 정해진 보험금을 주는 교육전용보험이다. 1958년 출시된 ‘진학보험’이 전신으로 자녀 연령에 따라 육아코칭비(2∼5세), 방과 후 학습비(6∼11세), 체험캠프비(12∼14세), 고등교육자금(15∼17세), 대학교육자금(18∼21세) 등 교육자금이 필요한 내용을 세분화해 지원한다. 여기에 부모 사망 혹은 장해지급률 50% 이상 장해를 입거나 부모가 암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사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보장은 그대로 이어진다. 교보문고와 제휴를 통해 ‘교보 에듀케어 서비스 KEDS’의 발달진단, 양육상담 서비스와 독서코칭, 해외문화캠프, 영어캠프, 경제캠프 등도 제공 사항이다. 지난 2년간 연평균 15억원의 초회 수입보험료를 올릴 만큼 반응도 좋다. <br/> <br/>동양생명의 ‘수호천사 꿈나무 재테크보험’의 학자금 플랜형도 눈여겨 볼만하다. 진학시기별 맞춤 설계가 가능해 입학자금, 학원비 마련에 도움을 준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로 나눠 입학 시기에 각각 기본보험료의 100∼500%를 지급하고, 따로 학원비로 보험료 100% 수준을 제공한다. 대학등록금은 보험료의 1500%를 지원해주고 15세에는 보험료의 750%를 영어캠프 자금으로 준다. 보험기간 중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유자녀 학자금은 지급된다. <br/> <br/>◆상해와 교육을 ‘한방에’ 해결 <br/> <br/>일반적인 변액연금보험에서 교육비 활용도를 높인 상품의 만기와 중도인출 기능을 통해 자녀 등록금 걱정을 덜 수도 있다. <br/> <br/>삼성생명의 ‘자녀교육 변액연금보험’은 일반적인 연금형태에 19∼22세 대학 등록금이 필요한 시기에 교육자금을 지급해 교육자금과 연금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생명의 ‘아이 사랑 연금보험’도 연금 개시 전에 입학자금, 대학등록자금, 어학연수자금 등 교육비를 지원한다. 미래에셋생명의 ‘어린이변액적립보험 1307’은 26세 이후에는 자녀의 저축보험으로 활용할 수도 있도록 했지만 그사이 일정시점에 중도 인출이 가능해 아이의 교육자금 마련 용도로 유용하다. 여기에 부모가 사망할 경우 성장자금도 지원한다. <br/> <br/>입원, 수술 등 질병과 상해에 집중한 하나생명의 ‘하나 아이 사랑 어린이보험’은 영어캠프자금(15세), 대입원서자금(18세), 배낭여행자금(21세), 취업지원자금(23세) 등 연령별 필요한 교육자금을 4회 중도지급한다. <br/> <br/>많은 어린이보험에서는 부모 유고 시 교육비를 지원하는 특약을 두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의 ‘두드림 자녀보험’은 부양자 교육자금 담보를 통해 부모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혹은 80% 이상 후유장해시 자녀 교육자금을 최대 93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또 학습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자녀 성장 및 학습 상태를 진단·분석해 자녀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단 및 멘토링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br/> <br/>LIG손해보험의 ‘희망플러스 자녀보험’은 교육자금 특약에 가입하면 부양자가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 장해를 입을 경우 교육자금을 자녀 학년에 맞춰 나눠 지급한다. 메리츠화재의 ‘내 Mom같은 어린이보험’은 3대 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과 함께 교육자금 담보로 입학자금, 정기적인 학비지원금, 취업 준비금 등을 보장한다. 한화생명의 ‘맘to맘 어린이보험’, ‘I Start 변액연금보험’은 어린이 학자금보장 특약을 통해 부모 유고 시 유자녀 학자금, 입학보조금, 자립자금을 지급한다. <br/> <br/>정진수 기자 je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10.txt

제목: 강릉아산병원 신관 증축 기공식…2015년 전문화된 진료서비스  
날짜: 20140224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24100000359  
본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강릉아산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전문화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원지역 의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면적 2만4751㎡(7500평), 12층(지상10층, 지하2층) 규모의 신관을 증축하며, 기공식은 2월 25일(화) 오후 2시 신관 증축 부지 현장에서 갖는다.2015년 8월 신관이 완공되면 강릉아산병원(원장 김인구)은 전체 연면적 9만9405㎡(3만100평), 병상 수는 기존 659병상에서 850병상 규모로 도내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거듭나게 된다.증축되는 신관에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심혈관·뇌신경·관절 질환 등에 대한 전문센터가 신설되고, 건강검진센터도 확대 운영될 예정이며, 지역 내 백혈병환자들에게 전문화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동지역 최초로 조혈모이식센터가 개설된다. 또한 갑상선질환 및 암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실을 신설하고, 암 진단 장비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사이클로트론이 설치되어 PET-CT 검사와 같은 방사성동위원소를 필요로 하는 검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김인구 강릉아산병원장은 “<span class='quot0'>신관증축을 통해 선진화된 진료시스템이 도입되면 도내 환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강원 영동지역 의료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더불어 김 병원장은 2015년 신관이 완공되면 지역 내 병상부족 현상의 해소와 신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11.txt

제목: '다이애나',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  
날짜: 20140224  
기자: 이슈데일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2410013557281  
본문: 영화 '다이애나'가 개봉 전부터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기대를 불러모으고 있다. <br/> <br/>오는 3월 6일 개봉을 앞둔 '다이애나'는 로얄 패밀리를 거부하고 사랑을 원했던 비운의 왕세자비 다이애나의 사망하기 2년 전 숨겨진 이야기가 담겨있는 영화다. <br/> <br/>다이애나는 1981년 영국 왕실 서열 1위 찰스 황태자와 전 세계인의 축복 속에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지만 불우한 결혼생활을 했다. <br/> <br/>결혼 초 남편 황태자가 결혼 전부터 만나왔던 카밀라 파커불스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이애나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외롭고 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갔다. <br/> <br/>또한 시어머니인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푸대접에 맞서며 몇 번의 자살 시도까지 하는 등 다이애나의 왕실 생활은 힘들었다. <br/> <br/>하지만 다이애나는 이런 힘든 역경을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며 이혼 후 자신의 삶에 충실해지며 많은 업적을 남겼다. <br/> <br/>특히 다이애나가 에이즈, 암, 심장병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나섰고 대인지뢰 추방 등 국제적인 캠페인에 적극 관여해 대인지뢰 금여 협약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br/> <br/>이에 대중들도 다이애나의 진심어린 행동과 진솔한 마음에 감동받고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된다.  <br/>사망한 이후에도 국민들의 여왕으로 불리우며  여전히 영국의 여왕으로 추앙받고 있다. <br/> <br/>영화 '다이애나'는 이와 같은 다이애나의 실화들을 바탕으로 그가 이혼 후 사망하기 직전까지의 숨겨진 스토리를 흥미롭게 풀어내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으로 오는 3월 6일 전격개봉한다. <br/> <br/>연예뉴스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12.txt

제목: 미세먼지 주의보에 면역력 높이는 ‘차가버섯’ 눈길  
날짜: 20140224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2410013554495  
본문: 언 땅이 녹는다는 우수가 지나고, 겨우내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야외 활동을 시작하려는 요즘, 탁한 공기가 발목을 잡고 있다. 해마다 봄철이면 으레 발생하는 황사려니 생각하지만 이보다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더 크다. <br/> <br/>황사와 미세먼지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개념에 차이를 두고 있다. 황사는 중국 내륙의 흙먼지가 한반도까지 이동해오는 자연현상인 반면, 미세먼지는 국내외의 공장이나 자동차, 난방기구 등에서 발생해 비교적 가벼운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미세한 먼지를 뜻한다. <br/> <br/>미세먼지는 성분이 아닌 입자의 크기로 정의 되는데, PM10(지름 10㎛ 이하)을 미세먼지· PM2.5(지금 2.5㎛ 이하)를 ‘초미세먼지’로 부르고 있다.  <br/> <br/>지난 겨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대기상황이 극도로 좋지 않자 정부와 언론에서는 황사보다 더 위험한 미세먼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이어 올해부터는 기존 미세먼지 예보가 하루에 1차례에서 4차례로 늘어날 예정이다. <br/> <br/>이로써 황사와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 등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br/> <br/>미세먼지는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며, PM 2.5의 경우 크기가 매우 작아 코나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직접 들어가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계 질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세계보건기구(WHO)는 PM2.5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해, 암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br/> <br/>이러한 미세먼지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것이 좋고, 식생활에서도 수분보충이 될 수 있는 야채나 과일 등을 수시로 챙겨주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또 보조적으로 건강식품으로서 암환자들이 면역력 증진을 위해 찾는 차가버섯(추출분말)이 주목 받고 있다. <br/> <br/>차가버섯(추출분말)에는 각종 항산화 성분과 항암 물질인 베타글루칸· SOD· 폴리페놀· 베툴린 등 많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물에 타서 먹으면 수분 보충과 함께 항산화 성분도 섭취할 수 있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br/> <br/>국내 차가버섯의 대표 회사이자 러시아 ‘키트(K&T LTD)’사의 한국 총판을 맡고 있는 ㈜고려인삼공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면역력에 좋은 차가버섯 추출분말을 따뜻한 물에 타서 수시로 마셔주는 것만으로도 건조한 기관지점막에 도움이 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건강식품뿐 아니라, 평상시 식생활과 생활습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span>”고 당부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13.txt

제목: 음경 임플란트 삽입수술로 고령의 남성도 자신감  
날짜: 20140224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24100000355  
본문: 발기부전은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심장질환이 있다면 발기 기능 에도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다. 고령의 남성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전립선 질환 등이 주요 원인이 되며 전립선 암은 수술후 완쾌해도 발기부전이란 증상을 동반할수 있다. 그 외에도 뇌와 척수 골반의 수술및 손상도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고령의 남성은 이같이 노인성 질환이 많아 발기치료 약물복용을 계속 음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방법인 음경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음경 임플란트 수술은 음경 해면체에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방법이다. 본인이 원할때 발기가 가능하고 성적 쾌감이나 음경의 감각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음경 임플란트는 크게 굴곡형과 팽창형으로 나뉜다. 굴곡형은 자유롭게 구부렸다 폈다하는 수술 방법으로 평상시에는 구부려 놓았다가 사용 할때만 쭉 펴서 발기 상태를 만들수 있다. 굴곡형은 수술이 쉬우며 국소 마취로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 당일 곧바로 퇴원이 가능하다.반면 팽창형은 세 조각형 임플란트라고도 하는데 펌프를 이용한 발기 작동 원리로 관계시 음낭내의 설치한 작은 펌프를 몇번 눌러주면 음경 해면체에 마치 혈액이 충만되는 것과 같이 생리 식염수가 음경내 실린더로 충만되기 때문에 젊은시절 발기력과 거의 흡사하게 표현되는것이 특징이다. 또한 관계전 평상시에는 자연스러운 외양을 유지할수 있어서 수술한 표시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최근 강남J(제이)비뇨기과 박천진 원장은 음경의 길이와 둘레가 동시에 20% 증가하는 AMS 700 MS LGX(optimize Girth and Length with up to 20% elongation possible)삽입 수술을 국내 최초로 시행했으며 실제적 자연 발기와 가장 흡사한 발기 모양으로 자연스러움을 추가시켰다. 음경 임플란트 수술은 연령이나 질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시술이 가능하다. 한번 수술하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으며 체내에 삽입된 펌프를 누르면 언제든지 발기시킬수 있다. 또한 원하는 시간만큼 발기를 유지할 수 있어 발기부전 뿐만 아니라 조루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14.txt

제목: [사설] 노조원 지지받지 못한 민노총의 ‘일그러진 정치파업’  
날짜: 20140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2410013558711  
본문: 민주노총이 오늘 총파업을 강행했다. 이들은 재야단체와 손을 잡고 전국 12곳에서 동시다발 집회와 촛불시위에 들어갔다. 총파업에는 연말 최장기 파업으로 국민의 발을 묶었던 철도노조까지 가세했다. 승객의 안전과 불편에 눈을 감는 무책임한 처사다. <br/> <br/>이번 파업은 박근혜정부 1년을 겨냥한 정치파업이다. 민노총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span class='quot0'>지난 대선의 총체적 관권·부정선거가 사실로 밝혀지고 있지만 박근혜정부는 진실을 왜곡· 은폐· 축소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span>”고 정부를 공격했다. 이들은 파업 슬로건으로 ‘대통령 퇴진, 노동탄압 분쇄, 공기업 민영화 저지, 기초연금 정부안 반대’를 내걸었다. 근로조건 유지·개선과는 무관한 불법 파업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br/> <br/>민노총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공기업 민영화는 노동계의 반발로 정부가 얘기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고, 기초연금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 중인 사안이다. 민노총이 감놔라 배놔라 할 일도 못 된다. 이런 식으로 정치 깃발만 펄럭이니 국민 공감은 차치하고 노조 내부에서조차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 아닌가. 민노총 파업은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 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해오던 금속노조는 최근 찬반투표에서 56%가 파업에 반대표를 던졌다. 현대차 노조마저 64%가 지도부에 반기를 들었다. 민노총은 노조 여론의 흐름을 외면하는 파업 역주행을 당장 그쳐야 한다. <br/> <br/>지금 우리 경제는 노조가 머리띠를 두를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 나라 안팎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해외에서는 금융위기 징후가 일고, 국내에는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대졸 청년 백수의 한숨소리는 커지고 있다. 난국을 헤쳐 가자면 기업 투자를 유인해 성장을 통한 ‘고용 파이’를 키우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규제 완화에 총력을 쏟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처지에 노조가 경제 회생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암적 파업으로 투자 불씨마저 꺼뜨리려 해서야 되겠는가. <br/> <br/>민노총은 이번 파업에 ‘국민 파업’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어이가 없다. 일자리를 내쫓는 파업에까지 국민의 이름을 팔아서야 되겠는가. 소가 웃을 일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15.txt

제목: 법원 "종교활동 강요한 남편, 부인에 위자료 지급"  
날짜: 20140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23100000291  
본문: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종교 활동을 강요한 남편을 상대로 부인이 낸 이혼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되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고 4억1천만원과 일부 부동산 등 재산을 떼어주도록 했다.큰아들의 사망을 계기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남편은 부인과 자녀들에게 자신의 기독교 신앙과 생활 태도를 따르라고 강요했다.그는 암에 걸린 부인을 위로하기는커녕 '사탄 마귀'라고 부르면서 폭언했다. 생활비와 자녀들 학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족과 상의없이 많은 돈을 헌금으로 내기도 했다.재판부는 "엄격한 종교활동 강요와 거액의 헌금 기부 등 과도하고 독단적인 행위, 암 투병 중인 배우자에 대한 폭언 등으로 부부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부인을 막연히 비난하기 전에 왜 가족이 자신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됐는지, 혹시 그런 원인을 제공한 허물이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남편을 꾸짖었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16.txt

제목: 중노년층 ‘광선각화증’ 조심!  
날짜: 20140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2310013547220  
본문: 검버섯이나 습진으로 착각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가 광선각화증이다. 광선각화증은 피부에 단단한 각질이 덧붙는 피부병으로, 50대 이상 연령에서 주로 발생해 ‘노인각화증’이라고도 불린다. <br/> <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2012년 이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 2만2600명 중 50대 이상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br/> <br/>광선각화증은 건조한 부스러기로 인해 피부 표면이 까칠까칠해지며 1㎝ 이내로 질환 부위가 솟아오르기도 한다. 통증 같은 자각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얼굴·두피·입술·귀·목·팔·손등 등 자외선에 노출되는 부위에 주로 발생한다. <br/> <br/>방치하면 피부암 중 하나인 편평세포암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국내 인지도 및 치료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br/> <br/>편평세포암이란 표피의 각질형성세포에서 유래한 악성종양으로 피부암 중 두 번째로 흔하게 생긴다. 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편평세포암 환자(182명)의 60%가 광선각화증 때문에 암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광선각화증을 앓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피부암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br/> <br/> 광선각화증은 피부에 단단한 각질이 덧붙는 피부병으로, 건조한 부스러기로 인해 피부 표면이 까칠까칠해진다. <br/>대한피부암협회 제공원인은 만성적인 자외선 노출이다. 농어업 종사자 등 야외에서 자외선을 많이 쐬는 직업군에서 주로 발생한다. <br/> <br/>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나 임파종, 장기이식으로 인해 면역억제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도 발병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발견하려면 햇빛 노출이 큰 직업에 종사하거나 면역계 이상 질환을 앓고 있는 50대 이상 연령군은 주기적으로 피부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 <br/> <br/>김일환 대한피부암학회장은 “<span class='quot0'>광선각화증은 편평세포암과의 연계성이 큰 전암단계 질환으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야외활동이 많은 직업군은 정기적으로 피부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span>”고 조언했다. <br/> <br/>자외선을 차단하는 예방 노력도 중요하다. 외출 때는 자외선 차단지수가 높은 선크림을 2시간 간격으로 바르고, 자외선 양이 많은 오전 10시∼오후 2시에는 그늘에서 활동한다. 흐린 날에도 맑은 날의 80% 정도 자외선이 존재하므로 차단제를 꼭 발라야 한다. 인위적으로 피부를 태우는 태닝은 하지 않는 게 좋다. <br/> <br/>이현미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17.txt

제목: [재미난 융합과학 이야기] ⑭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  
날짜: 20140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2310013546537  
본문: 사람들은 대부분 비만을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한다. 그러나 200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지구 온난화나 조류독감과 같이 심각한 수준의 문제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비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비만에 의한 질병이 많아지고, 의료비 부담도 급증하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적잖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br/> <br/>비만을 단순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의학적으로 몸속에 지방이 필요량 이상으로 많이 축적된 상태를 비만이라고 정의한다. 비만의 원인은 몸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음식으로 섭취하는 데 있다.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여분의 에너지는 지방의 형태로 축적되므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비만이 된다. <br/> <br/>비만을 판별할 때는 주로 체질량지수를 이용하며, 체질량지수는 몸무게(㎏)를 키(m)의 제곱 값으로 나누어 얻는다. 우리나라는 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보고, 서양인은 체형이 달라서 30 이상인 경우를 비만으로 본다. <br/> <br/>비만은 관절에 무리를 주고 당뇨병과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등과 같은 성인병에 잘 걸리게 한다. 유방암과 대장암 등 각종 암의 발생을 증가시켜 평균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br/> <br/>비만을 치료하려면 음식의 양과 종류를 조절하고, 운동으로 에너지 소비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생활방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으므로 가족과 주변 친구들의 이해와 격려가 필요하다. 일단 비만이 되면 치료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비만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br/> <br/>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하루 세 끼 거르지 않기 ▲취침 2시간 전에 먹지 않기 ▲지방 섭취 줄이고 채소 많이 먹기 ▲음식을 싱겁게 천천히 씹어 먹기 ▲과식하지 않고 물 많이 마시기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 흘리며 운동하기 등이다. <br/> <br/>미래엔 올리드 과학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18.txt

제목: 광선각화증 피부암으로의 발전 가능성 높아, 조기 진단 통한 올바른 치료 필수  
날짜: 20140223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23100000151  
본문: 피부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올바른 치료 및 관리가 필수임에도 불구,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질환이 있다. 바로 ‘광선각화증(Actinic Keratosis)’이다.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된 피부 부위에 발생하는 각화성 병변으로, 표피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피부암 전 단계 질환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질환인 광선각화증은 전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피부질환으로, 백인의 경우 70세 이상 성인이 최소 한 개 이상의 광선각화증 병변을 갖고 있을 정도로 발생 빈도가 높다. 주요 발병요인은 만성적인 자외선 노출로 알려져 있으며, 농·어업 종사자 처럼 장기간 야외 노출이 많은 직업군에서 흔하게 발생하며, 특히 50대 이상 노년층에서 주로 발병되는 질환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광선각화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 총 2만2600명 중, 50대 이상의 노년층 발병률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인구의 고령화와 야외 활동 보편화로 인해 유병률 증가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광선각화증의 유병률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국내의 경우도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 유해물질과 햇빛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적 변화, 야외 활동의 보편화 등으로 인해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편평세포암 환자의 약 60%가 광선각화증 질환으로부터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내 편평세포암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광선각화증 동반 비율이 무려 8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99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0년간 강원지역 피부암전구증환자 237명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광선각화증이 전체 피부암전구증의 74.68%를 차지했다. 이렇듯 광선각화증은 피부암의 일종인 편평세포암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전암단계의 질환이니만큼 단순히 미용적 문제의 피부질환이라는 인식을 넘어 심각성에 대한 제고가 반드시 필요한 질환이다.◆피부암과의 연계성에도 불구 질환 인지도는 매우 낮아이렇듯 피부암과의 높은 연계성에도 불구, 국내 광선각화증 환자들의 질환 인지도 및 치료율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주로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의 발병이 높은 질환의 특성상, 검버섯·습진 등과 혼동하여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잘못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광선각화증은 이러한 단순 노인성 질환과 달리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방치하면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광선각화증은 통증 등의 자각증상이 희박하고, 눈에 보이는 병변과 함께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잠재병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자외선 노출이 잦은 직업군에서는 정기적인 피부과 방문을 통해 증상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광선각화증의 치료광선각화증은 크게 눈에 보이는 병변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병변의 직접적 치료법’(Lesion directed therapy)과,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 잠재 병변까지 치료할 수 있는 ‘필드 치료법(Field therapy)’으로 분류된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병변의 경우 냉동요법이나 레이저 치료 등과 같이 ‘병변의 직접적 치료법’을 적용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나, 여러 부위에 걸쳐 나타나는 다발성 병변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병변의 치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치료과정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어, 병변의 면적이 넓거나 다발성 병변(10개 혹은 그 이상)이 관찰될 경우에는 ‘필드 치료법’(Field therapy)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지난 21일 미디어 포럼을 진행한 대한피부암학회 회장 김일환 교수(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피부과)는 “<span class='quot0'>광선각화증은 편평세포암과 연계성이 큰 전암단계의 질환으로 그 심각성이 제고돼야 하는 질환이다</span>”라며, “<span class='quot0'>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잠재 병변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해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군에서는 정기적인 피부과 방문을 통해 규칙적으로 피부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한편, 제약회사 레오파마와 대한피부암학회는 향후 국내 광선각화증 환자들의 질환 인지도와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19.txt

제목: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 5종복합면역요법 및 수지상세포치료 연구발표  
날짜: 20140221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2110013538155  
본문: 일본 큐우슈우· 구마모토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센신병원은 정부의 정책의 지원을 받아 동경에 제 2 병원을 설립하여 암 치료 전문병원으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는 곳으로 원장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는 미국 유학시절부터 세포학과 면역학에 정통한 인물로 면역치료 대가로 꼽히고 있다. <br/> <br/>츠네오 박사가 암 치료를 위해 행하고 있는 5종복합면역요법은 5종의 면역세포를 동시에 배양함으로써 세포 간 네트워크(Network)가 형성되어 팀플레이가 가능하게 되면서 암 치료 유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br/> <br/>5종복합면역요법의 기저에는 이와 관련한 ‘암 면역요법 용 세포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력이 있었고, 이 기술은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특허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br/> <br/>新수지상세포획득면역백신요법은 수지상세포에 WT1펩티드 인공 암 항원을 인식시켜 주어 암세포를 좀 더 정확히 찾아내어 공격하는 암치료법으로 기존의 수지상세포백신치료의 문제점을 보완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br/> <br/>新수지상세포획득면역백신요법은 현재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암치료법으로 수지상세포만을 배양하여 암 펩티드 항원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5종의 면역 세포가 함께 배양되므로 엄밀히 말하면 5종복합면역요법에 수지상세포면역백신요법이 결합된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br/> <br/>지난 2월 6일, 동경에서 개최된 강연회에서 5종복합면역요법과 新수지상세포획득 면역백신요법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치료 유효율에 대한 발표도 하였는데, 新수지상세포 획득면역백신요법의 경우 치료 유효율이 70~75%이고 치료를 받은 암환자 60% 정도가 말기 암 환자였다는 점이다. <br/> <br/>강연회에 참석한 의료인들의 호응은 물론 일본 의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또한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는 3년 전부터 일본 유명 제약회사, 그리고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암 줄기세포 특이항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해 왔는데 지난해 중순에 개발에 성공하였다. <br/> <br/>특히 지난 연말부터 DC아이백-CSC요법이라는 이름으로 암 줄기세포특이항원 펩티드를 적용한 암 치료법을 시행하고 있다. 新수지상세포획득면역백신요법에서의 WT1 암 항원펩티드와 더불어 암 줄기세포 특이항원 펩티드를 함께 수지상세포에 인식시켜 암의 근원이고 재발·전이의 주범인 암 줄기세포를 공략하는 암치료법으로 기존 치료법의 유효율보다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br/> <br/>센신병원은 일본 전역에 걸쳐 30여개 이상의 협력 또는 제휴 병원에 구라모치식 면역 세포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구라모치 박사가 추구하는 암 치료의 목표는 현재의 면역치료를 더욱 발전시켜 표준 치료로 인정을 받고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케 하는 것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20.txt

제목: [세계포럼] 막장에서 온 편지  
날짜: 201402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1910013520875  
본문: 박근혜 대통령께 <br/> <br/>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우수가 지났습니다.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공공기관 개혁도 얼음 녹듯 풀렸으면 합니다. 도덕적 해이로 얼룩진 방만 경영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명분과 대의가 옳다 하더라도 목적지에 이르는 지도가 부실하다면 길을 헤매게 마련입니다. 혹여 개혁의 로드맵과 실행계획이 불합리한 것은 없는지 찬찬히 살피셔야 합니다. 그런 충정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올리고자 합니다. <br/> <br/>저는 강원도 태백의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막장에서 일하는 허준우입니다. 쉰이 넘도록 근무하다보니 어느덧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렸군요. 저는 매일 아침 땅속으로 출근합니다. 장화와 방진 마스크를 한 채 터널을 걷고 초고속 케이지에 몸을 싣습니다. 수직으로 하강해 철제 인차로 두 번 갈아타면 지하 1000m의 막장에 이른답니다. 한겨울에도 지구의 열기로 섭씨 30도를 웃도는 곳이죠. 새까만 어둠이 가득한 막장에서 저는 희망을 가슴에 채웁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나는 법이니까요. <br/> <br/>요즘 이곳 막장에도 지상의 흉흉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벌써 직원을 감축한다는 얘기가 나돌더군요. 대한석탄공사는 1989년 석탄합리화정책 이후 8번의 구조조정으로 몸집을 크게 줄였습니다. 석탄 생산량의 80%가 감축됐고 직원 열 명 중 아홉이 직장을 떠났습니다. 잇단 감축으로 값비싼 생산시설이 남아도는 마당에 몸집만 자꾸 줄인다고 경영이 좋아지겠습니까. 석탄공사는 탄광 문을 모두 닫더라도 연간 수백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금융부채에 따른 이자만 매년 480억원씩 돌아옵니다. 축소 경영보다는 세계적인 채탄 기술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유사기관과의 통폐합도 고려해야 합니다. <br/> <br/>배연국 논설위원방만 경영의 사례로 직원 학자금이 도마에 오른다고 들었습니다. 석탄공사의 학자금은 광산 피해자들을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법에 따라 지원하는 것입니다. 과잉 복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석탄공사는 7년째 일반직 신입 공채를 못하고 있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간신히 버티는 외주인력이 적지 않습니다. ‘신의 직장’과 억대 연봉은 먼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이런 처지에 학자금 지원마저 끊긴다면 3D업종보다 열악한 광산에서 어느 누가 일하려 하겠습니까. <br/> <br/>석탄공사가 어렵게 확보한 몽골 홋고르 탄광이 외국에 팔린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5억t의 매장량을 지닌 홋고르 탄광은 ‘한국 첫 공기업’ 석탄공사의 미래입니다. 3년 전 지분 51%를 확보해 직접 개발의 길을 열었을 때 저는 만세를 불렀습니다. 광산까지 도로만 놓는다면 지표면에서 곧바로 유연탄을 캘 수 있다고 합니다. 수십조원의 경제가치를 갖고 있지만 그간 자금 부족으로 방치되다 이제 바람 앞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br/> <br/>대통령님, 자원 개발은 국부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국부를 늘리기 위해 바다를 뒤지고 멀리 아프리카까지 달려갑니다. 에너지 자원은 미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급하다고 거위 배를 갈라서야 되겠습니까. <br/> <br/>대통령께선 ‘호랑이 정신’으로 공공기관 개혁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은 암에 걸린 환자나 다름없습니다. 개혁의 지향점은 그런 공공기관을 건강한 기업으로 되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환자를 살리자면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암의 종류와 증상이 천태만상인 만큼 진단과 처방 역시 환자 특성에 맞춰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호랑이가 환자를 무는 일이 생겨선 안 됩니다. <br/> <br/>대통령님, <br/> <br/>석탄으로 만들어지는 연탄은 불을 피우려면 처음에 구멍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개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개혁의 온기가 연탄불처럼 공직사회에 두루 퍼지기를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br/> <br/>배연국 논설위원 <br/> <br/>※탄광근로자 허준우는 공공기관 개혁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가상인물입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21.txt

제목: [사이언스리뷰] 인지컴퓨팅 시대 열린다  
날짜: 201402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1910013520874  
본문: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기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일반인에게는 공상과학 영화 등에서나 들어봤음직한 인공지능 이야기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사실 인공지능은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50년 가까이 중요한 기술로 인식됐지만, 초창기의 막대한 관심에 비해 1980년대 후반에는 ‘인공지능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큰 침체기를 겪기도 했다. <br/> <br/>그러나 1997년 IBM의 딥블루(Deep Blue)라는 컴퓨터가 세계 체스챔피언인 개리 캐스파로프를 꺾으면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IBM의 왓슨(Watson)이라는 슈퍼컴퓨터가 세계 최고의 퀴즈쇼인 제퍼디(Jeopardy)에서 전설적인 두 명의 퀴즈왕을 상대로 한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인공지능이 현실세계를 크게 바꾸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br/> <br/>현재의 컴퓨터는 존 폰 노이만이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와 입출력장치의 구조를 개념화한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폰 노이만 방식 컴퓨터’라고 부른다. <br/> <br/>초창기의 컴퓨터에 비해 기억장치의 용량과 속도가 수백만 배 늘어나고 빨라졌지만, 현재의 컴퓨터 역시 이런 계산기와 비슷한 기계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와는 무척 다르다. 이런 구조의 컴퓨터는 주어진 작업을 효율적이면서도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데 강점을 가지지만 인간의 뇌처럼 유연성 있는 판단을 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진화하는 것에는 큰 약점을 가지고 있다. <br/> <br/>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IBM은 인간의 뇌처럼 낮은 수준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효과적으로 대규모 병렬처리를 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했다. 인간의 뇌는 어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된 정보처리 기계이면서 현존하는 최고의 기계라고 할 수 있다. <br/> <br/>그러면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왓슨을 인간의 뇌와 비교한다면 어떨까. 사실 왓슨이 퀴즈쇼를 통해 그 능력을 증명했고, 뒤이어 미국 최고의 암센터에서 암환자 진료에 활용되면서 광고에도 등장할 정도로 유명해졌지만, 공정하게 인간의 뇌와 비교한다면 많은 면에서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다. 왓슨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는 4000명이 넘는 사람의 뇌가 동시에 사용하는 에너지와 동일하다고 한다. <br/> <br/> 정지훈 명지병원 IT 융합연구소장·미래학최근에는 단순한 인공지능의 수준을 넘어 인간의 뇌와 유사한 인지기능을 갖춘 컴퓨터 프로젝트가 속속 발표되고 있어, 컴퓨터 기술 자체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사회적인 반향도 그만큼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을 포괄적으로 인지컴퓨팅(Cognitive Computing)이라고 부른다. 컴퓨터를 인지 시스템으로 본다면 단지 프로그래밍된 대로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인지를 하고 판단을 하며, 외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경험을 통해 배운다’는 것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br/> <br/>전통적인 컴퓨터 하드웨어를 이용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도전했던 인공지능의 목표가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인간의 뇌와 유사한 컴퓨터 칩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컴퓨터 칩을 이용해서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br/> <br/>이같이 새로운 인지컴퓨팅의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인간의 뇌와 같이 복잡하고 집적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소재나 집적기술 전반에 혁신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뇌과학 연구의 성과가 컴퓨터 과학 연구자들과 공유돼야 하며, 작업을 부여하고 작업을 평가하는 방식 등에서도 정의할 부분이 많다. <br/> <br/>또한 어느 정도 수준의 자율성을 줄 것인지, 그리고 작업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작업모델이나 높은 수준의 자율성에 따른 윤리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인지컴퓨팅이 중시되는 미래에는 더욱 융합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br/> <br/>정지훈 명지병원 IT 융합연구소장·미래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22.txt

제목: 희귀암 기스트 잡는 표적치료제 ‘이매티닙’  
날짜: 20140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1810013508749  
본문: 식도, 위, 소장, 대장 등 소화기관 내 위장관벽의 근육층에 발생하는 희귀 종양인 기스트(위장관 기질종양). 희귀 종양인 만큼 치료도 쉽지 않다. KBS1 ‘생로병사의 비밀’은 19일 오후 10시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기스트에 대해 방송한다. <br/> <br/>기스트는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암과 다르게 근육층에 발생한다. 이는 외부 점막 조직 검사로는 확진을 내릴 수 없어, 수술과 동시에 진단이 이뤄져야 할 정도로 검진조차 쉽지 않다. 심지어는 일반적인 암이나 궤양에 비해 증상도 심하지 않아 병을 더욱 악화시켜 병원에 오는 경우가 태반이다. <br/> <br/>기스트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간을 포함한 전신으로 전이가 잘된다는 것이다. 온몸에 병변이 전이되면 수술도 쉽지 않다. 그때 쓰이는 치료가 바로 표적치료제의 일종인 ‘이매티닙’이다. 이는 기스트에 쓰인 최초의 표적치료제로서 문제가 되는 암세포만 정확히 골라 공격한다. 기존 항암 치료에 비해 평균 생존기간도 6배 이상 높고 부작용도 적다.  <br/> <br/>KBS1 ‘생로병사의 비밀’은 기스트에 쓰이는 표적치료제로서 암세포만 정확히 골라 공격하는 이매티닙에 대해서 19일 소개한다.흔히 암이라고 하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좌절하기 쉽다. 그러나 암을 찾아내는 의학 기술의 발전과 개개인에게 맞춘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암은 이제 정복 가능한 병이라고 부르게 됐다. 개개인의 유전자를 분석해 그에 맞는 정확한 표적치료제를 찾아 치료하거나 기존의 표준 항암제와 신생 혈관을 억제하는 표적치료를 동시에 적용하는 등 암과 공존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br/> <br/>‘생로병사의 비밀’은 자신의 몸에 꼭 필요한 운동시간에 대해서도 다룬다. 건강한 몸과 정신에 꼭 필요한 것이 운동이지만 자신의 체질과 생활패턴에 맞지 않는 운동은 몸에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한다.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평일에 하지 못한 운동을 주말에 몰아 10시간 이상 등산을 했던 박기란(55)씨는 결국 2년 전 무릎 연골판 수술을 받아야 했다. 프로그램은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시간대와 그 양을 찾는 방법을 소개한다. <br/> <br/>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23.txt

제목: 의료실비보험의 다양한 설계방법 “비교부터 보상까지 한 번에”  
날짜: 20140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18100000415  
본문: 거시경제 지표상 한국 경제는 회복되고 있다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가계살림은 여전히 팍팍하기만 하다. 이런 경제난 속에 가족 구성원 중 누구라도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병원비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이럴 때 90% 가량의 자기부담금을 보장하는 의료실비보험은 민영의료보험이라 불릴 정도로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목을 끌며 가계살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의료실비보험은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에서부터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 CT 및 MRI 등의 고가 의료비까지 보장하므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적 역할을 한다.가입도 0세부터 60세까지 가능한데다 2009년 9월부터는 일부 치과와 항문질환 및 한방치료까지 보장 항목에 포함되었고, 유행성 질병(A형간염· 신종플루)까지 영역이 확대됐다.하지만 그 인기만큼 동부화재· LIG·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등 거의 전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이기에 막상 비교하려면 쉽지만은 않다. 그렇다고 여러 보험사 비교하지 않고 홈쇼핑 등에서 광고하는 상품을 전화로만 안내 받고 가입하기에는 여러모로 충분하지 않는 설명에 불안한 것도 사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비갱신형 의료실비보험은 없기 때문에 가입 전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해도 충분히 자신에게 맞는 보험 설계가 가능하다</span>”고 말했다.현재 보험사마다 의료실비보험을 취급하고 있으며, 아예 실비보험만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는 보험사도 여럿 생겨났다. 꾸준히 상담 신청 및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보험사별 상품 구성과 특징이 달라 자신에게 꼭 맞는 설계가 필요하다.보험전문가를 통해 의료실비보험 가입 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여러 사항을 짚어봤다.먼저 기본 보험의 보장이 부족할 때,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상해와 질병으로 입원하면 첫날부터 부담액을 보장받을 수 있고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의 비갱신형 진단비도 의료실비보험설계 시 비교를 통해 구성 가능하다.또한 특약을 선택할 때에는 의료실비 이외의 진단비를 비갱신형 담보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 변동이 없어 유지하기가 쉽다. 특히 최저 적립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는 상품인지 살펴보는 것이 권장된다.도움말을 준 이곳에서(http://silson.boheommall.kr)는 상품 분석에서부터 계약 체결 및 보험금 청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일반 보험 상품에 비해 청구 횟수가 잦은 의료실비보험의 특성상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고려하여 전문보상청구 대행팀은 자체적으로 조직, 사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24.txt

제목: 광동제약,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15명 지원  
날짜: 20140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18100000041  
본문: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의 참여형 사회공헌 캠페인인 ‘비타500과 함께하는 착한 캠페인’이 제13회 세계소아암의 날을 맞아 백혈병 소아암 환아들을 향한 선행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광동제약은 “<span class='quot0'>지난해 8월부터 ‘착한 드링크 비타500과 함께 하는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지원사업’을 통해 백혈병, 소아암과 투병중인 15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치료비 및 수술비로 1억3000만원을 지원했다</span>”고 밝혔다.지원금은 지난 해 7월말까지 온라인 모금 서비스인 ‘다음 희망해’와 공동으로 ‘착한 비타500과 함께 하는 클릭으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마련됐다. 네티즌의 참여에 따라 광동제약이 비타500 수익금의 일부를 매칭 기부하는 형태로, 일반 네티즌과 광동제약이 함께 기부금을 출연한 것이다. 수익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 백혈병 및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비 지원, 다문화가정 리틀야구단 지원 등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이고 있다.이번에 치료비를 지원받은 백혈병, 소아암 환자 중 김지혜(15) 양은 재생불량성 빈혈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및 이식 후 치료비를 지원받아 건강을 되찾고 있다. 3년 전 골수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감소하는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은 김지혜 양은 친오빠의 조혈모세포 공여로 이식 수술이 가능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포기해야 하는 상태였다.김지혜 양의 딱한 사연을 알게 된 광동제약 측은 ‘착한 드링크 비타500과 함께 하는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지원사업’을 통해 조혈모세포 이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 결과 김지혜 양은 올해 1월 초, 친오빠로부터 공여받은 조혈모세포로 이식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현재 통원치료를 할 만큼 건강이 호전됐다.지혜 양의 어머니는 “병원비와 치료비를 마련할 수 없어 막막했는데, 이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지혜 양도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면 검정고시에 도전, 병으로 포기해야 했던 학업도 다시 시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광동제약 관계자는 “몸에 착한 비타500을 소비자분들이 사랑해주시는 만큼, 이 사회의 희망인 어린이를 위해 뜻 깊은 일을 하고 싶어 시작했다”며 “백혈병, 소아암이라는 무서운 병과 싸우는 15명의 어린이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광동제약과 함께 마음을 모아준 네티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밝혔다.한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2만5000여 명의 어린이가 소아암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매년 1500여 명의 새로운 환아가 발생하고 있다. 소아암은 질병으로 인한 아동사망 원인 1위로, 질환 자체뿐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 및 좌절감, 혼란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착한 드링크 비타500과 함께 하는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지원사업’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은 김지혜 양과 오빠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기 전 손을 꼭 잡고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25.txt

제목: '갑상선암 환자 왜 많은가 했더니'…급증원인 논란  
날짜: 20140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17100000451  
본문: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한국의 갑상선암 원인을 두고 의료계에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원전사고 같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특정 암이 급증한 데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완벽한 건강에 대한 과대한 집착·욕망과 무분별한 건강검진 체계가 낳은, 한국만의 기형적 산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얼마나 늘었기에…10년 넘게 매년 20% 이상 증가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견줘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의 중앙암등록본부가 2013년 12월말 발표한 '2011년 국가암등록통계자료'를 보면, 갑상선암은 1999~2011년 10여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이 23.7%로 1위였다. 전체 암의 연평균 증가율 3.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가장 최근 통계인 2011년만 놓고 볼 때도, 그 해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이 갑상선암이었다.'암 경험' 인구로 따져봐도 마찬가지다.2012년 1월 현재 암 경험 인구는 109만7천253명(여성 60만5천748명, 남성 49만1천505명)으로 이 중에서 갑상선암을 겪은 암 경험자가 가장 많았다.암 경험 인구는 전국 단위 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11년말까지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서 2012년 1월 기준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갑상선암 환자 5년 생존율 99.9%…일반인과 다를 바 없이 건강이처럼 수많은 사람이 해마다 갑상선암 환자라는 굴레를 뒤집어쓰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지만, 정작 이들은 육체적으로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이 건강하게 산다.한국에서 진단받는 갑상선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9.9% 이상. 거의 100%다. 환자 중 겨우 0.1% 미만만이 갑상선암으로 숨질 뿐이다.게다가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는 '국한 단계'에서 발견된 갑상선암의 5년 생존율은 100.5%에 이른다.국한 단계의 갑상선암 생존율이 100%를 웃돈다는 것은 암에 걸리지 않은 일반인보다도 생존확률이 높다는 뜻이다.일반인보다 자주 검진을 받고 스스로 관리하기 때문이지만, 그만큼 모르고 지내더라도 거의 평생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착한 암'이라는 말이다.실제로 갑상선암은 의료계에서 이른바 '거북이 암'으로 불린다. 심지어 목에 멍울이 생긴 뒤에 진단해 치료해도, 5년 생존율이 아니라 '10년 생존율'이 95% 이상일 정도로 암치고는 대단히 천천히 진행하는 순한 암이다. ◆"의학적으로 비정상적인 갑상선암 선별검사가 낳은 기형 현상"그럼 왜 한국에는 이렇게 위험하지도 않은 갑상선암 환자들이 많을까?의료계 일각에서는 완벽한 건강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욕망이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건강검진 시스템과 만나 빚어낸 산물이라고 꼬집는다. 특히 첨단 영상진단기기의 발전 덕분에 미세한 신체변화까지도 집어낼 수 있게 됨에 따라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될 갑상선암까지 진단하게 되면서 생긴 기현상이라는 것이다.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 '사회 속의 의료'에 쓴 '의료기술 발전이 가져온 윤리 문제들'이란 글에서 "의료기술의 발전은 상황에 따라 희망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고통을 안겨주는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허 교수는 이를테면, "특별한 증세가 없는 성인이 갑상선 초음파 검진을 하게 되면 1~2%는 갑상선암으로 진단된다"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매년 3만명 이상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는 것은 갑상선에 대한 초음파검진이 널리 시행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말했다.실제로 국립암센터를 포함해 모든 대형병원은 검진 때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 무료로 검사해 주기도 한다.하지만, 갑상선암은 의학적으로 조기 진단이 필요한 암이 아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도 갑상선암을 조기 검진하고 있지 않다. 고려대 의대 신상원 교수(종양내과)와 안형식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최근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이 잡듯이 뒤져서 모든 병을 조기에 진단해 치료해야 한다는 것은 망상일 뿐더러 하물며 조금 늦게 진단해도 완치율이 높고 천천히 진행하는 갑상선암을 조기에 진단하고자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초음파를 들이대는 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국민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갑상선암 환자를 양산하며, 증상 없는 사람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갑상선암 초음파 검사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반복된 건강검진으로 모든 병을 예방할 수 없다"면서 "건강검진에 집착하기보다는 공해 없는 환경, 적절한 식사와 운동, 충분한 수면, 적당한 스트레스 해소 등을 통해 질병을 막는 게 부작용없는 건강 유지의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26.txt

제목: 이제는 정복 가능한 병, 암!  
날짜: 20140217  
기자: tongil77@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17100000533  
본문: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소화기관에 생기는 종양인 기스트와 표적치료법을 소개한다.기스트(위장관 기질종양)란 식도, 위, 소장 대장 등 소화기관에 생기는 종양으로 위장관벽의 근육층에 발생하는 희귀 종양이다. 희귀 종양인만큼 치료도 쉽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최근 표적 치료제 ‘이매티닙’을 통해 뛰어난 효과가 입증됐다.기스트는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암과 달리 위장관벽의 근육층에 발생하는 희귀종양이다. 기스트는 외부 점막 조직 검사로 확진을 내릴 수 없어 수술과 동시에 진단이 이뤄져야 할 정도로 검진 역시 쉽지 않다. 심지어는 일반적인 암이나 궤양에 비해 증상도 크지 않아 병을 더욱 악화시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다.기스트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간을 포함한 전신으로 전이가 잘 된다는 것. 이렇듯 환자의 온 몸에 병변이 전이되면 수술도 쉽지 않다. 그때 쓰이는 치료가 표적치료제의 일종인 ‘이매티닙’이다. ‘이매티닙’은 기스트에 쓰인 최초의 표적치료제로 문제가 되는 암세포만을 정확히 골라 공격한다. 그래서 기존 항암 치료에 비해 평균 생존 기간도 6배 이상 높고 부작용도 적어 치료 도중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흔히 암이라고 하면 절망감을 느끼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좌절하기 쉽다. 그러나 암을 찾아내는 의학 기술의 발전과 개개인에게 맞춘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암은 이제 정복 가능한 병이라고 할 수 있다. 개개인의 유전자를 분석해 그에 맞는 정확한 표적치료제를 찾아 치료하거나 기존의 표준 항암제와 신생 혈관을 억제하는 표적치료를 동시에 적용하는 등 암과 공존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이번 ‘기스트를 정복하라! 표적치료’ 편에서 기스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 19일 밤 10시 방송.한준호 기자 tongil77@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27.txt

제목: 용종만 보면 대장암 미리 알 수 있다  
날짜: 20140217  
기자: kys135@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17100000266  
본문: 내시경 검사는 최근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대장암을 예방하고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검사이다. 내시경을 통해 조기에 대장암을 발견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아질 뿐만 아니라 대장용종의 경우 내시경 검사로 제거할 수 있어서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대장내시경은 내시경을 통해 항문과 직장 및 대장의 내부를 관찰하는 검사이다. 대장내시경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염증성 장질환, 결핵성 장염, 치루 등이 있고 대장암과 대장용종 역시 진단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일반 용종은 종양성 용종과 비종양성 용종으로 나뉜다. 선종성 용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암으로 변하는 용종이기 때문에 조직검사 상 선종성으로 나온다면 용종 절제술 후에도 추적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중간암과 톱니모양 용종은 대장암의 진행을 강하게 시사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시경 검사가 필수이다.중간암은 정기적인 대장내시경검사 기간 중에 대장암이 생기는 경우인데, 1~2년 전에 대장내시경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지만 암이 발견되는 경우이다. 중간암의 원인으로는 부적절한 대장정결 또는 숙련된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지 못해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거나 용종이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 한 경우, 불완전한 대장용종절제, 톱니모양 용종일 경우에 발생할 확률이 크다.톱니모양 용종은 대장암의 생성경로로 생각되는 용종으로 기존의 선종과는 다른 암의 생성경로로 알려져 있다. 주로 우측대장에 존재하고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대장암의 약 6%가 중간암으로 나타났는데, 톱니모양 용종이 중간암의 원인 인자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비종양성 용종은 비교적 서서히 성장하고 주변 조직에 침윤하거나 신체의 다른 부위로 전이하지 않는다. 따라서 용종 절제 후에는 재발이 거의 없고 예후도 좋은 편이다.고용석 기자 kys135@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28.txt

제목: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Healthcare 최고위 과정] 고영초 의학대학원장  
날짜: 20140217  
기자: 의료면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17100000010  
본문: ●고영초 건국대학교 의학대학원장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Healthcare(헬스케어) 최고위 과정을 운영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전문 경영인 및 정부 투자기관 임원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및 지역 기관장들에게 의학 및 사회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케 하여 새로운 재충전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최고의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Healthcare 최고위 과정 운영 방안은Healthcare 최고위 과정 개설 목적은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 과정 운영은 의료분야(10강좌) 문화예술(4강좌) 현장체험을 통한 스포츠(골프 승마 요트) 정치 사회(3강좌) 기타(1박2일 MT 연수) 등으로 과목을 구성했습니다최근 각 대학들이 각 분야의 최고위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Healthcare 최고위 과정만의 차별성이 있다면다른 최고위 과정은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효과를 보는 과정이지만 우리는 Healthcare 최고위 과정 원생들에게는 사회 생활에서 필요한 인문학 스포츠 건강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케 하는 동시에 네트워크를 형성시켜 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멀리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건강과 의료는 최근 가장 많은 관심 분야입니다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Healthcare 최고위 과정에서 가장 특화된 부분이 있다면뇌신경질환 소화기질환 종양(암) 그리고 정신질환 분야에서 최고의 의료진과 최신 장비로 원생 모두 건강하게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의료와 비지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있다면우선 재물을 잃었을 때는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었을 때는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었을 때는 전부를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사회생활과 행복한 가정에 가장 필수적인 것은 자신과 가정의 건강입니다 그들에게 주치의 개념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의료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며 자신이 입원시 혜택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위 과정 원생들에겐 자랑스런 건국대학교 동문 자격 본인 및 선택 1명에게 건강검진을 학기 재학중 진료 검진을 받은 뒤 본인 희망분야 의학담당 의료진과 주치의 개념으로 네트워크 형성을 도와줍니다 또한 본인 및 직계가족 병원 입원할 때 재학 시에는 15%(진찰료 감면 없음) 감면 일반 동문에게는 10% 의료 혜택 동문 임원 및 직계가족은 각각 20% 의료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강용모 기자 ymkang@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29.txt

제목: “또 하나의 막장” vs “새로운 마당극”  
날짜: 2014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1610013485652  
본문: 주말 저녁마다 뻔뻔한 말과 행동으로 보는 이들 속을 뒤집어 놓던 ‘이앙금’ ‘왕수박’을 이제 볼 일이 없게 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KBS2 주말극 ‘왕가네 식구들’이 16일 드디어 막을 내린 것이다. 보는 것만으로도 암(癌)을 유발한다는 뜻에서 ‘암가네 식구들’이란 별명이 붙은 이 드라마는 방영 내내 ‘막장’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50%에 육박하는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어나갔다. <br/> <br/>이 기록은 그대로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의 힘을 보여준다. ‘왕가네 식구들’ 마지막회까지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리지 못한 주된 이유는 극중 고민중(조성하)이 왕수박(오현경)과 오순정(김희정) 둘 중 누구와 맺어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었다. 극은 도둑질, 불륜 등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지르다 폭삭 망한 왕수박에 조금씩 동정의 여지를 주면서 시청자들이 ‘고민중이 설마 왕수박을 선택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오죽하면 고민중과 왕수박이 맺어지면 제작진 퇴출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겠다는 이도 있었다. <br/> <br/>전문가들은 중장년층을 겨냥한 소재도 좋은 성적을 내는 데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평이한 시청률을 얻었던 전작 ‘최고다 이순신’이 20대 초반 여성의 성장기를 중심으로 극을 꾸려나갔던 것과 달리 ‘왕가네 식구들’은 불륜, 이혼, ‘처월드’ 등을 다뤄 해당 방송 시간대 고정 시청층인 중장년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쟁 드라마가 없는 방송 시간대도 힘을 보탰다. 현재 MBC, SBS 모두 주말 오후 8시에 뉴스를 방송하고 있다. <br/> <br/> KBS2 주말극 ‘왕가네 식구들’에서 온갖 천박한 말과 행동으로 시청자들의 공분을 산 왕수박(왼쪽)과 이앙금. <br/>KBS2 방송화면 캡처‘왕가네 식구들’을 많은 ‘막장드라마’ 중 하나로 보는 시각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정극(正劇)’이 아닌 ‘마당극’ 형식을 기준으로 드라마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드라마 평론가인 윤석진 충남대 교수는 “<span class='quot0'>개연성을 갖추고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정극과 달리, 마당극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에피소드를 파편화된 형식으로 보여준다</span>”며 “<span class='quot0'>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한 ‘왕가네 식구들’을 온전히 파악하려면 이 같은 마당극의 특성에 견주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span>”고 했다. <br/> <br/>실제로 언뜻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극 흐름은 물론 등장인물의 일차원적인 이름, 학벌주의·외모지상주의·물질만능주의 등 세태에 대한 풍자가 마당극을 닮았다. 일반적으로 한 인물에 감정을 몰입시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정극과 달리 마당극은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인물에 대해 평가하도록 만든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막장’ 평가를 받은 ‘오로라 공주’ 논란의 비판 대상이 작가였던 것과 달리 ‘왕가네 식구들’ 시청자들이 주로 극중 인물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모습은 마당극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br/> <br/>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30.txt

제목: ‘달달”한 ○○데이, 건선환자에겐 ‘덜덜’해 질수도  
날짜: 20140216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16100000216  
본문: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OO데이’ 마케팅이 활발한 요즘이다.발렌타인데이 하루 매출이 일 년 매출의 반을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거리마다 달콤한 초콜릿을 쉽게 볼 수 있다.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이 초콜릿은 잘못하면 먹는 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건선환자는 초콜릿을 피하는 것이 좋다.흔히 초콜릿하면 카카오를 떠올린다. 이 카카오는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 있어 노화와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 초콜릿에 많이 포함돼 있는 당분은 피로회복 효과를 주며, 카페인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 ‘사랑의 묘약’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시판되는 초콜릿은 유지방은 물론 식물성 유지, 버터, 시럽, 설탕 등 각종 첨가물이 카카오보다 더 많이 함유돼 있다. 특히 건선 환자들의 경우 이 같은 첨가물 때문에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난치성피부질환인 건선치료에 힘쓰고 있는 하늘마음한의원 부천점 장진평 원장은 “<span class='quot0'>시중에 흔히 판매되는 초콜릿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이 함유돼 있어 건선 환자라면 많이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0'>굳이 초콜릿으로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카카오 함량이 매우 높은 초콜릿을 찾는 것이 낫다</span>”고 지적했다.사실 건선환자에게 좋지 않은 것은 초콜릿뿐이 아니다. 흡연 및 음주도 피해야 하고 육류와 자극적인 음식물도 멀리해야 한다. 아스피린, 항생제, 감기약 등 약물도 가능하면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처럼 음식물에 제한이 걸리는 이유는 건선이 면역시스템 이상 때문에 생기는 전신 염증성 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이다.실제로 건선 환자들 중 약 30%는 관절염을 앓고 있다.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등의 질환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건선을 치료하고자 한다면 피부의 증상을 가라앉히기에 앞서 전신 건강을 챙겨 체내 면역력을 정상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장진평 원장은 “<span class='quot0'>한의학에서는 건선 등 만성 피부질환의 원인을 면역 체계의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건선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인체 면역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span>”고 설명했다.하늘마음한의원은 면역의 교란을 바로잡는 내적 치료와, 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하는 외적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치료 시스템은 건선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회복해 건선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준다.내적 치료에는 해독탕 치료와 심부온열주열치료가 적용되며, 외적 치료는 외치 약물치료, 체질 생식 등이라 할 수 있다.4체질 8형 진단에 의한 체질 맞춤형 해독탕을 복용하면 심부 온열이 상승해 체내 독소를 배출시키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심부온열주열치료는 신진대사를 활성화해 정체된 기혈을 풀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피부 깊숙이 축적되어 있는 독소를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외치 약물치료와 광선 치료는 염증 유발을 억제시키고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준다. 경혈을 자극해 인체의 자생력을 돕고 장부의 대소 편차를 바로잡는 침 요법과, 어혈을 제거하고 막힌 기를 소통시켜주는 부항 요법도 병행하면 좋다.부천 건선 등 만성 난치성 피부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온 하늘마음한의원 장진평 원장은 “<span class='quot0'>면역의 교란은 외부 독소의 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는 장 면역 체계의 손상 때문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바로잡음으로써 교란된 면역을 안정시키고 장 면역 체계를 회복할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한편 하늘마음한의원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1년간 내원한 건선 환자 544명에 대해 스테로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하늘마음한의원만의 다양한 치료법을 병행한 결과 89%의 환자가 증상이 호전됐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31.txt

제목: 암 사망률, 남성이 여성보다 53% 높아  
날짜: 20140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15100000143  
본문: 세계의 암 사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50% 이상 높다는 통계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14일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영국 암연구소(Cancer Research UK)는 매년 세계에서 남성 460만명, 여성 350만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인구 10만명 당 사망자수로는 남성 126명, 여성 82명으로 남성의 암 사망률이 여성에 비해 53%나 높았다.암 사망률의 성비가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폐암, 간암, 방광암, 식도암 등 비교적 치료가 어려운 암에 남성이 잘 걸리기 때문이라고 영국 암연구소 의 닉 오미스턴-스미스 통계국장은 설명했다.남성의 암 사망률이 여성에 비해 가장 높은 지역은 중부와 동부 유럽이며, 동부 아프리카는 반대로 여성 암사망률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망률이 가장 높은 4대 암은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으로 전체 암사망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매년 암으로 진단되는 환자는 1천400여만명으로 성별로는 역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25% 많다.가장 큰 암 위험인자는 나이였다. 세계인구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활습관 역시 중요한 위험인자로 지목됐다.암의 원인 중 가장 예방이 가능한 것은 흡연이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흡연에 의한 암 사망자는 1억명으로 추산됐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21세기에는 10억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영국 암학회의 이 같은 통계는 국제암연구소(IARC)의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32.txt

제목: 폭설에 고립됐던 50대 암환자, 9일 만에 세상 밖으로…  
날짜: 20140215  
기자: 이소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1510013481284  
본문:   <br/> <br/>강원도 강릉시 단경골계곡에서 기록적인 폭설에 고립돼 있던 50대 암환자가 9일 만에 구조됐다. <br/> <br/>15일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단경골 외딴집에 혼자 사는 이모(55)씨가 지난 6일부터 폭설에 갇혀있다가 14일 오후 5시 40분쯤 구조됐다. <br/> <br/>강원소방본부는 지난 13일 이씨의 가족들의 구조요청을 접수하고 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를 동원해 구조에 나섰다. 그러나 구조현장 인근 기상 악화로 접근이 어려워 오후 6시 30분쯤 구조를 중단했다. <br/> <br/>이후 다음날 오전 7시 42분쯤 구조 작업을 재개해 1시간여 만에 이씨를 구했다. 이씨는 평소 간암을 앓고 있었으며 구조 당시 약이 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br/> <br/>현재 이씨는 장기간 고립 기간에 비해 건강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r/> <br/>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br/>사진=뉴시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33.txt

제목: 두루마리 화장지 형광증백제 표기 없이 그대로…소비자 '찝찝'  
날짜: 20140214  
기자: 이소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1410013476009  
본문:   <br/> <br/>두루마리 화장지 안에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를 알 수 있는 표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r/> <br/>14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깨끗한나라, 쌍용C&B, 유한킴벌리, 미래생활, 모나리자 등 국내 5개 두루마리 화장지 업체의 재생지 사용 5개 제품에 대한 형광증백제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 모두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br/> <br/>그러나 이들 제품을 포함한 45개 화장지 중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를 표시하고 있는 제품은 미래생활의 '잘풀리는집' 브랜드 5개 제품, 쌍용 C&B의 '코디 에코맘' 등 불과 6개에 불과했다. <br/> <br/>인체 유해물질로 분류된 형광증백제는  피부에 오래 접촉할 경우 아토피, 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을 일으킨다. 특히 입술을 닦는 등의 행동으로 몸 안에 들어갈 경우 장염과 같은 소화기질환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 <br/> <br/>두루마리 형광증백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두루마리 형광증백제 표기 평소에 확인안하고 샀는데" "두루마리에 형광증백제 많나?" "두루마리 형광증백제 소식에 화장지 못 쓰겠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뉴스팀 news@segye.com <br/>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34.txt

제목: 깨알같은 에피소드까지… 비틀즈의 모든 것  
날짜: 20140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1410013479245  
본문: 정유석 지음/형설라이프/1만5000원로큰롤의 영원한 신화 더 비틀즈 디스코그래피/정유석 지음/형설라이프/1만5000원 <br/> <br/>“<span class='quot0'>세상 사람들은 비틀즈를 좋아하는 사람과 비틀즈를 모르는 사람, 두 종류로 나뉜다</span>”는 말이 있다. ‘비틀즈’를 알면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존 레논, 폴 매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가 결성한 ‘비틀즈’는 대중음악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밴드로 꼽힌다. 비교적 짧은 활동 기간(1963∼70)이었지만 ‘비틀즈’는 수많은 역사적 기록을 남겼다. <br/> <br/>이 책은 ‘비틀즈’가 남긴 15장의 앨범과 수록곡을 소개하며 그룹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살핀다. 각 노래의 분위기와 연주방식, 노래에 얽힌 에피소드와 사회 반응을 아주 세밀하게 담았다. <br/> <br/>1957년 7월6일 존 레논(17세)과 폴 매카트니(15세)는 영국의 한 교회에서 운명적으로 만났다. 레논의 ‘쿼리맨’(비틀즈의 전신)에 매카트니가 가입한 뒤 ‘레인보우’, ‘문독스’, ‘실버 비틀즈’로 이름이 바뀌는 과정에서 다른 멤버들이 영입됐다. ‘쿼리맨’ 시절의 비공식 데뷔 음반 ‘댓 윌 비 더 데이/인 스파이트 오브 올 더 데인저(That’ll Be The Day/In Spite of All the Danger)’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희귀 음반으로 꼽힌다. 약 3억원으로 추산되며 현재 폴 매카트니가 갖고 있다. <br/> <br/>‘비틀즈’의 명성은 1963년 발표한 노래 ‘플리즈 플리즈 미(Please Please Me)’가 영국 음악 차트에서 30주간 1위를 하며 시작됐다. 같은 해 11월 발매한 앨범 ‘위드 더 비틀즈(With the Beatles)’는 영국 최초 밀리언 셀러를 기록했다. <br/> <br/>‘비틀즈’로 인해 ‘브리티시 인베이전’(영국 문화의 미국 침공)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1964년 미국 입성 첫해 빌보드 차트 1∼5위를 싹쓸었고, 같은 해 미국 싱글 레코드 판매의 60%를 차지했다. <br/> <br/>1970년 매카트니의 탈퇴로 해체됐고 존 레논(1940∼80)과 조지 해리슨(1943∼2001)도 암살과 암(癌)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노래는 세대를 넘어 울려퍼지고 있다. 이 책은 비틀즈 입문자보다는 이미 그들에게 흠뻑 빠진 팬에게 우상의 발톱의 때마저 챙겨보는 기쁨을 줄 듯하다. “<span class='quot0'>비틀즈 관련 서적은 많지만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고가의 양장본이다</span>”는 저자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두께에 가뿐하게 나왔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35.txt

제목: 농염한 40대, 그녀들의 솔직한 섹스라이프  
날짜: 20140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1310013470027  
본문: ‘왜 40대 여자들은 사랑을 추억 속에 고이 접어 넣고, 누구의 엄마로만 살아갈까?’ <br/> <br/>‘관능의 법칙’은 이 같은 의문에서 탄생했다. <br/> <br/>“어리지는 않지만 여전히 젊고 나름 예쁜데, 이제 40대에게는 사랑이 어울리지 않은 단어가 된 걸까요? 그들도 속내는 보들보들한 여자이고, 꿈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나이 좀 들었다 한들 누군가의 열정과 로맨스의 대상이 되고 싶은 건 마찬가지일 것이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그럴 테고. … 추억만 곱씹지 말고, 지금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 상대가 남편이든 애인이든.” <br/> <br/>그래서 작가 이수아는 40대 여자들이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이야기 ‘관능의 법칙’을 썼다. <br/> <br/>‘여자보다 여자를 더 잘 아는’ 권칠인 감독이 이를 영화로 만들었다. ‘싱글즈’(2003) ‘뜨거운 것이 좋아’(2008) 등 꾸준히 여심을 탐구해온 권 감독의 발랄한 중년 로맨스다. <br/> <br/>여기에 충무로 흥행 여배우들이 의기투합했다. ‘믿고 보는 여배우’ 엄정화, 문소리, 조민수가 엮어내는 후끈한 로맨스가 영동지역 폭설 소식에 놀란 관객의 마음을 녹여낸다. ‘해운대’ ‘댄싱퀸’을 비롯해 최근 ‘몽타주’까지 대중성과 연기력을 겸비한 흥행퀸으로 티켓파워를 자랑하는 엄정화, ‘오아시스’ ‘바람난 가족’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등 무한 신뢰를 선사하며 연기파 배우로 확고한 입지를 쌓은 것은 물론, 최근 ‘스파이’에 얼굴을 내밀고 코믹 연기의 또 다른 매력을 과시한 문소리, ‘피에타’로 7년 만에 복귀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조민수 등 세 여배우의 시너지 효과는 명성에 걸맞은 3인3색의 매력을 발산하며 앙상블을 이룬다. <br/> <br/>꽃보다 화려하게 만개하는 절정의 40대, 지금이 어느 때보다 제일 잘 나간다고 믿는 세 여자가 있다. 임신한 딸(전혜진)을 둔 싱글맘 해영(조민수)은 목수 애인(이경영) 앞에 여전히 수줍은 소녀 같다. 베테랑 방송 PD 신혜(엄정화)는 20대 ‘훈남’(이재윤)의 애정공세에 항복하고 미연(문소리)은 남편(이성민)과 뜨거운 밤을 위해 코스프레도 불사한다. 20∼30대만큼이나 불 같은 로맨스를 꿈꾸는 40대 여성의 판타지가 한껏 묻어난다. 구질구질한 일상은 위트 있는 대사로 오히려 유쾌함을 더하고 주인공들의 섹스 라이프 또한 솔직하고 자연스럽다.  <br/> <br/>‘관능의 법칙’ 속 주인공들은 저마다 나름의 상처와 고민을 안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잘나가고 싶고, 누구보다 뜨겁게 불타오르고 싶은 40대 여성들의 열망을 그려내고 있다.그렇다고 이들이 40대의 처지를 마냥 모르는 것은 아니다. 욕망 앞에 당당하던 세 여인은 신혜가 추문에 휩싸이고, 미연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해영에게 시련이 닥치면서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br/> <br/>신혜는 조카벌 애인에게 말한다. “<span class='quot0'>네 나이에 하는 것들, 내게는 유치해.… 남자랑 하는 것두 재미 없구.</span>” <br/> <br/>바람 현장을 잡은 미연이 남편에게 묻는다. “<span class='quot0'>나하구는 안 되고, 그 여자하구는 돼?</span>” <br/> <br/>대장암에 걸린 해영이 두 여자들에게 말한다. “<span class='quot0'>하긴, 우리 나이가 오르가슴보다는 암이 어울리는 나이이긴 하지.</span>” <br/> <br/>하지만 셋은 40대 여자가 가진 ‘필살기’ 또한 잘 알고 있다. <br/> <br/>“우아하지, 농염하지, 치명적이지. …하하하.” <br/> <br/>이들 가운데 맏언니 격인 해영이 딸을 시집 보내고 난 뒤 애인 몰래 투병하며 감내하는 시련의 드라마는 가슴을 후빈다. 조민수와 이경영이 펼치는 후반부 가슴 아픈 러브신은 ‘가장 로맨틱한 장면’의 하나로 남을 듯싶다. <br/> <br/>영화의 장점은 한국영화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40대 여자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심리와 삶을 묘사하는 데 있어 남다른 연출력을 과시해온 권 감독은 40대 여성들의 현실적 공감과 로망을 스크린에 밀도 있게 담아낸다. 누군가의 엄마이자 딸이고 아내이기 전에 여자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그녀들의 소망을 묘사한, 이 땅의 중년들에게 공감과 응원을 안겨주는 선물 같은 영화다. 더 젊은 세대에겐 엄마와 언니 세대에 대한 이해의 단초를 제공한다. <br/> <br/>100세 시대, 이제 40대는 인생의 후반전이 아닌 인생을 한창 꽃피울, 절정의 시기로 거듭나고 있다. ‘누군가의 무엇’이 아닌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속’ 이야기를 과감하게 털어놓는 세 여자들의 모습에서 여성 관객들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남성 관객이라면 애인과 아내, 엄마의 모습을 찾을 듯싶다. <br/> <br/>김신성 기자 sskim65@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36.txt

제목: 남편 시신과 7년간 함께 산 약사 "안 죽었다…부활 믿어"  
날짜: 20140212  
기자: 이소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1210013451497  
본문: 남편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7년간 집에 보관해온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br/> <br/>서울 방배경찰서는 암 투병을 하던 남편이 숨진 뒤 시신을 7년 동안 집 안에 그대로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약사 조모(47)씨를 불구속 입건 했다고 12일 밝혔다. <br/> <br/>조씨는 지난 2006년 남편이 간암으로 숨지자 서울 서초구의 자택 안 거실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약국을 운영하는 조씨는 약품을 사용해 남편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방부처리를 한 뒤 누워있는 상태로 보관했다. 그의 세 자녀들은 등교 전 아버지의 시신에 인사를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남편이 숨진 것을 믿을 수 없어 장례를 치르지 않고 함께 지냈으며 기도를 하면 남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첩보를 받아 조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시신을 발견했다. <br/> <br/>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br/>사진=YTN 뉴스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37.txt

제목: 제 18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 오는 6월 삿포르서 개최  
날짜: 20140211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1110013443364  
본문: 제18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 학술세미나가 오는 6월 일본 삿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br/> <br/>국제개별화의료학회는 지난해 4월 17회 학술세미나에서 ‘신(新) 수지상세포 백신치료’가 전이•재발암 환자 74.4%에서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br/> <br/>이 학회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아베종양내과 연구팀이 2013년 1~9월 진행성 전이·재발암 환자 39명을 대상으로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와 복합면역세포치료를 총 6회 실시한 결과, 암세포가 완전 관해된 환자는 2명(5.12%)· 부분관해된 환자 5명(12.82%)· 정지·안정된 환자(56.41%) 22명· 진행된 환자 10명(25.64%)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br/> <br/>치료 결과는 사전, 사후 각각 영상진단과 종양마커검사, 암관련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분석됐으며, 구체적으로 EGFR, K-ras· p-53 검사와 암관련 유전자검사(48종)· 4종류의 약제내성 유전자검사· 암 억제 유전자검사(14종류) 등이다. <br/> <br/>국제개별화의료학회는 16회 학술세미나에서도 전이·재발암 환자 1,000명에게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실시한 결과, 70%에서 증상이 유지 및 호전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br/> <br/>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암백신 치료법은 1996년 아카가와 키요코 박사가 세계 최초로 단구에서 수지상세포를 유도하는 데 성공하면서 시작됐으며, 같은 해 세계 유수 학회에서 T세포를 인식할 수 있는 암 항원을 발견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2011년에는 슈타인만 미국 록펠러대 의대 교수가 선천성 및 후천성 면역의 연결고리인 수지상세포를 발견해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br/> <br/>수지상세포는 인체에 1% 미만이라 치료를 위해서 2~3시간의 성분채혈 과정을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나, 아베종양내과는 정상 혈액중 4~8%의 단구(單球)에 개인별 유전자검사와 암항원 검사를 하여 암 치료에 필요한 펩타이드를 추가하여 ‘신 수지상세포 백신치료’를 한다고 밝혔다. <br/> <br/>이 기술력은 현재 전 세계에서 소수의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나뭇가지 모양의 수지상세포는 ‘면역계의 사령탑’으로 불리며,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에 공격대상이 되는 암 항원의 정보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암세포의 항원 정보(표식)를 전달받은 세포상해성 T림프구(Cytotoxic T Lymphocyte, CTL)는 이 표식을 가진 암세포만 표적으로 삼아 집중 공격한다. <br/> <br/>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0'>CTL은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어, 이 항암면역치료는 수술이 어려운 침윤성암이나 발견이 어려운 미세한 암 치료에도 효과적이다</span>”고 전했다. <br/> <br/>수지상세포의 암항원 인식능력을 극대화시키려면 ‘WT1’과 ‘MUC1’ 펩타이드를 개인별 암 특성에 맞는 것을 찾아 단구세포에 추가해야 한다. <br/> <br/>아베 이사장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펩타이드 중 일부만 사용했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떨어졌다. 또 많은 일본 내 병원들이 수지상세포를 동결 보관한 후 사용했기 때문에 치료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br/> <br/>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이 같은 단점을 개선한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는 암항원인 WT1 펩티드 전체와 MUC1 펩티드를 함께 활용해 치료효과가 우수하다</span>”며 “<span class='quot0'>매번 소량만 채혈로 선도 높은 백신을 제조함으로써 기존 동결방식의 문제점도 보완했다</span>”고 설명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38.txt

제목: 영국 악마 새우 출물, 꼬리에 혹까지 발견돼 '경악'  
날짜: 20140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11100000308  
본문: 영국 악마 새우 출물에 누리꾼들이 경악하고 있다.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악마 새우 등장' 이라는 글이 올라왔다.유럽 동부에서부터 흘러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 새우는 영국 전역에 퍼져 동족의 토착 새우를 무차별적으로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 '암가 새우'는 다른 새우들과 비슷한 18mm까지 성장하지만 포식의 크기가 남달라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환경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영국 악마 새우 출물에 누리꾼들은 "영국 악마 새우 출물, 꼬리에 혹도 있네" "영국 악마 새우 출물 미친 파괴자네" "영국 악마 새우 출물, 한국에 올까 겁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뉴스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39.txt

제목: 체육진흥공단, 암투병중인 쇼트대표 노진규 치료비 지원  
날짜: 20140211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1110013438291  
본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4소치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암을 발견, 투병중인 쇼트트랙 국가대표 노진규(22·한국체대)의 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br/> <br/>11일 체육공단은 11일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 규정에 의거해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노진규의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br/> <br/>쇼트트랙 국가대표로 활약한 노진규는 2014소치 대회에서 남자 5000ｍ 계주 멤버로 뛸 예정이었다. <br/> <br/>그러나 지난달 대표팀 훈련 도중 뼈암의 일종인 골육종이 발견돼 제거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br/> <br/>한편 대한체육회도 노진규에게 위로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40.txt

제목: WHO “암 꾸준히 증가…2030년 50%↑ ”  
날짜: 20140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1010013424673  
본문: 세계적으로 암 환자가 크게 늘어나 2030년 연간 암 발병건수가 2012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2천2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유엔 산하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세계 암의 날(2월4일)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세계 암 보고서 2014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br/> <br/>40개국의 연구자 250명이 참가해 집필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연간 암 발병 건수는 2160만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br/> <br/>이런 수치는 이번 보고서에서 집계된 가장 최근 자료인 2012년의 1400만건 대비 54%가량 늘어난 것이다. <br/> <br/>암으로 인한 사망도 비슷한 추세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암 사망 건수는 820만건이었는데 2030년에는 59% 증가한 1천300만건으로예상됐다. <br/> <br/>IARC는 늘어나는 인구와 가속하는 노령화가 암 발병과 사망 증가의 원인이 되고있으며 음주와 흡연, 가공식품 섭취, 운동 부족 등 나쁜 생활습관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br/> <br/>크리스토퍼 와일드 IARC 소장은 “<span class='quot0'>2025년에는 연간 암 발병이 1930만건, 사망은 1140만건에 이르고 2035년이면 암 발병이 2천400만건까지 늘어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암 발병과 사망 수치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br/> <br/>2012년 암 발병건수의 53%와 암 사망의 57%는 남성이었다. <br/> <br/>또한 2012년을 기준으로 따지면 전세계 남성 5명 가운데 1명, 여성 6명 중 1명은 75세가 되기 전에 암에 걸리며 남성 8명 중 1명, 여성 12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하게 된다고 IARC는 설명했다. <br/> <br/>암 발병 중 남성의 경우 폐암(16.7%)이 가장 많았고 전림선암(15%), 직장암(10%), 위암(8.5%), 간암(7.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여성은 유방암(25.2%)이 최다였고 직장암(9.2%), 폐암(8.7%), 자궁경부암(7.9%), 위암(4.8%) 등으로 나타났다. <br/> <br/>남녀를 합치면 폐암(19.4%), 유방암(11.9%), 직장암(9.7%), 간암(9.1%), 위암(8.8%) 순이었다. <br/> <br/>암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2010년 기준으로 1조1천600억 달러(1260조원)로 집계됐다. 또 암 발병의 60%와 암 사망의 70%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에서 발생하는 등 지역별 차이도 있었다. <br/> <br/>저개발 국가에서는 암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진단이 이뤄지고 그에 비해 치료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다만 인구당 발병률로 따지면 한국이나 일본, 북미나 서유럽, 호주 등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의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 <br/> <br/>선진국에서는 유방암과 직장암, 전립선암이 더 흔했고 저소득 국가의 경우 간암, 위암, 식도암이 주를 이뤘다. <br/> <br/>황온중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41.txt

제목: 유방암 환자 생존율 높히려면 걷기운동 보다 조깅이 도움  
날짜: 20140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10100000443  
본문: 미국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폴 윌리엄스 박사가 전국달리기 · 걷기건강조사(NRWHS)에 참가한 유방암 생존자 1000여 명의 9년간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하루 1.6km씩 달리기 운동을 한 유방암 생존자는 사망 위험이 40% 이상 낮았다. 하루 매일 3.6km를 달린 경우 사망 위험이 95%까지 낮아졌다.이에 비해 걷기운동을 택한 여성은 하루 1.6km 걸을 때마다 사망위험이 5%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결과는 연령, 인종, 폐경 등 유방암 생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고려한 것이다.강도가 높은 운동으로 유방암 생존자의 사망위험이 줄어드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달리기 운동은 유방암을 촉진하는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윌리엄스 박사는 설명했다.이에 대해 시티 오브 호프 종합암연구소 암병인학연구실장 레슬리 번스타인 박사는 운동이 유방암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연구결과는 유방암  진단시의 병기, 유방암의 종류, 사용된 치료법 같은 중요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 달리기 운동을 한 여성은 걷기 운동을 택한 여성에 비해 유방암의 진행 정도가 심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 암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Cancer) 온라인판에 게재됐다.온라인 뉴스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42.txt

제목: 빚더미 공기업, 5년간 직원복지 3000억 ‘펑펑’  
날짜: 20140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0910013422940  
본문: 질병에 걸린 직원 가족 2000만원 무상지원, 업무 외 질병 완쾌 시까지 무기한 휴직급여 제공, 틀니 비용 지급…. <br/> <br/>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대한석탄공사 등 공공기관들의 주요 복지항목이다. 이들 기관 상당수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할 만큼 경영상태는 심각하지만 직원 자녀 학자금과 경조금 등으로 최근 5년간 지출한 비용이 3000억원을 넘어섰다. <br/> <br/>9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직원에게 지급한 보육비, 학자금, 경조금, 휴직급여, 의료비 등 복지비용은 3174억원이었다. <br/> <br/>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은 LH와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이다. <br/> <br/>이들 공기업의 2012년 말 현재 총부채는 412조원으로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원)의 83.5%를 차지한다. 석탄공사, 철도공사, 한전은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이며 철도시설공단과 광물자원공사는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으로 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했다. 경영상황이 이런데도 부채 상위 기관들은 직원 자녀의 보육비·학자금으로만 5년간 2278억원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에 경조금으로 604억원, 휴직급여로 183억원, 의료비로 109억원을 썼다. <br/> <br/>한전이 1532억원으로 가장 많고 철도공사(740억원), 석탄공사(210억원), LH(197억원), 도로공사(193억원) 등 순이다. 직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석탄공사가 1244만원으로 1위였고 이어 한전 795만원, 예금보험공사 679만원, 도로공사 464만원, LH 303만원 등이었다. <br/> <br/>석탄공사는 학자금으로 5년간 204억원을 지출, 직원 1인당 1211만원을 기록했다. 석탄공사는 중학교, 고교(특목고 포함), 대학 등록금 고지서상 전액을 지원한다. 한전이 같은 기간에 직원들에게 제공한 경조비는 293억원으로 1인당 152만원이다. 직원의 업무상 사망 시 1억5000만원, 배우자 사망 시 2000만원, 부모나 자녀 사망 시 200만원의 위로금도 준다. <br/> <br/>철도공사는 휴직급여로 133억원(1인당 46만4000원)을 지출했다. 업무상 질병이 나을 때까지 무기한으로 평균임금 전액을, 업무 외 질병은 통상임금을 지급했다. 가스공사는 직원 본인과 가족에게 100만원 한도에서 틀니와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비를 대줬다. LH는 직원이나 직계 가족이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등 3대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사내복지기금으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br/> <br/>공공기관들은 이런 방만 경영 등을 없앨 이행계획을 지난달 말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유가족 특별채용, 휴직급여, 퇴직금, 학자금, 경조비 등 8대 방만 경영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br/> <br/>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43.txt

제목: 부채과다 12개 공기업, 사원복지에 5년간 3천억 썼다  
날짜: 20140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09100000088  
본문: 과도한 부채를 갖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대한석탄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직원 자녀 학자금과 경조금 등으로 최근 5년간 지출한 비용만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이들 기관 상당수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할 만큼 심각한 경영 여건 속에서도 질병에 걸린 직원의 가족에 2천만원까지 무상 지원해주는가 하면 업무 외 질병이 나을 때까지 무기한으로 휴직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업무상 사망 시 1억5천만원의 유족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하며 중고교 뿐 아니라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도 많았다. 9일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직원에게 지급한 보육비, 학자금, 경조금, 휴직급여, 의료비 등 4대 복지 비용은 3천174억원이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은 LH와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이다.이들 공기업의 2012년말 현재 총부채는 412조원으로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원)의 83.5%를 차지한다. 석탄공사, 철도공사, 한전은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이며 철도시설공단과 광물자원공사는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으로 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들 부채 상위 기관들은 직원 자녀의 보육비·학자금으로만 5년간 2천278억원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에 경조금으로 604억원, 휴직급여로 183억원, 의료비로 108억원을 썼다. 4대 복지비용을 보면 한전이 1천532억원으로 가장 많고 철도공사(740억원), 석탄공사(210억원), LH(197억원), 도로공사(193억원) 등 순이다.직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석탄공사가 1천244만원으로 1위였고 이어 한전 795만원, 예금보험공사 679만원, 도로공사 464만원, LH 303만원 등이었다. 석탄공사는 학자금으로 5년간 204억원을 지출, 직원 1인당 1천211만원을 기록했다. 석탄공사는 중학교, 고교(특목고 포함), 대학 등록금 고지서상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한전이 같은 기간에 직원들에게 제공한 경조비는 293억원으로 1인당 152만원이다. 직원의 업무상 사망시 1억5천만원, 배우자 사망시 2천만원, 부모나 자녀 사망시 200만원의 위로금도 준다. 둘째부터 자녀 출산때 50만~150만원의 축하금을 제공한다. 철도공사는 휴직급여로 133억원(1인당 46만4천원)을 지출했다. 철도공사는 업무상 질병이 나을 때까지 무기한으로 평균임금 전액을, 업무외 질병은 통상임금 지급한다. 일부 공기업은 가족 간호 휴직 때에도 기존 보수의 40%를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보는 직원 의료비 지원액이 12억원(1인당 202만원)에 달했다. 300만원 한도에서 직원 본인과 직계 가족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100%를 지급하고 비급여도 일정 부분 지원한다. LH는 직원이나 직계 가족이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등 3대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사내복지기금으로 2천만원까지 지원해준다. 공공기관들은 이런 방만 경영 등을 없앨 이행계획을 지난달 말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유가족 특별채용, 휴직급여, 퇴직금, 학자금, 경조비 등 8대 방만 경영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44.txt

제목: 빚더미 공기업, 직원 가족 틀니 비용까지 챙겨...방만경영  
날짜: 20140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09100000238  
본문:  빚더미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간 경조금·의료비·자녀 학자금 등 직원 복지비로 300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돼 지나친 방만경영을 했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의 학자금으로 수억원을 지원한 기관도 있고 직원 가족의 틀니비까지 챙겨준 곳도 있다.이들 공공기관이 지출해야 하는 부채 이자비용이 하루평균 214억원에 이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부채 상위 12개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직원에게 지급한 보육비·학자금은 2278억원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학자금을 지급했다. 수자원공사는 59명에게 총 5억5166만3000원의 해외 학자금을 지원했다. 평균 1인당 935만원 가량의 유학비를 지급한 셈이다. 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은 1인당 1046만9000원이다.도로공사는 해외 대학 학자금도 대줬다. 해외 대학에 다니는 120명에게 1인당 195만9000원씩, 총 2억3515만원을 지출했다.의료비 혜택도 과다하다. 가스공사는 직원 본인과 가족에게 100만원 한도에서  틀니와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비를 대줬다. 시험관 아기 시술비 등 200만∼300만원 한도의 난임극복 시술비도 지급했다. 직원 1인당 평균 101만9000원의 의료비를 지급한 LH는 직원과 직원 가족에게  중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3대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병에는 재직 중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경조금·유족 위로금 부분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눈에 띄게 금액이 컸다.  한전은 직원이 업무상 사망하면 1억5000만원의 유족 위로금을 기관 예산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본인 사망’ 경조금 2천만원도 추가로 준다. 수자원공사는 업무상 사망 직원 유족에게는 5000만원, 업무와 관계없이 사망한 직원 유족에게는 2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업무상 공상으로 휴직하는 직원에게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기관도 상당수였다. LH와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가족이 아파 간호하려고 휴직하면 6개월까지 기존보수의 40%를 지급하는 규정도 두고 있었다. 이들 기관은 보육비·학자금, 휴직급여, 의료비, 경조금 이외에도 직원에게 통 큰 복지 혜택을 제공해왔다. 12개 기관 전체 부채의 33%를 떠안고 있어 ’부채 1등’인 LH는 최근 정부에  ’방만경영 중점관리 8대 항목(유가족특별채용, 퇴직금, 휴가·휴직, 경영·인사,  휴직급여, 보육비·학자금, 건강검진·의료비, 경조금)을 모두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동안 모든 항목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대표적으로  ’과도한 혜택’으로 지적돼온 무급 자기계발제도와 3년의 안식년 휴가, 직원가족 특별채용등은 폐지키로 했다.부채 상위 기관 외에도 노사간 이면합의 등을 통해 과도한 복지 혜택을 마련한 기관이 수두룩하다.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 시설안전공단 등은 노조에 연간기준 최고 수천만원의운영비를 불법적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사기업이라면 직원 사기를 위해 높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납득할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국민 세금에 기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데다 과다한 부채마저 떠안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들 12개 기관의 부채 총액은 무려 412조3천418억원이다. 올해 한국 정부 예산 355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금융성 부채인 장기(1년 이상)·단기(1년 미만) 차입금도 305조1천956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자비용도 7조8092억원으로 불어났다.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이들 기관은 매일 214억원의 이자를 내는 셈이다.LH와 한전, 철도시설공단, 석유공사, 철도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다. 번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이들 기관은 최근 정부에 방만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정부가 해당 계획을점검·확정한 뒤 이행 상황을 평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공공기관의 고질적 문제인 방만 경영이 해소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온라인 뉴스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45.txt

제목: 빚더미 공기업, 직원 가족 틀니 비용까지 챙겨준다  
날짜: 20140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09100000090  
본문: 많은 부채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간 경조금·의료비·자녀 학자금 등 직원 복지비로 3천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돼 지나친 방만경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의 학자금으로 수억원을 지원한 기관도 있고 직원 가족의 틀니비까지 챙겨준 곳도 있다.이들 공공기관이 지출해야 하는 부채 이자비용이 하루평균 214억원에 이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부채 상위 12개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직원에게 지급한 보육비·학자금은 2천278억원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학자금을 지급했다. 수자원공사는 59명에게 총 5억5천166만3천원의 해외 학자금을 지원했다. 평균 1인당 935만원 가량의 유학비를 지급한 셈이다. 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은 1인당 1천46만9천원이다.도로공사는 해외 대학 학자금도 대줬다. 해외 대학에 다니는 120명에게 1인당 195만9천원씩, 총 2억3천515만원을 지출했다.의료비 혜택도 과다하다. 가스공사는 직원 본인과 가족에게 100만원 한도에서 틀니와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비를 대줬다. 시험관 아기 시술비 등 200만∼300만원 한도의 난임극복 시술비도 지급했다. 직원 1인당 평균 101만9천원의 의료비를 지급한 LH는 직원과 직원 가족에게 중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3대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병에는 재직 중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경조금·유족 위로금 부분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눈에 띄게 금액이 컸다. 한전은 직원이 업무상 사망하면 1억5천만원의 유족 위로금을 기관 예산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본인 사망' 경조금 2천만원도 추가로 준다. 수자원공사는 업무상 사망 직원 유족에게는 5천만원, 업무와 관계없이 사망한 직원 유족에게는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업무상 공상으로 휴직하는 직원에게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기관도 상당수였다. LH와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가족이 아파 간호하려고 휴직하면 6개월까지 기존보수의 40%를 지급하는 규정도 두고 있었다. 이들 기관은 보육비·학자금, 휴직급여, 의료비, 경조금 이외에도 직원에게 통 큰 복지 혜택을 제공해왔다. 12개 기관 전체 부채의 33%를 떠안고 있어 '부채 1등'인 LH는 최근 정부에 '방만경영 중점관리 8대 항목(유가족특별채용, 퇴직금, 휴가·휴직, 경영·인사, 휴직급여, 보육비·학자금, 건강검진·의료비, 경조금)을 모두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동안 모든 항목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대표적으로 '과도한 혜택'으로 지적돼온 무급 자기계발제도와 3년의 안식년 휴가, 직원가족 특별채용 등은 폐지키로 했다.부채 상위 기관 외에도 노사간 이면합의 등을 통해 과도한 복지 혜택을 마련한 기관이 수두룩하다. 강원랜드는 2011년 말 직원들에게 17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고 2012년에도 '성과 장려금'이라는 애매한 명목으로 돈을 뿌렸다. 신용보증기금은 자연재해로 주택이 소실된 직원에게 통상임금의 700%를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 시설안전공단 등은 노조에 연간기준 최고 수천만원의 운영비를 불법적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사기업이라면 직원 사기를 위해 높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국민 세금에 기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데다 과다한 부채마저 떠안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들 12개 기관의 부채 총액은 무려 412조3천418억원이다. 올해 한국 정부 예산 355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금융성 부채인 장기(1년 이상)·단기(1년 미만) 차입금도 305조1천956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자비용도 7조8천92억원으로 불어났다.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이들 기관은 매일 214억원의 이자를 내는 셈이다. LH와 한전, 철도시설공단, 석유공사, 철도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다. 번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이들 기관은 최근 정부에 방만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정부가 해당 계획을 점검·확정한 뒤 이행 상황을 평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공공기관의 고질적 문제인 방만 경영이 해소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46.txt

제목: 김치유산균 함유 아토피비타민, 아토피치료 효과 기대  
날짜: 20140207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0710013411715  
본문: 최근 비타민으로 아토피 가려움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타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br/> <br/>비타민 복용은 미국· 캐나다에선 가려움 치료에 빼놓지 않을 만큼 유명한 방법으로 항염 작용과 항산화 작용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항히스타민과 같은 히스타민 억제작용이 있어 가려움증을 막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다. <br/> <br/>그 중 비타민B와 C는 피로· 영양불균형· 병중 병후· 임신수유기 등의 질병 완화에 효능을 보이고 스트레스· 감기· 피부에 효과적인 비타민이다. <br/> <br/>하지만 지나친 비타민 과다복용은 효과와 효능이 되려 반감되기도 한다. 특히 먹는 것도 바르는 것도 예민한 아토피 환자들에게는 평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br/> <br/>이러한 가운데 최근 아토파인(www.atofinemall.com) 발효도라지 유산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김치유산균을 비롯한 4종의 유산균과 비타민 B· C 등 남녀노소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담아낸 아토피비타민으로서 아토피 치료 및 기관지 건강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br/> <br/>업체관계자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비타민B· C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도 하루 권장량을 섭취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아무거나 함부로 복용할 수 없는 임산부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으며 태어날 아기의 아토피예방에도 효과적이다. <br/> <br/>발효도라지 유산균에 들어가는 비타민B1은 각기병 예방 효능이 있고 비타민B2는 성장촉진 비타민으로 피부· 손톱· 발톱의 성장촉진과 뇌기능 향상에 관여하고 있어 결핍 시 구순염과 구내염 발병· 피부가 거칠어질 수 있다. <br/> <br/>비타민B6의 경우 피부· 혈관· 모발·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근육형성비타민으로 백혈구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빈혈 및 동맥 경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또 비타민C는 괴혈병· 당뇨· 암·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며 비타민B6와 마찬가지로 면역력을 높여주고 알레르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br/> <br/>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아토피환자들에게 비타민 복용은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 억제 기능이 있어 스트레스 완화에 탁월하다</span>”고 조언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47.txt

제목: 방광암 환자, 소장 이용 무수혈 인공방광술 인기  
날짜: 20140207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07100000138  
본문: 방광절제 수술시 예전에는 소변 주머니를 차야 했던 방광암 환자들에게 자신의 소장을 이용해 인공 방광을 만들어 주는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의 무수혈 인공방광수술이 각광받고 있다.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에서 인공 방광 수술 실적을 연도별로 집계한 결과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 동안 모두 30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 21건, 2012년 33건, 2013년 4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40건의 인공방광수술을 기록한 것은 국내 최고 수준으로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인공방광수술은 자신의 소장으로 방광을 만들어 요관에 연결, 정상적으로 소변을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기존의 소변주머니를 신체 외부에 만들어주는 수술보다 고난이도의 어려운 수술법이지만 환자에게 많은 장점이 있는 수술법이다.특히,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 이동현 교수는 8시간 이상 걸리던 인공방광 수술 시간을 반으로 줄인데다 무수혈 수술이 가능해지면서 70대 고령 환자는 물론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인공방광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또한 인공방광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새로운 방광으로 3개월 적응을 마치면 잔뇨감도 거의 없고 남성은 발기기능도 살려 주고 여성의 경우에도 질을 살리는 수술을 통해 수술 후 부부관계에도 아무 지장이 없다.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인공방광수술을 받기 위해 이대목동병원을 찾고 있다.이 교수는 “방광암 수술 후 소변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방광을 적출하더라도 자신의 소장을 일부 잘라내 인공방광을 만들어 줄 경우 일상 생활에 불편이 없고, 정상적인 성 생활도 가능해 방광암에 걸리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려 줄 수 있다”면서 “인공방광수술은 환자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생각하면 꼭 필요한 수술이다”라고 말했다.방광암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암이다. 지난해 12월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우리나라 국민에게 발병한 방광암은 총 3549건으로 남자가 2847건, 여자가 702건이었다. 남성암 중에서는 일곱 번째로 연령이 높을수록 발생율이 높았다. 주로 70세 전후로 많이 발병하는데 특징적인 점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4배 정도 더 잘 걸린다는 점이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48.txt

제목: 비갱신형 암보험 비교 시, 연령대 맞는 조건 꼼꼼히 살펴봐야  
날짜: 20140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06100000452  
본문: 암 보험은 이미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판매가 축소됐던 상품이다. 하지만 최근 오히려 보장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암에 대해 가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실제 암 관련 통계를 확인해 봐도 이러한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010년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가암등록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암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암 환자 70만 명 시대에서 전문가가 말하는 암 보험의 선택 기준에 대해 정리해봤다.첫째, 암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일반 암 진단금액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국회토론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이 평균 6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40~50대 가장이 암 투병 이후 사망했을 경우 가족이 짊어질 경제적 부담은 더욱 크다.평균수명까지 생존 시 3명중 1명이 암에 걸린다고 볼 때 암 보험은 한국인의 필수적인 보험이며 진단금액은 최소한 본인의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특히 진단율이 높은 남녀생식기계 암을 소액 암으로 분류해서 일반 암의 20%만 지급하는 보험사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암에 어떤 암들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둘째, 가족력 등을 고려하면서 기본적으로 비갱신형으로 준비해야암이라는 질병의 특성상 가족력이 매우 중요하다. 고액 암과 특정 암의 진단금을 고려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출해야 한다.갱신형은 5년· 10년 등 일정기간마다 연령증가에 따른 위험률 등을 감안해 보험료가 재산출된다. 특히 암 발생이 급증하는 50대에서부터 보험료도 비례해서 증가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가입시점부터 만기까지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 비갱신형이 안정적인 보험유지에 도움이 된다.마지막으로 이차 암 등을 보장하는 재진 암 진단비를 준비하면 좋다.보통 암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한번 암이 발생되면 진단자금은 더 이상 보장이 되지 않고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 두 번째 발생한 암이나 암이 완치되지 않고 잔류하는 암에 대해서 보장하는 상품들이 등장하면서 이미 암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추가로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판매율이 높은 상품이라고 해도 설계에 따라 의무부가담보나 적립금 등에 따라 보험료는 천차만별이다. 이처럼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보장하는 범위와 보험료· 가입기준이 달라 여러 회사의 암 보험을 가격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현재 판매회사로는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AIA생명· 라이나생명· 삼성생명· 동양생명 암 보험 등이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신의 건강조건과 경제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려면 특정 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별로 여러 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하라고 조언하고 있다.도움말을 준 이곳(http://cancer.boheommall.kr)에서는 전문상담원이 각 보험사별 상품을 고객의 성별· 건강· 연령 등을 고려해서 설계하고 가입에서 보상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가입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보험에 저렴한 암 보험료까지 가져가고 싶다면 전문적인 상담 받는 것이 권장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49.txt

제목: 경북도 위탁 및 입양아동 상해보험 가입  
날짜: 20140206  
기자: 전주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0610013402945  
본문: 경북도는 위탁가정과 입양가정에서 발생한 아동의 질병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 탁·입양아동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한다고 6일 밝혔다. <br/> <br/>대상자는 도내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부양의무자 1인 포함)과 만 12세 이하 입양아동(부양의무자 1인 포함) 1천618명(부양의무자 1천369명)이다. <br/> <br/>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가정은 일괄 가입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br/> <br/>상해보험 보장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다. <br/> <br/>보장내용은 후유장해, 입원치료, 통원의료비, 암 치료, 치아 치료, 상해 및 질 병 입원 일당, 유괴·납치·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일상생활 배상책임, 정 신과 질환 등이다. <br/> <br/>도는 입양가정지원 조례를 제정해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단체 상해보험 가입 을 추진했으며 앞으로 사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br/> <br/>대구=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50.txt

제목: 꽃다운 딸 가슴에 묻은 아버지 ‘한맺힌 법정 투쟁’  
날짜: 20140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0610013406107  
본문: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던 직장이었다. 깔끔한 숙소, 전 사원이 똑같은 옷을 입고 일하는 그곳은 ‘미지의 세계’ 같았다. <br/> <br/>하지만 조별로 경쟁을 붙여 생산력을 늘리다 보니,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러도 근로자 스스로 안전장치를 풀고 일하게 되었다. ‘성과급 1000%’의 목표 아래에선 화장실 갈 틈도 없이 작업에만 매달려야 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이 죄였을까. ‘돈을 벌어 아버지 택시 바꿔드리고, 엄마 용돈 드리고, 동생 대학 보내겠다’던 딸은 입사 2년 만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딸의 죽음에 망연자실했던 부모는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어도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 초일류 대기업에 맞서 외롭고 힘든 싸움을 이겨내야만 했다. <br/> <br/>이미 알려진 대로, ‘또 하나의 약속’은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반도체 원판을 화학물질 혼합물에 담갔다 빼는 3라인에 배치 받아 근무하던 중 2005년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7년 23세의 나이로 사망한 황유미씨와 아버지 황상기씨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br/> <br/> ‘또 하나의 약속’은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죽은 딸을 가슴에 묻은 속초의 소시민 택시기사가 대기업을 상대로 재판을 벌여 직업병 승소 판결을 받아낸 실화를 소재 삼아 만들어진 영화다.속초의 평범한 택시기사 황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떠난 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죽은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인생을 건 재판을 벌이고, 서울행정법원 14부는 2011년 6월 23일 마침내 “<span class='quot0'>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span>”며 황유미씨의 산업재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30여년간 택시운전밖에 몰랐던 소시민 아버지가 법정싸움 6년 만에 이뤄낸 기적 같은 일이었다. <br/> <br/>수원병원에서 속초로 돌아오는 택시 뒷자리에서 딸을 떠나보낸 택시기사 아버지,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기업으로부터 처음 제안 받은 500만원이 10억원까지 올라간 일, 반도체 공장 1개 라인에서 팀장은 백혈병, 부팀장은 피부암, 동료는 림프종에 걸렸다는 젊은 엔지니어의 겁에 질린 증언,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언을 약속한 엔지니어의 배신 등 영화 속 이야기는 상상에 의해 극화된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실들이다.  <br/> <br/>영화가 감동적인 이유는 딸과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 각종 유혹과 협박에 굴하지 않는 아버지의 뜨거운 부성애 때문이다. 자식을 잃은 ‘무식하고 힘없는’ 아버지는 아무도 돕지 않아서 힘들었다. 회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대기업의 못된 힘은 ‘회유’에서 나왔다. <br/> <br/>“합의서에 도장 찍었어요. 재판하느라 진 빚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br/> <br/>비슷한 이유로 자식을 잃고 함께 싸우던 이들마저도 그렇게 그의 곁을 떠났다. 딸의 목숨값은 도대체 얼마일까. 500만원부터 시작된 무마비는 10억원이 되고, 기업 측은 “<span class='quot1'>이 돈이면 다시 가장 노릇을 할 수 있다</span>”고 회유하지만 황씨는 오로지 딸과의 약속을 위해 언제 끝날지 모를 형극의 길을 택했다. 회유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일은 사정을 아는 동네 사람들의 오해였다. 딸의 목숨값을 더 받아내기 위해 악으로 버틴다는 소문이 황씨의 가슴을 갈가리 찢어놓았다. 하지만 세상이 ‘또라이’라 비웃어도 속초 앞 바다만은 그의 편이었다.  <br/> <br/>“<span class='quot2'>바다는 결코 날 비웃지 않아.</span>” <br/> <br/>마음을 추스르던 그에게 아내의 응원도 다시 싸울 힘이 되었다. “그래. 또라이가 아니면 그 사람들과 못 싸울 거야. 당신, 다시 찾아가 끝까지 싸워.” <br/> <br/>모두가 무모하다고 여긴 대기업과의 재판에서 황씨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직업병 승소 판결을 받아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미국 IBM도 직업성 암, 백혈병에 걸린 수백명의 노동자들에게 합의서를 받고 보상했지만 내용을 비밀에 부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br/> <br/>황유미 판결건은 산재인정 판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현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에 접수된 피해자는 151명에 이르며, 그중 5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공단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했다. 병든 노동자의 몸과 가족 잃은 사람들이 증거이기 때문이다. <br/> <br/>“아직 안 끝났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br/> <br/>이들의 결의가 ‘또 하나의 약속’이다. <br/> <br/>김신성 기자 sskim65@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51.txt

제목: 남자 5명중 1명, 여자 6명 중 1명 암에 걸리고 2030엔 암발병율 2배로 늘어-WHO  
날짜: 20140204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0410013371978  
본문: 남성 5명중 1명, 여성 6명중 1명은 75세가 되기전 암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또 남성 8명중 1명, 여성 12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한다. <br/> <br/>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세계 암의 날(2월4일)을 맞아 3일(현지시간) '세계 암 보고서 2014'를 발표했다. <br/> <br/>40개국에서 250명의 연구자가 참가해 만든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암발생은 1400만건이며 암 사망 건수는 820만건이라는 것. <br/> <br/>2012년 암 발병의 53%와 암 사망의 57%는 남성이었다. <br/> <br/>남성의 경우 폐암(16.7%)이 가장 많았고 전림선암(15%), 직장암(10%), 위암(8.5%), 간암(7.5%)의 순으로 암이 많이 발생했다. <br/> <br/>여성은 유방암(25.2%)이 압도적이었고 직장암(9.2%), 폐암(8.7%), 자궁경부암(7.9%), 위암(4.8%) 등으로 나타났다. <br/> <br/>남녀를 합치면 폐암(19.4%), 유방암(11.9%), 직장암(9.7%), 간암(9.1%), 위암(8.8%) 순. <br/> <br/>암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2010년 기준으로 1조1600억 달러(1260조원)에 달했다. <br/> <br/>암 발병의 60%와 암 사망의 70%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에서 발생해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br/> <br/>이에 대해 보고서는 저개발 국가의 경우 암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진단이 이뤄지고 치료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봤다.  <br/> <br/>인구당 발병률로 따지면 한국이나 일본, 북미나 서유럽, 호주 등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의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 <br/> <br/>선진국에서는 유방암과 직장암, 전립선암이 더 흔했고 저소득 국가의 경우 간암, 위암, 식도암이 주를 이뤘다. <br/> <br/>크리스토퍼 와일드 IARC 소장은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은 국가의 부담이 특히 높고 선진국도 급증하는 암 치료 비용과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암 치료 효과를 높이고 비용 부담을 해결하려면 예방과 초기단계 진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r/> <br/>한편 IARC는 앞으로 암 환자가 크게 늘어나 2030년 연간 암 발병건수가 2012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2160만건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br/> <br/>암으로 인한 사망도 2013년 1300만건으로 2012년 암 사망 건수(820만건)보다 5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br/> <br/>IARC는 늘어나는 인구와 급속한 노령화가 암 발병과 사망 증가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또 음주와 흡연, 가공식품 섭취, 운동 부족 등 나쁜 생활습관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52.txt

제목: “암 환자 2030년까지 50% 이상 증가”  
날짜: 20140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0410013381930  
본문: 음주·흡연·비만 등으로 2030년까지 암 환자가 지금보다 50%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br/> <br/>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세계 암의 날을 하루 앞둔 3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암 보고서 2014’에서 이같이 밝혔다. 40개국 학자 250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br/> <br/>IARC는 보고서에서 암 발병 환자수가 2012년 1410만명에서 2030년 54% 는 21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암으로 인한 사망은 2012년 820만건에서 2030년 59% 증가한 1300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br/> <br/>IARC는 암 발병이 계속 느는 주요 원인으로 음주, 흡연, 가공식품 섭취, 운동부족과 같은 나쁜 생활습관을 꼽았다. 이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설탕을 넣은 음료에 세금을 물리는 등 정부 차원에서 예방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br/> <br/>가장 최근 자료인 2012년의 암 발병과 사망 건수를 보면 각각 53%와 57%가 남성이었다. 전세계 남성 8명 중 1명, 여성 12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했다. <br/> <br/>발병 암의 종류는 폐암이 19.4%로 가장 많았고, 유방암(11.9%), 직장암(9.7%), 간암(9.1%), 위암(8.8%) 등이 뒤를 이었다. 암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2010년 기준 1조1600억달러(약 1260조원)로 집계됐다. <br/> <br/>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53.txt

제목: 연세에스병원 연구팀 “줄기세포 치료, 림프부종 80%까지 감소”  
날짜: 20140204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0410013380931  
본문: 국내 연구팀이 불치병으로 알려진 림프부종의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법을 개발했다. 최근암 수술 환자의 증가로 림프부종을 앓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적인 소식이다. <br/> <br/>암 수술 환자에게 림프부종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암 세포가 다른 부위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림프절 절제 수술· 방사선 치료· 함암제 치료 등을 함으로써 림프계의 순환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방암 수술만 한 경우 2~27%, 방사선 치료만 한 경우 9~36%의 환자에게서 림프부종이 발병했다고 알려져 있다. <br/> <br/>현재까지 국제적으로 효과를 인정받은 치료법은 1930년대 개발된 순환계 물리치료로 도수 림프흡수마사지(MLD)· 복합부종감소물리치료(CDP· CDT) 정도다. 이 가운데 연세에스병원 심영기· 윤진호 원장으로 구성된 림프부종 연구팀이 증상을 감소시켜줄 치료법을 내놓은 것이다. <br/> <br/>연구팀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미세림프수술 및 지방흡입수술· 줄기세포 수술을 이용해 하지부종 18건과 상지부종 5건 등 총 23건을 치료한 후 1년 간 추적 관찰해왔다. 그 결과 치료 6개월 후 평균 30% 이상의 림프부종 증상이 감소했다는 성과를 얻었다. 치료 효과가 좋은 경우에는 80%까지 부종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br/> <br/>연구팀의 심영기 원장은 “<span class='quot0'>줄기세포 치료를 하더라도 수술로 림프절을 다 절제했기 때문에 부종이 100% 완치되지는 않았지만, 부종 증상을 줄여줌으로써 합병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였다</span>”고 평가하면서 “<span class='quot0'>이번 치료 결과는 오는 6월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제18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발표할 예정</span>”이라고 전했다. <br/> <br/>림프계의 순환장애인 림프부종은, 림프액이 순환계로 빠지지 못하고 피부 및 피하지방 안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면서 고농도 단백질로 변질되어 팔과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붓는 증상이다. 림프부종은 1차성 림프부종과 2차성 림프부종으로 나뉜다. <br/> <br/>이중 2차성 림프부종이 암 수술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며 1차성 림프부종은 림프선의 선천적인 기형으로 인해 림프선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말한다. <br/> <br/>부종 초기에는 외관상으로는 크게 부어 보이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붓거나 뻐근하게 조이거나 피부가 딱딱해지는 느낌이 있다. 증상이 심해지면 육안으로도 부은 것이 보이며 팔과 다리 둘레가 굵어진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림프신티그램· 초음파검사· MRI· CT 등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br/> <br/>심영기 원장에 따르면 압박요법· 경구약· 림프흡수마사지· 지방흡입술· 미세림프수술· 줄기세포시술 등 치료방법이 있지만 완치가 어려운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림프부종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염증 예방과 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br/> <br/>심 원장은 “<span class='quot0'>림프부종은 관리가 힘들지만 방치하면 점점 심해져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심한 합병증으로 말기가 되었을 경우 외과적 절제 수술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span>”며 주의를 요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54.txt

제목: 美 경찰, 암 투병 소년을 일일 서장에 임명 ‘감동’  
날짜: 20140204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0410013372036  
본문:   <br/> <br/>‘배트맨’이 되고 싶다던 암환자 소년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고담시로 바뀌어 감동을 준 가운데 이와 비슷한 일이 디트로이트에서도 일어났다. <br/> <br/>미국 허핑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항암 치료 중인 9살 소년을 일일 경찰서장에 임명한 디트로이트 경찰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고 지난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br/> <br/>보도에 따르면 제이본 펠튼이라는 이름의 소년은 나중에 커서 디트로이트를 지키는 경찰관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펠튼은 복통으로 찾은 병원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말았다. <br/> <br/>그러나 펠튼은 굴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이어진 항암치료에도 경찰관의 꿈을 저버리지 않았다. 펠튼은 엄마에게 항상 “저는 꼭 경찰관이 되어서 약한 사람들을 지켜줄 거예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펠튼의 간절한 소망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 소식을 접한 디트로이트 경찰은 펠튼에게 ‘일일 경찰서장’ 임무를 부여했다. 펠튼을 위해 맞춤 제작한 제복과 경찰 배지도 특별선물로 마련됐다. <br/> <br/>펠튼은 지난달 31일 경찰 헬리콥터에 올랐다. 그는 경찰서까지 출근하는 동안 시가 돌아가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볼 수 있었다. 헬기에서 내린 뒤에는 제임스 크레이그 디트로이트 경찰서장의 호위를 받으며 업무를 소화해냈다. <br/> <br/>펠튼은 여유를 잃지 않았다. 그는 “저에게 명령하실 것 없습니까?”라는 크레이그 서장의 질문에 “휴가 다녀오세요”라고 답해 듣는 이를 폭소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살 소년의 당찬 발언은 주위에 있던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다. <br/> <br/>‘마법 같은 하루’의 마지막은 펠튼의 친구들이 장식했다. 펠튼은 경찰서를 찾아온 학교 친구들이 준비한 피자 등 여러 가지 음식을 함께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친구들이 자신을 잊을까 두려워했던 펠튼의 우려가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br/> <br/>크레이그 서장은 “오늘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며 “<span class='quot0'>9살 소년의 강인한 정신력이 우리에게 큰 힘을 줬다</span>”고 말했다. 펠튼의 엄마도 “아들은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가족, 친구 등 모두가 그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r/> <br/>뉴스팀 news@segye.com <br/>사진=디트로이트 경찰 트위터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55.txt

제목: 메리츠화재, 보험 미가입 어르신 위한 건강·암보험 출시  
날짜: 20140203  
기자: 세계파이낸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03100000361  
본문:  메리츠화재보험(www.meritzfire..com)이 2014년 새해를 맞아 어르신 맞춤형 보험 상품을 선보였다. 메리츠화재는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The 든든한 시니어 암보험'과 '(무)The 넓은 건강보험'를 오는 10일부터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우선 '(무)The 든든한 시니어 암보험'은 그동안 암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66세 이상 고령자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암 환자 100만명 시대 5년 생존율은 64.1%로 증가하고 있지만, 65세 이상자 중 보험미가입자는 91.8%에 달한다. 메리츠화재는 65세 초과자에 대해서도 이 상품을 통한 암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대 가입연령은 75세, 암진단비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되며, 이 외 고액암과 암사망도 추가로 보장된다. 고혈압·당뇨관련 고지의무대상에서 제외되며, 건강체(가입후 6개월 이내 건강검진 기록지나 소견서 첨부)임을 고지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준다.'(무)The 넓은 건강보험'은 유병자들을 위한 보험이다. 그동안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인수제한이나 거절됐던 고객들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 유병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409만명 추산 2030년 1679만명으로 전망된다. 이 상품은 고혈압이나 당뇨 유병자에 대해서도 실손의료비를 포함한 질병 담보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건강체는 물론 기왕증 환자도 가입이 가능한 건강보험상품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 고혈압 환자는 실손의료비 가입이 어려웠는데 이보험으로는 가입이 가능하다.주요 특징은 한국인의 5대 질환(암·뇌·심장·위, 폐)을 집중보장하고, 일차암 진단 이후에도 이차암진단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14개 질환(고혈압·고지혈증·혈압상승·지질상승·간기능비정상·지방간·B형간염·빈혈·혈뇨·단백뇨·내당능장애· 당뇨·부정맥·선천성심질환)등 유병자에 대해 특별조건부 특별약관을 통해 가입을 확대했다. 실손의료비(질병입통원의료비), 질병사망·입원일당·수술비·암진단비·암진단비(Ⅱ)·뇌졸중 진단비·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에 대해 할증으로 담보해 준다.메리츠화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연령이 높아질수록 질병이 많아지는 반면 보험가입이 어려웠는데 이번 상품을 통해 보험사각지대에 놓인 고객들의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span>”며“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처지에 놓인 고객들을 위한 선물과 같은 보험상품 개발을 통한 혜택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남희 세계파이낸스 기자 nina1980@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56.txt

제목: 박도중 교수, 미국 외과교과서 ‘Current Surgical Therapy’ 집필  
날짜: 20140203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03100000215  
본문: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이철희)은 외과 박도중 교수가 지난 2013년 12월 출판된 미국 외과 교과서 ‘최신 수술법(Current Surgical Therapy)’에 저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최신 수술법(Current Surgical Therapy)’은 미국 외과 전공의 대부분이 읽고 있는 외과 교과서 중 하나다. 박교수는 이 중 11판 ‘위암’ 분야를 집필했다. 위암 환자가 특히 많은 우리나라가 위암 치료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암 분야 저술에는 미국 내 암분야 1위인 메모리얼슬론 케터링 암센터(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의 샘윤 교수가 공동 집필자로 참여했다. 두 교수는 위암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위암 치료의 지견을 총망라해 미국 외과 전공의 뿐 아니라 외과 전문의들에게도 좋은 교재로 평가받고 있다.박도중 교수는 “<span class='quot0'>미국 외과 의사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 위암 파트를 한국 의사가 집필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암 치료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복강경 위암 수술과 같은 최소침습수술에 있어서는 한국이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pan>”고 말했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57.txt

제목: 올해부터 위암·간암도 진료 평가받는다  
날짜: 20140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03100000373  
본문: 올해부터 위암과 간암 진료 결과는 물론 만성질환 중 하나인 만성폐색성폐질환도 진료 적정성 평가를 받게 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아울러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중환자실과 폐렴도 진료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효과성 확보를 위해 위암·간암, 만성폐색성폐질환, 폐렴, 중환자실, 성분계열별 항생제처방률 등 6개 항목을 추가한 '2014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3일 공개했다. 심평원은 위암의 경우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수술·항암화학요법 등 진료 전반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간암은 표준화된 간암 치료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간암 수술사망률에 한해 평가한다고 말했다.심평원은 대장암, 유방암, 폐암에 이어 위암과 간암이 진료 평가 항목에 추가돼 주요 5대 암 진료를 모두 평가하게 됐다고 밝혔다.또 3세대 항생제의 내성을 줄이고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외래약제 평가 영역에 세파3세대 등의 성분계열별 항생제 처방률도 포함하기로 했다. 포괄수가 적정성 평가는 포괄수가제 확대에 따라 과소진료 및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기존 병·의원급에서 종합병원 이상으로 대상기관을 확대한다.제왕절개분만 평가는 기관별로 제왕절개분만 예측 비율과 실제 실시 비율을 비교하는 대신 제왕절개분만 현황을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평가 방식 전환으로 제왕절개분만은 의료 서비스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또는 지급액을 삭감하는 가감지급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중증질환과 만성질환 등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과 병원별 평가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58.txt

제목: ‘타이거JK 父’ 서병후, 암 투병 중 1일 별세  
날짜: 20140202  
기자: 박민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0210013358264  
본문: 힙합가수 타이거JK(본명 서정권)의 부친이자 팝 칼럼니스트였던 서병후(72)씨가 2월1일 별세했다. <br/> <br/>서병후 씨는 지난 1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위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원자력병원에 마련됐고, 발인은 오는 3일 오전 9시30분에 진행된다. <br/> <br/>타이거JK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인생이란 사랑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My father left, he said life is loving and thank you all)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부친상을 당한 사실을 알렸다. <br/> <br/>한편 고(故) 서병후 씨는 한국가요평론가협회의 창립회원이자 국내 최초의 팝 칼럼니스트다. 그는 1981년부터 3년간 MBC ‘대학가요제’의 심사위원을 맡았고, 1988년 중앙일보 음악세계 편집국 편집국장을 지낸 바 있다. <br/> <br/>뉴스팀 news@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59.txt

제목: ‘팝 칼럼니스트 1호’ 서병후씨 별세  
날짜: 20140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0210013361190  
본문: 유명 팝 칼럼니스트 서병후씨가 1일 오후 4시 자택에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2세. <br/> <br/>고인은 1967년 최초 팝 음악 잡지 ‘팝스 코리아’를 창간하고 이후 여러 주간지에서 기자로 활동한 국내 1호 팝 칼럼니스트다. 고인은 힙합 가수 타이거JK(본명 서정권·40)의 부친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빈소는 서울 공릉동 원자력병원. 발인은 3일 오전 9시30분.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60.txt

제목: 말기암 부친 살린 ‘진짜 사나이’  
날짜: 20140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0210013360666  
본문: “아버지, 이제 아프지 마시고 빨리 쾌차하십시오! 그리고 올해 더욱 건강하십시오.” <br/> <br/>육군 상병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 70%를 이식하며 ‘지극한 효심’을 보였다. <br/> <br/>육군8기계화보병사단에서 복무 중인 권태하(22) 상병은 지난달 27일 양산 부산대학병원에서 간암 말기(4기)로 투병 중인 아버지 권무열(55)씨에게 자신의 간 3분의 2 이상을 이식하는 대수술을 받았다고 육군이 2일 밝혔다. <br/> <br/> 간이식 수술 전 아버지와 함께한 권태하 상병(오른쪽). <br/>육군 제공2010년 간암 1기 판정을 받은 권 상병의 아버지는 항암치료를 계속 받아왔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권 상병은 ‘간 이식 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에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망설임 없이 수술대에 올랐다. <br/> <br/>권 상병의 아버지는 “앞날이 창창한, 더욱이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서 장기를 이식받아 내 생명을 연장하면 뭐 하겠느냐”며 한때 이식을 거부하기도 했지만, 아들의 간곡한 설득에 뜻을 굽혔다. 수술 이후 현재 회복 중인 권 상병은 “아들로서 부모님에 대한 도리를 조금 했을 뿐인데, 아버지께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면서 “그동안 걱정해 준 동료 전우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전했다. <br/> <br/>권 상병의 부대원들은 가슴 뭉클한 그의 소식을 접하고 성공적인 수술과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자발적으로 헌혈증 65장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다. <br/> <br/>대대장 서보경 중령은 “<span class='quot0'>진정한 효를 실천한 권 상병이야말로 부대원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휴가와 더불어 다각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하겠다</span>”며 권 상병의 빠른 쾌유를 빌었다. <br/> <br/>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61.txt

제목: “인간은 우주에 살 만큼 진화하지 않았다”  
날짜: 20140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910013350343  
본문: 우주여행과 화성 유인탐사 등 우주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이 우주에 적응할 수 있을까. 현재로선 과학자들의 답은 ‘노(No)’다. <br/> <br/>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우주에 체류하는 동안 발생하는 인체의 변화들을 소개하면서 “인간이 아직 우주에서 살 만큼 진화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br/> <br/>미 항공우주국(NASA) 연구진들이 국제우주정거장(ISS) 거주 우주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무중력 상태인 우주에 머무는 동안 골밀도가 낮아지고 시력이 떨어진다. 방사선 노출 탓에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심혈관계·신경계·소화계 기관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밀도가 낮아지는 문제는 ISS에 고정된 러닝머신을 설치해 운동을 충분히 하고, 골다공증 예방약을 섭취해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문제들은 원인도,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있다. <br/> <br/>시력은 안구가 어떤 압력 때문에 원시로 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왼쪽 눈보다는 오른쪽 눈이 더 시력 변화가 컸다. 방사능은 암 발생 외에도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쥐 실험에서 고농도 방사선에 노출된 쥐는 방향감각을 상실했다. <br/> <br/>이진경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62.txt

제목: 전설 속 명마 한혈마 … 말에서 문명을 읽다  
날짜: 20140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910013350906  
본문: MBC는 2월1일 오전 7시30분 말(馬)이 어떻게 인간에게 길들여졌고 인간을 위해 달려왔는지를 다룬 설 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 ‘바람의 말’을 방송한다. <br/> <br/>인류 문명을 바꾼 영웅들의 동반자이자 인류 발전의 숨은 공로자, 말. 그중 ‘마왕(馬王)’이라 불리는 한혈마(汗血馬)는 인류 역사를 바꾼 길이라 평가되는 실크로드를 개척하는 데 이바지를 했다. 피와 같은 붉은 땀을 흘리며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한혈마는 흉노족에 대적하는 최종병기 역할을 했다. 역사 속 명마인 한혈마의 모습이 공개되는 것은 한국 방송 사상 최초다. <br/> <br/>우리나라에서는 제주마의 우수성이 두드러진다. 제주마는 체구가 작지만, 제주 지역에 오랜 기간 적응되어 강건한 체질을 갖고 있다. 또 연중 방목하는 거친 사육 조건에도 잘 견디는 재래종 말로 알렸다. 특히 발굽의 질이 치밀하고 견고해 암석이 많은 제주도 중산간 지대에도 잘 견딜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br/> <br/> 배우 하지원이 2월1일 방송되는 다큐멘터리 ‘바람의 말’의 내레이션을 맡았다. <br/>MBC 제공말의 공로는 단순히 과거의 것만이 아니다. 말은 인간에게 오천복(午天福)을 주는 영물로 인식되어 왔는데, 오늘날에도 그 평가는 여전히 유효하다. 승마는 인간의 뇌파를 바꾸고 암을 치료하는 운동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말의 다양한 효용을 활용한 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br/> <br/>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은 드라마 ‘기황후’에서 열연을 펼치고 있는 배우 하지원이 맡았다. 말띠 해에 태어난 그는 그동안 다양한 액션 사극에 출연해 승마를 접한 뒤 말의 매력에 빠졌다. 다큐멘터리 영상을 접하고는 “말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br/> <br/>배우 송일국은 이날 방송에 직접 출연한다. 평소 ‘말 사랑’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작품을 통해 말을 타봤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니며 명마를 접했다. 이번 해외 촬영을 통해 전설의 말 한혈마를 직접 타기도 했다는 송일국은 “<span class='quot0'>청마의 해를 맞이해 명마의 기운이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span>”는 바람을 전했다. <br/> <br/>김승환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63.txt

제목: [1억원 고료 제10회 세계문학상] 공동수상작 ‘보헤미안 랩소디’의 정재민씨 인터뷰  
날짜: 20140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810013342380  
본문: 세계일보 편집국에 나타난 열 번째 세계문학상 공동 수상자 정재민(37)씨는 대구가정법원 판사였다.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그동안 대구 포항 등지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에도 차출될 정도로 엘리트 코스를 달려왔다. 의사 아내 사이에 남매까지 둔 가정도 단란하다. 겉으로 보기에 아쉽거나 모자랄 건 전혀 없어 보인다. <br/> <br/>그가 15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매달려온 작품을 세계문학상에 투고한 뒤 발표일이 다가오자 “숨이 점점 막혀왔다”고 했다. 채점해보면 점수가 금방 나오는 대학입시나 사법시험을 볼 때도 이번처럼 떨리진 않았다고 했다. 결혼기념일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관에 갔다가 잠시 홀로 바깥에 나왔을 때 걸려온 당선전화를 받고는 평소 냉정하다는 소리를 듣는 ‘판사님’도 눈물이 났다. 그날 저녁은 자신의 오랜 수고를 스스로 다독이며 10시간 넘도록 죽은 듯이 잤다고 했다. <br/> <br/>전혀 아쉬울 것 없어 보이는 그로 하여금 무엇이 문학에 목을 매게 했을까. 그는 이미 ‘포항국제동해문학제’에서 ‘이사부’라는 작품으로 1억원 고료 장편소설에 당선된 이력도 있다. 그때도 지금처럼 떨리진 않았다고 했다. 역사소설인 전작과 달리 이번 수상작 ‘보헤미안 랩소디’는 자신을 평생 옥죄어온 무의식을 스스로 풀어내는 한판 제의 같은 의미를 지닌 자전적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의 말을 듣고 보니 이 소설을 완성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해도 과장은 아닐 성싶었다. <br/> <br/>유년기부터 서울법대에 들어가 판검사가 돼서 한을 풀어달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며 심한 압박감을 주었던 엄마. 내면에서는 이러한 엄마의 강박에 끊임없이 반발하지만 중학교 때 정작 덜컥 암에 걸려버린 어머니의 뜻을 차마 어길 수 없었다.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결국 사법시험까지 보게 되지만, 정작 엄마는 자신의 죽음을 아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고 사법시험 하루 전 숨을 거둔다. 나흘에 걸친 시험이 끝나고 나서야 엄마의 죽음을 알게 된 정씨는 소설 속 주인공의 입을 빌려 “<span class='quot0'>오랜 세월 동안 판검사가 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내 입장에서는 광대 옷을 입고 엄마를 위한 마지막 공연을 준비하러 간 것</span>”이었는데 “<span class='quot0'>관객은 이미 공연을 시작하기도 전에 떠났고 광대는 그것도 모르고 공연을 한 셈</span>”이라고 썼다. <br/> <br/>현직 판사로 일하면서 소설을 써온 정재민씨. 그는 “<span class='quot0'>이제는 정말 소설가가 된 것 같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앞으로는 편안한 마음으로 완전히 다른 소설을 쓸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허정호 기자정씨는 “<span class='quot0'>본능적으로 나를 억누르는 무의식의 상자더미를 걷어내기 위해 엄마의 일기를 모티브로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 같다</span>”면서 “<span class='quot0'>10여년 전에 완성시킨 그 소설을 세계문학상에 냈다가 떨어진 뒤 정신분석 과정 등을 새롭게 추가해 이번에 꿈을 이룬 것</span>”이라고 밝혔다. 그는 “<span class='quot0'>단지 부조리한 사회 문제에서 정의가 이긴다는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개인뿐 아니라 사회까지도 그 밑에 흐르는 깊은 무의식을 들추어내고 싶었다</span>”고 말했다. 엄마는 글쓰기에 재능이 있어 우울한 내면을 일기로 썼거니와 장례식 때 엄마의 일기장을 발견하면서 소설에 대한 생각을 키웠다고 했다. <br/> <br/>이번 소설은 주체적인 자아를 찾기 위한 주인공의 행보는 물론 정의를 가로막는 세력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돋보인다. 사기꾼 의사와 맞서 싸우면서 “<span class='quot1'>의료, 법률, 종교, 언론, 정치 등 일반인들이 쉽게 파고들 수 없는 전문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는</span>” 세력의 실체를 예리하게 드러낸다. 특히 판사라는 직업을 가진 주인공이 서술하는 생생한 에피소드들이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소재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을 끝까지 견인해낸다. <br/> <br/>주말부부로 살아가는 그는 아침에 일어나 김밥이나 햄버거를 사들고 법원으로 걸어서 출근할 때가 가장 상쾌하고 행복하다고 했다. 9시까지 출근해 결재하고 기록 검토하고 판결문을 쓰는 일과를 보통 저녁 10시나 새벽까지도 진행한다. 주말에도 격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소설 때문에 업무에 지장은 없느냐는 질문에 “골프 치거나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본업에 충실하냐고 묻지 않는다”면서 웃었다. 그는 이전에 다른 자리에서 “재판은 숱한 거짓들 속에서 진실을 찾아야 하고 소설은 픽션을 통해 진실을 찾는 일이어서 이 두 가지 일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한 적 있다. 그의 오랜 꿈을 이룬 세계문학상 당선은 이제 개인적인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진실을 찾아 당당하게 걸어가라는 격려의 훈장인 셈이다. <br/> <br/>조용호 문학전문기자 jhoy@segye.com <br/> <br/>■정재민씨는… <br/>  <br/>●1977년 경주 출생 ●1996년 서울대 법대 입학 ●2000년 42회 사법시험 합격(32기) ●2010년 ‘포항국제동해문학제’에 장편소설 ‘이사부’ 당선 ●대구·포항 지역 법관,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파견 근무 등을 거쳐 현재 대구가정법원 판사 ●장편소설 ‘사법연수생의 자장면 비비는 법’(2004), ‘독도 인 더 헤이그’(2009) 등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64.txt

제목: [1억원 고료 제10회 세계문학상] 작가가 쓴 ‘보헤미안 랩소디’ 줄거리  
날짜: 20140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810013342381  
본문: 지환은 홀어머니 장례식 이후 엄마의 일기장을 발견한다. 그 속에서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들었던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된다. 영화관 간판을 그리던 아버지는 지환을 임신한 엄마를 버리고 도망갔다. 떠돌던 엄마는 신해시의 재래시장에서 미장원을 열고 정착했다. <br/> <br/>열등감과 불안이 많던 엄마는 수시로 지환에게 판검사가 되어서 자신의 한을 갚아 달라 했다. 그림이 유일한 낙이고 화가를 꿈꾸는 지환은 학창 시절 엄마와 진학 문제로 갈등했다. 그러다 엄마가 암과 류머티스 진단을 받으면서 지환은 결국 엄마의 바람을 꺾지 못하고 법대를 갔다. <br/> <br/>‘보헤미안 랩소디’는 전설적인 록그룹 퀸이 1975년 발표한 영국 최고의 히트곡이다. 가사는 가족을 학대하는 아버지를 총으로 쏘아 죽인 소년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이다.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는 어린 시절부터 지환의 우상이었다. 프레디 머큐리는 조로아스터교 신자였다. 지환은 대학생이 된 후에야 ‘조로아스터’가 곧 니체의 저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자라투스트라’임을 알게 된다. <br/> <br/>지환은 고향인 신해시의 법원으로 지망해 부임한다. 그곳에서 지환을 짝사랑하던 고교 후배이자 의사로 활동하는 효린이와 재회한다. 지환은 판사가 되었지만 직업에서 실존을 느끼지 못해 회의한다. 수시로 잠적하는 여자 친구 서연이와의 관계에서 분리불안을 겪는다. <br/> <br/>효린이의 권유에 따라 지환은 몇 달에 걸쳐 정신분석을 받는다. 분석실에서 지환은 자신의 직업적 회의와 분리불안의 근저에 있는 무의식의 원인을 찾아 나선다. 아울러 ‘보헤미안 랩소디’ 가사의 소년처럼 부재하는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된다. <br/> <br/>죽은 엄마의 사진을 본 효린이는 엄마가 류머티스가 아니라고 한다. 지환은 엄마의 일기장과 의료 기록, 다른 환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진실을 파헤친다. 그 결과 엄마를 진료했던 류머티스센터장이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사기진료를 해온 사이코패스였음을 알게 된다. <br/> <br/>지환에게 무릎을 꿇고 봐달라고 애원하던 의사는 지환이 다른 피해자들과 고소를 하자 돌변하여 지환을 음해한다. 의사는 그동안 신해시에서 쌓아온 혈연, 지연, 학연을 총동원해서 신해시의 검찰, 경찰, 정치인, 언론, 공무원과 제약회사를 움직여 필사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 지환과 피해자들은 의사의 세력들을 상대로 경찰, 검찰, 언론, 법정 안팎으로 치열한 다툼을 벌인다. <br/> <br/>판사가 아닌 일개 당사자로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지환은 서서히 자신의 나약한 실존에 눈뜬다. 아울러 현실에서 벌이고 있는 의사와의 대결이 무의식에서 벌어지는 부재하는 아버지와의 대결임을 깨닫고 극복을 모색한다. 그 무렵 지환은 사기진료 사건 뒤에 숨어 있는 정신분석과 의사의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65.txt

제목: 김정행 대한체육회장, ‘암투병’ 노진규 위로방문  
날짜: 20140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710013330516  
본문: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은 27일 서울 공릉동 원자력병원을 찾아 암 투병 중인 쇼트트랙 노진규(22·한국체대)를 위로했다. 노진규는 악성 종양이 자라던 왼쪽 견갑골을 들어내는 큰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노진규는 이르면 이번 주 중 퇴원해 앞으로 6∼8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김 회장은 “<span class='quot0'>평소에도 훈련을 열심히 하던 유망한 선수여서 소치 올림픽에 출전했다면 계주에서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안타깝다</span>”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br/> <br/>박병헌 선임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66.txt

제목: 70대 부모님도 가입 가능한 설 명절 효도보험 '주목'  
날짜: 20140127  
기자: 세계파이낸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7100000187  
본문: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명절 선물을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하나생명보험에서는 설날을 맞아 부모님에게 선물할 만한 효도 보험들을 27일 소개했다. 부모님의 노후를 지켜줄 효도보험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자.◆부모님 노후자금 걱정, 사망보장과 결합된 양로보험으로 해결양로보험은 저축성 보험에 사망보장 기능이 결합된 상품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연금 전환 기능이 강화되고 가입 연령도 높아지면서 노후를 위한 상품으로 추천되고 있다. 보험기간 중에 사망시 사망보장까지 가능해 종신보험에 대한 니즈가 있었지만, 가입하지 못했던 사람에게도 추천할 만하다.하나생명의 양로보험 ‘넘버원 더블리치 저축보험’은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고, 보험료 납입 기간 또한 3년납이 가능하도록 대폭 줄여서 급하게 노후자금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알맞다. 금리 상승시에는 실세금리에 연동하되, 하락시에는 3.5%의 최저보증이율로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보험 만기시에 피보험자가 생존 시와 사망 시 동일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객혜택이 강화되기도 했다.◆부모님도 가입 가능한 실버 암보험, 자녀가 가입시 효도할인특약고령자들은 가입이 제한됐던 암보험이 최근 실버 암보험이라는 이름으로 고령자도 가입 가능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라이나생명 실버암보험, 미래에셋생명 시니어라이프암보험 등이 있다. 상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녀가 가입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효도특약할인 혜택이 있는 곳도 있다.실버암보험은 주로 갱신형으로 80세까지 보장 상품과 100세까지 보장 상품이 있다. 부모님이 암보험이 없어 노후에 큰 병원비게 들까 걱정이라면 든든한 암보험을 마련해드리는 것도 좋은 명절 선물이 될 것이다.◆노인성 질환 병원비 걱정, 실버케어 보험 추천암 외에도 고령자에게 발병률이 높은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심장질환 등을 노인성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도 있다. KDB생명은 70세까지 가입 가능한 KDB실버케어종신보험을 판매중인데, 사망보장만 할 수도 있고 노인성 질환, 치매 등에 대한 보장 설계가 가능하다. AIG 명품부모님 보험은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골절과 화상, 장기 및 뇌손상에 대한 상해보장, 치매, 암 등 필요한 보장을 선택하여 가입 가능하다.하나생명 김성수 영업마케팅부장은 “<span class='quot0'>고령자 보험은 조금이라도 늦으면 가입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부모님께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상의한 뒤, 빨리 가입한다면 조금이라도 저렴한 보험료로 부모님께 든든한 선물을 해드릴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김남희 세계파이낸스 기자 nina1980@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67.txt

제목: 서울 지하철역 30곳 라돈 기준초과…중점관리후 개선  
날짜: 20140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7100000495  
본문: 서울 지하철역 30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서울시는 지난해 시내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벌인 라돈 농도 검사에서 기준치인 4pCi(피코큐리)를 한 번 이상 초과한 역사는 2호선 4곳, 3호선 5곳, 4호선 4곳, 5호선 8곳, 6호선 3곳, 7호선 5곳 등 총 30곳이었다고 27일 밝혔다.이들 역사는 대부분 깊은 지하에 건설된 곳이거나 화강암 지반을 지나 라돈 방출이 우려되는 곳으로 조사됐다.30곳 중 28곳은 서울시가 지난 2012년 10월 라돈 농도 저감대책 발표 당시 지하철 역사 깊이와 지질을 고려해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한 37곳에도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는 기준을 넘지는 않았으나 근접한 역은 2호선 3곳, 3호선 2곳, 4호선 4곳, 5호선 5곳, 6호선 9곳, 7호선 1곳 등 24곳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이에따라 서울시는 라돈 기준치를 넘은 지하철 역사 30곳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라돈이 새나올 우려가 있는 배수로·맨홀 등을 밀폐하는 한편 라돈 전용 송풍기도 설치해 지금은 30곳 모두 라돈 농도가 기준치 아래로 떨어졌다고 확인했다.시는 30곳에 대해 매분기 라돈 농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시는 기준치에 근접한 지하철 역사 24곳에 대해선 '격년관리역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 어린이집 120곳에 대해서도 라돈 농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3곳 가운데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없다고 전했다.라돈은 물리·화학적으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실내로 유입을 차단하고 환기로 제거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은 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제암연구소(IARC)는 라돈을 석면 등과 함께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1그룹(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한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68.txt

제목: [희망을 나누는 기업] 아모레퍼시픽  
날짜: 201401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610013318944  
본문: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가 암 치료로 고통을 받는 환우에게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다. <br/>아모레퍼시픽 제공1945년 창립 이래 국내 화장품과 녹차 산업을 이끌어 온 아모레퍼시픽은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 메이크 업 유어 라이프’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다양한 나눔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사회공헌활동은 공익재단을 통한 운영 및 후원과 직접 참여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2009년 아모레퍼시픽의 사회공헌 집행금액은 사상 최고치인 134억원. 2011년 110억원, 2012년 97억원 등 매년 90억원 이상을 사회공헌활동에 투자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6회를 맞는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br/> <br/>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고통받는 여성 암 환우들에게 메이크업과 피부관리, 헤어 연출법 등 아름답게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해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69.txt

제목: 일동후디스·대한비만학회 '비만과 장내세균총 관련 중개연구' MOU 체결  
날짜: 20140126  
기자: 지차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610013316905  
본문: 테이블 (왼쪽) 일동후디스 이금기회장, (오른쪽)대한비만학회 우정택이사장일동후디스와 대한비만학회는 지난 23일 양해각서(MOU)를 맺고 장내 세균과 비만 및 각종 대사질환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비만과 장내세균총 관련 중개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br/> <br/>현재 우리나라는 비만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30세 이상 성인의 30% 이상이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10%에 가까운 당뇨병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대사증후군으로 유발된 심뇌혈관 질환과 각종 암 등 치명적 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br/> <br/>비만은 유전적 요인 외에도 다양한 환경인자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체내에 존재하는 장내 세균총이 비만 및 각종 대사질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내 관련분야의 기초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 성과를 실제 한국인의 건강증진으로 연결시키는 움직임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br/> <br/>대한비만학회와 일동후디스는 비만인구의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의 위험성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낌과 동시에 우리 국민의 비만 및 관련 질환의 퇴치를 위한 다양한 학술 활동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특히, 장내 세균총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실험연구 결과를 임상연구 영역으로 확산하고, 이를 평생건강과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식생활 개선 캠페인은 물론, 영양 및 기능성 식품에 적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br/> <br/>지차수 선임기자 사진=일동후디스 chas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70.txt

제목: 여교사,대마초 탄 음식을 동료에게 먹이는 ‘엽기적 사건’  
날짜: 201401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6100000364  
본문: 테레사 배저. 사진=CNN 캡처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여교사가 음식에 대마초를 타서 동료에게 먹인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졌다.25일(현지시간) CNN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북부 베니시아 경찰은 매튜터너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의 용의자로 이 학교 교사인 테레사 배저(47)를 체포했다. 의문의 식중독 소동이 벌어진 것은 지난해 11월21일.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방과 후 저녁 식사를 함께한 여교사들 사이에서 가슴 통증과 정신 이상 증세로 병원 신세를 진 사람이 속출한 것이다.한 교사는 귀가 직후 이상증세를 일으켜 병원을 찾았고, 다음 날에도 피해자가 잇따랐다. 15세 된 교사 자녀가 엄마가 파티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고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경찰은 12월 초 교육감으로부터 문제의 저녁 식사 후 많은 사람이 이상증세로 고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수사 착수 6주 만인 지난 24일 배저 교사를 독극물 혐의로 체포했다.일부 피해자의 혈액검사에서는 대마초에 든 환각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검출됐다고 현지 CBS 방송이 전했다.THC는 극소량을 섭취해도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몽롱하게 하고 심박동을 증가시킨다.     대마초가 암 치료와 중증 간질 등 일부 난치병에 효과가 있다는 의학계  보고에도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가 대마초를 금지하는 것도 THC가 일으키는 환각 증상때문이다.배저 교사는 식중독 사고 후 동료에게 자신이 음식에 대마초를 탔다고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에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온라인 뉴스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71.txt

제목: KBS 다큐 ‘의학, 제3의 물결’ 환자 중심 의료 통합의학 소개  
날짜: 20140125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510013314399  
본문: 폐암· 간암· 위암· 유방암 뇌종양 등은 발병률이나 사망률이 높은 암에 속한다. 때문에 이에 대해 실제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두 가지 공포는 ‘죽음’과 ‘항암치료에 대한 고통’이다. <br/> <br/>끔찍한 고통과 두려움을 참아내며 수술· 항암· 방사선 등 병원에서 하라는 치료는 다해서 완치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많은 이들이 수술이나 항암에 의한 부작용이나 치료 후 재발로 고통 받는 것이 현실이다. <br/> <br/>이로 인해 전 세계 의료진들이 ‘암을 죽이기 위해선, 꼭 몸을 상하게 할 수 밖에 없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인간의 존엄성·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br/> <br/>이처럼 효과적이고 인체 친화적인 치료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KBS 특집 다큐멘터리가 의학계 화두인 양·한방 통합의학을 집중 조명했다. <br/> <br/>25일 방송된 ‘의학· 제3의 물결’에서는 미국· 중국· 독일· 그리고 한국에서 어떻게 동·서 의학의 결합이 일어나는지 그 현장을 소개했다. <br/> <br/>이미 선진국의 의학계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의학이 아닌 치료과정에서의 환자의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통합의학이며 수술· 항암 등 서양의학 치료와 한방면역요법· 침술 등의 한의학을 접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br/> <br/>통합의학의 한국 사례로 소개된 소람한방병원 병원장 성신 한의학박사는 “<span class='quot0'>약침· 쑥뜸· 탕약 등의 한방면역치료와 고주파온열암치료· 미슬토· 혈관레이져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한방 단독치료는 물론, 항암· 방사선 치료와 한방면역치료의 병행을 원하는 환자들도 많이 찾고 있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72.txt

제목: 판치는 의료 불신 주장들… 조목조목 반박  
날짜: 20140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410013312342  
본문: 나가노 가즈히로 지음/김정환 옮김/북앤월드/1만3000원의료 부정 서적에 살해당하지 않기 위한 48가지 진실/나가노 가즈히로 지음/김정환 옮김/북앤월드/1만3000원 <br/> <br/>일본 의료계는 현재 암 치료를 둘러싼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방사선과 의사인 곤도 마코토는 “<span class='quot0'>현대 의학은 암의 90%를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비용이 드는 항암 치료를 무조건 받아서는 안 된다</span>”며 일본 의학계와 제약업계의 비리를 폭로했다. 그가 쓴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은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 <br/> <br/>이 책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한 암은 애초에 암이 아니다’, ‘항암 치료는 암을 치료하지도, 생명을 연장해주지도 않는다’, ‘암은 치료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편이 가장 좋다’ 등 곤도의 주장을 48개 항목으로 나눠 조목조목 반박한다. <br/> <br/>저자에 따르면 항암 치료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 암에 따라 효과가 다를 뿐이다. 급성 백혈병, 악성 림프종, 고환 종양 등은 항암 치료로 완치할 가능성이 크다. 유방암, 난소암, 폐암, 위암, 대장암, 자궁암 등은 항암제를 이용해 진행을 늦출 수 있다. 반면 뇌종양, 신장암, 췌장암, 간암은 항암제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한다. <br/> <br/>저자는 “<span class='quot1'>항암제는 암을 치료하거나 생명을 연장해주지 못한다며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가 있는데 모든 암을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span>”고 강조한다. <br/> <br/>곤도의 주장을 100% 부정하는 건 아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 환자에게 무의미한 치료를 강요하는 의사, 제약업계와 결탁해 처방을 남발하는 의사는 분명 실제로 존재하는 의료계의 그림자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 때문에 평균 수명 연장, 감염병 감소, 영유아 사망률 감소 등 눈부신 성과를 이끌어낸 현대 의학의 발전까지 모조리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73.txt

제목: 건보공단 '흡연피해 담배사가 물어내라' 소송키로  
날짜: 20140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4100000293  
본문: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담배 소송’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흡연 때문에 폐암 등이 늘었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그만큼 추가로 진료비가 지출된 만큼 그 손해를 담배회사들이 물어내야 한다는 게 공단 측의 주장이다.건강보험공단은 24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이 과반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전체 이사 15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정부 측 대표 2명은 신중한 입장 속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언제든지 담배 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소송 방법이나 대상·규모(소송가액)·시기 등은 이사회가 공단 측에 모두 위임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단이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그러나 담배와 암 발생 사이 직접적 인과 관계, 담배 자체의 결함, 담배사의 고의 과실 등을 뚜렷하게 밝혀내기가 어려운데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까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어 실제 소송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공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소송 대상은 국내 담배 판매량을 감안해 국내외 담배회사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소송은 공단 내·외부 변호사들로 공동소송 대리인단을 꾸려 제기할 것</span>”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공단 측은 이번 소송 규모(소송가액)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확실히 흡연과의 인과성이 인정됐다고 보고, 피해 기간과 대상 범위를 여러 경우로 나눠 두 암 치료에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를 따져 본 결과이다.그러나 공단에 대한 지시·감독 권한을 가진 복지부는 소송에 보다 ‘신중한’ 입장이다. 앞서 23일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복지부는 건보공단에 공문을 보내 “<span class='quot1'>담배 소송 안건을 ‘의결 사안’이 아닌 ‘보고 사안’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라</span>”고 주문했다.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흡연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를 걱정하는 복지부도 기본적으로 담배 소송에 찬성한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1'>소송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다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당장 잠재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된 국내외 담배회사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국내외 담배회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한 한국담배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담배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이사회 결의를 통하지 않도록 분명한 지시를 했음에도 건강보험공단 이사회가 건보 재정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로 결정해 유감이다”고 밝혔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74.txt

제목: 쇼트트랙 노진규, 암 투병…22일 골육종 수술받아  
날짜: 20140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4100000020  
본문: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이 불발된 쇼트트랙 스타 노진규(22·한국체대)가 암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진규는 지난 22일 원자력 병원에서 골육종 수술을 받았다. 골육종은 뼈암의 일종으로 10∼20대 남성의 무릎이나 팔 등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지만, 실제 환자는 100만 명 가운데 15명 정도인 희귀병이다. 소치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로 선발된 노진규는 올림픽 티켓이 걸린 올 시즌 월드컵 시리즈 1차전 직후인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자신의 몸에 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당시 다른 곳에서 조직검사를 한 결과 양성 종양이라는 판정을 받아 소치올림픽 이후로 수술을 미룬 채 통증을 참아가며 월드컵 시리즈를 마쳤다.하지만 소치올림픽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지난 14일 훈련 도중 넘어져 팔꿈치와 어깨가 부러져 결국 소치올림픽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노진규는 이번에 다친 팔꿈치와 어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종양까지 제거하려다가 애초 알고 있었던 것과 달리 종양이 악성인 것으로 판명됐다. 결국 6㎝이던 종양이 13㎝까지 자라 노진규는 왼쪽 견갑골을 들어내는 큰 수술을 받았다.앞으로 6∼8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친상태다. 체육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75.txt

제목: 환자 중심의 통합암치료, 국내에서는?…KBS 다큐서 조명  
날짜: 20140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4100000330  
본문: 폐암· 간암· 위암· 유방암· 뇌종양 등 대한민국은 연간 20여만 명의 신규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암 발생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인 81세까지 살았을 때 3명중 1명은 암으로 고통 받게 된다.하지만 조기발견이 되지 않으면 치료결과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암이다. 무엇보다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 고통스러운 치료과정을 거쳐야 한다.두려움과 고통을 견디며 치료를 받는다 해도 그에 따른 후유증이나 재발· 전이를 막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 암환자와 보호자들은 지금도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암치료, 더 편안하고 인체친화적인 치료법을 찾아 나서고 있다.선진국의 의학계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의학이 아닌 치료과정에서의 환자의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MD앤더슨· 하버드· 존스홉킨스와 같은 세계 우수 암센터에서는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통합의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통증치료에 침을 놓거나, 약초를 일반 약국에서 판매하는 등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접목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KBS 특집다큐멘터리 ‘의학, 제3의 물결’은 통합의학이라는 의학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독일·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의 통합암치료 현장을 집중 취재 했다.단순히 병을 치료하기 위함이 아니라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통합의학. 국내에서는 소람한방병원을 통합의학 사례로 들었다.양한방협진 면역암치료를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소람한방병원 성신 한의학박사는 “<span class='quot0'>세계 유수의 암센터는 물론 국내에서도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한 통합의학이 대두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실제 양한방 통합진료를 받은 환자들도 의료진에 대한 믿음이나 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span>”고 전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76.txt

제목: 비만이 위험한 이유…오래 살고 싶다면 명심하라  
날짜: 20140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4100000290  
본문: 비만이 위험한 이유가 공개됐다.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비만이 위험한 이유는 너무 많이 있다.일단 비만은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다. 비만인은 정상인보다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 관상동맥질환에 잘 걸릴 뿐만 아니라 각종 암과 관절질환의 발병률도 높아진다.비만이 위험한 또다른 이유는 인지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인슐린이 수용체에 달라붙으면 신경신호가 전달되면서 기억이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비만이거나 혈당, 혈압이 높으면 인슐린 수용체의 이런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비만이 위험한 이유에 누리꾼들은 "비만이 위험한 이유 정말 최악의 병이다 비만" "비만이 위험한 이유 여자가 날 떠나가기 때문에...." "비만이 위험한 이유 너무 많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뉴스팀사진=스포츠월드 DB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77.txt

제목: ‘흡연이 특정암 유발’ 연관성 입증하는게 관건  
날짜: 20140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410013312840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담배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은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로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이 연 1조7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 전체의 한 달치 보험료이자, 재난적 의료비의 주범으로 꼽히는 선택진료비 1조3000억원, 상급병실차액료 1조원 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다. <br/> <br/>흡연으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지만 담배회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건보재정 관리자로서 공단이 가입자를 대신해 그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논리다. <br/> <br/>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4건의 담배소송에서 원고(흡연자)가 모두 패소한 데다 관리감독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정부부처마저 입장을 달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소송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br/> <br/>건보공단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공단은 2011년 2월 고등법원의 담배소송 선고에서 “<span class='quot0'>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한다</span>”는 내용을 근거로 첫 번째 소송의 범위를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으로 한정했다. 이 두 암과 관련한 소송이라면 진료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담배사에서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br/> <br/>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03∼2012년 소세포암 및 편평세포암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모두 2만4804명, 건보공단이 부담한 이들의 진료비는 3326억원에 이른다. 또 1992∼2012년 일반 건강검진에 참여한 30세 이상 공무원 등 238만명의 질병정보를 19년간 추적 관찰한 ‘한국인 암 예방 연구(KCPS)’ 결과 1992∼99년 담배를 피운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 소세포암 및 편평세포암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1842명, 공단이 부담한 이들의 진료비는 251억원으로 집계됐다. <br/> <br/>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span class='quot1'>공단은 담배소송을 위해 오랜 기간 연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담배 폐해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왔다</span>”고 말했다. <br/> <br/>미국 등 해외 담배소송 사례도 공단의 소송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br/> <br/>1950년대 무렵부터 담배회사에 대한 소송이 시작된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를 부인하는 담배회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가 전부 패소했다. <br/> <br/>그러나 1990년대 중반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원고들이 승기를 잡았다. 흡연자 개인뿐 아니라 의료보험회사, 간접흡연 피해자까지 담배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아냈다. 1994년 미시시피주 법무장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주정부가 지급한 흡연 관련 의료비를 변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46개주가 소송을 내 2000억달러 규모의 배상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플로리다주는 주정부가 위해물 제조업체에 의료비용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의 개별입증 대신 통계로 의료비용을 산출하도록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다. <br/> <br/>캐나다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해 이를 근거로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시작으로 여러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담배소송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2005년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br/> <br/>김 이사장은 “<span class='quot1'>미국과 캐나다 사례에서 보듯 담배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지난한 법적 공방이 뒤따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주정부 같은 공공기관이 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이 뒷받침되면 훨씬 효과적인 만큼 국회 입법과정도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br/>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78.txt

제목: 국내 4건의 소송 이긴 전례없어  
날짜: 20140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410013312843  
본문: 건보공단의 담배업체 상대 흡연 피해 소송에서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br/> <br/>법원은 그동안의 소송에서 흡연과 질병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br/> <br/>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에서 총 4건의 담배 관련 소송이 진행됐다. <br/> <br/>이 가운데 2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고, 1건은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1건은 원고 측이 항소를 포기해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원고 측이 이긴 것은 1, 2심을 통틀어 한 번도 없었다. <br/> <br/>소송은 주로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다 폐암 등에 걸린 당사자와 가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했다. 1999년 9월 처음 소송을 낸 외항선원 김모씨 등의 경우 36년간 하루 1갑씩 담배를 피워오다 폐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냈다. <br/> <br/>법원은 그러나 “<span class='quot0'>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또한 인정할 수 없다</span>”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른 소송의 패소 판결 취지도 이와 비슷했다. 다만 폐암 환자 7명과 그 가족이 낸 소송에서 2011년 2월 항소심 재판부가 “<span class='quot1'>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span>”고 언급해 일말의 여지를 남긴 적은 있다. <br/> <br/>이번 소송도 폐암 등이 흡연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건보공단이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담배회사인 KT&G가 제품 제조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 첨가 등 불법을 저질렀는지도 따져봐야 할 쟁점이다. <br/> <br/>소송 전망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한 변호사는 “<span class='quot2'>이전 판결들과 다른 판단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2'>흡연이 폐암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해도 합법적으로 담배를 제조하는 업체의 불법행위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 <br/> <br/>반면 법무법인 원의 전현희 변호사는 “<span class='quot3'>건보공단이 소송을 낸 만큼 환자 병력 등에 대한 많은 증거로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다른 양상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79.txt

제목: 쇼트트랙 노진규 ‘뼈암’ 골육종 투병  
날짜: 20140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410013312444  
본문: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기둥으로 활약하다 뜻밖의 부상으로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노진규(22·한국체대·사진)가 암과 싸우고 있다. <br/> <br/>지난 22일 노진규의 수술을 집도한 원자력병원 전대근 박사는 “<span class='quot0'>왼쪽 견갑골 아래의 종양 조직을 검사해 보니 골육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span>”고 24일 밝혔다. 골육종은 뼈에 생기는 암의 일종으로 10∼20대 남성의 무릎이나 팔 등에서 많이 발병하지만 환자는 100만 명 중 15명 정도로 희귀한 질병이다. <br/> <br/>소치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된 노진규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종양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당시 다른 곳에서 조직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올림픽 출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병원 진단에 따라 소치올림픽 이후로 수술을 미뤘다. <br/> <br/>노진규는 올림픽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지난 14일 훈련 중 넘어져 팔꿈치와 어깨가 부러지는 바람에 결국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br/> <br/>노진규는 다친 팔꿈치와 어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종양까지 제거하려다 애초 알던 것과 달리 종양이 악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발견됐을 때 길이 6㎝이던 종양이 13㎝까지 자란 탓에 노진규는 왼쪽 견갑골을 들어내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앞으로 6∼8개월간 항암치료를 받아야 한다. 노진규는 “<span class='quot1'>계주만큼은 꼭 금메달을 땄으면 좋겠다</span>”며 병상에서도 동료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br/> <br/>이우중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80.txt

제목: 3월 이내 담배소송 정부 반대에도 강행  
날짜: 20140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410013312735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3월 이내에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담배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공공기관이 담배소송을 내는 것은 처음이다. <br/> <br/>소송 규모(소송가액)는 최소 130억∼최대 3300억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수조원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소송 대상은 국내 최대 담배회사인 KT&G와 외국계 담배회사다. 건보공단 이사회는 24일 서울 마포구 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안’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br/> <br/>이사회에는 15명의 이사 가운데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등 13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정부측 대표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이사회가 구체적 소송 방법이나 대상·규모·시기 등을 공단 측에 위임함에 따라 공단은 소송대리인이 결정되는 3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공단 측은 1차 소송 규모를 130억∼33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담배소송의 고등법원 판결에서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소세포암(폐암)과 편평세포암(후두암)의 피해 기간과 대상 범위를 여러 경우로 나눠 두 암 치료에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를 반영한 결과다. <br/> <br/>건보공단의 안선영 대표변호사는 “<span class='quot0'>이미 미국에서 담배회사의 니코틴 함량 조작행위 등이 인정됐고, 담배회사에서 퇴직한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연락을 취해오고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span>”고 말했다. <br/> <br/>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81.txt

제목: “끊임없이 도전하다 보면 취업문 열려요”  
날짜: 20140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410013312440  
본문: “<span class='quot0'>또래 친구들보다 뒤처진다고 느껴 남들보다 두세 배 더 노력했어요.</span>” <br/> <br/>지난해 삼성그룹 고졸 공채를 통해 삼성SDS에 합격한 조민아(19·여·순천 전자고·왼쪽)양은 스스로가 대견스러운 듯 이같이 말했다. 부모의 이혼 뒤 어머니와 어렵게 살아 온 조양은 “<span class='quot1'>꼭 성공해 어머니의 여생을 아름답게 꾸며 드려야겠다</span>”는 다짐으로 특성화고를 선택했다. <br/> <br/>24일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관한 ‘제2회 고졸취업 감동수기 공모전’ 시상식에서 ‘그저 겁만 내는 청춘들, 해보긴 해 봤나요?’라는 제목의 수기로 재학생 부문 금상을 받은 조양은 “<span class='quot2'>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나 부유한 조건들이 아니다</span>”며 “<span class='quot2'>앞으로 많은 성공을 거둘 인재들에게 도전(정신)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졸업생 부문에서 금상을 받은 정송이(20·여·오른쪽)씨도 중학생 때 어머니를 암으로 잃은 뒤 ‘선취업 후진학’의 길을 택했다. 전남여자상업고에 들어간 그는 학급 반장과 선도부원, 학교 홍보대사 등 다양한 교내 활동을 하면서도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내외 회계·상업 실무능력 경진대회에서 상을 휩쓸었다. 이런 노력은 KDB산업은행 입사로 이어졌고, 올해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br/> <br/>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82.txt

제목: ‘철인 경기’ 같은 한국 교육… 본받자는 미국  
날짜: 20140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410013312277  
본문: 아만다 리플리 지음/김희정 옮김/부키/1만4800원무엇이 이 나라 학생들을 똑똑하게 만드는가/아만다 리플리 지음/김희정 옮김/부키/1만4800원 <br/> <br/>국내 학부모에게 미국은 교육 선진국이다. 내 자녀만은 주입식 입시교육에서 벗어나게 해주려 혹은 영어라도 잘 하게 만들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날아가는 곳이다. 한국 교육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난제 덩어리일 뿐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009년 한국 교육을 긍정했을 때, 안 던컨 미 교육장관이 최근 한국 교육을 본받자고 말했을 때 한국민이 느낀 생경함은 당연했다. <br/> <br/>미국 언론인 아만다 리플리에게 현실은 정반대였다. 미국 교육현실은 암담했다. 비판적 사고력을 재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미국 학생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었다. 취재를 하면할수록 미국 교육에 켜진 빨간불은 점점 커지고 급박해졌다. 그는 ‘공부 잘하는 나라’ 아이들이 어떻게 똑똑해졌는지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그가 고른 나라는 PISA 최상위권인 핀란드와 한국,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순위가 껑충 뛴 폴란드였다. <br/> <br/>외부인에게 한국 교육은 압력밥솥과 같았다. 부산에 교환학생으로 온 18살 미국인 에릭은 수업시간에 거리낌 없이 자는 학생들에게 충격 받았다. 수업·야자·학원으로 이어지는 일상을 보며 ‘어떻게 십대 청소년이 공부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인가’하고 경악했다. 그는 한국에서 학교가 ‘절대 끝나지 않는 것’임을 바로 알아챘다. 리플리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교육이 이제 ‘아동 철인 경기’로 변질됐다고 이름 붙인다. <br/> <br/>어두운 면만 본 건 아니다. 저자는 한국 교육에서 학생들의 열정, 이런 열정을 만들어낸 높은 기대치, 교육을 소중히 하는 태도, 뛰어난 교사진, 아이를 제대로 돕는 학부모를 발견한다. 미국인이 본 한국교육은 명과 암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br/> <br/>리플리는 한국, 핀란드, 폴란드에는 ‘잘 살려면 고도의 사고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국민적 동의’가 공통으로 존재했다고 분석한다. 고등학교에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고 교사들은 진지하며, 학생들은 응석이 허용되기보다 성인처럼 다뤄졌다. 경제적 풍요로 인해 미국에서는 이런 엄격함이 필수가 아니었다. 그러나 국제 경제환경이 변했다. 리플리는 이제 미국에도 ‘엄격함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br/> <br/>송은아 기자 se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83.txt

제목: 비갱신형 암보험 비교 시, 연령대에 맞게 여러 조건 살펴봐야  
날짜: 20140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3100000478  
본문: 암 보험은 이미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판매가 축소되고 있던 상품이다. 하지만 최근 오히려 보장기간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이는 그만큼 암에 대해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남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실제 암 관련 통계를 확인해 봐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010년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가암등록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암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암 환자 70만 명 시대에서 전문가가 말하는 암 보험의 선택 기준에 대해 정리해봤다.첫째, 암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일반암 진단금액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국회토론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이 평균 6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40~50대 가장이 암 투병 이후 사망했을 경우 가족이 짊어질 경제적 부담은 매우 크다.평균수명까지 생존 시 3명중 1명이 암에 걸린다고 볼 때 암 보험은 한국인의 필수보험이며 진단금액은 최소한 본인의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특히 진단율이 높은 남녀생식기계 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해서 일반암의 20%만 지급하는 보험사들이 많이 있다. 일반암에 어떤 암들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둘째, 가족력 등을 고려하면서 기본적으로 비갱신형으로 준비해야암이라는 질병의 특성상 가족력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때문에 고액암과 특정암의 진단금을 고려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출해야 한다.갱신형은 5년· 10년 등 일정기간마다 연령증가에 따른 위험률 등을 고려해서 보험료가 재산출된다. 특히 암 발생이 급증하는 50대에서부터 보험료도 비례해서 증가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가입시점부터 만기까지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 비갱신형이 안정적인 보험유지에 도움이 된다.마지막으로 이차암 등을 보장하는 재진암 진단비를 준비하면 좋다.보통 암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한번 암이 발생되면 진단자금은 더 이상 보장이 되지 않고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 두 번째 발생한 암이나 암이 완치되지 않고 잔류하는 암에 대해서 보장하는 상품들이 등장하면서 이미 암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추가로 이러한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판매율이 높은 상품이라고 해도 설계에 따라 의무부가담보나 적립금 등에 따라 보험료는 천차만별이다. 이처럼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보장하는 범위와 보험료· 가입기준이 달라 여러 회사의 암 보험을 가격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권장된다.현재 판매회사로는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AIA생명· 라이나생명· 삼성생명· 동양생명 암 보험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건강조건과 경제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려면 특정 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별로 여러 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도움말을 준 가격비교다이렉트보험몰(http://news.boheommall.kr)에서는 전문상담원이 각 보험사별 상품을 고객의 성별· 건강· 연령 등을 고려해서 설계하고 가입에서 보상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보험에 저렴한 암 보험료까지 가져가고 싶다면 전문 비교사이트를 통해 상담 받는 것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84.txt

제목: 미리미리 챙겨야 할 건강검진 상식은?  
날짜: 20140122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2100000106  
본문: 새해 결심 중 대표적인 것은 단연 건강이다. 많은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헬스장을 등록하고 운동을 배우며 건강관리를 계획한다. 건강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한가지는 바로 건강검진이다. 질환은 발병 후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건강검진을 챙기기가 쉽지 않다. 2014 청마의 해를 시작하며 미리 건강검진을 1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상식을 청심국제병원의 김종형 내과 과장을 통해 알아봤다.◆나는 건강검진 대상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나뉘며, 검진 대상자에만 속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일반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 매 2년마다 한번씩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며, 자신의 출생연도의 짝수/홀수 여부로 구분한다. 2014년의 경우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인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짝수연도 출생자가 검진대상이며,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만40세 이상 짝수연도 출생자가 대상자이다.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이라면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년 1회 실시가 적용되고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만19~39세 세대주 중 짝수연도 출생자, 만40~64세 짝수연도 출생자 전원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 40세와 66세가 되는 사람은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선정된다.암검진은 각 암의 발병위험이 높은 연령대별로 검진을 실시한다. 위암은 만40세 이상의 남녀 대상으로2년에 1회 실시하며, 대장암은 만50세 이상의 남녀 대상으로 1년마다 실시한다. 간암은 만40세 이상 남녀 중 간경변증 환자나 간염바이러스 양성인 자, 만성간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은 각각 만40세 이상 여성, 만3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검사한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7차에 걸쳐 검진시기별로 나눠 선정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해 검진대상자에게 연초에 일괄적으로 검진표를 우편발송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된다. 만일 검진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주변의 가까운 지사나 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건강검진으로 어떤 질환을 발견할 수 있을까?일반건강검진 1차 검진 사항은 기본적인 진찰, 시력, 청력 측정과 비만,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증, 당뇨병, 이상지혈증, 간장질환, 폐결핵/흉부질환 등 질환 관련 검진을 시행한다. 만 70세와 74세 대상으로는 치매선별검사도 실시한다. 1차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고혈압, 당뇨병 의심자 및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만70세와 74세의 경우)을 대상으로 관련 질병에 대한 2차 검진을 실시한다.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암 및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발병률이 상승하는 만40대와 낙상, 치매 등 노인성질환 위험이 증가하고 신체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만66세에 대해 이뤄지는 건강검진이다. 따라서 일반건강검진 1차 검진 사항과 함께 만40세에게는 암검진과 간염검사, 만66세에게는 암검진, 골밀도 검사(여성), 노인신체기능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또한 1차 건강검진 결과와 관계없이 수검자 전체가 2차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2차 건강검진은 1차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 상담과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관련 생활습관검사, 고혈압 및 당뇨 2차 확진 검사, 1차 검진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우울증과 인지기능장애와 같은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한다.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상황을 추적 관리하여 보호자에게 알맞은 육아 가이드를 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인 검사다. 검사는 영유아기에 문제가 되는 질환의 고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한 진찰과 건강교육, 상담 위주로 이뤄진다. 따라서 감염성 질환, 특정 질환 발견에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건강검진 비용은 모두 무료?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의 1, 2차 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의 암검진 비용은 건강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따라서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검진 시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물론 정해진 횟수를 넘어서 검진받는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자궁경부암검사를 제외한 다른 암검진은 공단에서 90%를 부담하고 본인이 10% 부담해야 한다. 다만 국가 암 검진대상자인 경우 10%의 본인부담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검진비용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건강검진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년 1차 일반 건강검진에서 질환의심 및 유질환자의 비율은 52.3%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2차 검진에서 당뇨병, 고혈압 검사를 받은 후 실제로 당뇨병과 고혈압 판정을 받은 비율은 44.2%, 49.5%였다. 이처럼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발견하면 좀 더 빠른 조치를 취하고 치료율을 높일 수 있다. 청심국제병원 김종형 내과 과장은 “특히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는 암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인 대장암이나 간암의 경우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조기 발견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특별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와 상담을 통해 몸 상태를 점검해보고 나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고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85.txt

제목: 병 키우는 인터넷… 검증 안된 의학정보 수두룩  
날짜: 20140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210013290222  
본문: “알콕시글리세롤 한번 드셔보세요. 면역력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br/> <br/>최근 한 포털사이트에는 자신이 임신부라며 겨울철 아토피 치료법을 묻는 질문이 올라왔다. 아토피 치료가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홍보성 답변이 이어졌다. 한의원, 피부과, 천연제품 등을 홍보하고 아토피 치료에 관한 백화점식 정보를 나열했다. 홍보성 답글에 아래에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소개하는 글이 이어졌다. <br/> <br/>한 네티즌은 “<span class='quot0'>토마토와 양배추, 죽염 등을 섞어 마시면 좋다</span>”는 내용의 답글을 올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span class='quot1'>천연 알로에를 사용하면 효과적</span>”이라고 소개했다. <br/> <br/>최근 부산에서 아토피로 고생하던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33)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상에 떠도는 무분별한 의학정보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br/> <br/>김씨는 검증되지 않은 의학정보로 딸의 아토피 치료가 잘못된 것을 자책하고 유서에 “<span class='quot2'>스테로이드제 연고를 과다 사용해 딸이 쿠싱증후군에 걸렸다</span>”는 내용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br/> <br/>22일 취재팀이 한 포털사이트 질문게시판에 ‘아토피 치료’라는 검색어를 입력한 결과 이달 들어서만 1500여개의 아토피 치료 관련 글이 쏟아졌다. 각 질문에는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10여개에 이르는 답변 글이 이어졌다. 병원 홍보글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의학정보, 민간요법, 개인 경험담까지 답변도 가지각색이었다. <br/> <br/>아토피 외에도 감기에서 화상, 장염, 허리디스크, 골절, 각종 암에 이르기까지 내·외과는 물론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종합병원이 무색할 만큼의 의학정보가 홍수를 이뤘다. <br/> <br/>인터넷상에 떠도는 잘못된 의학정보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09년에는 치아교정을 받아오던 20대 여성이 인터넷상에 ‘잇몸이 약하면 교정이 불가능하다’, ‘평생 교정기를 끼고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읽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8년에는 부모가 중학생인 아들에게 인터넷상에 올라온 아토피 치료 민간요법을 따라 했다가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이 학생은 얼굴을 비롯한 온몸이 새까맣게 변하고 수차례 기절을 반복한 뒤에야 한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br/> <br/>이같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인터넷상의 잘못된 의학정보를 가려낼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을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3'>인터넷상의 잘못된 정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span>”면서 “<span class='quot3'>인터넷상의 정보는 참고로 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span>”고 설명했다. <br/> <br/>박영준·권이선 기자 yjp@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86.txt

제목: 불임, 임산부유산 유발 전자파 원천 차단하는 제품 ‘인기’  
날짜: 20140121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1132708001  
본문: 최근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전자기기 및 스마트폰 사용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자제품에서 생성되는 전자파는 과도하게 노출 될 경우 면역체계의 교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뇌종양· 신경통· 암 발병률 증가 등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었을 시 임신·출산에 더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데, 그 피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자활동감소 및 불임으로 2011년 영국 데일리 메일이 소개한 아르헨티나 생식연구기관의 설명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이상 와이파이가 연결된 매개체(스마트폰· 노트북 등)를 사용할 경우 25% 이상의 정자들이 움직임을 멈췄고, 9%는 DNA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임산부의 자연유산이다. 미국임신협회는 카페인· 흡연· 음주와 더불어 임산부의 전자파 노출이 유산을 야기하는 잠재요인으로 보고 유산위험성 감소를 위해 임산부의 전자파 차단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2010년 미국 유타대학의 간디 박사는 “전자파의 투과율이 뼈 두께의 차이로 어린이와 여성에게 최대 196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자연유산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태아성장 및 발달저해다. 2010년 UCLA 공중보건의학대학의 키페츠 박사는 임신기간에 전자파에 노출될 경우 세포의 성장· DNA 증식· 뇌세포 기능에 영향을 미쳐 그 피해가 일생 동안 지속되거나 유전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대표적인 아동 증후군에는 ADHD(집중력장애과잉행동증후군)와 과민행동반응 등이 있다. 현재 임산부용품 시장에서는 태아의 산모를 위한 여러 가지 전자파 차단 제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저주파 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의 무선기기, 특히 와이파이 등에서 방출되는 고주파 전자파를 차단하면서도 국제적으로 인증까지 받은 업체는 극히 드문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방송통신 최고 관리기관인 'FCC'와 미국 상무부 산하 미국 연방 표준기술원인'NVLAP'(미국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증)을 통해 인증된 섬유소재로 제작된 전자파 차단제품인 ‘벨리아모’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미 전자파차단에 대한 관심이 높은 미국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타임지 등 저명한 외신들이 ‘벨리아모가 전자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이라고 극찬한 바 있어, 해외 임산부들에게는 필수적인 임신·출산용품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벨리아모는 중금속이나 독성염료를 사용하지 않은 고품질의 면과 고전도 은 섬유인 레디아실드 원단(RadiaShield®Fabric)으로 구성되어 유입되는 전자기장을 완화해주고 저주파에서 고주파를 아우르는 영역(10MHz~8000MHz)에서 99.9%의 차단율(40~70dB)을 보인다. 또한 일률적인 디자인에서 탈피해 전자파차단 담요· 밴드· 수유가리개 등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사용돼 임산부의 활용을 고려하면서 선택의 폭을 넓힌 것도 인기의 비결이다. 벨리아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미 해외 임산부들에게는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 벨리아모가 널리 이용되고 있었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국내 임산부,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임산부 가정은 물론 전자파 노출 위험이 큰 남녀직장인들에게까지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span>”고 전했다. 벨리아모는 제품 판매 외에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정보와 임산부와 전자파의 관계, 전자파차단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와 제품은 홈페이지(www.bellyarmor.co.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87.txt

제목: 불임, 임산부유산 유발 전자파 원천 차단하는 제품 ‘인기’  
날짜: 20140121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110013276038  
본문: 최근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전자기기 및 스마트폰 사용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br/> <br/>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자제품에서 생성되는 전자파는 과도하게 노출 될 경우 면역체계의 교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뇌종양· 신경통· 암 발병률 증가 등을 야기할 수 있다. <br/> <br/>특히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었을 시 임신·출산에 더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데, 그 피해는 다음과 같다. <br/> <br/>먼저 정자활동감소 및 불임으로 2011년 영국 데일리 메일이 소개한 아르헨티나 생식연구기관의 설명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이상 와이파이가 연결된 매개체(스마트폰· 노트북 등)를 사용할 경우 25% 이상의 정자들이 움직임을 멈췄고, 9%는 DNA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br/> <br/>다음으로는 임산부의 자연유산이다. 미국임신협회는 카페인· 흡연· 음주와 더불어 임산부의 전자파 노출이 유산을 야기하는 잠재요인으로 보고 유산위험성 감소를 위해 임산부의 전자파 차단을 권고하고 있다. <br/> <br/>이에 2010년 미국 유타대학의 간디 박사는 “전자파의 투과율이 뼈 두께의 차이로 어린이와 여성에게 최대 196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자연유산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r/> <br/>또 태아성장 및 발달저해다. 2010년 UCLA 공중보건의학대학의 키페츠 박사는 임신기간에 전자파에 노출될 경우 세포의 성장· DNA 증식· 뇌세포 기능에 영향을 미쳐 그 피해가 일생 동안 지속되거나 유전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대표적인 아동 증후군에는 ADHD(집중력장애과잉행동증후군)와 과민행동반응 등이 있다. <br/> <br/>현재 임산부용품 시장에서는 태아의 산모를 위한 여러 가지 전자파 차단 제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저주파 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의 무선기기, 특히 와이파이 등에서 방출되는 고주파 전자파를 차단하면서도 국제적으로 인증까지 받은 업체는 극히 드문 상태다. <br/> <br/>이런 가운데 미국 방송통신 최고 관리기관인 'FCC'와 미국 상무부 산하 미국 연방 표준기술원인'NVLAP'(미국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증)을 통해 인증된 섬유소재로 제작된 전자파 차단제품인 ‘벨리아모’가 인기를 끌고 있다. <br/> <br/>이미 전자파차단에 대한 관심이 높은 미국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타임지 등 저명한 외신들이 ‘벨리아모가 전자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이라고 극찬한 바 있어, 해외 임산부들에게는 필수적인 임신·출산용품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br/> <br/>벨리아모는 중금속이나 독성염료를 사용하지 않은 고품질의 면과 고전도 은 섬유인 레디아실드 원단(RadiaShield®Fabric)으로 구성되어 유입되는 전자기장을 완화해주고 저주파에서 고주파를 아우르는 영역(10MHz~8000MHz)에서 99.9%의 차단율(40~70dB)을 보인다. <br/> <br/>또한 일률적인 디자인에서 탈피해 전자파차단 담요· 밴드· 수유가리개 등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사용돼 임산부의 활용을 고려하면서 선택의 폭을 넓힌 것도 인기의 비결이다. <br/> <br/>벨리아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미 해외 임산부들에게는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 벨리아모가 널리 이용되고 있었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국내 임산부,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임산부 가정은 물론 전자파 노출 위험이 큰 남녀직장인들에게까지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span>”고 전했다. <br/> <br/>벨리아모는 제품 판매 외에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정보와 임산부와 전자파의 관계, 전자파차단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와 제품은 홈페이지(www.bellyarmor.co.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88.txt

제목: 아토피, 알레르기에 약한 우리 아이를 위한 흥국화재 키즈보험  
날짜: 20140121  
기자: 세계파이낸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1100000346  
본문:  태광그룹 금융계열사 흥국화재보험(대표이사 윤순구)이 태아·어린이 전용 보험을 내놨다. 21일 흥국화재는 태아·어린이의 치과 질환, 아토피?천식 등 환경 질환, 암 등 중증 질환, 납치 등 위험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행복한 파워키즈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흥국화재 측은 “<span class='quot0'>이 상품은 기존 태아·어린이보험 상품에 비해 가입연령,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질병담보 등이 추가 확대되는 등 어린이보험 상품의 장점을 한데 모았다</span>”고 강조했다.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들어 크게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폐렴 등 환경성 질환 입원비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 희귀난치성질환 입원비 및 수술비,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비, 가와사키병 진단비, 인슐린 의존 당뇨병 진단비 등의 중대한 질병까지도 폭넓게 보장한다. 보장금액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대부분의 어린이보험 상품은 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아가 인큐베이터 이용시 1일 보장금액이 5만원이다. 하지만 ‘행복한 파워키즈보험’은 업계 최고인 1일 10만원을 보장한다. 일반암 진단비는 5000만원, 어린이에게 주로 발생하는 암에 대해서는 최고 8000만원까지 보장한다.또한 생활 속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괴, 납치, 인질 등과 같은 각종 위험사고에 대해서도 피해를 보장해준다. 아울러 식중독 감염 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태아부터 30세까지는 유치(젖니)에서 영구치까지의 치과치료 보장이 가능해 따로 덴탈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각종 진단금과 수술비, 입원비 등을 10세, 15세, 18세, 20세, 24세, 27세, 30세, 80세, 100세까지 총 9가지 만기기간 중에서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보험 가입 시 다자녀 가구 우대를 위해 가입자의 형제 1인당 보험료의 3%, 최고 6%를 할인해주고, 영어 애니메이션 창작동화 CD를 제공해 주는 혜택도 있다.김남희 세계파이낸스 기자 nina1980@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89.txt

제목: 체내 단백질 형성 제어 분자스위치 발견  
날짜: 20140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110013279694  
본문: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 공동연구팀이 암치료와 뇌질환의 메커니즘을 규명할 단서를 찾아냈다. <br/> <br/>카이스트(KAIST)는 바이오 및 뇌공학과 최명철 교수와 송채연 연구교수가 미국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대학, 이스라엘 히브루대학과 공동으로 세포분열과 세포 간 물질수송에 도구로 사용되는 단백질 나노튜브의 형성과정을 제어하는 분자스위치를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br/> <br/>사람 몸속에서 염색체를 양쪽으로 잡아당겨 세포를 분열시키는 방추사(실 모양의 단백질)는 튜브 형태의 마이크로튜불(microtubule)로 이뤄져 있다. 굵기는 25나노미터에 불과하다. <br/> <br/>연구팀은 싱크로트론 엑스선 산란장치(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강력한 엑스선을 발생시키는 장치)와 투과 전자현미경을 이용해 단백질 나노튜브의 자기조립 구조를 1나노미터 미만의 정확도로 측정했다. <br/> <br/>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스(Nature Materials)’ 19일자에 실렸다. <br/> <br/>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90.txt

제목: 차례상 차릴 쇠고기는 선홍색… 과일은 매끈해야 좋다  
날짜: 20140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110013278690  
본문: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가정에서는 조상에게 올릴 좋은 고기나 과일 등 음식을 고르는 데 많은 신경을 쓴다. 육안으로 봐서 좋은 음식물을 고르기는 쉽지 않지만 몇 가지 점만 유의하면 차례상에 올리기에 적합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 <br/> <br/>◆밝은 선홍색의 탄력 있는 쇠고기가 좋아 <br/> <br/>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설의 대표적인 음식인 떡국을 끓이는 데 필요한 사골은 자른 면에 붉은색 얼룩이 있고 하얀 연골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좋은 것으로 끓였을 때 국물이 잘 우러난다. 쇠고기는 밝은 선홍색의 살코기와 유백색의 지방이 잘 조화되고 탄력 있는 고기를 고르는 것이 좋다. <br/> <br/>쇠고기 탕국을 끓이기 위해서는 사태나 양지 등 국거리용 고기를 사용하는데 이 부위는 붉은색의 살코기와 지방만 있는 것보다는 근막과 같은 결합조직이 적당히 있는 것을 선택한다. 근막과 같은 결합조직은 질기지만 푹 고아 육수를 내거나 오랜 시간 끓여내면 깊은맛을 낸다. <br/> <br/>산적이나 꼬치를 만들 때는 우둔, 설도와 같은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한다. 근막이 없고 고깃결이 균일한 것을 고르면 좋다. 근육이 단단해 질길 수 있으므로 배, 무 등을 넣고 양념해 부드럽게 해준다. <br/> <br/>구이용은 선명한 선홍색을 띠면서 마블링이 적당히 있고 근막이 적은 것이 좋다. 찜용 갈비는 지방과 힘줄은 많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표면에 있는 근막은 요리 전에 없앤다. 갈비에 있는 힘줄은 구우면 단단하고 질기지만 삶으면 부드러워지면서 좋은 맛을 낸다. <br/> <br/>차례나 음식장만을 할 경우는 가정에서 선도 유지가 어려우므로 필요량을 따져 적당량을 구입하고, 음식의 종류에 따라 알맞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r/> <br/>쇠고기는 도축시기를 기준으로 진공 포장해 저온냉장온도(섭씨 0∼4도)에서 10∼14일 저장하면 자연 숙성돼 연해지고 맛이 좋아진다. 가정에서 직접 구입할 경우 날짜에 맞춰 미리 구입해 냉장상태에서 숙성해 먹으면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br/> <br/>남은 쇠고기는 반드시 섭씨 4도 이하의 저온에서 보관하고 공기와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기와 닿지 않도록 포장해야 수분증발도 막고 맛도 유지할 수 있다. 냉동 보관할 경우에도 랩으로 두껍게 포장한 후 냉동식품용 지퍼백의 공기를 최대한 빼면 표면 고기 색이 변하는 것을 막고 부패를 늦춰 저장기간을 늘릴 수 있다. 조리 육은 신선 육보다 산화 또는 변질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소비하도록 한다. <br/> <br/>◆상처나 흠집 없고 매끈한 과일 골라야 <br/> <br/>과일을 고를 때에는 전체적인 겉모양을 보고 상처나 흠집이 없고 매끈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사과는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들고 만졌을 때 단단한 것으로 골라야 하며, 배는 전체적인 느낌이 맑고 투명하며 잘 익어 노란빛이 도는 것이 좋다. 감은 얼룩이 없고 둥근 사각형의 모양이 제대로 잡힌 것이 고품질이다. <br/> <br/>남은 과실을 보관할 때는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사과에서 성숙 촉진 호르몬인 에틸렌이 발생해 배와 감의 연화를 촉진하므로 사과와 배, 단감은 따로 밀봉해 섭씨 1도 내외의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 <br/> <br/>과일에는 다양한 기능성이 함유돼 있어 고지방 고칼로리 차례 음식과 함께 먹는다면 맛과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사과에는 생리활성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항산화력이 높고 대장암과 간암세포의 증식억제 효과가 있으며 콜레스테롤 섭취 함량을 낮춤으로써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다. 배는 동의보감에 ‘기침과 천식에 효과적이고 갈증을 덜고 술독을 풀어 대·소장을 보호하며 열로 인한 목과 코의 통증 해소에 좋다’고 기재돼 있으며 간의 중성지방을 줄이고 혈중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감의 황색 베타크립토잔틴은 암 예방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 타닌은 고혈압과 뇌졸중을 억제하며 혈중 지질과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는 데 기여한다. 특히 이번 설은 작은 과실의 생산량이 늘어 작은 과실을 구매한다면 맛과 영양, 비용 모두를 잡을 수 있다. <br/> <br/>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91.txt

제목: ‘13월의 봉급’연말정산…꼭 살펴봐야 할 절세 방법은  
날짜: 2014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0100000190  
본문: 세계일보 제공국세청이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개통하면서 지난해분 연말정산을 위한 근로자들의 손길도 분주해졌다.연말정산은 세법이 복잡한 만큼 근로자들로서도 쉽지 않은 내용이 많다. 그러나조금만 더 꼼꼼하게 공제 항목 및 자신의 적용 여부를 살피면 그만큼 ’13월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세법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20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 우선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인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항목을 꼽을 수 있다.이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즉 1인당 소득금액이 101만원만 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그러나 소득금액과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소득은 보통 세전 수입, 즉 매출이나총급여를 의미한다. 반면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아내의 총 급여가 500만원이면 이 금액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율(80%)을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되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사업을 하는  부친의 매출이 1천만원이라도 필요경비가 900만원이 넘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서 역시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들 소득은 100만원이 넘어도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부친이  벼농사로 연소득 100만원을 넘었어도 ’작물재배업 농업소득’은 비과세임 만큼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성인 자녀가 일용직으로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어도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비과세나 분리과세소득에는 일정 규모의 농가 부업 소득,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 소득,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 복권당첨 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도 포함된다.맞벌이 부부는 누가 지출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의 수혜 여부가 엇갈릴 수 있다. 부부의 급여 차가 많으면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 등을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만큼 과표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급여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최대한 동일하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게 유리하다.또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공제 등 특별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인 만큼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이 이를 지출해야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한 만큼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지출한 금액이 위 요건에 미달하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때에는 한쪽으로 몰아서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로 돼야 가능하다. 따라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종신보험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면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세를 넘으면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의 대학교육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중·고교생의 경우 한도는 300만원이다.암이나 중품, 만성신부전증 등 항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공제를 받을수 있다.근로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이 대표적이지만 1년이상 사업을 한 개인이나 법인  대표는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도 각각 300만원, 48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한화생명 FA(재무설계)추진팀의 정원준 세무사는 19일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라며 “<span class='quot0'>특히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분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만큼 이번 연말정산이 마지막 소득공제일 수 있다</span>”고 말했다.온라인 뉴스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92.txt

제목: 연말정산 시즌…꼭 살펴봐야 할 절세 방법  
날짜: 2014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0100000236  
본문: 국세청이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개통하면서 지난해분 연말정산을 위한 근로자들의 손길도 분주해졌다.연말정산은 세법이 복잡한 만큼 근로자들로서도 쉽지 않은 내용이 많다. 그러나 조금만 더 꼼꼼하게 공제 항목 및 자신의 적용 여부를 살피면 그만큼 '13월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세법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르다20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 우선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인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항목을 꼽을 수 있다.이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즉 1인당 소득금액이 101만원만 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그러나 소득금액과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소득은 보통 세전 수입, 즉 매출이나 총급여를 의미한다. 반면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아내의 총 급여가 500만원이면 이 금액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율(80%)을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되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사업을 하는 부친의 매출이 1천만원이라도 필요경비가 900만원이 넘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서 역시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들 소득은 100만원이 넘어도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부친이 벼농사로 연소득 100만원을 넘었어도 '작물재배업 농업소득'은 비과세임 만큼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성인 자녀가 일용직으로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어도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비과세나 분리과세소득에는 일정 규모의 농가 부업 소득,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 소득, 연간 1천2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 복권당첨 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도 포함된다.◆ 맞벌이 부부 전략이 환급 좌우맞벌이 부부는 누가 지출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의 수혜 여부가 엇갈릴 수 있다. 부부의 급여 차가 많으면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 등을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만큼 과표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급여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최대한 동일하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게 유리하다.또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공제 등 특별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인 만큼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이 이를 지출해야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한 만큼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지출한 금액이 위 요건에 미달하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때에는 한쪽으로 몰아서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로 돼야 가능하다. 따라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종신보험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면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동생·처제 등록금도 교육비 공제 가능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세를 넘으면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의 대학교육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중·고교생의 경우 한도는 300만원이다.암이나 중품, 만성신부전증 등 항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근로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이 대표적이지만 1년이상 사업을 한 개인이나 법인 대표는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도 각각 300만원, 48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93.txt

제목: [조용호의 나마스테!] 새 시집 ‘사진관집 이층’ 낸 신경림  
날짜: 2014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010013269406  
본문: 충무항에서 배를 타고 남해의 섬으로 민요기행을 떠나던 시절 신경림(79) 시인은 이제 막 50대에 접어들었고 나는 파릇한 20대 청춘이었다. 그 사이 30년이 흘렀다. 겉으로 달라진 건 팔순의 선생 얼굴에 주름이 더 늘었다는 것, 이제 그의 옛 나이 50대에 겨우 당도한 내 머리칼이 불경스럽게도 조백(早白)이라는 것, 이런 사소한 외피의 변화들만 빼면 사실 달라진 건 그리 없다. 선생은 변함없는 동안이었고, 웃을 때 짧게 안으로 말아서 내는 경쾌한 성음은 여전히 정겨웠다. 11번째 시집 ‘사진관집 이층’(창비)이 나와 오랜만에 인사동에서 만난 그날은 이전과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선생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살아온 날들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여러번 말했다. <br/> <br/>“<span class='quot0'>지금도 밤늦게 술주정 소리가 끊이지 않는/ 어수선한 달동네에 산다/ 전기도 없이 흐린 촛불 밑에서/ 동네 봉제공장에서 얻어온 옷가지에 단추를 다는/ 가난한 아내의 기침 소리 속에 산다/ 도시락을 싸며 가난한 자기보다 더 가난한 내가 불쌍해/ 눈에 그렁그렁 고인 아내의 눈물과 더불어 산다// 세상은 바뀌고 바뀌고 또 바뀌었는데도/ 어쩌면 꿈만 아니고 생시에도/ 번지가 없어 마을 사람들이 멋대로 붙인/ 서대문구 홍은동 산 일번지/ 떠나온 지 마흔해가 넘었어도/ 가난한 아내와 아내보다 더 가난한 나는/ 지금도 이 번지에 산다</span>”(‘가난한 아내와 아내보다 더 가난한 나는’) <br/> <br/>이 시에 등장하는 아내와는 7년 정도 살다 사별했다. 일곱 살, 네 살, 두 살 된 아이들을 남겨둔 채 아내는 고생만 하다 떠났다. 젊은 아내를 잃은 애통은 이전 시집들에도 간간이 배어나온다. 이를테면 “아내는 눈 속에 잠이 들고/ 밤새워 바람이 불었다/ 나는 전등을 켜고/ 머리맡의 묵은 잡지를 뒤적였다”(‘고향에 와서’)랄지, “아내가 고향에 가 묻히던 날은 비가 내렸다/ …비가 내렸다 그녀와 헤어지던 그 가을/ 무력한 내 손에 꽂히던 연민과 경멸의 눈빛/ 머리칼이 젖고 목덜미가 젖고 나뭇잎이 젖고/ 우리들 오랜 떨림과 기쁨이 젖고”(‘비’)처럼 죽은 아내를 시에서 불러내곤 했다. 그 아내가 이번 시집에도 다시 나와 눈물 그렁거리며 ‘자기보다 더 가난한 시인’을 불쌍해한다. <br/> <br/>1970년대 ‘안양 비산동 489의 43’에서 시인은 아버지와 할머니와 아내를 모두 잃었다. 100호 남짓한 동네에 초상 난 집이 한 곳도 없었는데 유독 시인의 집에서만 세 번이나 상을 치렀다고 했다. 아버지는 중풍의 반신불수로, 할머니는 치매로, 아내는 암으로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 시절 사찰기관에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형사가 출근해 그의 동태를 살폈고, 다니던 출판사마저 ‘기관’의 뻔질난 출입 때문에 그만두어야 했다. 집안의 어두운 환경에다 실직까지 겹쳤으니 최악의 시절이었던 셈이다. 되돌아보면 그나마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암울한 시절이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다고 했다. 핍박이 아무리 심해도, 그럴수록 들떠서 활기가 넘치던 때였다고 했다. <br/> <br/>“<span class='quot0'>그리워서 찾아가는 나의 젊은 날이 싫다./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빈둥대다가 저녁이 되면/ 친구들을 만나 터무니없이 들뜨던 술집이 싫고,/ 통금에 쫓겨 헐레벌떡 돌아오면 늦도록 기다리다/ 문을 따주던 아버지의 앙상한 손이 싫다./ 중풍으로 저는 다리가 싫고/ 죽은 아내의 체취가 밴 달빛이 싫다./ 지금도 꿈속에서 찾아가는, 어쩌다 그리워서 찾아가는/ 어쩌면 다시는 헤어나지 못한다는,/ 헤어나도 언제가 다시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던,/ 나의 마흔이 싫다.</span>”(‘나의 마흔, 봄’) <br/> <br/>그 시절이 그립다면서도 시에서는 정작 ‘싫다’를 연발하지만, 그립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거니와 오히려 더 간곡한 그리움이 담긴 반어법으로 읽힌다. 팔순에 이른 생물학적 나이 때문인지 이번 시집에는 유난히 슬픔이 배면에 깔린 듯하다. 한글로 시를 써온 반세기 동안 신경림 시인은 시단은 물론 독자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은 ‘성공한’ 시인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왜 그리 행복하지 않느냐고 재우쳐 묻자 시인은 “사람 사는 게 슬픈 거 같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하여간 뜻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뜻대로 살아도 별게 아니고…”라고 부연했다. 태생이 슬프다는 말도 납득하겠고 뜻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에는 동의하겠지만 ‘뜻대로 살아도 별게 아니다’는 시인의 허무는 날카롭게 가슴을 벤다. <br/> <br/>서울 인사동 골목길에서 만난 신경림 시인. 그는 “<span class='quot0'>세상의 소음이 전생의 꿈만 같이 아득해서/ 그립고 슬프다</span>”고 새 시집에 썼다. <br/>남정탁 기자시인은 어린 시절부터 고향에서 제일 먼 곳,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서 살고 싶은 게 꿈이었다고 했다. 1990년대에 이를 때까지는 여권이 발급되지 않아 나라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고 대신 전국을 민요기행 등을 빙자해 떠돌아다녔다. 1994년 처음으로 여권이 나와 그때부터는 1년에 서너번씩 줄기차게 해외여행을 다녔다. 주로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같은 나라에서 초청을 받아 나갔고, 이집트나 쿠바 멕시코 콜롬비아까지 다녀왔다. 시인은 정작 그리 많은 곳을 돌았어도 정릉 골목에 붙박여 30년을 살았던 어머니보다 더 많이 본 건 없는 것 같다고 썼다. <br/> <br/>“<span class='quot0'>어머니가 본 것 수천배 수만배를 보면서,/ 나는 나 혼자만 너무 많은 것을 보는 것을 죄스러워했다./ 하지만 일흔이 훨씬 넘어/ 어머니가 다니던 그 길을 걸으면서,/ 약방도 떡집도 방앗간도 동태 좌판도 없어진/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길음시장까지 걸으면서,/ 마을길도 신작로도 개울도 없어진/ 고향집에서 언덕밭까지의 길을 내려다보면서,/ 메데진에서 디트로이트에서 이스탄불에서 끼예프에서/ 내가 볼 수 없었던 많은 것을/ 어쩌면 어머니가 보고 갔다는 걸 비로소 안다.//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길음시장까지,/ 서른해 동안 어머니가 오간 길은 이곳뿐이지만.</span>”(‘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길음시장까지’) <br/> <br/>요즘도 홀로 두세 시간씩 버스를 타고 낯선 곳으로 가서 골목길을 헤매기도 하고 찻집에 앉아 있다가 돌아오는 게 소소한 일상이라고 했다. 혼자 있는 게 전혀 외롭지 않고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한다. 두보(杜甫)를 닮은 ‘한국의 시성(詩聖)’이라는 별칭이 썩 어울린다. 신경림 시인이 젊은 시절 시가 아닌 소설도 열심히 썼다는 사실은 모르는 이가 많다. 주변에서 시가 더 맞는 것 같다고 충고했을 뿐 아니라 본인도 진득하지 못한 자신의 성정을 돌아보고 포기했다고 한다. 그는 이번 시집 표제작 ‘사진관집 이층’에서 자신의 오래된 꿈을 담담하면서도 명징하게 고백한다. <br/> <br/>“사진관집 이층에 하숙을 하고 싶었다./ 한밤에도 덜커덩덜커덩 기차가 지나가는 사진관에서/ 낙타와 고래를 동무로 사진을 찍고 싶었다. /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첫날을/ 다시 그 삐걱대는 사진관집 이층에 가 머물고 싶다.” <br/> <br/>시인은 이미 예전 시편에서 “<span class='quot1'>저승인들 무어 다르랴 아옹다옹 얽혀 살던/ 내 가족 내 이웃이 다 거기 가 살고 있는데</span>”(‘강 저편’)라고 직설적으로 읊은 적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란 이승의 경계 너머를 이르는 말일 터이다. 동안의 시인이 이쪽 경계에서 더 써야할 시를 기다리는 독자들은 많다. 그의 절친이자 고등학교 선배인 유종호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이 그날 인사동에 나와 “<span class='quot2'>늙을수록 시에서 허풍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 훌륭한 시를 쓸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2'>행복하지 않은 대신 시를 건지지 않았느냐</span>”고 옆에서 거들었다. 시인에게 물으려다 말았다, 다시 태어나 세속의 행복과 시 중에서 택일할 수 있다면 어느 걸 고르겠느냐고. <br/> <br/>조용호 문학전문기자 jho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94.txt

제목: “늘어나는 만성병… 서양의학으론 한계, 통합의학이 대안”  
날짜: 2014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1910013257876  
본문: “서양 의학은 병을 진압하고 제거하려는 성격 때문에 항생제, 진통제 등 ‘항(抗)’과 ‘진(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반면 동양에서는 병을 누르지 않고 자연치유력을 발현할 수 있게 도와주죠. 통합의학은 동양적 치료를 기반으로 효과가 입증된 서양의술을 접목한 새로운 의학이에요.” <br/> <br/>통합의학은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돼 1990년대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증상을 누르는 것에 집중하는 서양의학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대체의학’, ‘보완의학’, ‘보완대체의학’, ‘통합의학’으로 개념이 발전했다. 아직 생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침·뜸 같은 한의학부터 요가·명상·단식·아로마 요법까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각종 운동을 의술에 포함하고 있다. <br/> <br/>인도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를 전공한 이거룡(56) 선문대 통합의학대학원장은 “<span class='quot0'>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응급 처방은 서양의학을 따라야겠지만 현대 서양의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암과 알레르기, 각종 만성병에는 면역력을 길러주는 전인(全人)치료인 통합의학이 필요하다</span>”고 설명했다. <br/> <br/>통합의학은 인체의 면역력·자연치유력을 높이고 병의 원인을 찾는다는 점에서 한의학과 비슷하다. 그러나 인도·중국·티베트 등 5000년 역사를 품은 세계의 전통의학뿐만 아니라 서양의 과학성을 함께 추구하는 점이 다르다. 예를 들어 통합의학의 한 방법인 명상을 할 때면 가만히 앉아서 홀로 감상에 젖게 하지 않는다. 뇌파 분석을 하며 상태를 점검한다.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만뜨라(기도·주문)도 외게 한다. <br/> <br/>체한 사람에게 장 운동을 억지로 이끌어내는 서양과 달리 통합의학은 위장이 자연스럽게 정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약을 통해 몸을 보호하면서 인도의 ‘5가지 정화법’을 이용한다. 구토, 관장, 하제(설사), 비강청소, 혈액정화 등이다. 온몸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하면 인체의 독소가 한 곳으로 모인다. 그 다음 마사지를 통해 몸을 최대한 부드럽게 하고 위아래로 인체의 찌꺼기를 빼낸다. 이 원장은 “<span class='quot1'>구토를 자주 하면 몸에 해롭지만 주기적으로 통합의학적 방법으로 시도하면 오히려 면역력이 증진된다</span>”고 설명했다. <br/> <br/> 이거룡 선문대 통합의학대학원장은 “<span class='quot0'>수술이 필요한 응급 처방은 서양의학을 따라야겠지만 현대 서양의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암과 알레르기, 각종 만성병에는 면역력을 길러주는 통합의학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br/>허정호 기자이 원장은 “예전에는 항생제 처방이 필요한 세균성 감염 질환이 많았지만 이제는 잘못된 습관과 고령화에 따른 만성병과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증상 제거에 집중하는 서양의학으로는 만성병을 치료하기 어렵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타고 통합의학이 등장했다”고 덧붙였다. <br/> <br/>1990년대 미국 듀크대·컬럼비아대·하버드대 등 주요 대학이 통합의학센터를 설립했다. 우리나라도 그 필요성을 받아들여 2008년 고려대 안암병원이 통합의학센터를 개설했고, 지난해 5월 부산대 의대도 같은 시설을 만들었다. 학문적으로는 2010년 선문대가 가장 먼저 통합의학대학원을 설립했다. 이후 2010년 차의과대학도 대체의학대학원을 통합의학대학원으로 개명했다. 선문대 통합의학대학원 ‘자연치유전공’은 인도의 아유르베다(요가·명상·아로마), 한의학(침구·경열), 서양의 양자의학·면역학·내분비학·동종요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수기재활전공’은 카이로프랙틱(비수술 척추교정법) 전문가를 양성한다. <br/> <br/>아유르베다 요법에 따르면 겨울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선 안과 밖의 온도를 비슷하게 설정해야 한다. 춥다고 너무 따뜻하게 데우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통합의학은 수술치료 같은 일반인이 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니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생활 속 처방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주로 침뜸·요가·식품 등 관련 업계에 종사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쌓으려는 학생들이 선문대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들에게 의료인 자격증이 주어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2011년 일본 니가타 대학 자연치유클리닉을 답사했고 지난해 남인도 아유르베다 센터를 방문하는 등 국내외에서 경험을 쌓고 있다. 2011년 초 선문대 통합의학대학원장이 된 이 원장은 2010년까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심신통합치유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동국대 인도철학과 연구교수, 인도 마드라스대학 교환교수를 역임했다. <br/> <br/>이 원장은 “<span class='quot1'>의사·한의사 같은 제도권 의료인도 현대인의 만성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통합의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3의 의료영역, 예를 들어 요가명상치료나 카이로프랙틱 등을 제도권 의료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95.txt

제목: ‘황금무지개’ 정일우, 유이와 연인선언에 시청률 UP ‘경쟁작 없다’  
날짜: 20140119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19100000155  
본문: MBC 주말 특별기획드라마 ‘황금무지개’가 정일우(도영 역)와 유이(백원 역)의 활약과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17%대 시청률에 근접했다.‘황금무지개’의 18일 방송분은 시청률 16.9%(TNmS/서울수도권 기준)를 기록하며 13%대와 11%대에 머문 동시간대 경쟁작들에 앞서며 동시간대 드라마 시청률 1위를 굳건히 지켰다.지난 방송분에서 뜨거운 키스를 나눴던 도영은 백원에게 “<span class='quot0'>내 입술과 충돌한 뒤 도주했다</span>”며 재치 있는 말들로 유이와 달콤한 만남을 이어갔고 유이 역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하지만 함께 백원네 횟집을 찾아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두 사람을 향해 만원(이재윤)이 애틋한 눈길을 보내며 백원에 대한 숨겨온 마음을 억누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또 한주(김상중)가 영혜(도지원)에 대해 “<span class='quot0'>항상 여동생으로 생각해왔는데 언젠가부터 여자로서의 애정이 싹텄다</span>”고 고백을 한 사실을 백원으로부터 전해 듣고 “<span class='quot0'>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span>”며 백원에 대한 사랑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한편, 황금수산을 차지하기 위한 천원(차예련)의 야심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며 진기(조민기)와의 대결 역시 노골화되며 정심(박원숙)을 자신의 편으로 돌리려는 공작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천원은 암으로 사망선고를 받고 병보석으로 출소한 친아버지 동팔(서현철)을 “<span class='quot1'>철없는 딸을 매일 때리고 책을 불사른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다</span>”라며 매몰차게 대하고 도영은 동팔이 천원의 친아버지임을 확신하고 천원의 정체를 폭로하려는 계획을 진행했다.도영과 백원의 사랑과 이를 지켜보는 만원의 안타까운 눈빛, 황금수산을 차지하기 위한 천원과 진기의 대결 등이 큰 흥미를 이끌고 있는 ‘황금무지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55분 방송된다.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96.txt

제목: 피부노화의 적 ‘자외선” 싫다면 비타민D 어떻게 보충할까  
날짜: 2014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19100000177  
본문: 세월이 지날수록 기미와 잡티가 많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피부의 노화증상을 완화하려면 무엇보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써야 한다. 그래서 많은 피부과 전문의들이 일년내내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권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외선B를 받을 때 체내에서 합성되는 비타민D 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겨울에는 자외선양도 줄어드는데다 노출부위가 거의 없어 더 부족해지기 쉽다. 비타민D, 어떻게 보충하는 것이 좋을까?◆비타민 D의 역할보통 아이들 키를 키우기 위해 칼슘영양제를 먹이는 엄마들이 많은데, 이 때 반드시 병행해서 먹여야 할 영양제가 바로 비타민 D이다. 비타민 D는 체내에 흡수된 칼슘을 뼈와 치아에 축적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흉선에서 면역세포가 생산되도록 도와주고, 신장에서 칼슘과 인산염이 재흡수되는 것을 돕는다. 그래야만 혈액 내에 있는 칼슘과 인산염의 농도가 적절히 유지되고, 이렇게 유지되어야만 뼈가 단단해지는 석회화가 잘 이루어진다. 또한, 비타민 D는 암의 위험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의 양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부족할 경우, 혈액의 칼슘과 인의 농도가 낮아져 골격의 석회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뼈에서 탈무기질화가 일어나게 된다. 당연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의 경우 키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골격이 약화되고 압력을 이기지 못해 휘게 되는 '구루병'에 걸리게 된다. 성인들은 골연화증(osteomalacia)이 나타나게 되는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뼈의 골화가 미약해 엉덩이, 척추 등이 골절되기 쉽다. 이때에는 비타민 D 대사 뿐 아니라 칼슘의 흡수도 저하되어 저칼슘혈증이 동반되며, 이차적으로 갑상선기능부전증과 심각한 뼈 상실이 초래될 수 있다. 반대로, 비타민 D를 권장량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혈액과 소변에 지나치게 많은 칼슘이 함유되어 다양한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다. ◆자외선 쬐기 싫다면, 주사로 비타민D 보충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93.3%, 남성의 86.8%가 혈중 비타민D 농도가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바깥 활동량이 적은 노인들이나 하루종일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햇빛 노출기회가 적은데다 신장기능의 저하로 인해 비타민D가 부족해지기 쉽다. 비타민D는 하루 30분 정도 햇빛을 쪼이면 우리 신체내에서 합성되는데, 음식으로는 달걀노른자, 등푸른생선, 간 등에 많이 있다. 하지만 몸에 지나치게 많은 비타민D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영양제를 과량으로 먹는 것도 좋지 않다. 평소 햇빛을 쬐기 어렵거나 식품의 기호가 많지 않아 식품 섭취로도 비타민D 섭취가 쉽지 않다면, 간편하게 주사를 이용해보면 어떨까. 최근에 선보이고 있는 비타민D 주사는 주사 1회에 5mg(2만IU)만큼의 비타민D를 제공하며, 한번 맞으면 3개월 동안 결핍없이 지낼 수 있다. 겨울은 장갑을 착용할 경우 얼굴 외에는 햇빛에 노출되는 신체부위가 없는데다 얼굴에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러 비타민D 섭취를 위한 식단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 비타민D가 더 부족해지기 쉬운 계절이다. 특히, 야외활동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사를 통한 간편한 비타민D 보충요법을 고려해볼만하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글 / 강한피부과의원 강진수 원장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97.txt

제목: 개그우먼 이희경 황당 제안 “육식을 금지하라!”  
날짜: 2014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19100000157  
본문: 개그우먼 이희경이 “육식을 법으로 금지하자”며 ‘육식금지특별법’을 제안했다.19일 밤 9시 10분에 방송되는 tvN 토크쇼 ‘쿨까당’에선 공개 다이어트를 통해 20주 만에 32kg를 감량한 '헬스걸' 이희경이 게스트로 출연해 “<span class='quot0'>육식에도 금연처럼 강력한 억제책이 필요하다</span>”며 이 같은 법안을 제안한다.이번 방송에서 이희경은 “<span class='quot0'>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비만의 주범인 육식주의 식생활에도 칼바람이 불 때가 왔다</span>”며, “<span class='quot0'>탄산음료에 ‘비만세’를 부과하듯 고기에도 ‘육식세’를 징수하고, TV에서 고기 먹는 장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강력한 억제책을 도입하자</span>”고 주장했다.이에 19일 ‘쿨까당’에선 농담처럼 들리는 이 기상천외한 법안을 두고 ‘육식’과 ‘채식’의 장단점을 치밀하게 파고드는 논의가 펼쳐져 눈길을 끈다. MC 곽승준과 남궁연을 비롯해 고도비만과 위밴드 연구회 강세훈 회장,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기도 한 신재원 의학전문기자, ‘고기 전도사’인 주선태 경상대 축산학과 교수, 채식주의 보디빌더 도혜강 씨가 출연해 육식이 진짜 비만의 주범인지, 채식은 확실히 육식보다 몸에 좋은 것인지, 건강한 삶을 위한 식단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벌인 것.특히 이번 방송에선 “<span class='quot1'>고기를 줄인다고 다이어트가 되지 않는다</span>”, “<span class='quot1'>과일과 채소만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다</span>”, “<span class='quot1'>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span>”, “<span class='quot1'>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정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span>”라는 등 우리의 통념을 뒤집는 육식과 채식에 관한 비밀을 풀어내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육식이냐 채식이냐를 선택하기에 앞서 건강한 식단의 조건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시종일관 웃음을 유발하는 재미있는 토론을 통해 건강한 삶의 힌트를 얻게 될 tvN ‘쿨까당’ 제60회 ‘육식금지특별법’ 편은 19일 밤 9시 10분에 방송된다.강민영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98.txt

제목: [WT논평] Another phony scare story  
날짜: 2014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1910013258159  
본문: Next time headlines wax hysterical about global warming, fracking or other eco-scares, remember the recent Times of London article that claimed “a toxic cocktail” of chemicals is “destroying Britain’s amphibians.” <br/> <br/>Studies show even low concentrations of pesticides and other chemicals have a “powerful effect” on amphibian immune systems, causing diseases that have been around for decades to “suddenly become much more deadly,” the story said. It quoted Elizabeth Salter Green, director of CHEM Trust, which sponsored the “research,” as saying “the European Union needs to take a lead on both identifying and controlling the risks.” <br/> <br/>The plausible-sounding story has some credibility problems, however. CHEM Trust is financially supported by Greenpeace, which spends millions of dollars annually opposing pesticide spraying to prevent malaria that kills nearly a million people annually. <br/> <br/>Moreover, the CHEM Trust paper was an advocacy brief - a summary of research papers and conclusions selected to support claims that chemicals pose unacceptable risks. <br/> <br/>That arbitrary standard focuses on risks of using chemicals - but never on risks of not using them. It spotlights risks a chemical might theoretically cause, but ignores risks it would reduce or prevent. It is another potent weapon for anti-technology activists: whatever they support complies with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whatever they oppose violates it. <br/> <br/>The Times article was apparently based on exclusive access to the embargoed report - recalling the infamous 2012 Seralini case, involving anti-biotechnology activists purporting to prove genetically modified foods cause cancer in rats. Accompanied by gruesome photographs of lab rats with massive tumors, the study was released under an “embargo” to selected journalists, who signed an agreement not to show the paper to outside scientists before the media covered the story. <br/> <br/>That meant the journalists could not seek unbiased comments or provide any balance or corrections to the activist storyline. Within 24 hours after the embargo was lifted, independent scientists exposed almost every aspect of the “study” as flawed and even fraudulent. New York Times blogger Carl Zimmer called the episode “a rancid, corrupt way to report about science.” <br/> <br/>But Gillis-Eric Seralini got the headlines he wanted, as “mainstream” news outlets ran the story. In this case, so did Greenpeace and CHEM Trust. <br/> <br/>주류언론의 편파적인 생태 기사 보도 <br/> <br/>폴 드리슨(美 미래건설위원회 정책고문) <br/> <br/>다음에 지구온난화, 파열공법, 다른 생태 공포에 관해 언론매체들이 신경질적인 머리기사 제목으로 보도할 때는, 몇몇 화학물질의 “유독한 혼합”이 “영국의 양서류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한 런던 타임스의 최근 기사를 기억하자. <br/> <br/>살충제와 다른 여러 가지 화학물질은 농도가 낮은 경우일지라도 양서류의 면역체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 지난 수십 년 동안 존재해 온 몇몇 질병을 “갑자기 훨씬 더 치명적으로 변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이 기사는 말했다. 이번 “연구”를 후원한 CHEM 트러스트의 사무국장인 엘리자베스 솔터 그린은 “유럽연합은 각종 위협을 식별하고 통제하는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이 신문은 인용 보도했다. <br/> <br/>그러나 개연성을 가진 듯이 보이는 이 기사는 몇 가지 신뢰 문제를 갖고 있다. CHEM 트러스트는 그린피스의 재정지원을 받고 그린피스는 매년 근 100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살충제 분무에 반대하는데 연간 수백만 달러를 지출한다. <br/> <br/>뿐만 아니라 CHEM 트러스트의 문서는 편파적인 옹호를 했다. 즉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제기한다는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골라낸 연구논문들과 결론의 요약이다. <br/> <br/>자의적인 그런 기준은 화학물질 사용의 위험부담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용하지 않는데 따르는 위험부담에는 결코 주목하지 않는다. 그 기준은 하나의 화학물질이 이론적으로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위험부담을 강조하지만 그 화학물질이 줄이거나 예방하는 각종 위험부담은 무시한다. 그것은 기술에 반대하는 운동가들의 또 다른 강력한 무기다. 그들이 지지하는 것은 모두 예방원칙에 따르며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모두 예방원칙에 위배된다. <br/> <br/>독점 취재한, 보도 관제된 보고서에 바탕을 둔 것이 분명한 타임스 기사는 유전자 조작 식품들이 쥐의 암을 유발한다는 것을 입증할 목적을 가진 생명공학 반대 운동가들이 관련된 2012년의 악명 높은 세랄리니 사건을 상기시킨다. 대형 종양이 생긴 실험실 쥐들의 소름끼치는 사진을 첨부한 세랄리니 연구는 선별된 언론인들에게만 “보도관제”를 조건으로 공개되었다. 해당 언론인들은 매체가 기사를 보도하기에 앞서 논문을 외부 과학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br/> <br/>그것은 해당 언론인들이 편견 없는 논평을 구하거나 운동권의 이야기에 균형을 맞추거나 혹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보도관제가 풀리고 나서 24시간 안에 중립적인 과학자들이 그 “연구”의 거의 모든 면에 결함이 있거나 심지어 기만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폭로했다. 뉴욕타임스의 블로거 칼 짐머는 그 사건을 가리켜 “과학과 관련된 부패한 보도”라고 지적했다. <br/> <br/>그러나 "주류" 뉴스 창구들이 그 이야기를 보도함에 따라 길리스-에릭 세랄리니는 원했던 대로 기사가 대서특필되도록 만들었다. 이번 경우에는 그린피스와 CHEM 트러스트가 그렇게 했다. <br/> <br/>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299.txt

제목: 개그맨 최홍림, 건강식품 마니아 “1주일간 뱀탕 먹은적도”  
날짜: 20140117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17100000201  
본문: 개그맨 최홍림이 건강식품의 애호가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오는 17일 오후 5시 30분부터 MBC퀸을 통해 방송되는 신개념 의학 토크쇼 ‘암과 나’ 4회에서는 ‘암과 건강기능식품. 득인가, 독인가?’를 주제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다룰 예정이다. 별다른 처방없이 먹어온 홍삼, 비타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 오히려 몸에 해가되는 것은 아닌지 전문가들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알쏭달쏭했던 암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본다.이 날 출연한 연예인 패널 최홍림은 건강식품 마니아가 된 일화를 밝혔다. 중학교 때 합기도 국가대표선수였다는 최홍림은 “<span class='quot0'>운동선수의 특성상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체력관리를 하라며 각종 보약과 녹용을 챙겨주셨다</span>”며 산속에서 1주일간 뱀탕을 먹으며 체력관리를 했던 일화를 공개했다. 그 후로도 칡즙을 비롯해 흑마늘, 프로폴리스에 이어 최근에는 ‘공작’요리 까지 먹어봤다며 건강식품을 향한 무한한 애정과 해박한 지식을 과시했다. 또 다른 게스트 오영실도 매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암환자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데, 이날 녹화에서 자신의 암 투병일화를 살짝 소개하고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블루베리 식초 한잔을 마신다”며 건강 비결을 전하기도 했다. MC 최은경의 진행으로 암을 극복한 이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암 전문가 군단이 벌이는 건강한 의학 토크쇼, 건강 토크 배틀 ‘암과 나’는 17일 오후 5시30분 MBC퀸에서 방송된다.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00.txt

제목: 포스코 미래, 권오준 과거에서 찾다  
날짜: 2014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1710013251020  
본문: “<span class='quot0'>권오준의 과거가 포스코의 미래다.</span>” <br/> <br/>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로 권오준(사진) 기술총괄 사장이 확정되자 그를 잘 아는 인사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했다. 1986년 RIST(포항산업과학연구원) 입사 이후 EU사무소장으로 독일에 나가 있던 3년을 제외하면 25년을 줄곧 연구 업무만 도맡았다. 그나마 독일 시절에도 포항 등을 오가며 자동차용 신고강도강재 등 공동연구를 위해 해외 업체와 교류하는 데 힘썼다. 그는 회장 내정 직후 첫 출근길인 17일 취재진에게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과 관련 “<span class='quot0'>(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안을 만들겠다</span>”고 말했다. 권오준은 어떤 인물이고 그가 생각하는 포스코 ‘신경영’은 뭘까. <br/> <br/>서울사대부고와 서울대 공대를 나온 권 사장이 가장 아끼는 모임 중 하나로 고교 언덕인 ‘청’량대와 서울대 불‘암’산에서 이름 딴 ‘청암회’가 있다. 박태준 고 포스코 명예회장의 호와는 별개다. 유명한 모임은 아니지만 1년에 2∼3번 세상살이를 나누고, RIST 원장시절에는 청암회 선후배를 포항으로 초청하기도 했다. 이젠 정준양 회장을 비롯해 포스코 회장만 두 명째다. <br/> <br/>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 이희범 LG상사 부회장 등도 청암회 멤버다. 권 사장과 청암회 동기인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은 “<span class='quot1'>고교 때부터 뚝심 있고 착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인관계가 뛰어났다</span>”며 “<span class='quot1'>세계 철강판세를 딱 보고 있는 사람으로 앞으로 포스코를 기본부터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이전에 벌여놓은 사업을 선택과 집중으로 잘 추스르고 재무적 건전성도 확보해야 할 것</span>”이라고 조언했다. 역시 청암회 20회 동기인 송재영 한국선박기술 부사장은 “<span class='quot2'>내가 조선 분야라서 후판에 대해 많이 얘기했는데 한때 기술적으로 일본에 뒤처졌지만 그 친구 같은 사람 덕분에 이젠 일본은 물론 세계 으뜸인 기술이 상당하다</span>”고 말했다. <br/> <br/>그는 2009년 청암회 2년 선배인 정준양 회장 취임 직후 RIST 원장이 됐다. 권 사장은 당시 취임사에서 “<span class='quot3'>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실험실을 벗어나 실용화되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다</span>”며 “<span class='quot3'>소규모 단기간적인 연구활동을 지양하고, 대형과제 중심의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전략을 추진할 수 있게 연구관리체제를 새로 정비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시 RIST 직원은 “<span class='quot4'>연구개발 단계 하나하나를 직접 챙기고 모든 걸 알려고 하셨다</span>”며 “<span class='quot4'>‘포스코를 RIST가 먹여살려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span>”고 전했다. <br/> <br/>그가 꿈꾸는 포스코의 신경영은 기술총괄장이던 2012년 RIST 25주년 기념사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그는 당시 “<span class='quot4'>포스코가 추진 중인 철강, 그린소재, 그린에너지, 신수종의 4대 사업군 중에서 철강을 제외한 3대 사업군의 핵심기술 개발이 RIST에서 진행 중</span>”이라며 “<span class='quot4'>성공적인 신성장 기술 개발과 상업화를 통해 ‘포스코 비전 2020’을 실현시킴으로써 미래가치를 창조해 달라</span>”고 강조했다. <br/> <br/>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01.txt

제목: ‘완전식품’ 우유, 과연 인간에게 이로운가  
날짜: 20140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1610013242649  
본문: “<span class='quot0'>오래 살고 싶으면 우유를 절대 마시지 말라</span>”(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소아과 박사 프랭크 오스키) <br/> <br/>‘신이 준 가장 고귀한 선물’로 인류에게 사랑받아 온 ‘완전식품의 대명사’ 우유. 그런데 최근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면서 우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EBS ‘하나뿐인 지구’는 17일 오후 8시50분 ‘자연이 준 최상의 음식’이라는 찬사와 ‘과대광고가 만들어낸 신화’일 뿐이라는 오명을 동시에 듣고 있는 우유에 대해 알아본다. <br/> <br/>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의 튼튼한 뼈를 위해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학교 우유 급식을 추진해왔다. 한국인 대부분은 우유를 마시면 복통과 설사를 호소하는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지만 튼튼한 뼈,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우유를 꾸준히 마셔왔다. 그런데 우유를 마시면 칼슘 흡수가 아닌 배출이 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우유 속에 있는 동물성 단백질이 체내에 많이 들어오면 혈액이 산성화되어 뼈에 있는 칼슘이 오히려 배출된다는 것이다. <br/> <br/>EBS ‘하나뿐인 지구’는 17일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우유의 안전성 문제를 하나씩 짚어본다.그러나 상반된 주장도 있다. 지난 11월 미국 보스턴 브리검 여성병원 다이앤 페스카니치 박사 연구팀은 22년간 9만6000여 명을 추적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10대 시절의 우유 섭취가 성인이 된 이후의 고관절 골절의 위험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올해 마흔 살의 주부 박다혜씨는 하루 1000㎖가 넘는 우유를 마신다. 골다공증과 암을 예방해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유가 오히려 암을 키운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버드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우유에 들어있는 IGF-1이 여성의 유방암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 몸 속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사는 생성을 반복하는데, 우유에 있는 IGF-1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체내의 죽은 세포를 되살려 오히려 암을 키운다는 것이다. <br/> <br/>다른 동물과 달리 오직 인간만이 평생 다른 동물의 젖을 먹고 있다. 사실 소의 젖은 송아지를 위한 음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젖이 과연 인간의 몸에 최적화돼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br/> <br/>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02.txt

제목: 항암 중 한약 복용, 대장암 항암부작용 개선하는 한방약재?  
날짜: 20140116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1610013239236  
본문: 대장암 항암화학요법 2차를 앞둔 정 모씨는 1차 항암치료 중 겪었던 통증과 증상을 떠올리며 이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하는 한약을 함께 복용해도 좋은지를 주치의에게 물었다. 주치의는 “항암치료 중 한약 복용은 항암치료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고 답변했고 정 씨는 부작용이 걱정되었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br/> <br/>정 씨의 경우처럼 항암치료 중 한약 복용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는 암 환자들이 적지 않다. ‘한방약 복용이 항암치료 효과를 저해한다’는 속설 때문이다. <br/> <br/>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결과와 논문을 종합해 볼 때, 모든 한약이 무조건적으로 항암치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br/> <br/>이에 소람한방병원 신재성 한의학 박사는 “<span class='quot0'>특히 항암 화학요법에 의한 대한 한약의 효과를 검토한 결과 구내염에 대해서는 황련탕 복용이 통증 경감 효과가, 소시호탕은 양치질에 의한 통증 경감 효과 등이 보고돼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신 박사는 이어 “<span class='quot1'>한방약재의 대표적인 처방 중 하나인 반하사심탕은 이리노테칸에 의한 부작용 대책으로 사용된다</span>”며 “<span class='quot1'>구내염, 구역에 대해 가글이나 궤양부 직접 도포 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돼 있다</span>”고 덧붙였다. <br/> <br/>한편 신재성 한의학 박사는 “항암치료 중 한약 복용이 항암효과를 저해한다는 속설은 진단과 처방 없이 임의로 약초를 구해 먹다 생긴 부작용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반하사심탕은 실제 임상에서도 장액분비형 설사· 항암제에 의한 구내염· 구토· 설사· 식욕부진에 쓰이고 있으며 복용 시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03.txt

제목: 하얀 눈 모자 쓴 암봉 위풍당당  
날짜: 20140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1610013243160  
본문: 울산바위는 설악동에서 신흥사를 지나 흔들바위를 거쳐 오른다. 속초 동명항과 리조트 단지에서는 정면을 바라봤다면, 이 산행은 줄곧 울산바위의 후면을 보며 올라가게 된다. 설악동 입구에서 울산바위까지는 보통 왕복 4, 5시간을 잡는다. <br/> <br/>설악동 입구에 들어서니 바람이 몰아친다. 설악동 입구가 거대한 협곡 형상이어서 그런지 산에서 부는 바람이 여간 매서운 게 아니다. 산길로 접어들고 나서야 바람이 잦아든다. 신흥사에서 흔들바위까지 가는 숲길은 완만하고 부드럽다. 길 옆에는 장딴지까지 푹푹 들어갈 정도로 겨우내 내린 눈이 쌓여 있다. <br/> <br/>멀리 웅장한 울산바위가 모습을 드러내는가 싶더니 이내 겨울나무에 가려 버린다. 40분쯤 눈길을 걸어 휴게소에 오르면 나무에 가렸던 하늘이 트이며 울산바위의 거대한 위용이 드러난다. 멀리서 보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거대하다.  <br/> <br/>거대한 바위로 이뤄진 울산바위 정상. 이곳에 오르면 설악의 능선과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겨울철 이곳에는 옛사람들이 ‘하늘이 운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거칠고 사나운 바람이 몰아친다.휴게소를 지나면 이내 계조암이다. 의상, 원효 등 조사(祖師)의 칭호를 얻을 만한 수많은 승려가 계속해서 수도하던 도량이라 하여 계조암(繼祖庵)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 고승들이 정진했던 곳은 아마도 석굴 속에 들인 법당이었을 것이다. 계조암의 석굴 법당은 영험한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해서 예로부터 기도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100여명이 식사를 할 수 있어 식당암이라는 별칭을 가진 암자 앞 너럭바위에는 흔들바위가 서 있다. 대학 산악부 정도는 돼야 대청봉에 오르던 1980년대만 해도 흔들바위는 설악산 최고의 명소였다. 설악산에 간다는 말은 곧 흔들바위에 간다는 말이었다. 설악에 다른 목적지가 잇따라 개발되며, 흔들바위는 이제 추억의 여행지가 됐다. 그래도 이곳을 찾은 등산객들은 빠짐없이 흔들바위를 힘껏 밀어본다.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지만 얼굴에는 유쾌한 웃음이 가득하다. <br/> <br/>계조암을 지나면 울산바위의 새로 놓인 탐방로가 시작된다. 계조암에서 울산바위 정상까지는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새로 놓은 탐방로는 절벽에 철심을 받은 후 그 위에 지그재그 모양으로 기울기를 낮춘 길을 만들고 바닥에 고무판을 깔아 ‘공포의 808계단’보다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br/> <br/>울산바위로 오르는 갈지자 모양의 새 탐방로.이 계절에 울산바위에 오르면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바람이 몰아친다. 귓청을 때리는 우우 하는 소리와 함께. 옛사람들이 ‘하늘이 운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바람은 모든 것을 날려버릴 기세고, 그 소리는 사람 폐부 속까지 파고드는 듯하다. <br/> <br/>울산바위 정상에는 사람 서너명이 겨우 설 수 있는 손바닥만 한 공간이 있다. 이곳에서는 산과 바다 쪽 모두 입이 떡 벌어지는 장관이 펼쳐진다. 권금성에서 칠성봉을 지나 대청봉으로 이어지는 화채능선, 저향령과 세존봉 뒤의 공룡능선의 첨봉들이 손에 잡힐 듯하다. 수직 절벽 아래 바다 쪽으로는 청초호와 영랑호, 그 너머로 푸른 동해바다까지 거칠 것없는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br/> <br/>몇 시간 전 설악의 능선과 울산바위를 올려다봤던 속초 동명항 방파제는 워낙 작게 보여 그 윤곽조차 잘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다. 큼직한 델피노 골프 & 리조트 건물도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성냥갑만 한 크기에 불과하다. 그만큼 울산바위 꼭대기와 델피노 리조트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산 아래서는 울산바위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br/> <br/>계조암 앞에 서 있는 설악산 흔들바위.울산바위 위에서 겨울 설악의 장쾌한 풍경을 즐긴 후에는 산 아래서 온천욕으로 추위에 굳은 몸을 녹여도 좋겠다. 설악산 아래에는 동네 목욕탕 수준에서 대형 워터파크까지 다양한 형태의 온천욕장이 들어서 있다. 영랑호, 청초호도 속초 여행에서 빠뜨릴 수 없다. 청둥오리와 가창오리 등 겨울 철새가 고즈넉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영랑호 옆에는 범바위가 자리하고 있다. 호랑이 한 마리가 울산바위를 향해 엎드린 형상인 범바위는 속초팔경 중 하나다. 줄을 당겨 움직이는 갯배를 타고 가는 아바이순대, 오징어순대의 원조인 아바이 마을도 속초의 명소다. <br/> <br/>동명항 영금정은 정자로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동명항의 갯바위를 일컫는 말이다. 갯바위들을 타고 넘는 파도 소리가 가야금 소리 같아 정자 같은 풍류가 느껴진다고 해서 느껴진 이름이다. 요즘 같은 한겨울 동명항 갯바위에서 가야금 소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집채 같은 파도가 몰아쳐 울산바위와 함께 거친 야성의 겨울을 느끼게 한다. <br/> <br/>속초=글·사진 박창억 기자 daniel@segye.com <br/> <br/>■ 여행정보(지역번호:033)=서울에서 출발한다면 경춘고속도로를 타고 동홍천나들목으로 나와 속초·인제 방면으로 우회전해 44, 46번 국도를 거쳐 56번 지방도로로 바꿔 타고 미시령 터널을 지난다. 울산바위 바로 아래 자리한 델피노 골프 & 리조트는 가족단위 여행객들이 묵기 적당한 숙소다. 울산바위의 위압적인 경관을 감상하기 가장 좋은 곳은 C동의 레스토랑과 객실이다. 권금성 케이블카는 겨울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운행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게 좋다. 동명항·대포항·장사항에 횟집이 몰려 있다. 속초에는 동명항생선숯불구이(632-3376) 등 이름난 생선구이 전문점도 즐비하다. 학사평 일대에는 김영애할머니순두부(635-9520)등 순두부집이 늘어서 있다. 중앙시장의 찹쌀호떡과 닭강정도 속초의 별미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04.txt

제목: ‘비타민’에서 유방암 진단 받았던 이성미, 1년 후 몸 상태는?  
날짜: 20140115  
기자: tongil77@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15100000188  
본문: 과거 KBS 2TV ‘비타민’에 출연해 유방암을 진단받았던 이성미의 건강상태가 최초 공개된다.15일에 방송되는 ‘비타민’에서는 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내 몸의 불청객, 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최근 녹화에서는 출연자들의 몸에 혹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는데, 2년 전 ‘비타민’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던 이성미가 수술 후 최초로 온 몸의 혹을 검사한 결과를 공개한 것.전문의로 출연한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전혜진 교수는 “이성미는 1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데, 전이도 없고 관리도 잘 하고 있다. 다만, 유방암이 발생한 여성은 반대쪽 유방에 암 발생 확률이 2~5배 높기 때문에 앞으로 주기적인 추적검사를 해야 하며,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며 이성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견을 더했다.한편 이성미는 1년 전 ‘2013 새해 건강 계획 제2탄 여성’ 편에 출연해 당시 유방 결절이 발견되어 유방암 수술을 받아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성미는 “<span class='quot0'>그 동안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왔으니, 오늘 만큼은 꼭 그린카드를 받고 싶다</span>”고 말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15일 오후 8시55분 방송.한준호 기자 tongil77@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05.txt

제목: ‘비타민’, 무서운 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이건 뭐지?  
날짜: 20140115  
기자: tongil77@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15100000186  
본문: KBS 2TV ‘비타민’이 몸 속에서 자라는 건강의 적신호 ‘혹’ 특집으로 꾸며진다.15일에 방송되는 ‘비타민’에서는 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내 몸의 불청객, 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날은 특별히 물혹, 결절, 용종, 멍울 등 우리 몸에 생기는 다양한 종류의 혹에 대해 알아보고, 바로 제거해야 하는 위험한 혹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위별로 혹의 여부를 알아보는 자가진단법에 대해 공개할 예정이다.최근 녹화에서 김학래는 “‘비타민’에서 1년 전 병원검사를 받다가 대장 용종을 제거했다. 그 뒤로 외식하는 횟수도 줄이고 고기보다는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용종을 제거했던 경험을 공개했다. 또 이성미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갑상선 쪽에 혹이 있다고 진단받았다. 그뒤로 크기가 커지는지 1년에 1번씩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며 건강관리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고 고백했다전문의로 출연한 강북삼성병원 소화기내과 박동일 교수는 “혹은 대부분 원인이 명확하지 않지만 부위에 따라 식습관, 흡연, 나이, 호르몬 변화 등을 원인으로 추정한다. 혹은 대부분이 무증상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혹에 대한 의견을 더했다.한준호 기자 tongil77@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06.txt

제목: 유방·폐암 유발 단백질 3차 구조 첫 규명  
날짜: 20140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1510013231538  
본문: 영남대 생명공학부 박현호(40·사진) 교수 연구팀이 유방암과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세계 최초로 밝혀내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br/> <br/>영남대는 박 교수 연구팀이 유방암과 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TRAF4’ 단백질의 3차 구조를 규명했다고 15일 발표했다. TRAF 단백질 계열은 염증반응에서 세포 신호 전달에 매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다양한 암이나 면역이상, 알레르기, 동맥경화, 신경퇴행성 질환, 당뇨, 비만 등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박 교수는 “<span class='quot0'>연구결과가 실제 치료제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지만 유방암·폐암 등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이들 질환의 치료제 개발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대구=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07.txt

제목: 오상진, ‘비타민’ 첫 출연에 혹 8개 진단?!  
날짜: 20140115  
기자: tongil77@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15100000193  
본문: KBS 2TV ‘비타민’에 첫 출연한 오상진이 충격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받았다.15일에 방송되는 ‘비타민’에서는 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내 몸의 불청객, 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최근 녹화에서는 출연자들의 몸에 혹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는데, 오상진이 몸속에 무려 8개의 혹이 있다고 진단받은 것.오상진은 “남들에 비해 건강을 과하게 신경 쓰는 편이라서 아무리 바빠도 운동을 꾸준히 하고 영양제도 챙겨먹는다. 원래 흡연도 했지만 건강을 위해 3년 전에 끊었다”며 평소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전문의로 출연한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전혜진 교수는 “오상진은 몸에 총 8개의 혹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크기나 모양에 변화가 있는지 1년 주기로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며 오상진의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더했다.결국 위험한 테이블에 앉은 오상진은 “병원검사를 받을 때는 별로 걱정이 없었는데, 막상 ‘위험한테이블’에 앉아서 진단을 받으려니까 굉장히 떨린다”며 긴장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15일 오후 8시55분 방송.한준호 기자 tongil77@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08.txt

제목: [뉴스 브리핑] 불법주택 1년간 한시적 양성화 외  
날짜: 20140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1410013219758  
본문: 불법주택 1년간 한시적 양성화 <br/> <br/>불법으로 지어진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해주는 조치가 1년 동안 시행된다. <br/> <br/>국토교통부는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지어졌거나 대수선(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등을 크게 수선·변경하는 것)을 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7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br/> <br/>적용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 준공됐으면서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축물로,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후 위법한 시공을 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다. <br/> <br/>암환자에 줄기세포 불법시술 적발 <br/> <br/>암환자에게 줄기세포 치료가 특효라고 속여 불법 시술해주고 3억원을 받아 챙긴 업체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해당 업체의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받아 경찰청으로 넘긴 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줄기세포 상품 2개당 6600만원씩 모두 10여 명의 환자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겼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09.txt

제목: '암투병 고백' 김영애 '해를 품은 달' 촬영 당시 상황은?  
날짜: 20140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12100000329  
본문: 배우 김영애가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출연 당시 암투병 중이었다고 고백했다.김영애는 10일 오전 방송된 SBS '좋은아침'에 출연해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촬영 당시 암 투병 중이었다고 전했다.김영애는 당시 빡빡한 드라마 스케줄을 소화하며 2개월 간 '해품달' 제작진에게 암투병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고백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해를 품은 달'에서 배우 김수현이 맡은 이훤의 할머니인 대왕대비 윤씨 역을 맡아 완벽한 연기력을 선보인 김영애는 당시 생방송에 가까운 촬영스케줄을 소화하는데 지병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또 몸이 아파서 소리 지르고 악쓰는 연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허리에 끈을 조여매고 연기를 펼쳤다고도 전해진다.온라인 뉴스팀사진=MBC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10.txt

제목: 김영애 “췌장암, 지금은 완치…체력관리중”  
날짜: 20140112  
기자: kys135@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12100000133  
본문: 김영애가 지난 2012년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출연 당시 췌장암 투병 중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10일 오전 SBS '좋은아침'에 출연해 '해를 품은 달' 촬영 당시 암 투병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다.김영애는 "생방송에 가까운 촬영 스케줄을 소화하는 제작팀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췌장암 초기라는 사실을 숨긴 채 2개월 동안 병원을 드나들며 치료받았다"며 눈시울을 적셔 방청객들을 숙연케 했다. '해를 품은 달' 종영 후 곧바로 수술한 김영애는 그 해 10월 SBS 드라마 '내 사랑 나비부인'으로 컴백, 관계자들과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어 그는 "드라마가 끝난 후 9시간의 대수술을 받고서 죽다 살아났다"며 "수술 후 몸무게가 40kg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완치된 현재는 "체력 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김영애 암투병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영애 암투병, 미처 몰랐다" "김영애 암투병, 연기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김영애 암투병, 존경스럽다" "김영애 암투병, 재발하지 않았음 좋겠네요" "김영애 암투병, 좋은 연기로 보답해주세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용석 기자 kys135@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11.txt

제목: 강원래-김송 부부, 암 말기 반려견에 "가슴 아파"  
날짜: 20140112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1210013195597  
본문: 결혼 10년 만에 임신한 강원래, 김송 부부의 반려견 똘똘이와의 이야기가 화제다. <br/> <br/>최근 촬영한 SBS 'TV 동물농장'에서 강원래, 김송 부부는 지난 2012년 11월 림프암 말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반려견 똘똘이와의 일상이 공개됐다. <br/> <br/>이날 방송에서 강원래, 김송 부부의 반려견 똘똘이는 활발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진통제 없이는 버티지 못하는 말기암 상태로 보내고 있으다. <br/> <br/>특히 똘똘이는 말기암 선고당시 1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나 부부의 극진한 간호로 이미 1년 넘게 강원래 , 김송 부부의 곁을 지키고 있다. <br/> <br/>뉴스팀 news@segye.com <br/>사진=SBS 'TV 동물농장' 화면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12.txt

제목: 귀농 6년차 열혈농부 가족의 행복한 삶  
날짜: 20140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1210013198198  
본문: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가득 내어준 전남 고흥의 득량만 땅 위에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렸다. 농부들도, 땅도 숨을 고른다는 겨울이 돌아왔는데, 저 멀리 굉음을 내며 트랙터를 몰고 오는 사내가 있다. 올해로 귀농 6년차, 열혈 농부 준철(35)씨다. 힘쓰는 일도 척척, 손끝 야무진 아내 미란(35)씨와 알토란 같은 4남매 아이들까지 함께하니 준철씨네 집엔 늘 웃음꽃이 한 가득이다. <br/> <br/>KBS1 ‘인간극장’은 13∼17일 오전 7시50분 도시에서 살다 시골 마을로 돌아온 준철씨네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br/> <br/>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준철씨는 집을 나선다. 축사에 귀한 소들 밥 챙겨주랴, 봄 감자 준비를 위해 밭 고르고 퇴비 뿌리랴 바쁘다. 거기에 더해 야심차게 시작한 새 작물 표고버섯을 위해 날마다 하우스를 찾고, 대학에서 버섯 재배 강의까지 들으며 열성이다. <br/> <br/>12살 때부터 트랙터를 몰았던 태생이 농부인 준철씨.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농사일을 거들던 그는 유독 땅이 좋았다. 그래서 도시에서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렸던 과거를 뒤로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어렵게 부모님과 아내를 설득하고 내려온 땅인데, 농사의 스승인 아버지는 이듬해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계획했던 농사는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 번번이 실패를 맛봐야 했다.  <br/> <br/> KBS1 ‘인간극장’은 귀농 6년차인 준철씨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득량만에 깃들다’ 편을 17일까지 방송한다.고된 농사일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어머니는 애지중지 키운 6남매를 모두 서울로 올려 보냈다. 그런데 기어이 고향으로 내려온 자식이 바로 준철씨다. 극구 말렸던 어머니지만 매일 아들 얼굴도 보고, 야무진 며느리 덕에 일손도 덜고, 떡두꺼비 같은 손주가 넷이나 되니 고요했던 집안이 들썩들썩해 좋다. 어쩐지 마음이 든든해지고 움츠러들었던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br/> <br/>어머니의 일흔 번째 생신 날. 명절에도 한데 모이기 힘든 6남매 식구들 모두가 어머니를 위해 제주도행 티켓을 끊었다. 자식들의 지극한 효심에 함박웃음을 짓던 어머니는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남편 생각에 눈물을 흘린다. <br/> <br/>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13.txt

제목: [SW칼럼] 지구시스템 엔지니어링 우주태양광발전 옵션  
날짜: 20140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12100000139  
본문: 우주태양광발전(Space Solar Power System: SSPS)이란 우주공간에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를 건설해 발전된 전기를 지구로 송전하면 이를 수신 이용하는 전기에너지를 말한다. 이 방법은 한번 설치하면 연료비가 전혀 들지 않고 24시간 365일 동안 단전 없이 오염물질 발생도 없이 발전하는 클린 에너지로서 국가나 지구의 기본전력을 구성하는 강한 힘을 발휘하는 발전 시스템 이다. 그러나 아직 기술준비 부족으로 경제성의 문제는 있지만, 현재 지표면 발전으로는 그 한계에 부딪혀 있어 지구의 모든 국가들이 나름대로 우주의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자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전기 에너지에 모든 걸 걸고 생활하고 있어 앞으로는 전기에너지 대란이 예상되기도 하다. 발 빠른 국가들은 ‘쉘 오일’을 개발해 그 틈새를 메꾸고자 하지만 지금까지의 전기를 얻기 위해 지구표면을 오염과 환경을 파괴시켰다면 이제부터는 지구내부를 파괴, 오염시키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현상을 만들어낼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에너지에 모든 것이 담보되어 있어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 스스로 ‘도끼로 발등 찍는’ 일을 하고 있다고 왜 생각을 못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의 자신감이 지구의 속을 완전히 병들게 한다는 것에는 관심 없이 이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올리려는 단견이 판치고 있는 현실의 이기적 정책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어제와 다른 오늘과 내일은 우선순위가 없다 즉 선택과 집중이 없다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대부분의 나라들은 과거의 방법을 답습해 무슨 일이라도 먼저 연구하고 개발하는 R&D 덧에 걸려 있는 동안 창조적 생각을 가진 국가들은 경쟁 없는 곳에서 크게 자리잡고 미래의 이익을 위한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일은 선 연구 후 개발이 아니라 선 개발로 국가경쟁력과 국민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제의 시대는 모든 것을 원 클릭으로 지식과 지혜를 공유하는 시대였다면 내일의 시대는 그 공유의 것을 실천하는 것이 창조적 정책적 편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개발된 목적물을 만들어놓으면 자동적으로 연구업적이 될 것이다. 이런 논리에 저항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직업이 없어지는 것을 모르고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다.우리는 단기간이지만 지구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것에 이름 붙여놓았다. 그 증거는 ‘원소주기율표’이며 수 만개의 물질과 이론이 유통되고 있는 풍부한 시대라고 보고 있음이다. 나는 과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선 그것은 누구든 재현 가능한 것 이라고 말한다. 요즘 15살짜리 소녀가 손에 힘을 주면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한 휴대용 전등 개발은 세상을 깜작 놀라게 했고, 17살 고등학교 학생이 삼촌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암으로 투병중이라서 병원에서 검사하면 고가의 검사비와 검사결과까지는 하루이틀이상 걸리는 것을 해결하고자 검사비용 단돈 300원, 단 5분에 검사결과를 알 수 있는 시스템 개발, 고등학생이 완전 무인 운전시스템 개발, 3초에 휴대전화 충전 등은 그들이 연구자가 아니며 충분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성인도 아닌 고등학생인데도 어마어마한 고도의 실용성 있는 것을 만든 사례다. 연구는 안했지만 연구결과를 활용했으니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과 내일은 연구보다 개발이 우선순위로 변환된 시대적 흐름을 중고생들이 그 증거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노벨상보다 더 과학적인 것을 만드는 시대적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에 착안하고 있는 것이다. 안하면 뒤 떨어지니까 어디라도 붙어가야 하기에 ‘쉘 오일’ 기술개발을 기다는 현상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아니 내일에 수천 수억 기가 와트(GW) 무한의 우주태양광발전(SSPS)의 전기 에너지가 창조적 편익을 가져 올 것이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다. 향후 10년 안에 즉 2024년 분기점으로 에너지 혁명을 선도하는 국가가 미래 패권국가가 될 것이므로 우주태양광발전을 지구시스템 엔지이어링 옵션으로 힘주어 제안한다.이학박사 최무웅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땅물빛바람연구소 대표, 스포츠월드 객원편집위원(mwchoi@konkuk.ac.kr)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14.txt

제목: [차 한잔 나누며] ‘동물보호’ 앞장서는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상임대표  
날짜: 201401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1110013192903  
본문: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애완동물이란 말 대신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란 의미의 ‘반려동물’이란 단어가 쓰이는 등 사회적으로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000만명이 넘으며, 관련 산업 규모도 2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연간 10만마리의 동물이 유기되고, 그중 2만마리가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해 안락사 하는 등 반려동물의 ‘명과 암’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br/> <br/>유기동물 문제에서 실험동물, 농장동물, 사람을 위해 ‘쇼’를 하는 오락동물까지 동물을 위해 전방위 활동을 벌이는 이가 있다. “<span class='quot0'>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서 보호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span>”고 말하는 조희경(54) 동물자유연대 상임대표를 10일 서울 성동구 동물자유연대 사무실에서 만났다. <br/> <br/>2000년에 설립된 동물자유연대는 인간과 동물이 생태적·윤리적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캠페인과 교육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내 대표 동물보호단체다. 1990년대 후반, 반려견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PC통신 반려동물 동호회에 가입했던 그는 유기견을 구조하는 일을 돕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목격하게 된 실습동물들의 끔찍한 현실은 큰 충격이었다. “<span class='quot0'>병원에서 나와 길거리에서 엉엉 울었어요.</span>” <br/> <br/>이후 좀더 적극적으로 동물권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동물자유연대가 탄생했다. 사업체를 운영하던 그는 2003년부터는 아예 사업도 접고 단체 활동에만 몰두했다. 활동 초기에는 후원금이 월 200만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정회원 8400여명에 직원도 22명인 단체로 성장했다. <br/> <br/>조희경 동물자유연대 상임대표가 10일 서울 성동구 동물자유연대 사무실에서 “<span class='quot1'>고통받는 동물 없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span>”고 말하고 있다. <br/>이재문 기자활동하면서 가장 힘든 때는 ‘인식의 장벽’이 느껴질 때다. 조 대표는 “<span class='quot1'>우리는 생명을 놓고 절박하게 이야기하는데 왜 동물을 돕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span>”라며 “<span class='quot1'>그런 사람을 만날 때면 막다른 절벽 끝에 다다른 기분</span>”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을 사랑해 달라거나 어떤 행동을 취해 달라는 것까지 바라지 않는다”며 “그저 학대받고 고통받는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자는 생각에 동의라도 해주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br/> <br/>그는 특히 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범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지금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조 대표는 최근 이슈가 됐던 일명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사건’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지난해 3월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절단해 죽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 개가 대형 맹견이란 이유로 정당방위로 인정된 것이다. 검찰은 개가 피고인에게 등을 돌리고 있던 점을 들어 정당방위가 아니라며 항소한 상태다. 조 대표는 “동물을 재산 개념으로 보고 동물학대범을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는 경우도 많다. 동물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동물보호법에 의한 처벌 사례가 늘고 실형도 선고돼야 동물을 해친다는 게 정말 큰 죄라는 인식이 퍼질 것”이라고 말했다. <br/> <br/>보람을 느낄 때도 많다. 조 대표는 ‘동물 입양’이란 말을 확산한 일등공신이다. 그는 “10여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동물을 키우고 싶다고 하면 ‘일단 사서 키워보고 얼마나 힘든지 느껴봐’란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책임감이 필요하니 자신 없으면 키우지 말아야 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늘었다”며 “동물을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생긴 것을 보면 뿌듯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추진했던 서울대공원 돌고래 ‘제돌이’ 방사도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다. 조 대표는 “<span class='quot1'>동물쇼는 동물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나쁜 것이란 인식이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제돌이로 인해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 <br/> <br/>조 대표는 “유기동물도 트렌드가 있다. 방송에서 어떤 개가 인기를 끌면 그 견종이 ‘유행’하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유기견 중에 해당 견종이 매우 늘어난다. 유행을 타는 것 자체가 생명을 경시한다는 증거”라며 “대형마트에서 동물을 팔거나 동물을 ‘사고 싶게’ 만들어 충동구매를 부추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span class='quot1'>동물도 사람과 똑같이 감정이 있고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물에게 책임을 다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span>”고 밝혔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15.txt

제목: 한방면역암치료 궁금증, KBS 건강특강서 해결  
날짜: 20140110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1010013187202  
본문: 한방암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품는 이들이 많다. 한방암치료· 면역암치료라는 개념은 들어봤지만 실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br/> <br/>이러한 가운데 대전 KBS ‘아침마당’은 이 같은 암환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김성수 한의학 박사를 초빙하여 ‘내 몸을 다스리는 힘 면역’이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br/> <br/>이번 강연은 한방암치료의 원리인 부정거사법에 대한 해설· 암에 대한 양방과 한방의 시각 차이 등 한의학이 바라보는 암· 기존 면역치료의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됐다. <br/> <br/>10여 년간 암 치료와 연구에 매진해온 김성수 박사는 현재 양한방협진을 통해 면역암치료를 시행하는 소람한방병원 대표원장으로 진료에 임하고 있으며, 저서 ‘12주 한방면역요법’· ‘위암, 먹어야 산다’를 통해 암 환자들을 위한 정보· 한의학적 치료와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br/> <br/>김성수 박사의 이번 특강은 대전KBS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16.txt

제목: '해투' 서하준 "암세포 대사, 처음 보고 5분간 얼어" 고백  
날짜: 201401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10100000377  
본문:  "처음에 대본 받고 5분간 얼었다" 배우 서하준이 유행어가 된 암세포대사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지난 9일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3'에서는 '2014 라이징스타 특집'으로 서하준과 김성균, 도희, 한주완, 달샤벳 수빈이 출연했다.이날 방송에서 MBC 드라마 '오로라공주' 히어로 서하준은 "처음 대본을 받고 5분간 얼음이 됐다"며 그간 말 못했던 당시의 심경을 고백했다.당시 극중 암에 걸린 자신이 치료를 거부하면서 "암세포도 생명인데 같이 살아야죠"라는 대사를 해 시청자들에게 '막장의 끝'이라는 조소를 산 바 있다.서하준 암세포 발언에 누리꾼들은 "서하준 암세포 나라면 50분간 얼음" "서하준 암세포 발언 미치겠더라" "서하준 암세포 발언 진짜 막장의 끝이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뉴스팀사진=KBS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17.txt

제목: 최은경, ‘암치료’ 한의학 vs 양의학 논쟁에 한 마디 ‘똑순이네’  
날짜: 20140110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10100000190  
본문: 똑순이 MC최은경이 방송 녹화 때 마다 패널들 간의 싸움을 말리느라 고생하고 있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오는 10일 오후 5시 30분부터 MBC퀸을 통해 방송되는 토크배틀 ‘암과 나’에서는 ‘암치료는 한의학과 양의학 중 어떤 것이 좋은가?’에 대해 열띤 논쟁이 벌어진다. ‘한의학’ 전문가와 ‘양의학’ 전문가들의 뜨거운 찬/반 논쟁열기로 회가 거듭 될수록 매번 녹화장은 아수라장이 되곤 한다는 후문이다.그 중에서도 연예인 게스트 오영실은 전문가들의 주장에 똑소리 나는 반론을 제기하며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고 한다. 한의학 전문가에게는 “한의원에서 권하는 공진단에는 성분표시, 효능 심지어 유통기한 조차 적혀있지 않다”며 “무조건 믿고 먹으라는 한의원 말에 내 인생을 거는 건 무모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례자로 나온 한방 산삼약침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서는 최악의 경우만을 말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치료가 가능하다’ ‘수많은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한방 치료법에 기대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환자는 돈도 잃고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 부분은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양의와 한의 양쪽의 문제점을 똑소리 나게 짚어냈다. MC 최은경의 진행으로 전문가 군단이 벌이는 질병에 대한 찬/반 공방, 그리고 방송인 오영실의 똑소리나는 반론제기까지 만날 수 있는 건강 토크 배틀 ‘암과 나’는 오늘밤 10일 오후 5시30분 MBC퀸에서 방송된다.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18.txt

제목: '국내 1세대 발레리노' 이상만 별세 … 발레 위해 항암제 안 맞아  
날짜: 201401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10100000421  
본문: 국내 1세대 발레리노 이상만 별세 소식이 전해졌다.이상만 씨는 지난 8일 오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림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중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故 이상만은 1948년 충북 괴산에서 태어나 1970년 임성남 발레단에 입단해 활동을 시작했다.이후 국립발레단 창단 단원으로 무대에 올라 주역무용수가 됐으며 1977년 미국 유학길에 올라 '내셔널 발레 일리노이'에 입단해 국립발레단 남성 무용수 중 최초로 외국 발레단에 진출했다.고인은 1985년 귀국한 뒤 자신의 성을 딴 '리발레단'을 창단해 매년 한 편씩 창작발레를 무대에 올렸으며 암으로 투병 중이던 지난해 12월에도 창작발레 '무상'을 선보였다.특히 그는 춤을 추기 위해 항암제를 맞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무균실에 있던 중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유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향년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온라인 뉴스팀사진=리발레단 홈페이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19.txt

제목: ‘동물농장’ 강원래, 반려견 똘똘이 공개 ‘애틋’  
날짜: 20140110  
기자: 박민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1010013191080  
본문:   <br/> <br/>가수 강원래가 반려견 똘똘이와의 일상을 공개한다. <br/> <br/>오는 12일 방송되는 SBS ‘TV 동물농장’에서는 강원래와 김송 부부의 시한부 반려견 똘똘이의 모습이 그려진다. 림프암 말기인 똘똘이는 2012년 11월 말기암 진단을 받고 앞으로 1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br/> <br/>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똘똘이는 여전히 강원래와 김송 부부의 곁에 있다. 활발하고 건강해 보이는 똘똘이는 진통제 없이 버티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아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강원래와 김송 부부는 “<span class='quot0'>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힘이 되었던 똘똘이와의 이별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지만 아직 해보지 못한 것이 많기에 슬퍼할 시간도 아깝다</span>”며 똘똘이의 소원 성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br/> <br/>한편 강원래의 반려견 똘똘이를 만날 수 있는 ‘TV 동물농장’은 오는 12일 오전 9시25분 방송 예정이다. <br/> <br/>뉴스팀 news@segye.com <br/>사진=SBS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20.txt

제목: 현대인의 질병 갑상선 질환, 여러분의 갑상선 지식은 안녕하십니까?  
날짜: 20140109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09100000142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년 갑상선질환 한 해 평균 환자수가 11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대표적인 현대인의 질환이라 할 수 있는 간질환 환자수가 약 120만명, 뇌혈관질환 환자수가 약 10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갑상선질환 환자 수가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최근 갑상선암 발병률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암 발병률에서는 1위를 차지하기까지 했다. 현대인의 질병이 된 갑상선 질환에 현명히 대처할 수 있도록 청심국제병원 내과 김종형 과장을 통해 이 질환에 대해 알아봤다.◆골다공증, 생리불순, 우울증도 갑상선 기능 이상이 원인이라고?갑상선은 목의 튀어나온 부분 조금 아래에 위치하며 날개를 펼친 나비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내분비기관이다. 갑상선에서 생성하는 갑상선호르몬은 체온조절, 호흡, 심장수축, 각종 호르몬 대사 등 우리 인체의 전반적인 대사과정을 조절해 각 기관이 적절한 기능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심혈관계, 혈액계, 위장계, 근골격계, 신경계 등 신체 전반적으로 기능 이상이 나타나게 된다.남성이나 폐경 전의 여성에게서 골다공증 증상이 나타난다면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은 갑상선호르몬의 과분비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식욕이 왕성한데도 체중이 감소하거나 두근거림, 손떨림, 초조함, 신경예민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대변 횟수가 증가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 이밖에 근력 약화, 골밀도 감소로 골다공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일부 환자에게서는 눈이 튀어나오거나 안구건조증, 복시(사물이 겹쳐 보이는 것)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주요 원인은 그레이브스병이라는 자가면역질환, 갑상선자극호르몬을 분비하는 뇌하수체의 이상 등이 있다.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한 감정이 지속된다면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원인일 수 있다. 기능 항진증과는 반대로 기능저하증은 갑상선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이다. 추위에 예민해져 수족냉증이 나타나기도 하며 만성피로와 식욕부진, 기억력 저하,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생리불순과 변비가 나타날 수 있다. 갑상선 자체의 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는 자가면역성 질환인 하시모토 갑상선염과 뇌하수체의 손상 등이 주요 원인이다.◆갑상선암 환자의 완치율, 100%라고?갑상선암은 암종별 5년 생존율 조사결과 완치율이 100%로 나타나며, 전이되는 속도도 느려서 소위 ‘착한암’이라 불린다. 그렇다고 갑상선암을 우습게 보아서는 안된다. 이렇게 완치율이 높은 암은 우리나라 갑상선암의 96.6%를 차지하는 유두암과 여포암이다. 국내 발생확률이 낮긴 하지만 다른 갑상선암인 수질암, 역형성암은 생존율이 떨어지고 치료가 곤란하기도 하다. 또 갑상선 암이 폐, 뼈 등의 다른 조직으로 원격전이 된 경우 생존율은 69.1%로 떨어지며 갑상선암은 재발율도 높다.갑상선암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 것. 갑상선에 덩어리가 형성되는 갑상선결절의 약 5∼10%는 암일 가능성이 높은 악성종양이다. 덩어리의 크기는 밀리미터부터 수 센티미터까지 다양하며 대부분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청심국제병원 김종형 내과과장은 “<span class='quot0'>특별한 이상 없이 검진센터에 왔다가 초음파 검사로 갑상선 이상을 진단받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다</span>”며 “<span class='quot0'>갑상선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중년여성, 가족력이나 방사선 치료 병력이 있는 사람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것이 예방에 좋다</span>”고 말했다.◆미역, 다시마 등 요오드 첨가 식품 과다섭취, 갑상선암 노출위험도 증가?갑상선은 요오드를 이용해 갑상선호르몬을 합성하고 분비한다. 따라서 요오드를 조금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갑상선 암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 갑상선암 수술 후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시행하는 환자에게는 치료기간 동안 요오드 첨가 식품을 제한하는데, 이점이 잘못 전달되어 요오드 함유 식품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요오드 부족으로 인해 갑상선종이나 결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요오드 결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전문의들은 요오드 섭취 부족이 갑상선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본다. 그래서 특별히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요오드 함유 음식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괜찮다.◆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면 반드시 호르몬제 치료를 해야 하나?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나 갑상선 절제수술로 갑상선이 호르몬 생성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흔한 갑상선질환인 갑상선염은 급성 세균성 감염에서 만성 자가면역성 갑상선염(하시모토 갑상선염)까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염증질환이다. 대부분의 갑상선염은 갑상선의 기능이 정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특별히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갑상선 염증이 갑상선 세포들을 손상시키면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기기도 한다. 이 때에도 수개월의 치료 후 염증이 가라앉으면 대부분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며, 소수만이 영구적인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되어 영구적으로 호르몬제 치료를 해야한다. 갑상선 양성결절인 경우에도 암이 아니기 때문에 덩어리가 너무 크지 않거나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수술이나 치료 없이 경과를 지켜보는 편이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21.txt

제목: 부산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첫 삽  
날짜: 20140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0910013182157  
본문: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조감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산 기장군에 착공하지만 2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실제 가동이 상당기간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br/> <br/>부산시는 10일 오후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인근 부지에서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br/> <br/>의료용 중입자(重粒子)가속기는 중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키는 장비로 중입자 치료시스템과 연결해 가속된 탄소입자를 체내 깊숙한 곳에 침투시켜 암세포를 정확하게 파괴하는 첨단 암치료기이다. <br/> <br/>이 치료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방사선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치료기간도 10분의 1 정도로 단축돼 그동안 치료가 어려웠던 재발 암 등에 대한 치료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br/> <br/>하지만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 1950억원 가운데 국비 700억원, 시·군비 500억원, 의학원 500억원 등 1700억원만 확보돼 있을 뿐 의학원 분담분 중 25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br/> <br/>원자력의학원 측은 총분담금 750억원 중 500억원은 국내 민간 의료기기회사와 양해각서(MOU)를 통해 투자를 약속받은 상태지만 250억원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또 올해 정부 예산도 당초 목표로 한 100억원에 비해 크게 부족한 64억여원 밖에 확보하지 못해 당초 목표로 했던 2016년 3월 개원은 불가능할 것이 확실시된다. <br/> <br/>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22.txt

제목: 1세대 발레리노 이상만씨 별세  
날짜: 20140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0910013183014  
본문: 한국 1세대 발레리노 이상만씨가 8일 오후 10시37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6세. <br/> <br/>고인이 이끌던 ‘리(LEE)발레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암 투병 중이었고, 엊그제부터 갑자기 상태가 악화해 유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세하셨다</span>”고 전했다. <br/> <br/>유족으로는 부인 이영희씨와 아들 은호·수현씨, 딸 영란씨가 있다. 빈소는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은 10일 오전 9시30분. (031)787-1509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23.txt

제목: 꾹… 꾹… 꾹… 국수 반죽에 가슴속 응어리 밀어내다  
날짜: 20140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0910013182424  
본문: “손바닥 안의 손금이 다 닳아지지나 않을까 염려될 만큼 반죽을 꾹꾹 눌러대던 꾹꾹…. 당신 반죽에 몰래 섞어 넣어 그렇게 꾹 누르고 눌러야만 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마흔셋이던 당신은 일흔두 살이, 열넷이던 나는 마흔네 살이 되었으니…” <br/> <br/>의붓어미가 잘 해주던 음식이 칼국수였다. 밀대로 밀어서 아무런 고명이나 양념장도 없이 투박하게 내놓는 그런 국수. 그 피가 섞이지 않은 일흔두 살의 어미가 혀에 암이 생겨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혼수상태다. 의붓 딸 하나가 예전 국수를 기억하면서 그네에게 내려가 반죽을 밀고 물을 끓이고 의붓어미의 고독한 국수를 재현해낸다. 그네는 국수를 만드는 내내 중얼거린다. <br/> <br/>“<span class='quot0'>냉골 같던 자식이 죽고, 의붓자식들마저 다 떠나버린 집 이 집을 혼자 지키면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반죽의 시간을 가졌을까요?</span>” <br/> <br/>“꾹… 어쩌면요…꾹…꾹… 빚을 갚는 심정으로 나는 반죽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꾹. 언제부턴가 당신만 생각하면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지고 도망다니는 기분이 들었으니까 말이에요.” <br/> <br/>“당신이 호적에도 오르지 못하고 유령처럼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내가 결혼하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호적등본을 뗐을 때였습니다. 호적등본 어디에서도 당신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br/> <br/>“<span class='quot0'>반죽의 시간이 당신에게는 혹 가슴속 응어리를 달래고 푸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span>” <br/> <br/>마흔네 살 딸의 중얼거림에서 감지하듯, 국수를 만드는 일은 속죄의 오체투지와 닮은 행위다. 그네의 말을 평생 고독하게 살다가 죽음을 앞둔 여자는 듣지 못한다. 문체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장 하나하나가 밀대로 반죽하듯 핍진한 소설 ‘국수’를 말하는 중이다. 이 작품을 표제로 삼아 단편 9편을 수록한 작가 김숨(40·사진)이 ‘창비’에서 소설집을 펴냈다. 오랜만에 만나는 명품이다. 지난해 대산문학상을 받고 현대문학상까지 거머쥔 이력에 걸맞은 작품들이다. <br/> <br/>표제작 ‘국수’의 화자는 말미에 이렇게 되뇌인다. <br/> <br/>“<span class='quot0'>기원전 이천년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헤아리기조차 막막한 그 긴 시간이 저 한 대접의 국수에 담겨 있는 것만 같아요.</span>” <br/> <br/>그 긴 시간이란, 하찮고 버림받은 모든 존재의 깊은 숨에 깃든, 오체투지의 시간일 터이다. 김숨의 소설집은 한국 작단에 모처럼 희망을 불어넣는 장인의 숨결 같다. <br/> <br/>조용호 문학전문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24.txt

제목: ‘생로병사의 비밀’, 암 치료 이후가 중요하다  
날짜: 20140108  
기자: tongil77@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08100000268  
본문: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은 암 치료 이후의 생활 패턴에 대해 살펴본다. 이번 ‘암 치료, 그 후… 생활을 바꿔야 산다’는 최근 조기진단과 치료법의 발달로 5년 이상 장기 생존하는 암 생존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암 치료 이후, 자신만의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평소 고기를 즐겨먹고 잦은 야근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만성 피로를 호소했던 홍헌표 씨. 6년 전 대장암 진단을 받은 이후, 나빴던 옛 습관을 모두 버렸다. 대장암은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의 과잉 섭취가 결정적 원인. 밤낮 없는 생활로 끼니를 거르거나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버리고, 지금은 철저하게 채식 위주의 식사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더 오래 걷고,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는 등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버린 홍헌표 씨에게 암환자의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서울의 한 복지관에서는 행복한 노래와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한 달에 두 번, 암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투병기와 웃음 노하우를 나누는 이 자리. 한바탕 터지는 웃음이 힘겨운 투병생활을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한다. 과연 웃음이 암을 극복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일까. 우리 몸에는 암세포의 천적이라고 불리는 NK세포가 존재한다. 암세포를 찾아내 파괴하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NK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제작진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의 도움을 받아 웃음이 엔도르핀 호르몬을 분비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했다.암을 이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제대로 먹고, 운동하고, 치료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것. 대장암 완치 판정을 받자마자 18년 만에 위암 판정을 받은 황병만 씨. 혈당, 몸무게 등 자신의 몸의 상태를 건강일지에 기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루 운동량까지 꼼꼼히 체크한다. 두 번의 암을 경험한 이후,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가지고 치료의 주체가 돼 생활하고 있다. 완치가 되더라도 사후 관리에 따라 만성 질환을 불러올 수 있는 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또는 암경험자들과 함께 삶을 치유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한준호 기자 tongil77@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25.txt

제목: 농구스타 박찬숙 "남편과의 사별, 한동한 방황했다" 고백  
날짜: 20140108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08100000301  
본문: 농구스타 박찬숙이 “남편과의 예상치 못한 이별로 한동안 힘들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해 화제다.오는 10일 밤 12시 MBC퀸에서 방송되는 ‘별이 빛나는 카페’(이하 별빛카페)에는 1984년 LA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박찬숙 선수가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와 근황들을 솔직하게 털어놨다.이 날 녹화에서 박찬숙 선수는 “남편이 병이 ‘암’이라고 말하는 순간, 멍해졌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남편 몰래 밖에서 많이 울었다”며 “부모님 돌아가신지 2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남편과도 사별해 견디기 힘들었고 방황도 많이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해 출연진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하지만 “엄마가 흔들리면 우리도 살지 못한다”라는 아이들의 고백에 다시 추스릴 수 있었다며 슬픈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외에도 ‘사라진 스타 왜!’ 코너에서는 우리들의 영원한 섹시 디바 김추자의 전성기 시절부터 왜 대중 앞에서 사라지게 돼었는지 그 사연을 볼 수 있으며, ‘그땐 그랬지’ 코너에서는 ‘1984년’ 그당시 추억의 노래부터 건전가요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다. ‘박찬숙 농구선수’에서 영원한 디바 김추자까지 별들에 대한 모든 것이 공개될, 그때 그 시절로 떠나는 ‘별이 빛나는 카페’는 오는 10일, 금요일 밤 12시에 MBC퀸, 오는 12일 일요일 밤 11시40분 MBC드라마넷을 통해 방송된다.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26.txt

제목: 메리츠화재, '나만의 청춘보험1401' 출시  
날짜: 20140108  
기자: 박성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0810013167765  
본문: 메리츠화재는 미래 한국사회의 중심이 될 젊은이들에 특화된 ‘메리츠 나만의 청춘보험1401’을 8일 출시했다. 주 가입대상은 15~30세인 이 보험은 취업지원금, 임신중독관련보장, 레저활동중사고보장, 성인법적리스크보장 등 20∼30대를 위한 상품이다. <br/> <br/>취업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구직급여를 31일 이상 수령한 경우, 구직급여 수령 31일째, 61일째, 91일째등 총 3회에 걸쳐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임신중독과 관련해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4일이상 입원시 120일을 한도로 입원일당을 지급해 준다. 형법상 과실치사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실손보상을 통해 법적리스크를 보장하며, 레저활동중이나 숙박을 동반한 여행중 사고로 인한 상해시에도 보장이 가능하다. <br/> <br/>적은비용으로 높은 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진단비는 한 증권에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일당지급에 있어서도 새로운 개념인 종합입원일당을 도입했다. 기존 상품이 질병·상해입원일당을 3만원까지 가입하던것과 달리 질병/상해입원일당(최고5만원)과 중환자실입원일당(10만원)을 합산해 첫날부터 15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질병수술비(30만원)와 18대질병수술비(50만원)가 동시 가입이 불가능해 하나만 선택가입하던 기존상품과 달리 최대 60만원까지 합산가입이 가능하며, 질병이나 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남은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해 준다. <br/> <br/>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27.txt

제목: 간병비 등 급여화 명분 건보료 올리나  
날짜: 201401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0810013171286  
본문: 의료계가 오는 11일 총파업 출정식을 앞둔 가운데 문형표(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의 필수의료서비스 급여화,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 등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인해 병원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의료수가를 올려 수익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수가 인상은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일각에서는 3대 비급여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하면서 국민들 주머니만 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br/> <br/>문 장관은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의료계의 ‘저수가’ 주장에 대해 “<span class='quot0'>진료만으로는 충분한 수입을 보장하지 못해 비급여를 통해 많이 보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재정이나 국민의 부담(건보료)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비급여 부담을 줄여 급여화하고, 그것이 수가에 반영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span>”고 말했다. <br/> <br/>그는 그러나 “<span class='quot0'>수가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수가를 올리는 만큼 비급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므로 같이 고민해야 한다</span>”고 덧붙였다. <br/> <br/>그동안 의료계는 “원가의 70% 수준으로 의료수가가 책정됐다”며 의료수가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허용 방안에 대해서도 “<span class='quot1'>의료수가가 낮아 병원 경영이 악화되는데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보전하라는 것</span>”이라며 반대했다. <br/> <br/>앞서 지난 6월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가 항암제 등 비급여 항목이었던 필수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하기로 했다. 또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방안을 지난해 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다가 잠정 연기한 상태다. 이처럼 병원의 수익보전 수단이었던 비급여 영역이 점점 건강보험체계로 넘어오면서 의료계는 경영 악화를 호소하며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어왔다. <br/> <br/>복지부는 우선 분만, 외상 수술, 처지 등 지나치게 수가가 낮게 책정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온 항목들은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진찰료 수가가 낮아 양적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진찰료 인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그러나 병원의 손실 보전을 위해 의료수가를 올려주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 건보 가입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br/> <br/>건강세상네트워크의 박용덕 정책위원은 “<span class='quot2'>환자 부담이 컸던 3대 비급여를 건강보험 영역으로 가져오면 건보료가 인상되더라도 환자가 본인부담으로 직접 냈을 때보다는 비용부담이 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하지만 비급여 항목이 확산되는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span>”고 말했다. <br/> <br/>그는 또 “<span class='quot2'>3대 비급여 급여화가 곧바로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정부는 하나도 책임 안 지겠다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대통령 주요 공약인 만큼 조세 재원도 조달돼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br/> <br/>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28.txt

제목: 3년새 진보 줄고 중도·보수 늘어  
날짜: 201401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0810013171285  
본문: 의료계가 오는 11일 총파업 출정식을 앞둔 가운데 문형표(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의 필수의료서비스 급여화,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 등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인해 병원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의료수가를 올려 수익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수가 인상은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일각에서는 3대 비급여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하면서 국민들 주머니만 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br/> <br/>문 장관은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의료계의 ‘저수가’ 주장에 대해 “<span class='quot0'>진료만으로는 충분한 수입을 보장하지 못해 비급여를 통해 많이 보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재정이나 국민의 부담(건보료)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비급여 부담을 줄여 급여화하고, 그것이 수가에 반영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span>”고 말했다. <br/> <br/>그는 그러나 “<span class='quot0'>수가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수가를 올리는 만큼 비급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므로 같이 고민해야 한다</span>”고 덧붙였다. <br/> <br/>그동안 의료계는 “원가의 70% 수준으로 의료수가가 책정됐다”며 의료수가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허용 방안에 대해서도 “<span class='quot1'>의료수가가 낮아 병원 경영이 악화되는데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보전하라는 것</span>”이라며 반대했다. <br/> <br/>앞서 지난 6월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가 항암제 등 비급여 항목이었던 필수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하기로 했다. 또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방안을 지난해 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다가 잠정 연기한 상태다. 이처럼 병원의 수익보전 수단이었던 비급여 영역이 점점 건강보험체계로 넘어오면서 의료계는 경영 악화를 호소하며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어왔다. <br/> <br/>복지부는 우선 분만, 외상 수술, 처지 등 지나치게 수가가 낮게 책정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온 항목들은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진찰료 수가가 낮아 양적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진찰료 인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그러나 병원의 손실 보전을 위해 의료수가를 올려주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 건보 가입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br/> <br/>건강세상네트워크의 박용덕 정책위원은 “<span class='quot2'>환자 부담이 컸던 3대 비급여를 건강보험 영역으로 가져오면 건보료가 인상되더라도 환자가 본인부담으로 직접 냈을 때보다는 비용부담이 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하지만 비급여 항목이 확산되는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span>”고 말했다. <br/> <br/>그는 또 “<span class='quot2'>3대 비급여 급여화가 곧바로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정부는 하나도 책임 안 지겠다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대통령 주요 공약인 만큼 조세 재원도 조달돼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br/> <br/>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29.txt

제목: [고성춘의세금이야기] 무재팔자(無財八字)  
날짜: 201401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0710013162328  
본문: 돈이 200억, 300억, 몇 천억 원이 있어도 사주를 보면 무재팔자(無財八字)가 나온다고 한다. 모 신문 칼럼에서 읽은 내용이다. 돈이 많이 있어도 돈이 하나도 없는 팔자가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돈이 있어도 쓰지를 못하니 무재팔자라는 것이다. 그 말에 공감한다. 국세청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사건을 5년 동안 다루다 보니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br/> <br/>상속세를 많이 내고 죽는 사람치고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죽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식들은 이복형제까지 왜 그리 많은지. 또 하나 분명한 점은 서로 치고받고 치열히 싸운다는 점이다. 돈을 벌기만 하고 정작 써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죽어버린 사람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죽어서 자식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내가 뭐 하러 돈을 벌었던가’ 하는 후회막심일 것 같다는 느낌이다. <br/> <br/>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돈을 쓸 줄을 알아야 하는데, 정작 모으는 것만 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진다. 모으는 것은 본능이고 쓰는 것은 본능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다. 팔이 굽혀지지 펴지지 않는 이치와 같다. 돈의 속성이 생살지권(生殺之權)과 부귀공명(富貴功名)을 가진 것이다 보니 없으면 무시당하고 서럽고 그러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한다. 그러다 시간도 가고 건강도 가고 오는 것은 죽음이다. 그리고 죽어 남는 것은 자신의 흔적과 엄청난 업의 무게다. 어느 누구도 특별나게 그 궤도를 벗어나기 힘들다. <br/> <br/>돈이 없어서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돈이 부족해 재테크를 해보려다가 피해를 당하고, 돈 때문에 납치·살인·강도 등을 일삼고 도대체 세상이 무서울 뿐이다. 도처가 위험투성이다. 신문에는 전 정권 실세의 비리가 드러나고 있고 한편에는 서민의 힘들고 찌든 생활의 하소연들이 소개되고 있다. “돈∼돈∼돈, 이놈의 돈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오. 돈∼돈∼돈, 돈 봐라.” 흥부가의 돈타령이다. 예나 지금이나 돈에 대한 속성은 변하지 않았고 돈 좋아하는 것은 사람인 이상 똑 같다. 모두가 돈 돈 돈 하다 한평생을 보내니 시간과 건강이 돈이라면 그것을 믿을까. <br/> <br/>내가 볼 때는 시간과 건강이 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돈 없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게 조물주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인간이 조물주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다 보니 조물주의 말을 믿기가 힘든 판에 그런 이야기도 귀에 들어올 리 없고 헛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사람은 분명 죽는다는 점이다. 80세가 기대수명이라 하지만 비명횡사도 있기 마련이다. 50대가 넘어가면 몸이 고장 나기 시작하니 최근 7년간 암환자가 3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돈 벌다가 죽어버릴 팔자가 많다는 것이다. <br/> <br/>복력구족(福力具足) 지혜청정(知慧淸淨) 회향(回向)의 세 구절을 이 세상에서 실현하기란 도 닦는 것보다 더 어렵고 차원이 다른 세계다. 앵무새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실천하는 사람 한 사람에 못 미치니 나 역시 나름대로 어떤 회향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겠다. <br/> <br/>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30.txt

제목: MBC퀸, 개국1주년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삶’ 위한 프로 제공  
날짜: 20140107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07100000259  
본문: 지난 2013년 1월 1일 론칭한 MBC퀸이 개국 1주년을 맞이해 세대 간 교감을 통해 새로운 삶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고품격 생활정보 No.1 채널'로 새롭게 나선다.‘What Women Want’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작한 MBC QueeN(이하 MBC퀸)은 지난 1년 동안 드라마 ‘네일샵 파리스’, 주영훈과 박은지 진행의 토크쇼 ‘토크콘서트 퀸’ ‘살림살이 차트쇼 더 퀸’ 등 시청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다루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또한 우먼센스와 공동으로 주부들의 꿈을 지원하는 ‘2013 K-QUEEN 콘테스트’ 주최는 물론, 건강한 도전정신이 빛나는 ‘2013 노르딕 레이스’도 공동주최하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시청자들의 건강한 도전을 지원하는 라이프스타일 채널로 자리매김했다.MBC퀸은 2014년에 한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중견세대가 공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새롭게 단장한다. 최근 3555세대가 적극적인 TV 시청 층으로 급부상하는 것에 발 맞춰, 3555세대가 가장 관심 있는 테마인 ‘도전’, ‘건강’, ‘힐링’, ‘가족’등의 키워드로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우선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데일리 모닝프로그램 ‘생방송 오늘 아침’을 당일 송출하는 데 이어 ‘기분 좋은 날’까지 확대해 생활정보 전반을 다루고, ‘건강’ ‘힐링’ 등을 주제로 하는 다큐 및 토크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한다. 지난 달 새롭게 론칭한 70~80년대 향수를 자극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감성 콘텐츠 ‘별이 빛나는 카페’와 ‘건강한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토크 배틀 ‘암과 나’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건강’, ‘교육’, ‘행복’, ‘성공’을 테마로 한 고품격 특강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그밖에도 다양한 스포츠 경기 중계는 물론 ‘레저’를 테마로 한 콘텐츠를 편성하고, 세대 간 소통이 가능한 인기 드라마 및 버라이어티도 방송될 예정이다. MBC퀸의 이상미 팀장은 “‘힐링’과 ‘건강’이라는 키워드는 이 시대의 화두이다. MBC퀸은 2014년엔 ‘건강한 삶’에 대해 생각해보고, ‘공감’이라는 키워드로 세대 간의 벽을 허물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이외에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시청자들의 ‘고품격 생활정보 No.1 채널’로 거듭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31.txt

제목: 화이트 라이거 탄생, 전세계 단 4마리 뿐인 '귀한 자태'  
날짜: 201401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07100000443  
본문: 화이트 라이거가 탄생 소식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최근 머틀비치사파리 페이스북에 화이트 라이거의 사진이 공개됐다. 마치 있다. 라이거는 수사자와 암호랑이 사이에 태어난 종으로 사진 속 화이트 라이거는 하얀 털을 뽐내고 있다. 화이트 라이거는 모두 4마리로 최근 미국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사파리에서 세계최초로 탄생했다.사파리는 화이트 라이거에 각각 예티, 오드린, 샘슨, 아폴로라는 이름을 지어줬으며, 화이트 라이거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화이트 라이거 탄생 소식에 누리꾼들은 "화이트 라이거 너무 귀엽다" "화이트 라이거가 4마리나? 엄청나다" "화이트 라이거 무럭무럭 잘 자라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뉴스팀사진=머틀비치사파리 페이스북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32.txt

제목: [한방교실] 허물처럼 벗겨지는 ‘박탈피부염’  
날짜: 20140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0610013142617  
본문: 서효석 편강한의원 서초점 대표원장박탈피부염은 다른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의 합병증으로 피부의 대부분 또는 전체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허물이 벗겨지는 염증성 질환을 말한다. 드물게는 림프 조직의 암 등 전신적인 질병에 의해 생기기도 한다. 빨갛게 변한다 하여 홍색비강진 또는 홍피증이라고도 한다. <br/> <br/>중년기에 많은 질병인 박탈피부염은 남자가 여자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걸린다. 서서히 시작해 한 개의 병변이 번져 붉고 허물이 벗겨지는 커다란 반점으로 발전하고 점차 전신의 피부를 침범한다. 또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은 부스러지면서 떨어져 나간다. <br/> <br/>피부에서 노란 분비물이 나오기도 하며 열이 나고 가려움증이 동반된다. 계속 허물이 벗겨지므로 체내의 단백질이 많이 손실되며, 땀샘이 막히게 돼 체온조절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2차 세균감염이 있을 시 열이 더욱 발생하며, 고열이 나는 경우엔 손상된 피부를 통해 체내의 수분이 빠져나간다. 심한 경우에는 임파선에 병변이 나타난다. 박탈피부염은 원인질환의 치료가 중요하며 휴식과 고단백질 식이가 도움이 된다. 한방에서는 폐 기능을 극대화시켜 박탈피부염의 원인이 되는 피부 속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데 치료의 초점을 맞춘다. <br/> <br/>작은 호흡기인 피부를 주관하는 폐 기능을 되찾아 지친 현대인의 폐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주어 몸 구석구석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 이로써 박탈 피부염뿐만 아니라 아토피, 건선, 여드름, 습진 등과 같은 각종 피부질환도 해소된다. <br/> <br/>평상시 조깅, 등산 등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땀을 충분히 흘려 심폐 기능을 강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좋다. 예후가 좋지 않을 경우 임파종이나 백혈병에 의한 경우일 수 있으므로 정밀검사를 받아본다. <br/> <br/>서효석 편강한의원 서초점 대표원장  <br/> <br/>■서효석 편강한의원 서초점 대표원장 약력 <br/> <br/>▲경희대 한의학과 졸업 ▲원광대 한방병원 전임강사 역임 ▲경희대 한의과대 외래교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33.txt

제목: [재미난 융합과학 이야기] ⑦ 암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날짜: 20140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0510013139890  
본문: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다. 평균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남자는 3명 중 1명, 여자는 4명 중 1명일 정도라고 한다. 암은 무엇이고, 왜 치료가 어려운 것일까. <br/> <br/>정상 세포는 일정 횟수 이상 분열하거나 다른 세포와 접촉하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다. 세포의 DNA에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서다. 그러나 이 조절 부분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면 세포 분열을 계속하게 된다. <br/> <br/>그림처럼 정상적인 포유동물의 세포는 배양하면 20∼50번 분열한 후 노화돼 사멸한다. 하지만 암세포는 배양 상태에서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기만 하면 분열을 계속할 수 있어 영원히 죽지 않는다. <br/> <br/>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계속 분열해 증식하면 다른 세포들 위로 여러 층을 이루며 세포 덩어리를 만드는데, 이를 종양이라고 한다. 종양 중에서 막에 싸인 상태로 유지돼 주변 조직으로 침투하지 않아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 것을 양성종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부 종양은 주변 세포를 분해해 혈관 속으로 들어가 다른 부위까지 이동해 또 다른 종양을 유발하기도 한다. 종양 세포가 이동하는 것을 ‘전이’라고 하며 전이를 일으키는 종양을 ‘악성종양’, 즉 암이라고 한다. <br/> <br/>정상 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세포로 만드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방사선과 자외선, 지나친 고지방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 담배에 들어 있는 타르, 일부 바이러스의 감염 등은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몸이 암을 유발하는 요인에 노출됐다고 정상 세포가 반드시 암세포로 되는 것은 아니다. 세포는 스스로 손상된 부분을 수선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선 과정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거나 유전자가 계속 손상되면 암이 유발될 수 있다. 암은 전이가 일어나면 치료하기 어려우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br/> <br/>미래엔 올리드 과학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34.txt

제목: 점 같은 피부암 ‘흑색종’ 환자 늘어  
날짜: 20140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0510013139891  
본문: 점으로 착각하기 쉬운 피부암인 흑색종 환자가 늘고 있다. 흑색종은 멜라닌 세포가 암세포로 변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검은 반점 형태로 나타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흑색종 환자는 2007년 1894명에서 2011년 2576명으로 매년 8%씩 증가했다. 환자의 70%가 50대 이상 연령이지만 젊은 사람들의 발병 비율도 늘고 있는 추세다. <br/> <br/>전문의들은 환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아직 많은 사람이 흑색종에 대해 아예 모르거나 알아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발바닥, 손바닥, 손톱 밑 피부와 같은 신체 말단부에 자주 발생하는 데다 가려움·통증 같은 자각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간과하기 쉽다.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흑색종 진단을 받은 242명의 암 발생부위를 분석한 결과 손발이 58%, 손발톱이 18%를 차지했다. 모양 역시 검은 반점 형태를 띠고 있어 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br/> <br/>발바닥에 나타난 흑색종. 이같은 검은 반점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검진을 받아야 한다. <br/>삼성서울병원 제공그러나 흑색종은 피부암 중에서 가장 악성도가 높은 암으로 꼽힌다. 림프관이나 혈관을 통해 뼈·폐·간 등 모든 기관에 전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문제를 느끼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 <br/> <br/>전문의들은 “<span class='quot0'>손발에 검은 반점이 갑자기 생겼다면 흑색종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span>”고 지적한다. 흑색종 치료는 수술과 함께 수술 후 면역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이 동원된다. 이동윤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span class='quot1'>흑색종은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암종으로 다른 암들처럼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이현미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35.txt

제목: 소람한방병원, 고주파 온열암치료기 성공적 도입  
날짜: 20140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03100000411  
본문: 소람한방병원은 ‘제4의 암치료법’으로 주목 받고 있는 지난 2012년 12월 고주파 온열암치료기를 도입해 2013년 12월까지 가동 횟수가 4500회를 넘어섰다고 밝혔다.항암제 작용을 증강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고주파 온열암치료기는 간암, 위암, 대장암, 폐암은 물론 모든 암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지난 2007년 처음 국내에 소개된 후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이대목동병원· 전북대학교병원 등 국내 주요 병원은 물론 해외 암센터에서도 도입 운영 중이다. 우리 몸의 정상세포 조직은 열을 받으면 즉시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증가해 해당 부위의 열을 쉽게 분산시키지만, 종양세포 조직은 열을 분산시킬 수 없어 고온 상태가 된다.이에 고주파 온열암치료기는 42.5~45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하면 종양세포만 죽이고 정상세포는 살릴 수 있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CT나 MRI 같은 영상 진단 없이도 자동 초점기능으로 인해 암세포를 집중적으로 파괴하고 방사선, 항암치료와 병행할 경우 치료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소람한방병원 성 신 원장(한의학박사)은 “<span class='quot0'>실제 고주파 온열암치료기를 진료에 활용 중인 가운데 한방과 양방의 병행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고주파 온열암치료기 온코써미아 2대와 셀시우스 1대를 도입, 운영 중</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환자분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span>”이라고 전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36.txt

제목: 음식만큼 좋은 치료제는 없다 … 건강한 밥상법칙  
날짜: 20140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0310013134463  
본문: 방기호 지음/위즈덤하우스/1만3000원남자의 밥상/방기호 지음/위즈덤하우스/1만3000원 <br/> <br/>남자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뇌, 심장, 페니스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다양한 종류의 알약이 종종 인기를 끈다. <br/> <br/>하지만 저자는 이미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아닌 바에야 음식만큼 좋은 치료제는 없다고 강조한다. 같은 젊은 나이인데도 누군가는 에너지가 넘치고 누군가는 암, 동맥경화, 발기부전을 앓고 있다. 신간 ‘남자의 밥상’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 알맞는 신체의 건강법을 알려준다. <br/> <br/>저자 방기호는 현역 의사이면서도 탈모 연구에 15년을 쏟은 탈모 예방 전문가이다. 그는 현대 의학이 치료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질환 탈모를 치료하면서 조직세포학과 효소 면역학적인 치료와 접목한 융합의학자이다. <br/> <br/>특히 저자는 먹는 음식이 몸의 나이를 결정한다고 강조한다. <br/> <br/>“의사들이 참으로 시켜먹는 음식도 낮에는 주로 자장면과 탕수육, 밤에는 양념치킨이었다. 의사들 자신조차 트랜스지방을 마구 먹어대면서 환자에게 식이요법을 지도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이다. 나는 독자적으로 식품영양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비로소 한의사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병원을 찾은 탈모환자 중 나의 권유로 밀가루를 끊은 사람들의 모발 개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밀가루 음식을 끊으니 죽은 모발이 살아나는데, 보이지 않는 장기는 더욱 좋아졌겠구나!’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br/> <br/>저자는 “세상에는 세 가지 약이 없다. 하나는 보약, 두 번째는 감기약, 세 번째는 간장약이다. 간에 증상이 나타나면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러니 본인이 스스로 간을 돌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저자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실제로 체득한 의학적 상식을 정성스럽게 이 책에 담았다. <br/> <br/>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3337.txt

제목: 삼성생명, 신상품‘통합 Stage CI보험’출시  
날짜: 20140103  
기자: 세계파이낸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03100000302  
본문:  삼성생명은 2일부터 중대한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치명적 질병의 단계(중증도)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는 '통합 Stage CI보험'을 출시한다.이번에 출시되는 신상품은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시에 사망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하는 기존 CI보험의 진화된 형태로 기본적인 CI상황에서 사망보험금액의 50%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말기 4기암이나 고액암, 중증 뇌졸중/급성심금경색증 등에 대해서는 사망시 받는 보험금 전액(100%)을 미리 지급하는 선진형 상품이다.CI(Critical Illness, 치명적 질병)보험이란, 중대한 암이나 급성 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등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치명적인 상태가 계속될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50%~80%)를 미리 지급하는 질병보험삼성생명 '통합Stage CI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치명적 질병의 단계(중증도)에 따라 사망 보험금액의 50%와 최대 100%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예컨대 중대한 암의 경우 1~3기에는 사망보험금의 50%(유방암의 경우는 20%)를 지급하고, 이보다 더 위중한 말기 4기암이나 혈액암, 림프암 등 4종의 고액암 진단시에는 보험금의 전액(100%)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또한, 1~ 3기암이 4기로 진행되면 추가로 차액(50%)을 지급한다.보장 대상인 치명적인 질병에는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루게릭병 등 11종의 질병과 심장, 간 등 5대 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우회술 등 8종의 수술로 총 19종의 중대한 질병과 수술이 해당된다. 특히, 기존의 CI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던 다발성경화증이나 중증루프스신염 등 희귀난치성 질환이 새롭게 추가됐다.이외 각종 특약을 통해 전립선암이나 갑상선암 등 비교적 경미한 암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장이 가능하고, 실손의료비보장특약도 추가로 가입해서 한 건 가입만으로도 종합적인 보장준비가 가능하다. 보장기간도 평균수명의 증가에 맞춰 기존 80에서 100세로 확대하였고, 배우자나 자녀도 한꺼번에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의 중도부가 기능도 추가했다.삼성생명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삼성생명 통합Stage CI보험은 기존 CI보험의 진화된 형태로,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는 새로운 개념의 상품이다. 4기 암이나 고액암과 같이 치명적인 상황에 놓인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한편, '삼성생명 통합Stage CI보험'의 가입연령은 15 ~ 60세까지이며, 가입 후 2년 이후부터 중도인출이나 추가납입이 가능한 유니버설 기능과 보험료 납입완료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김남희 세계파이낸스 기자 nina1980@segyefn.com